



벽돌공장 영신연와

contents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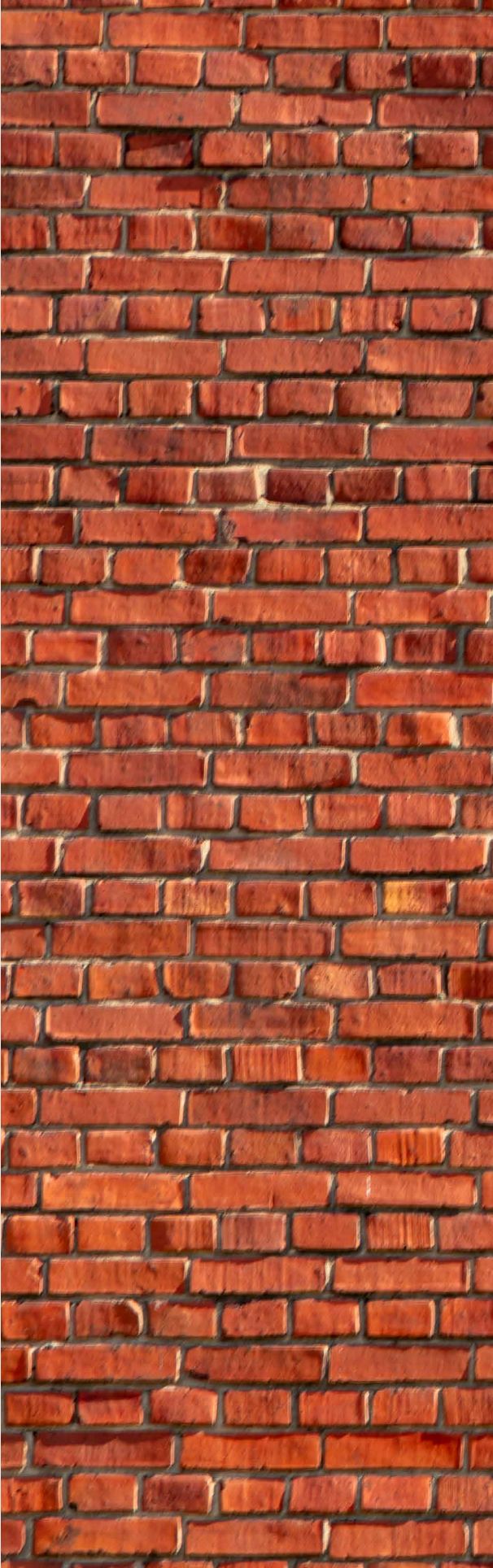
Prologue

벽돌공장 영신연와의 미래
영신연와, 화려한 변신을 꿈꾸다

019

YOUNGSHIN WEONWA

수원 벽돌산업과 영신연와	
수원 벽돌공장의 설립과 변화	021
영신연와 호프만가마 만들기	057
영신연와 벽돌 만들기	093
영신연와 노동자들의 생활	115



155

interview

영신연와 노동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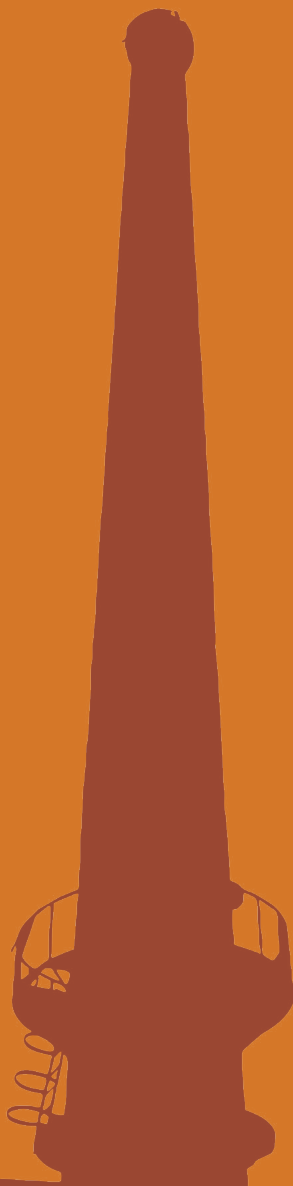
156	영신연와의 시작과 끝을 지킨 이상길
188	영신연와 ‘앞차’ 아줌마 김윤임과 박명자
212	영신연와 이영식이 전하는 기계창 이야기
224	영신연와 마당모치 엄창용
234	고려연와 노동자 백팔규

243

epilogue

서수원 역사의 흔적

244	삶과 노동의 현장, 영신연와
-----	-----------------

A dark silhouette of a brick factory chimney is positioned on the left side of the image. The chimney is tall and slender, with a small circular structure at its base. The background is a solid orange color.

Prologue

벽돌공장 영신연와의 미래
영신연와, 화려한 변신을 꿈꾸다

the Heritage of Modern Cultural
Brick Factory YOUNGSHINWEONWA

영신연와

최인애

서수원의 산업문화유산 영신연와
세월의 이끼가 내려앉은 지금의 영신연와는
낡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상상의 나래 속 영신연와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 주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멋진 새로운 공간으로 존재합니다.

여기 청년들이 꿈꾼 영신연와의 그 화려한 변신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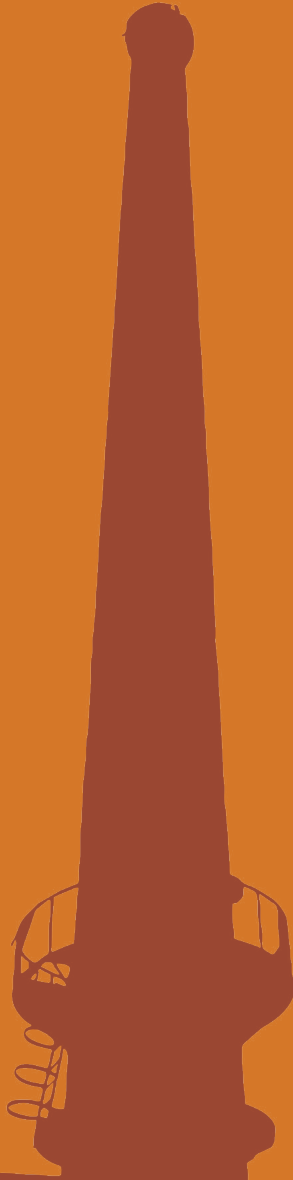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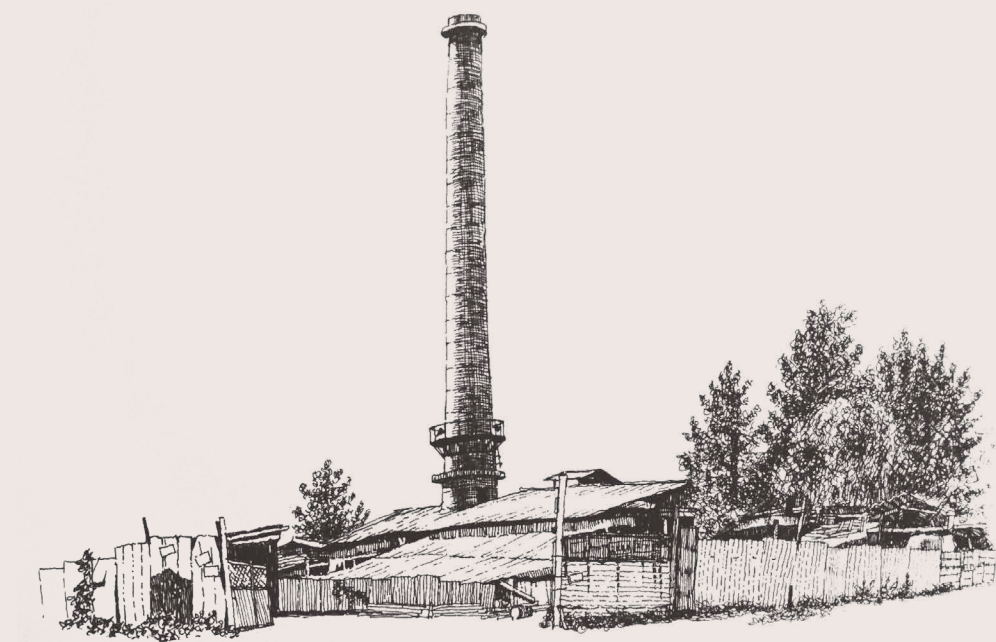


A dark silhouette of a brick factory chimney is positioned on the left side of the image. The chimney is tall and slender, with a small circular structure at its base. The background is a solid orange color.

YOUNGSHIN WEONWA

수원 벽돌산업과
영신연와

the Heritage of Modern Cultural
Brick Factory YOUNGSHINWEONWA



수원 벽돌공장의 설립과 변화

일제시기 수원요업공장의 설립

19세기 개항장을 중심으로 서양식 건축물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였는데 제국주의 열강들의 공관 건축물, 성당·교회 등 선교 목적에서 지어진 종교 건축물, 교육과 의료 관련 건축물, 상인들의 상관 및 주택, 일제의 통치기관 등이 들어섰다. 또한 한국정부도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관청을 신설하면서 기존의 전통 건축양식에 새로운 재료와 양식을 가미한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민간에서도 서구 건축양식이 확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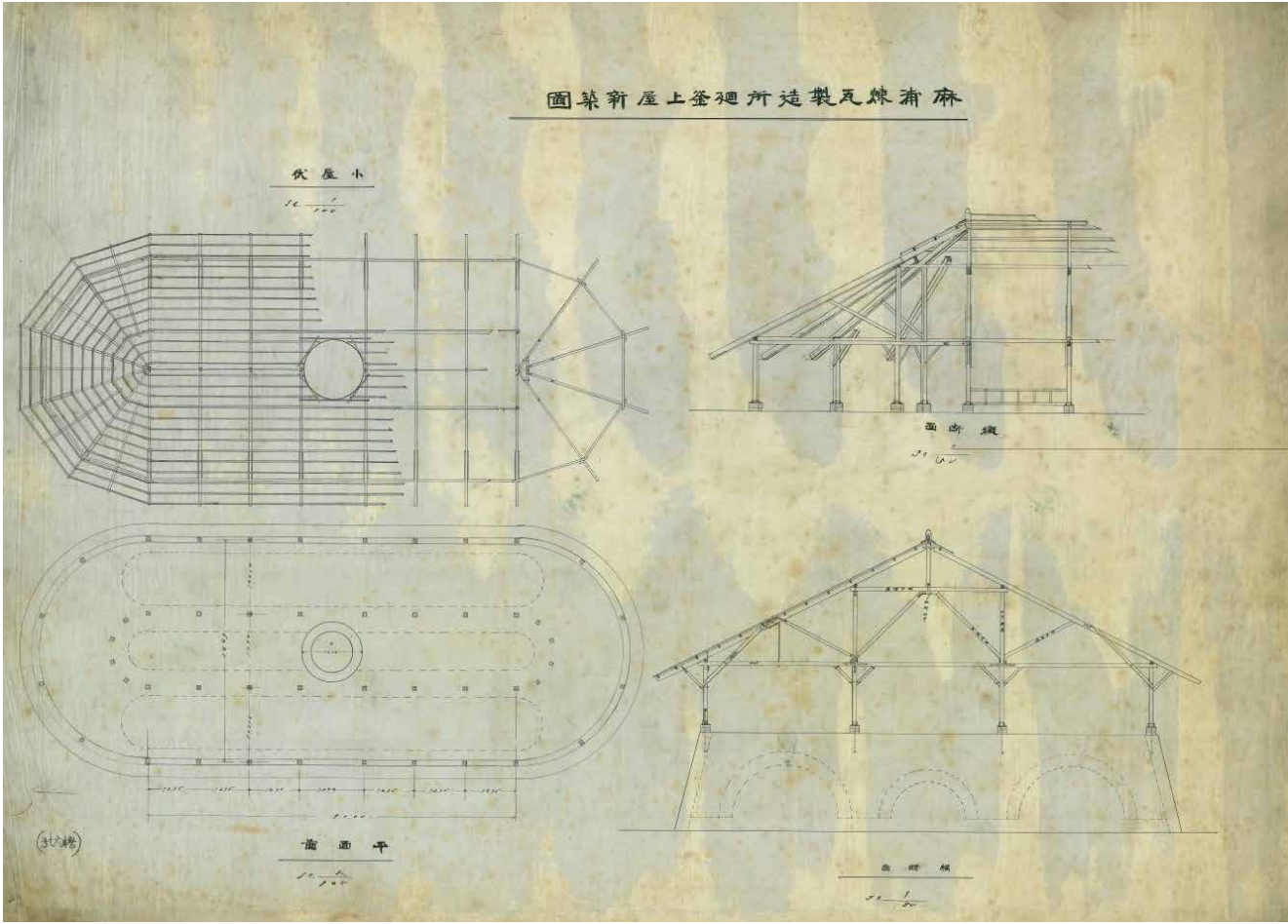
이렇듯 서구문물이 유입되면서 건축양식에 변화가 발생하면서 건축재료에도 큰 전환이 일어났는데,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적벽돌 사용의 급증이었다. 이에 1901~1910년 10년간 34개소의 민간 벽돌공장이 설립된 데 이어 1907년에 이르면 탁지부에서 관영 연와제조소를 마포에 설립하고 독일식 호프만가마를 도입하여 벽돌 생산을 본격화하였다.¹⁾

수원 지역에는 1935년 4월에 근대적 벽돌공장이 최초로 설립되었는데, 일형면 탑리 673번지에 세워진 수원요업공장이 그것이다.²⁾ 수원요업공장은 흔히 ‘수원벽돌공장’이라 불렸는데, 처음에는 일본인과 박건유가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한다.

박건유는 1879년 박흥서의 장남으로 용인군 기흥면에서 태어났다. 20살 정도였던 1900년경에 부인 전주 최씨와 함께 수원군 용북면 고색리로 이주하였는데, 고색리에는 박건유의 집안인 밀양 박씨 일가들이 살고 있었다. 이주 후 박건유는 수원의 대지주로 고색리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파평 윤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고,³⁾ 고색리가 수원과 인천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한 점을 이용하여 주막과 양조장을 차렸다. 성실했던 박건유는 수원으로 이주한 지 15년 만에 지역의 자산가로 성장하였다. 즉 1915년에 박건유는 고색리 이장으로서 동리 빈민들에게 쌀과 명태를 분급해 주어 칭송을 받고 있으며,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리대사업을 할 정도로 부를 축적하였다.⁵⁾



탁지부에서 마포에 설립한 연와제조소



연와제조소 호프만가마 설계도(국가기록원 제공)



박건유(『매일신보』 1934년 6월 8일)

1919년 박건유는 여화수리조합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는데, 이는 지역사회에서 박건유의 위상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여화수리조합은 일형면(日荊面)·안룡면(安龍面) 일대 관개 개선과 수세(水稅) 경감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당시 경기 일대에서 처음 설립된 수리조합이었다. 여화수리조합 몽리구역(245정보)은 대부분 권업모범장 인근에 위치해, 권업모범장이 관리하는 축만제(서호)를 관개수로 이용하면서 수세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축만제를 이용하는 수세의 부담이 커지자 몽리구역 지주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리조합을 설립하여 고색동과 평동 사이에 오장보(저수시설)를 수축하였다.⁶⁾

1919년에 설립된 여화수리조합은 일본인 대지주들이 주도하였다. 동양척식주식회사·국무합명회사·동산농사주식회사가 조합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호리우치(堀內順一), 이다(飯田幸成), 이와사키 히사야(岩崎久彌) 등의 일본인 대지주와 박건유(朴建裕)·심종만(沈鍾晩)·유태원(劉泰元)·이종익(李鍾翊)·강대련 등의 조선인 지주들이 창설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⁷⁾ 특히 동산농사주식회사의 대표인 이와사키 히사야는 미쓰비시 그룹의 총수로, 일형면과 안룡면 일대에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박건유는 여화수리조합의 창립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1920년대에는 조합장으로서 실질적인 운영에도 깊이 간여하였다.⁸⁾

박건유는 1920년대 후반부터 추진된 일제의 식민농업정책에 동참하였다. 1930년 5월 12일 제3회 수원군 양잠 전습생(傳習生) 입소식이 안룡면 고색리 박건유의 집에서 거행되었는데,⁹⁾ 박건유는 자택의 객실을 강습실로 제공하여 수원군에서 각 면의 양잠가 주부들에게 양잠 사육과 상수재배법을 전습하도록 하였다.¹⁰⁾ 또한 1938년 6월 14일 수원군농회가 주최하는 농민의 날 행사도 박건유 소유 답에서 거행되었으며, ‘근로보국의 정신’을 높이기 위해 모내기를 시행하였다. 또한 일제가 농촌 중견인물을 양성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인 수원고등농민학교 부설 실업보습학교에 자신의 장남인 박정환(朴廷煥)을 입학시켰다. 1933년 제1회로 졸업한 박정환(21세)은 주조업·정미·임업·양돈·양계·양잠·기와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논 2정보, 밭 1정보를 경작하고, 군농회 위탁으로 수도·대맥을 시험재배하고 있었다.¹¹⁾

1930년대에 이르면 박건유는 지주보다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이자 지역 유지로서 명성이 높았는데, 안룡면협의회 의원, 고색리 구장, 학교평의원, 여화수리조합장, 화성금융조합 감사 등으로 활동하였다. 박건유가 경영하는 풍미양조장, 정미소, 묘포, 제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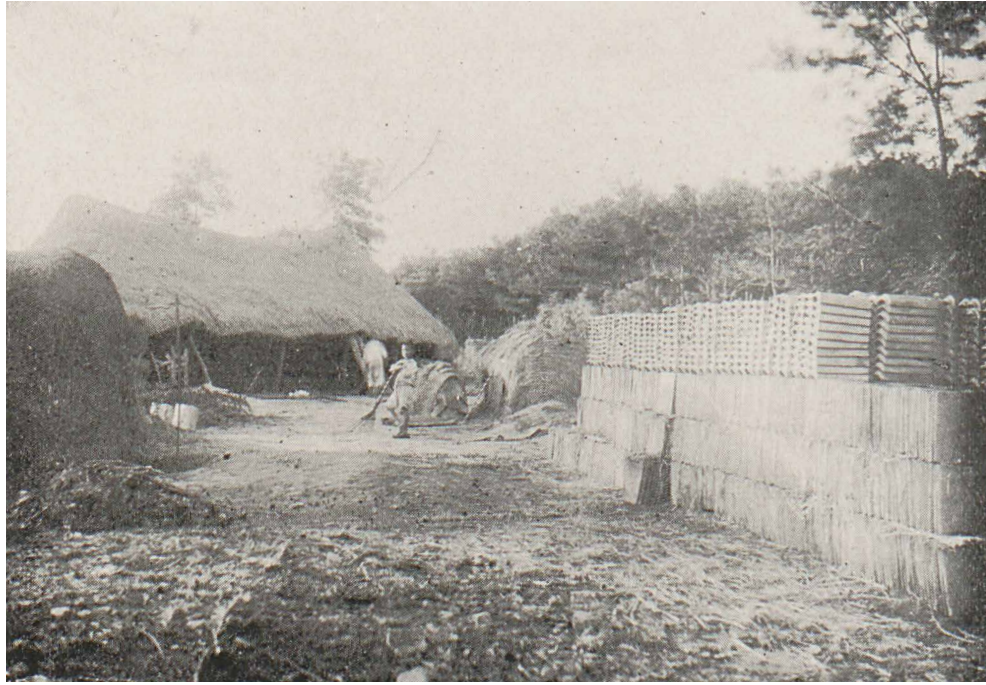


안룡면 박건유 자택(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장 등의 사업체에 1,000여 명이 고용되어 있고 연 15만 원의 매상고를 올렸다고 한다.

씨는 군대의 출신 현 56세의 치부가이다. 현 경영사업은 풍미양조장, 정미소, 묘포, 제와공장 등으로서 연 15만 원의 매상고를 보고 있으며 씨가 경영하는 사업에 연 천여 명의 빈민들이 입용(入傭)되고 있으니 적지 않은 궁민구제사업이다, 전기 양조장으로서 나오는 양주(추곡)는 상등 정종보다 더 호평을 가지고 있으며 씨의 공적으로는 여화수리조합장 화성금융조합 감사 면의원 등이고 씨가 적수(赤手)근면으로 지금 와서 거만의 축재한 것을 보더라도 포부와 의지 견고한 것을 알 것이고 사업이 다단한 씨로서 여기에 현거주하는 안룡면 고색리를 위하여 구장의 책임을 지고 위민노력하고 있다.¹²⁾

1930년대에는 일제의 만주 침략에 따른 전쟁특수의 여파로 점차 경기가 회복되면서 일본의 주요 벽돌회사들이 한국에 공장 설립을 본격화하였다. 1933년 설립된 일본인 소유의 ‘경성연와주식회사’가 연간 500만 장 규모의 생산력을 가진 대규모 벽돌공장을 동대문 부근 용두리와 영등포 당산리에 각각 신설하고, 1934년과 1935년에도 동일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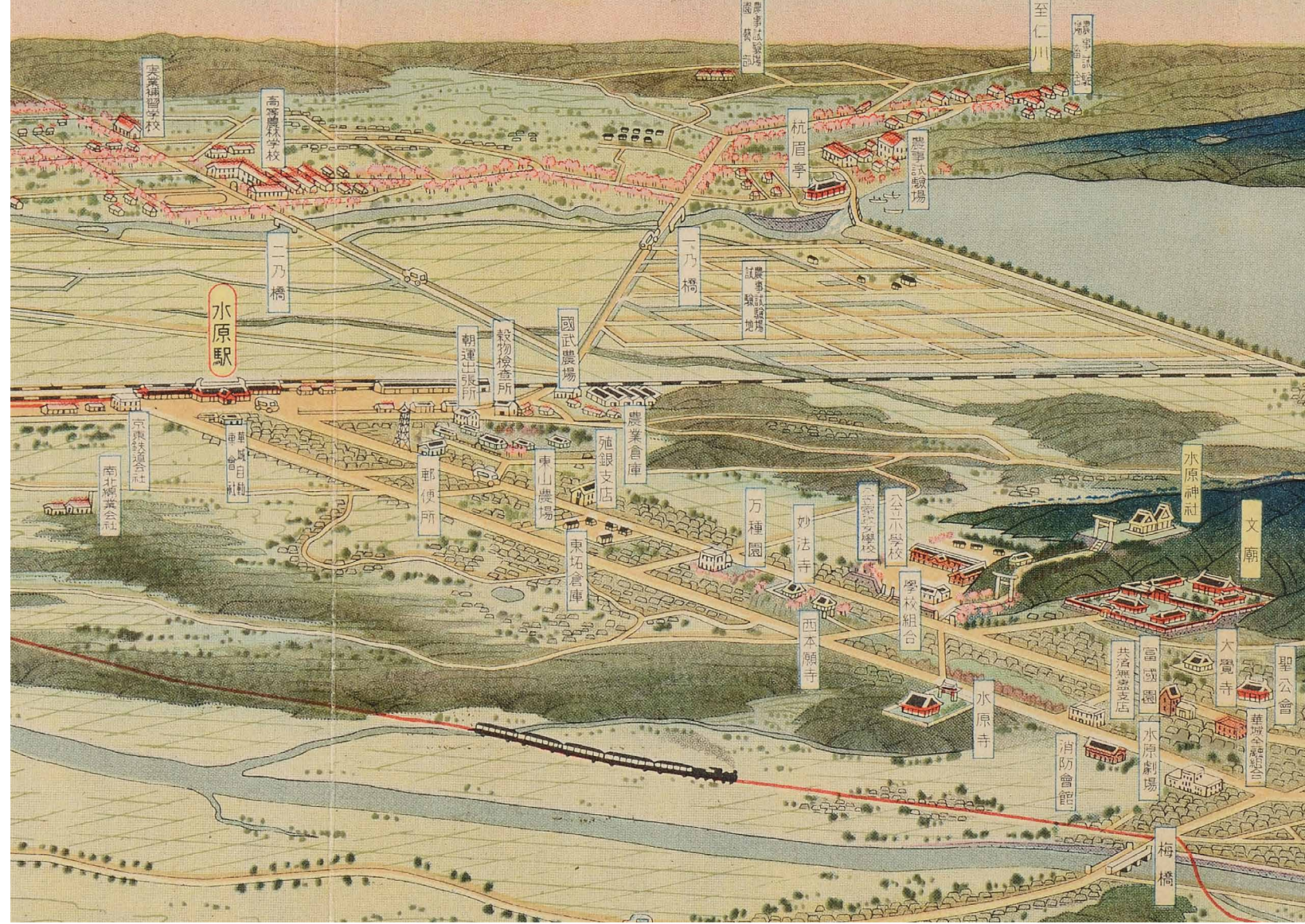


박건유가 경영하던 기와공장(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규모의 공장을 고양군 독섬에 1개, 시흥군 변대방리에 2개 공장을 증설하면서 국내 벽돌산업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즈음 대형 공장들이 대거 신설되어 1935년에는 전국에 77개소의 공장이 운영되었는데, 법인체가 22개, 관영업체가 8개, 그 외 47개 업체가 일반 개인업체로 연간 8,633만 3,000장의 벽돌을 생산하였다. 1930년대 벽돌공장의 신설 현황을 보면 1935년부터 신설 공장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1937년에는 20개, 1938년에는 18개 공장이 신설됨으로써 일제강점기 중 최고의 호황을 누렸다.¹³⁾

산업 동향에 관심이 많고 이미 기와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박건유가 1935년에 벽돌공장을 설립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박건유가 설립한 벽돌공장은 호프만가마를 사용하여 벽돌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이었다. 즉 대량의 벽돌 수요가 있는 시장을 전제로 하여, 대량 생산을 통한 대량 공급을 목표로 하여 호프만가마를 설치한 것이다.

1930년대 수원은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된다. 우선 1931년 수려선(水麗線)과 1937년 수인선(水仁線) 철도 개통을 비롯하여 주변 도시와의 교통망이 크게 신장되었으며, 1930년대 후반 금융·토지자본이 공장자본으로 전환하여 대규모 직물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수원이 '농촌도시'에서 비약하여 '공장도시'로 전환하고 있다는 진단이 속출하였다.¹⁴⁾



1936년 수원 신시가지(수원박물관 제공)

이와 함께 1931년 수원면의 읍 승격, 1936년 수원읍 영역의 확장, 도로망의 확충 등이 뒤따랐다. 즉 1930년대에는 수원읍의 시가화가 급격하게 전개되어 매산로가 새롭게 신설되는가 하면 각종 관공서와 학교, 사업체 등이 서구식 건축물로 전환되었다. 1910~1920년대에는 주요 관공서들이 기존의 화성행궁 시설을 증개축하여 사용하였다면, 1930년대 이르면 공간 부족과 불편 등의 사유로 신축을 단행하였다. 남군영 자리에 있었던 수원토목관구는 1932년 북군영 자리로 이전하면서 청사를 신축하였고, 낙남헌 자리에 있었던 수원군청도 1938년 2~7월에 중영 자리에 서구식 신청사를 지었다. 수원세무서도 1938년 매산로로 이전하면서 신청사를 지었다. 1933년 수원공립보통학교, 1936년 수원공립농업학교, 1940년 수원도서관이 각각 서구식 벽돌건물로 신축되었다. 이 외에도 1932년에는 북수동성당과 수원종로교회가 목조건축물에서 벽돌



황구지천과 서호천 사이 황무지 지대에 위치한 수원벽돌공장(1947년, 수원시청 향공사진서비스 제공)

조 형태로 탈바꿈되었다. 또한 1930년대 이후 공장과 사업체들이 매산동, 교동, 구천동, 남수동 등지에 세워졌으며, 규모가 매우 큰 것들도 있었다. 이렇듯 1930년대 수원 읍내를 중심으로 벽돌을 주요 건축자재로 사용하는 서구식 건축물이 대거 신축되었다.

지역의 유지로서 이러한 수원군 행정과 산업·교육·종교계의 동향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박건유는 수원 지역에 벽돌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간파하였고, 이렇게 형성된 벽돌 시장을 목표로 하여 대량 생산이 가능한 호프만가마를 도입하여 벽돌공장을 설립하였던 것이다.

박건유가 벽돌공장을 세운 곳은 수원군 일행면 탑리 673번지 일원의 임야(황무지) 지역으로, 서쪽으로는 황구지천이, 동쪽으로는 서호천이 북-남 방향으로 각각 흐르고 있다. 벽돌의 원료는 진흙과 모래이기 때문에 벽돌공장은 진흙과 모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진흙과 모래는 강가에서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야산에서 진흙을 채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초기 설립된 벽돌공장은 대체로 하천유로를 따라 형성된 구릉 또는 대지에 설립되었다. 즉 수원벽돌공장도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곳에 입지하였다. 더구나 이곳은 안릉면 고색리 마을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로, 안릉면협의회 회원이자 고색리 구장인 박건유는 좋은 조건에 이곳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 후 수원연와공장과 동보연와의 설립

한국 벽돌산업은 한국전쟁으로 큰 타격을 받았는데, 수원벽돌공장도 마찬가지였다. 수원벽돌공장은 설립자인 박건유가 1950년에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박정환이 물려받았다. 그러나 곧이어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미군의 폭격으로 수원벽돌공장 시설이 파괴되었다. 박정환의 아들인 박지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미군이 폭격을 해서 벽돌공장의 천장이 다 날아갔”고 굴뚝만 남았다고 증언하였다. 즉 수원벽돌공장은 폭격으로 시설의 상당부분이 파괴됨에 따라 공장 가동이 멈출 수밖에 없었다.

박정환은 해방 후 여러 사업과 사회활동을 정력적으로 펼쳤는데 1949년에는 대동청년단 및 경기도사법보호회 위원으로, 1954년에는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인사조정위원으로, 1958년에는 중앙사법보호협회 이사로 활동하였다. 또한 1952년 화성군 안릉면의회 초대 의장을 맡았고, 1956년 경기도의회 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당시 화성군 도의회 선거구는 오산면, 태장면, 동탄면, 안릉면 4군데였다. 이 외에도 육영사업에 관심을 가졌던 박정환은 1956년에 화산학원을 설립하였다.

이 시기에 수원벽돌공장도 가동을 재개하였다. 『서울신문』 1956년 3월 12일자 기사에는 박정환의 협조를 받아 수원사법보호회에서 벽돌공장을 수리하여 운영을 재개하고 공장에 보호생수용소도 신축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재단법인 수원사법보호회(水原司法保護會)에서는 영동(榮洞)시장 천변에 집단 점포를 건축하여 보호사업을 하여 오던 중 이번에는 화성군 고색리(古索里)에 있는 박정환(朴廷煥) 씨 벽돌공장을 수리하여 근간 운영하리라는데 동 공장에 는 보호생수용소도 신축되리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동 공장 운영까지에는 사법보호회 중앙협회의 큰 협력과 지방유지의 협조가 있어 더 한층 보호사업이 활발해질 터이라 한다.¹⁵⁾

수원사법보호회에서는 자신들의 기간사업으로 안릉면에 있는 수원벽돌공장을 인수하여 총공사비 880만 원으로 보수를 완료하고 1956년 5월 27일 하오 3시 임석무(林碩茂) 법무부차관을 비롯하여 내빈 다수 참석한 가운데 화입식(火入式)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수원벽돌공장에서는 매월 35만 장 내지 45만 장의 벽돌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였다.¹⁶⁾

사법보호회는 교도소·소년원 등 교정시설(矯正施設) 출소자의 자활·갱생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각 지방검찰청 단위로 그 감독하에 운영되었다. 1961년 9월에 갱생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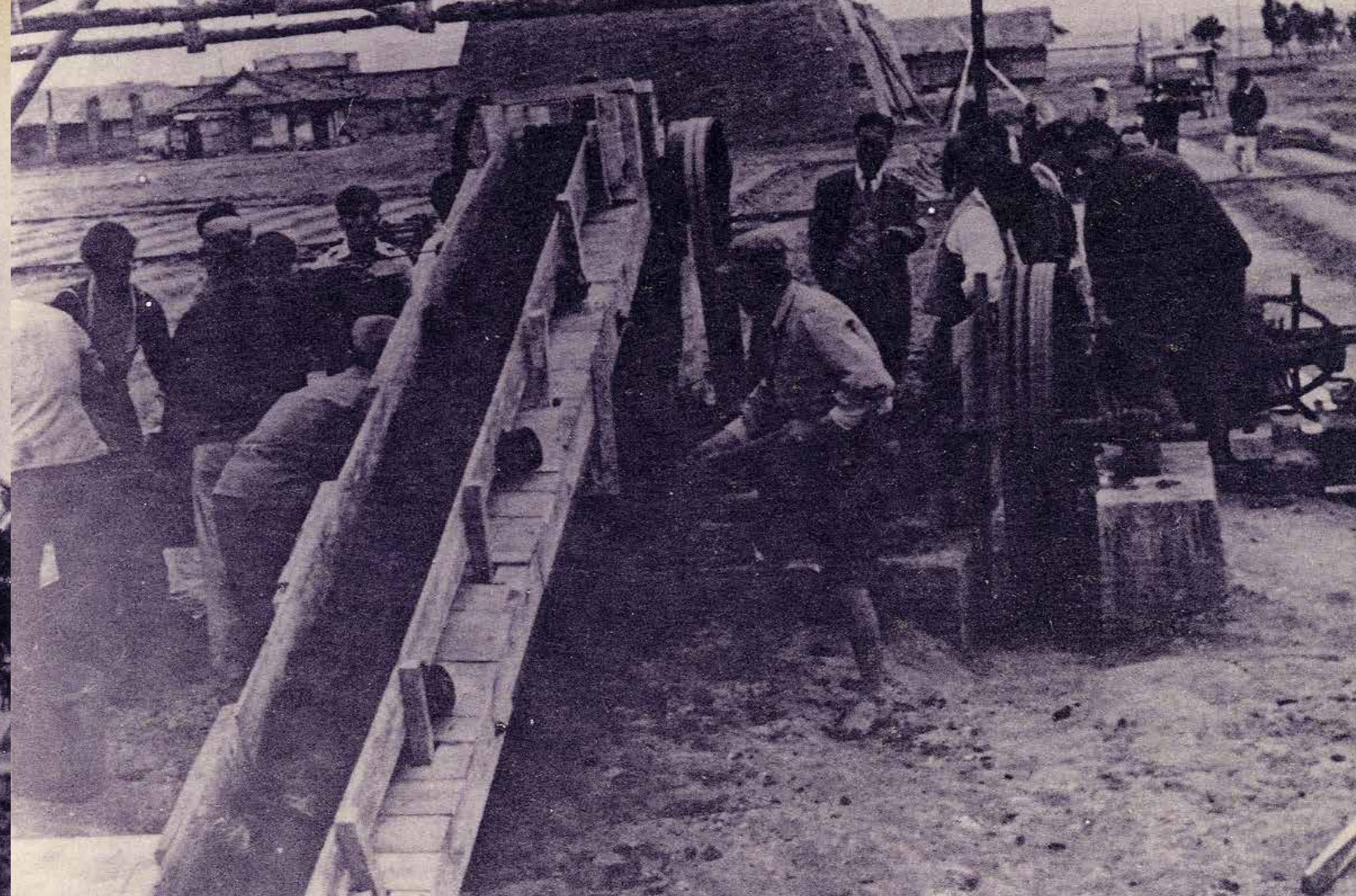


수원사법보호회 정진료 수원연와공장(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사법보호 대신에 갱생보호라는 용어로 바뀜에 따라 사법보호회는 해산되고 그 재산과 사업을 승계하여 공법인인 갱생보호회가 각 도청소재지에 하나씩 설립되었으며, 그 산하에 교도소 소재지마다 갱생보호소가 설치되었다.

수원사법보호회는 1955년 당시 서울지점 수원지청의 지청장이었던 김천수가 대표였으며, 영동 35-6번지 일대에 천변 점포 325평 104개를 건축하여 보호사업을 벌이고 있었다.¹⁷⁾ 또한 사법보호회는 보호생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지역 유지인 박정환의 협조를 받아 파괴된 수원벽돌공장을 수리한 후 재가동시켰다.

벽돌공장 운영에 형무소 재소자나 출소자들의 노동력을 이용한 사례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경성(서대문)형무소 마포연와공장과 영등포공장이 1907년에 설립된 데 이어 광주형무소 연와공장(1910년), 춘천형무소 연와공장(1917년), 군산형무소 연와공장(1918년), 대구형무소 연와공장(1919), 전주형무소 연와공장(1920년), 청주형무소 연



1950년대 수원연와공장 제토과정(수원시, 『수원사진대관』, 1956)

와공장(1921년), 원산형무소 연와공장(1922년), 대전형무소 연와공장(1931년) 등이 세워졌다. 교정당국에서는 교화활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벽돌공장을 운영하였는데, 벽돌산업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고, 생산 과정도 기술이 크게 필요치 않은 단순·반복노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재소자나 출소자 등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벽돌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당시에 흔한 일이었다.

그런데 출소자들의 자활을 위해 임대해 주었던 수원벽돌공장의 운영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전개되어 갔다. <표 1> 자료에 따르면 수원벽돌공장은 수원연와공장으로 불렸고, 수원사법보호회가 운영하는 공장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원사법보호회 대표인 김천수는 1960년 6월 춘천지검으로 발령을 받아 수원을 떠났고,¹⁸⁾ 1965년 수원연와공장의 소유권은 당시 수원지방검찰청의 갱생보호협의회 대표인 이용균으로 변경되어 있다.

〈표 1〉 1950~1960년대 수원 지역 요업 업체 현황

자료	회사조합명	소재지	대표
1956년판 전국주요기업체명감	수원연와공장		김천수
1958년판 전국기업체총람	수원연와공장		김천수
1959년 광업및제조업사업체명부	수원사법보호회	화성군 일왕면 탑리 673	김천수
1965년	수원연와공장	수원시 탑동 673	이용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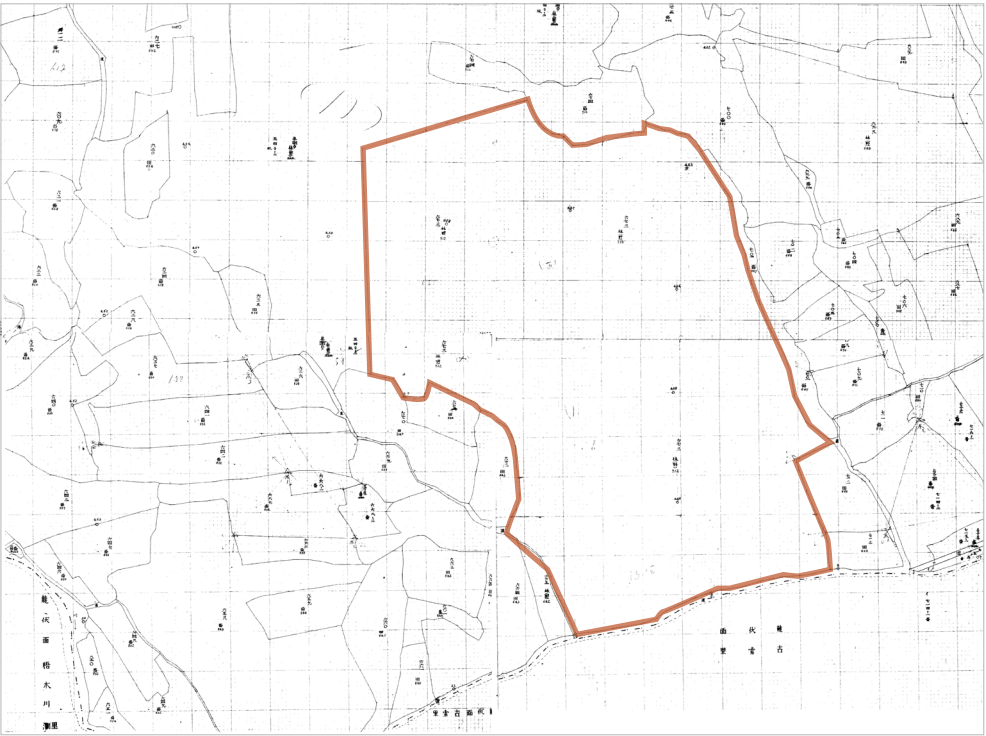
박정환의 아들인 박지원과 박창환은 이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출소자들을 선도한다면서 벽돌공장에 취직을 시켰지. 재범을 하지 않게 산업지도교육을 한다는 것이었어. 아버지가 수원지방검찰청의 갱생보호협의회 일을 보고 있었는데 당시 협의회 대표와 계약을 맺었어. 하지만 이 대표는 돈을 많이 번 뒤 10년 뒤에 임대료를 갚겠다고 도장까지 찍어 놓고서는 1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 그래서 결국 참다 참다 못해 소송을 걸었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3년이 걸렸어. 한참 벽돌이 잘 나갈 때 그랬으니 얼마나 황당해. 그때만 생각하면 치가 떨려.<박지원 구술>¹⁹⁾

계약기간이 끝나도 이 대표가 물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뒤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형 박지원과 소송이 붙었어요. 재판에서 결국 합의를 보았죠.<박창환 구술>²⁰⁾

이 내용에 따르면 박정환은 사법보호회(갱생보호회) 대표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원연와공장을 10년간 임대해 주었고, 임대료는 수익이 생긴 후에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갚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임대료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용균은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1967년 박정환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장남인 박지원은 이용균과 3년간 소송을 벌였는데, 재판은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합의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후에도 이용균이 수원연와공장의 대표직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볼 때, 공장의 소유권은 이용균이 갖고 임대료를 갚는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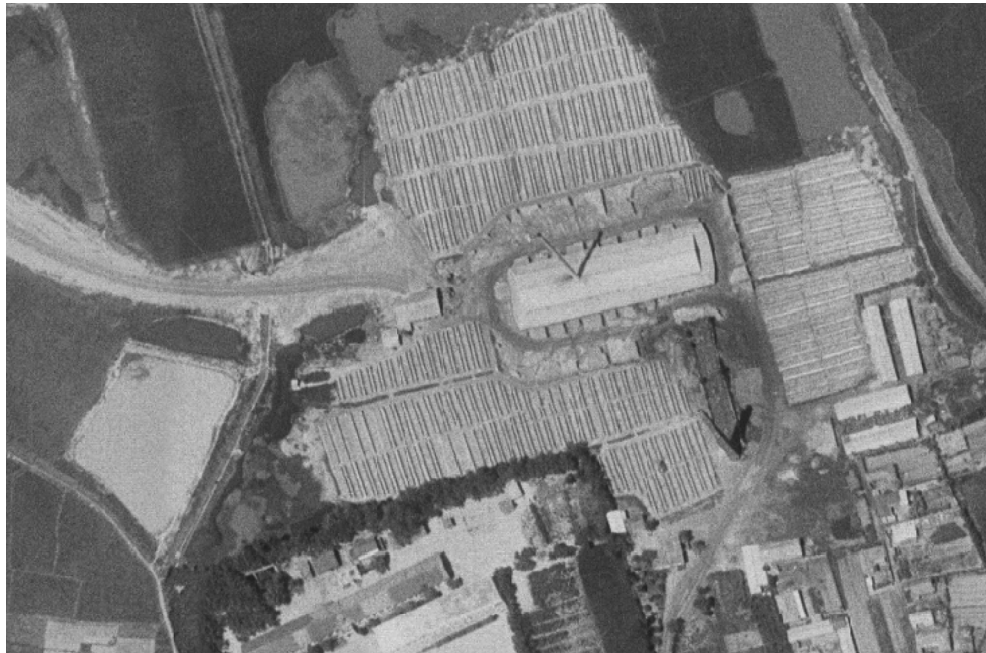


1910년대 지적원도에 나타난 탑리 673번지(국가기록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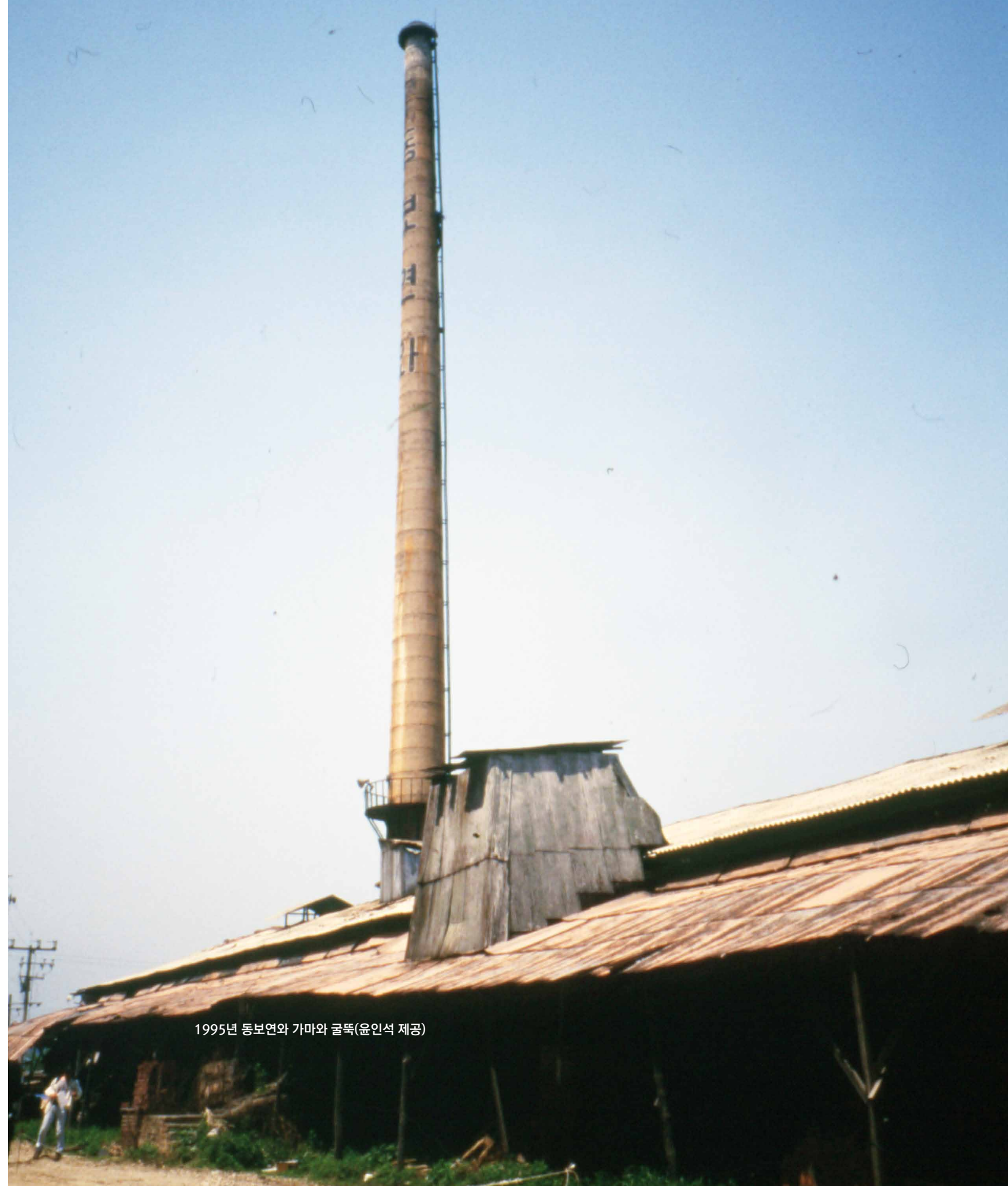
수원연와공장 소유권을 이용균이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1956년 수원사법보호회가 수원연와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할 때 전쟁으로 파괴된 공장시설을 880만 원을 들여 수리하여 가동시켰으며, 10여년간 지속적으로 공장시설을 관리하고 일부 시설은 신축·확장한 점이다. 두 번째는 수원연와공장 부지의 소유권과 관련된 것이다. 『토지조사부』(1911년)를 보면 일형면 탑리 673번지는 용복면 고색리 소유의 임야로, 면적은 4만 1,996평이었다. 전쟁 후인 1955년에 복구된 『토지대장』에는 이곳이 안룡면 소유로 나타나 있다. 이는 1917년 ‘조선면제’를 실시하면서 면의 재산을 확충하기 위해 동리재산을 면유재산으로 강제적으로 편입시켰기 때문인데, 이에 고색리 소유임야도 안룡면(1914년 용복면과 안녕면을 통합) 소유로 변경되었다. 이 자료를 보면 1950년대까지 이 토지의 소유권은 안룡면에 있었으나 1960년대 초반 민간에게 분할 불하되었고 이용균은 탑리 673번지의 일부 토지를 소유하였다. 따라서 수원벽돌공장은 1935년 설립 당시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안룡면 소유의 토지를 빌려 운영되었고, 1963년경부터 이용균은 수원연와공장이 자리한 673-80번지(현 고색동 887-56)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1966년 수원연와공장(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1974년 동보산업 연와공장(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1995년 동보연와 가마와 굴뚝(윤인석 제공)



1995년 동보연와 가마와 태산아파트(윤인석 제공)



1995년 동보연와 가마(윤인석 제공)



1995년 동보연와 가마 상부 석탄함과 투탄구(윤인석 제공)



1995년 동보연와 노실(윤인석 제공)



1995년 동보연와 기계(윤인석 제공)



동보연와 가마에서 소성이 끝난 벽돌을 꺼내는 '아가시'(수원박물관 제공)

상황이 작용하여 이용균은 수원연와공장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원연와공장 부지는 행정구역 변동과 지번 변경이 잦았던 곳인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수원연와공장 변경 사항

시기	변경 내역		공장명	대표자
	지번	사유		
1914~1936	수원군 일형면 탑리 673번지 일원		1935년 수원벽돌공장	박건유
1936~1949	수원군 일왕면 탑리 673번지 일원	일형면과 의왕면 통합	-	-
1949~1963	화성군 일왕면 탑리 673번지 일원	수원시 승격에 따라 수원군 해체와 화성군 성립	1950년 수원벽돌공장, 1956년 수원연와공장	박정환, 김천수
1963~1987	수원시 탑동 673-80, 수원시 탑동 673-70	일왕면 탑리, 수원시로 편입	1963년 수원연와공장, 1967년 동보산업 연와공장	이용균, 이용균
1987	수원시 고색동 887-56, 수원시 고색동 887-51	탑동 일부, 고색동으로 변경	동보산업 연와공장	이용균

수원연와공장은 1965년 현재 종업원이 37명이었으며, 공장 부지는 1,560평, 건평은 486평이었다.²¹⁾ 그 후 1967년 동보산업 연와공장으로 이름을 변경하였으며, 1970년대 초반에는 공장 부지를 확대한 후 탑동 673-70번지(현 고색동 887-51번지) 일대에 공장시설(가마)을 신축·확장하여 운영해 나갔다. 동보산업 연와공장은 1990년대 폐업할 때까지 영신연와와 경쟁하며 수원의 벽돌산업을 성장시켜 나간 대표적인 벽돌공장이었다.

영신산업 연와공장의 성장과 쇠락

재판이 끝나자 박지원 일가는 1971년 동보산업 연와공장 북동쪽인 탑동 700번지 일대 1만 7,000평의 토지를 구입한 후 1972년 10월 1일 영신산업 연와공장(이하 영신연와)을 설립하였는데, 대표는 처음에 박지원이었다가 나중에 동생인 박양일과 박덕원이 맡았다.

<표 3> 영신산업 연와공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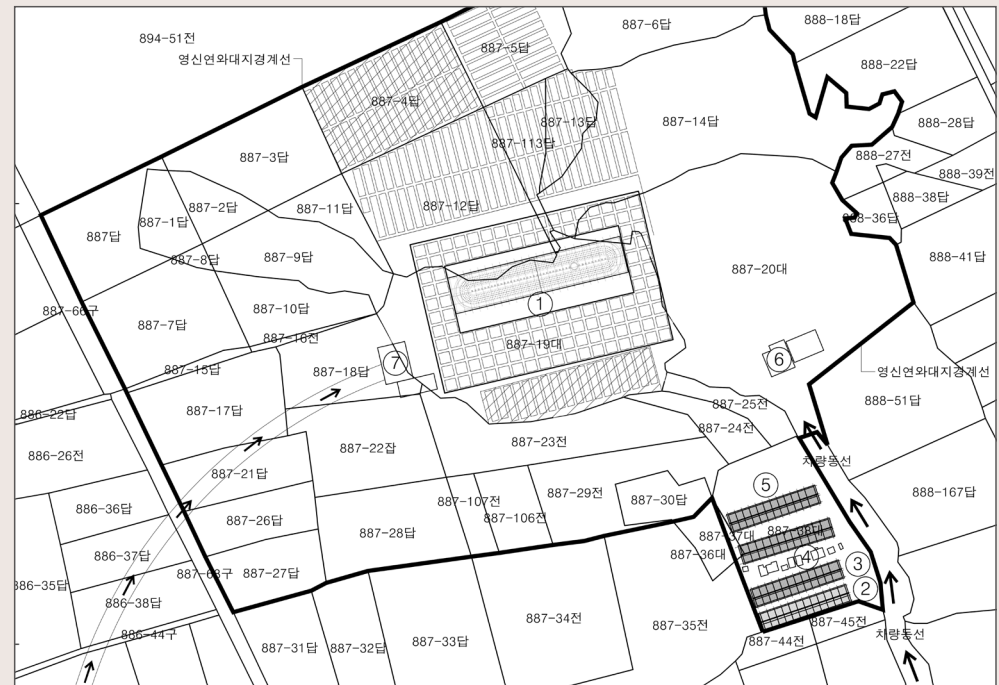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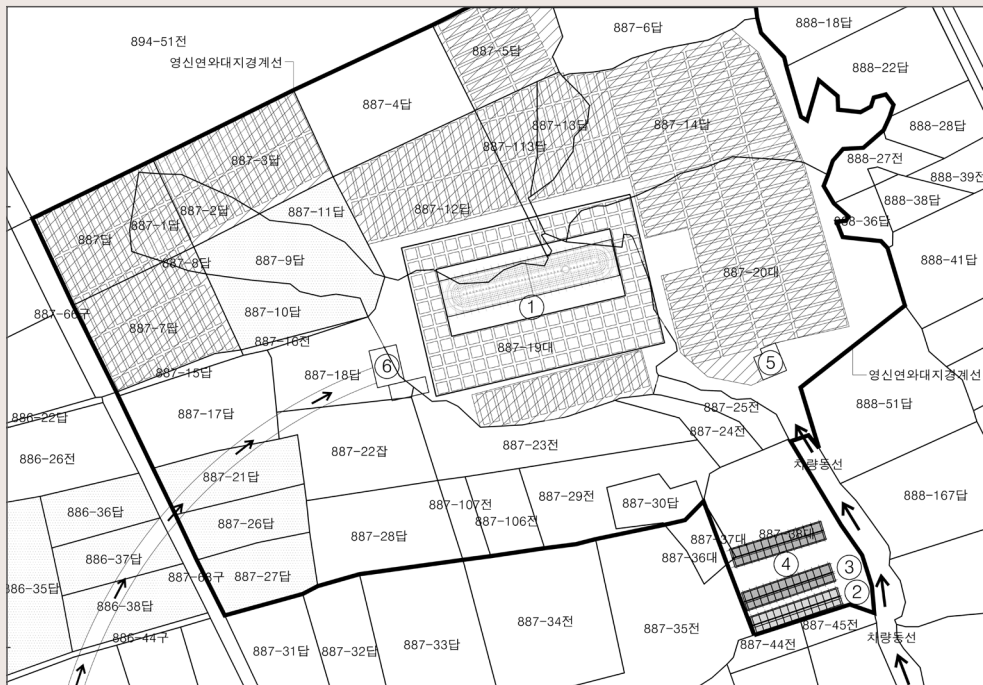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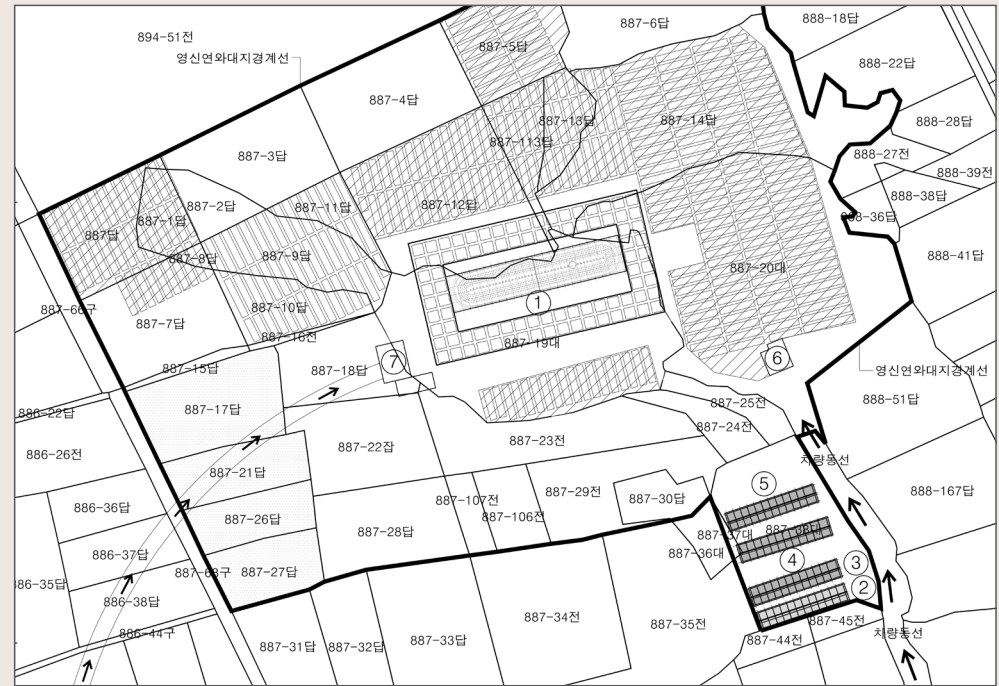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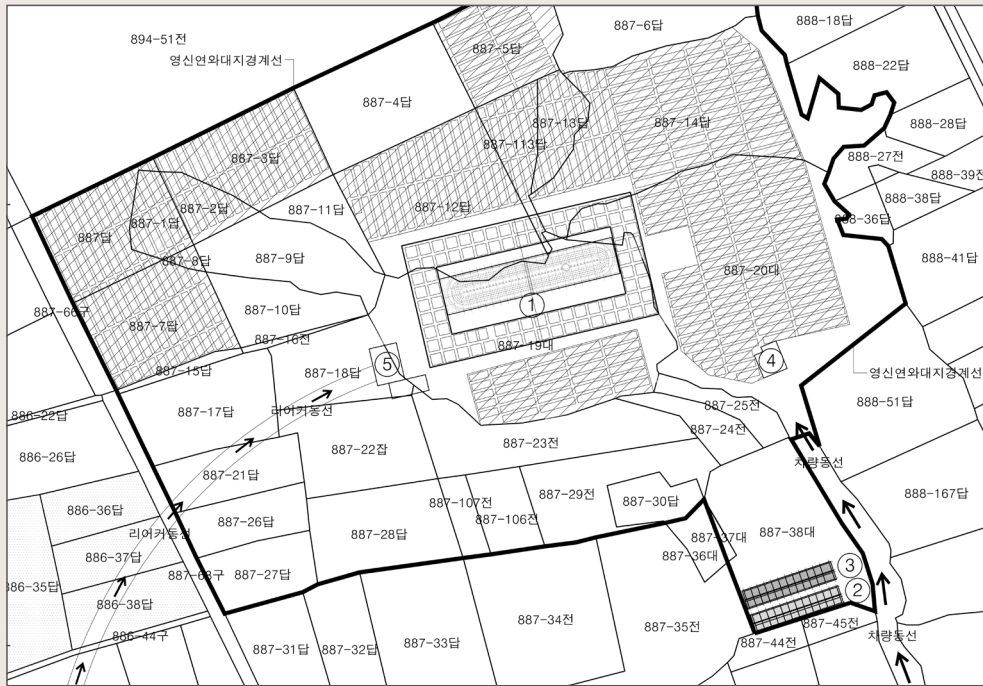
구분	지번 변경		소유주 변경		
	1987년 이전	1987년 이후	1911년	1960년대	영신연와 설립 시
공장부지	탑동 540-212	고색동 887-12	동산농사주식회사	박흥기	박지원(1971)
	탑동 674-1	고색동 887-19	동산농사주식회사	최정순	박덕원(1966)
	탑동 700-1	고색동 887-20	김철환	임재택	박지원(1971)
사택부지	탑동 673-21	고색동 887-38	고색리	안룡면	박양일(1963)

1974년 현재 영신연와는 공장동 1동, 사택 2동, 사무실, 기계실과 함께 토사 채취장, 건조장과 적재장 등을 갖춘 상태였다. 이후 벽돌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영신연와 노동자들이 살 사택의 수도 증가하였는데, 1977년에는 3동, 1981년에는 4동으로 늘어났다.

1960년대 후반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벽돌산업의 성장 기반이 확대되었다. 즉 1967년에는 서울 강남지구 개발을 비롯하여 1968년 경부고속도로의 개통, 월남 참전에 의한 전쟁특수, 그리고 도시화 등에 따른 인구 집중현상 등으로 부동산 열기가 고조되었다. 또한 1972년에 수립된 주택건설 10개년 계획과 1973년 주택건설촉진법 등을 통해 공동주택건설사업이 본격화됨으로써 벽돌 수요가 급증하였다.

1976년부터 시작된 영동·여의도 등의 대단지 아파트 건설과 1977년 중동 특수(特需)로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투기열풍이 일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으로 과열되어 벽돌을 비롯한 각종 건축자재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영신연와도 최고의 호황기를 누렸는데, 이는 다음 구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영신연와가 ‘터’만 남아 있지만 한참 잘 나갈 때 수원에서 영신연와의 벽돌을 쓰지 않은 데가 없어, 그래서 수원지역의 벽돌 공급의 근원지여서 찍어내는 대로 나가는 거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문성식(영신여고 교장 구술)>²²⁾





영신연와 토취장 면적의 변화(좌 1977년, 우 1979년)

1977년 영신연와 토취장은 동보연와 입구까지 넓혀져 있는데, 이 때문에 동보연와는 출입이 어려웠다고 한다.
1979년경에는 두 회사의 토지를 맞바꿔서 경계 조정을 다시 하였다고 한다.





장안면 어은리 영신연와 제2공장(1995년, 화성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벽돌공장이 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잘 나갔습니다. 주력사업이었지요. 벽돌이 없어서 못 팔았으니까요. 당시엔 아파트가 별로 없었지요. 70년대 중반 서울의 한강변에 있는 한강아파트가 유일했을 정도니까요. <박상연(박지원 아들) 구술>²³⁾

이처럼 사업이 번창하면서 영신연와는 공장과 설비를 늘렸는데 1983년 영신연와주식회사는 화성군 장안면 어은리에 제2공장을 신축하였다. 영신연와가 번창할 때는 제1공장과 제2공장을 합쳐 모두 200명의 직공이 일을 하였다. 제2공장은 수원에 있던 공장과 달리 터널가마로 건설되었는데 소성가마 중에 가장 발전된 형태이다. 터널가마는 호프만가마와 달리 소성대가 고정되어 있고 소성체가 이동하면서 소성되므로 소성대의 온도와 압력을 일정하게 함으로써 벽돌의 품질 관리가 용이하여 일정한 규격과 품질의 벽돌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에 적합한 가마이다. 또한 기계화 및 자동화가 가능하여 생산력이 뛰어나고, 보수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과 함께 상대적으로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



영신연와 전경

는 단점이 있다. 1980년대 초반까지 벽돌 경기의 상승세가 지속되자 전국적으로 터널가마는 계속 늘어났고 호프만가마는 1985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제2공장 신축과 함께 제1공장인 수원 공장에는 새로운 설비가 들어왔다. 제1공장이 만들어질 때 설비들은 대부분 수동설비였는데, 국내산 성형기를 거쳐 이때 자동화된 이탈리아 제품의 성형기(成形器)가 도입되어 작업의 효율성을 높였고 벽돌의 질도 좋아졌다. 불도저가 기계실로 황토를 넣어 주었으며, 기계가 흙 반죽을 한 후 성형기 안으로 밀어 넣어 줄 때 반죽 안의 공기가 거의 다 빠지게 되기 때문에 벽돌이 단단하고 매끄러워 상품의 가치도 높아졌다. 또한 1980년대에는 변색벽돌이나 화장벽돌의 가격이 일반 적벽돌(소품벽돌)에 비해 월등히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설비투자를 통해 다양한 벽돌을 생산하고자 하였다.

1960년대 이후 벽돌산업의 경기는 주기적 변동을 거쳤는데, '1~2년 호경기→1년 평경기→1~2년 불경기'로 변하였다. 이에 4~5년을 1주기로 하여 벽돌 가격이 변동되었고 이러한 주기적 변동이 반복되었는데, 1960~1980년대 벽돌 가격은 <표 4>와 같이 변하였다.

〈표 4〉 벽돌 가격의 변동과 변동 요인

시기	품종별 가격(원/장)			변동 요인
	소품벽돌	변색벽돌	화장벽돌	
1962	1.6~1.8			
1963	2.3			공판가격으로 결정
1966	6.0			3년간 상승된 가격
1967	12.3			호경기로 품질되면서 급승
1968	6.0			김신조사건으로 경기가 하강하여 폭락
1971	7.0			협정가격으로 결정
1972	8.0			경기가 호전되어 하반기부터 상승
1973	13.0			호경기로 상승
1974	13.0			벽돌 가격은 그대로 유지
1976	15.0			행정지도 가격으로 유지
1977	19.0			행정지도 가격으로 유지
1978	26.0	50.0		소품벽돌은 행정지도 가격, 변색벽돌과 화장벽돌은 자유가격
1979	32.0	60.0		소품벽돌은 행정지도 가격, 변색벽돌과 화장벽돌은 자유가격
1980	42.0	75.0	130.0	소품벽돌은 행정지도 가격, 변색벽돌과 화장벽돌은 자유가격
1981	48.0	80.0	130.0	공정거래법에 따라 카르텔 방지
1982	50.0	80.0	140.0	자유가격 형성
1983	80.0	110.0	160.0	황금기로 품질상태에서 폭등
1984	70.0	95.0	130.0	자유가격으로 유지
1985	60.0	90.0	120.0	소강상태로 유지
1986	60.0	90.0	120.0	
1987	60.0	90.0	120.0	
1988	80.0	100.0	140.0	황금기로 상승
1989	85.0	110.0	150.0	물가상승으로 인상
1990	100.0	130.0	170.0	호황과 물가상승으로 인상

자료 : 송재선, 『우리나라 벽돌사』, 2006, 미래문화사, 314쪽.

1950~1960년대 벽돌 수요가 적고 좁은 시장성으로 벽돌 판매는 해당 시군을 넘지 못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벽돌 수요가 증가하고 도로망과 운송수단이 발달하면서 판매망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벽돌 판매방식이 예전에는 판매원을 두고 인근 건축현장을 일일이 방문하여 주문을 받는 방식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전국 각지에 건축자



1980년대 벽돌 유통경로

재판매 전문점이 생겨 거리와 지역에 관계없이 많은 대리점과 체인을 맺고 벽돌 유통에 원활을 기하였다.

벽돌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1980년대 초반에는 벽돌 품귀현상이 있어날 정도였고,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판매점이나 대리점은 벽돌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높이는가 하면 새벽부터 벽돌공장에 진을 친 채 벽돌을 가져가기 위한 전쟁이 벌어졌다. 질 좋은 벽돌을 다른 대리점보다 빠르게 가져가기 위해 대리점들은 가마에서 벽돌을 꺼내는 일을 하는 ‘아가시’들에게 술값을 찢러 주곤 했다고 한다.

면담자 여기서 생산하는 벽돌 같은 경우가 어디로 많이 나가는지 아세요?

이영식 그때만 해도 벽돌이 어디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적벽돌이 엄청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보름이고 한 달이고 이게 벽돌 산다고 돈 갖다 놓으면, 언제쯤 오라 그러면, 새벽 4시나 3시 반엔 나가면 차들이 짹 서 있어.

면담자 벽돌 받으러 온 사람ियो?

이영식 응. 그래 가지고 아가지(가마에서 벽돌을 꺼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벽돌을) 착착 끌어 나왔는데, 대개 대리점들이 많이 오는 거지. 벽돌 대리점들이. 뭐 오면 차가 여기에서 저까지 짹 서 있어.

면담자 벽돌 받아 갈 트럭 같은 차를 들고 와서?

이영식 으응. 그렇게 짹 서 있어 실어 주면 나가고. 그때만 해도 참 벽돌이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참 아가지, 벽돌 불속에서 끌어내는 사람들은 돈 많이 생겼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좋은 거 실어 달라, 빨리 실어 달라, 그래 가지고 이 술값을 많이 주구. 그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어.



영신연와 공장동



영신연와 가마

그러나 1980년대 벽돌 품귀현상과 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전국적으로 터널가마를 도입하여 벽돌을 생산하는 공장이 급증하였다. 터널가마는 호프만가마보다 자동화된 시설이라 노동력을 절감하면서 연간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생산시설이었다. 1990년대 전국 벽돌공장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벽돌 생산 능력이 증대되면서 벽돌의 과잉생산 현상이 나타났다. 즉 1980년 68개소, 1985년 96개소, 1990년 139개소, 1993년 155개소로 벽돌공장이 늘어났고, 연간 생산량도 1980년 8억 장, 1985년 13억 장, 1990년 22억 장, 1993년 28억 장까지 증가하였다.²⁴⁾ 그러나 1990년대 주택 건설에서 아파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벽돌을 찾는 수요는 예전 같지 않았다. 이에 영신연와는 거래처를 다변화하고자 하였고, 주택보다 학교 쪽에 물건을 납품하였다.

호황기에 전국적으로 벽돌공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벽돌의 과잉 생산 여파로 1990년대에 이르자 벽돌 경기가 점차 하락하였다. 이에 영신연와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적자 폭이 점차 커져 갔다. 벽돌공장을 운영하려면 계속 시설투자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은행융자를 얻어 기계시설을 갖추었는데, 경영수지가 악화되다 보니 은행 빚을 갚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건축업자들은 영신연와에서 물건을 납품하면 약속어음을 주었는데, 만기일에 결재를 받으려 했더니 그 업체는 부도가 나 있었다. 이는 영신연와의 자금 운영에 큰 타격을 주었고, 결국 영신연와 제1공장은 1993년부터 벽돌 생산을 멈추었다. 야적장에서 건조 중인 벽돌을 굽기 위해 가마는 몇 년 정도 더 불을 피웠지만 성형기계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경기도에 벽돌공장이 셀 수도 없이 너무 많았어요. 그 뒤 조암공장은 98년도까지 운영되다가 결국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사업이 안 돼 처분할 수밖에 없었구요. 은행융자만 30억을 받아 구입한 이탈리아기계는 공장을 처분하면서 결국 은행으로 넘어갔습니다.<박창원 구술>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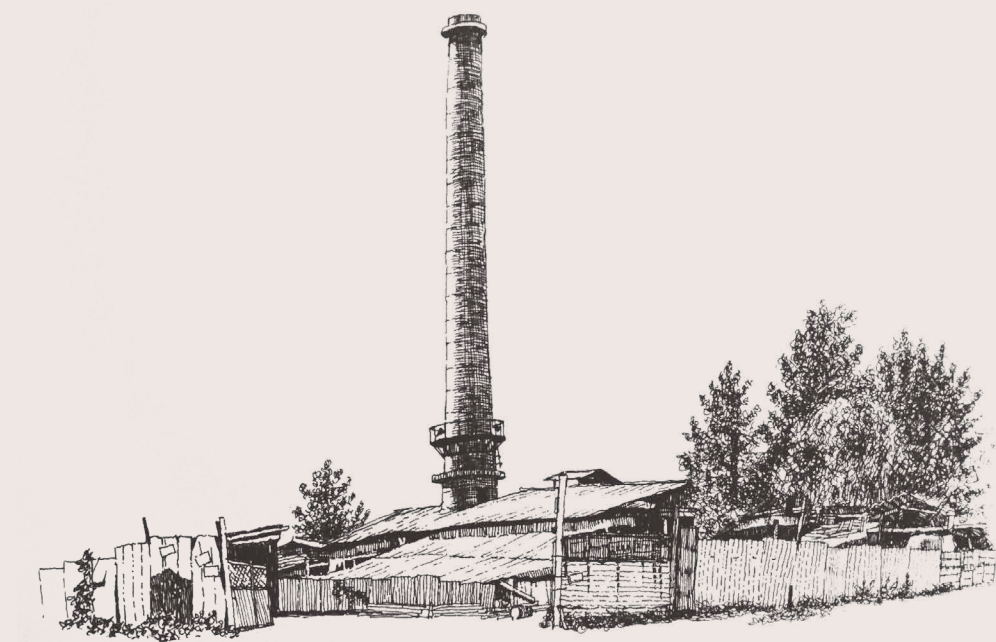
아이엠에프(IMF) 때, 부가가치가 없는데다 벽돌공장이 사양산업이어서 수원 영신연와는 1996~97년경 정리하고, 영신연와 제2공장은 1998년경 결국 정리되었습니다.<박상연 구술>²⁶⁾

그 후 IMF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영신연와는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1998년에는 제2공장까지 정리하게 되었다. 이로써 1935년 박건유의 수원요업공장에서 시작되어 박정환, 그리고 박지원·박양일·박덕원 3대로 이어졌던 영신연와의 역사는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폐업 후인 2009년 영신연와 (수원시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
- 1) 김태중, 「구한말 도지부건축소 부설 연와제조소에 관하여」, 『연구논문집』 3, 경남대학교 부설 공업기술연구소,
 - 2) 송재선, 『우리나라 벽돌사』, 미래문화사, 2006, 253쪽.
 - 3) 김삼석, 「박지원가의 삶과 고색동의 변화」, 『수원 근현대 증언자료집Ⅳ』, 2010.
 - 4) 「京畿道, 朴里長의 美舉」, 『매일신보』 1916년 3월 4일.
 - 5) 「채권자 門前에서 繩으로 自縊」, 『매일신보』 1916년 11월 22일.
 - 6) 『여화수리조합인가서』, 1919(국가기록원 소장).
 - 7) 『여화수리조합인가서』, 1919(국가기록원 소장).
 - 8) 「全朝鮮各地의 水利事業現」 蒙利面積十一萬餘町步 事業費六千五百萬餘圓」, 『매일신보』 1926년 5월 9일
 - 9) 「養蠶傳習生入所式舉行, 水原郡農會主催で」, 『조선신문』 1930년 5월 16일.
 - 10) 「朴健祐氏의 功績」, 『매일신보』 1932년 6월 18일.
 - 11) 「水原高等農林學校附置實業補習學校, 「本校卒業生の活動狀況」, 『文教の朝鮮』 96號, 朝鮮教育會, 1933, 61~81쪽.
 - 12) 「水原紹介 자수성공한 품미양조장 박건유씨」, 『매일신보』 1934년 6월 8일.
 - 13) 조흥석, 「한국 근대 적벽돌 건축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15~116쪽.
 - 14) 「금용 토지자본이 공장자본으로 전향 자본주의 발전의 추이 수원 재계의 동태」, 『동아일보』 1936년 2월 27일; 「逐日 발전하는 수원 직물계」, 『동아일보』 1936년 2월 29일; 「日紡공장기지, 매수를 완료, 영등포, 수원에」, 『조선중앙일보』 1936년 5월 8일; 「발전되는 수원에 각종 공장이 진출 공업도시로 되어 가」 『동아일보』 1937년 6월 29일; 「농업의 수원읍, 躍進 工都化 각종 공장이 대진출」, 『동아일보』 1937년 12월 12일.
 - 15) 「수원사법보호회(水原司法保護會)서 벽돌공장을 운영」, 『서울신문』 1956년 3월 12일.
 - 16) 「수원벽돌공장 조업」, 『조선일보』 1956년 5월 30일.
 - 17) 수원시, 『시세일람』, 1955, 154쪽.
 - 18) 「檢事 50名을 異動」, 『경향신문』 1960년 6월 30일.
 - 19) 김삼석, 「박지원가의 삶과 고색동의 변화」, 『수원 근현대 증언자료집Ⅳ』, 2010, 68쪽.
 - 20) 김삼석, 「박지원가의 삶과 고색동의 변화」, 『수원 근현대 증언자료집Ⅳ』, 2010, 68쪽.
 - 21) 『수원도시계획보고 기초자료조사서』, 1965, 48쪽.
 - 22) 김삼석, 「박지원가의 삶과 고색동의 변화」, 『수원 근현대 증언자료집Ⅳ』, 2010, 100쪽.
 - 23) 김삼석, 「박지원가의 삶과 고색동의 변화」, 『수원 근현대 증언자료집Ⅳ』, 2010, 101쪽.
 - 24) 송재선, 『우리나라 벽돌사』, 미래문화사, 2006, 366쪽.
 - 25) 김삼석, 「박지원가의 삶과 고색동의 변화」, 『수원 근현대 증언자료집Ⅳ』, 2010, 111쪽.
 - 26) 김삼석, 「박지원가의 삶과 고색동의 변화」, 『수원 근현대 증언자료집Ⅳ』, 2010, 111쪽.
-



영신연와 호프만가마 만들기¹⁾

윤로의 설계와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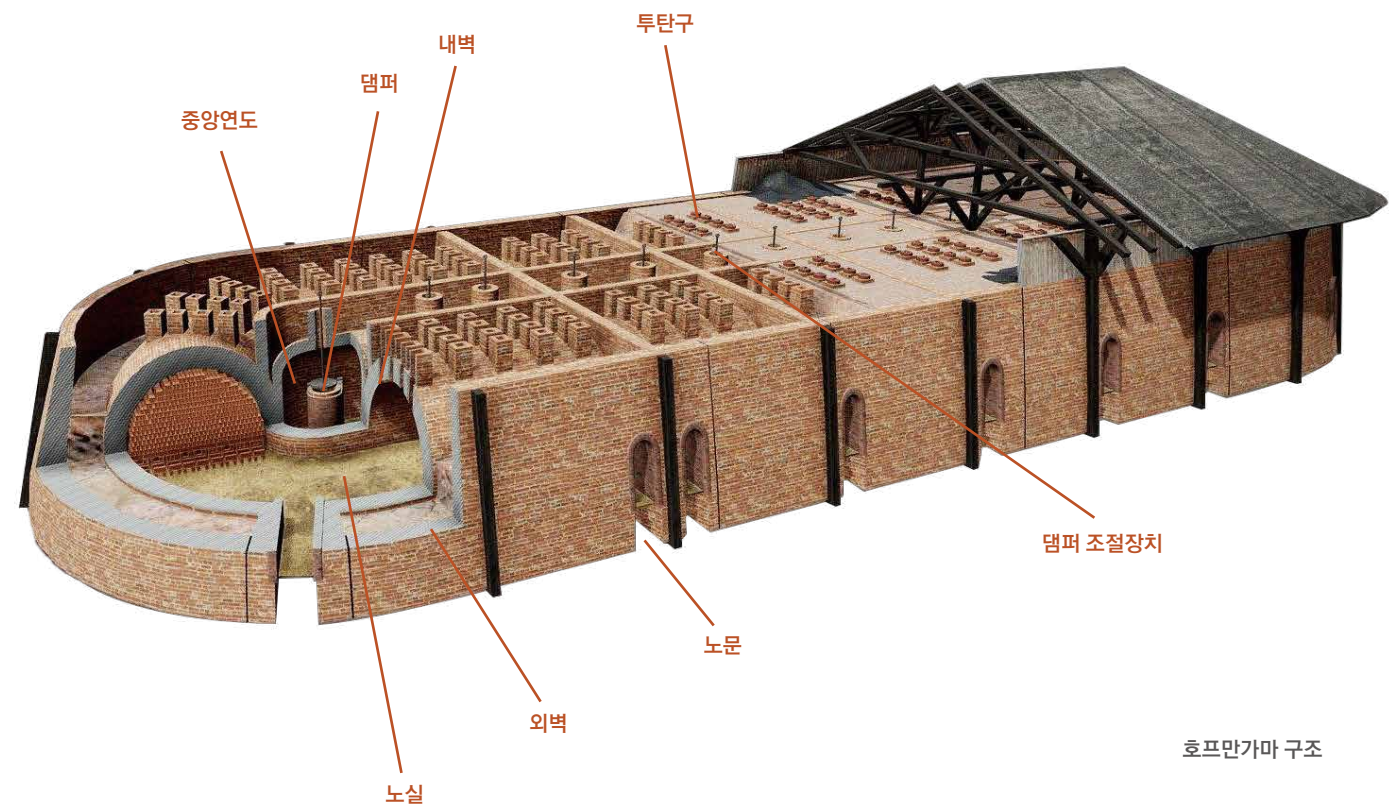
고색동에 있는 영신연와의 가마는 호프만가마로, 1858년 독일의 저명한 화학자 호프만이 방 난로에서 힌트를 얻어 발명한 소성로(燒成爐, 벽돌 따위를 구워내는 가마)이다. 둥근 모양 때문에 ‘윤로(輪爐)’라고 부르기도 한다. 호프만가마는 바깥벽에 연소실을 없애고 천장에 투탄구를 내었으며, 칸막이벽을 제거하고 가마 위에 서서 뎀퍼를 조작해 소성을 조절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조함으로써 소성기술의 일대 혁신을 일으킨 가마이다.

이 가마의 특성은 소성대(燒成帶)를 이동시켜 벽돌을 굽는 연속로라는 점이다. 이 소성로는 19세기 말 등장한 터널로와 함께 벽돌공장에서 자웅을 다투는 우월한 가마이다. 터널로에 비하여 연속 작업이 불편하고 노동력이 더 들기는 하지만, 연료비 대비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값이 싼 벽돌을 대량 생산하는 데에는 가장 적합한 가마이다. 호프만이 처음 발명했을 때에는 굴뚝을 중앙에 두고 그 주위를 돌려가면서 둥글게 제작하였다. 그 후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긴 타원형으로 변하였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최초의 윤로는 연와제조소(煉瓦製造所)에서 세운 것이다. 연와제조소는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화를 위한 일련의 계획 속에서 각종 정부관계시설 건축을 전담할 정부기구로 탁지부(度支部)가 1906년 세운 건축소(建築所)의 부설기구이다. 연와제조소는 1907년 벽돌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마포에 벽돌공장을 세웠다. 1907년 8월 호프만가마가 준공되고 9월에는 벽돌 성형기계가 설치되어 본격적인 기계식 생산을 시작하였다.²⁾ 민간에서도 1919년 서울 영등포구(옛 크라운맥주공장)에 세워진 조선요업주식회사(朝鮮窯業株式會社)에서 윤로를 도입하였는데 장구형(長矩形)으로 28칸이었다고 한다. 이 회사는 연간



영신연와 가마(다큐멘터리사진그룹 각 제공)



호프만가마 구조

650만 장을 생산하는 최대 공장이었는데 1925년 대홍수 때 심한 수해를 입고 도산하였다고 한다.³⁾

윤로는 노실(爐室), 중앙연도(中央煙道), 연돌(煙突, 굴뚝)로 구성되어 있다. 노실은 외벽, 내벽(아치), 소연도(小煙道), 투탄구(投炭口), 노문(爐門)으로 이루어지며, 중앙연도는 벽, 담퍼(Damper), 맨홀(manhole)로 이루어지고, 굴뚝은 벽, 구멍, 연도구(煙道口), 피뢰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윤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자를 참가시켜 공장 배치를 합리적으로 해야 하며, 한 번 축로한 다음에는 이동시킬 수 없으므로 기술자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위치를 설정해야 했다. 영신연와의 가마는 이화연와에 소속된 기술자들이 1년간 와서 제작한 것으로, 이들은 일본에서 가마 제작기술을 배운 전문가이다.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감독과 지시를 하면 영신연와의 노동자들이 공사를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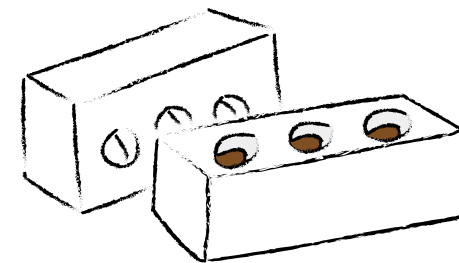
이상길 서울에서 천호동 이화산업 이런 데 기술자들이 와서. 그 일본에서 배워 갖고 온 전문가들이 와서 지은 거지. 이게 지금 한국에서 개발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와서 해 가지고 거기서 배워 가지고 온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서 늘어난 거지. 그래서 공장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랄까 그 공장 돌아가는 방식이 전부 일본말이야. 한국말이 아니라구. 일할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을 썼고, 원 기술자들만 와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와서 감독하고 지시해서 하는 대로 만든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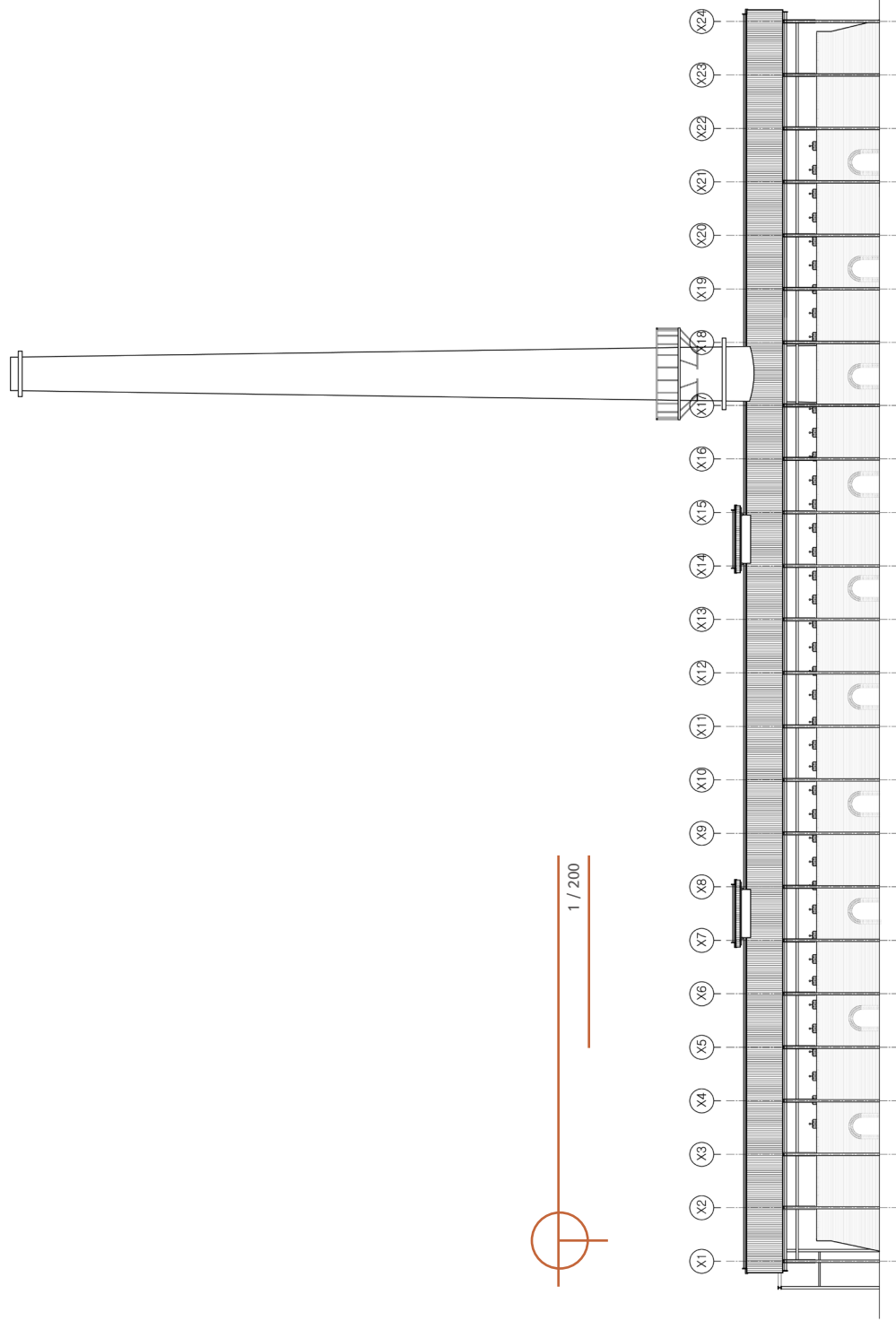
윤로의 위치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① 건조장과 가깝고 소지운반이 편리한 곳으로서 건조장보다는 약간 낮거나 수평지게 앉혀야 한다. ② 도로에서 가깝고 차량출입이 편리해야 한다. ③ 배수가 잘되는 곳이라야 한다. ④ 벽돌을 충분히 쌓아 둘 넓은 적재장(積載場)이 있어야 한다. ⑤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한다. ⑥ 소성로 부근에 산업 쓰레기장을 마련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⑦ 사무실에서 잘 보이도록 한다.

윤로의 크기는 칸수로 표시되는데, 크기 설정 문제는 ① 연간 생산계획량, ② 연간 조업계획일수, ③ 1일 소성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연간 생산계획량을 계산하여, 연간 1화점에서 몇 장을 소성할 수 있는지 계산하고 생산목표를 잡으면 1화점로(火點爐, 외돌기)로 할 것인지, 2화점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1화점로를 몇 실로(室爐)로 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소성작업에서 소실(燒室)이 부족할 경우

에는 소성작업을 원활하게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균질적으로 생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량품 또는 조잡품까지 생산된다고 한다. 이와 반대로 실(室)의 개수를 필요 이상으로 한다면 시설비를 낭비하는 것이다. 1화점로는 몇 실로 설계할지의 문제는 윤로의 조업 배치상태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1화점로당 조업 배치는 예열대 3실, 소성대 1~15실, 냉각대 5~6실, 요적대 3~4실로 모두 14.5~17.5실이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에 오면 예열대 5~6실, 소성대 2실, 변색대 1실, 냉각대 5~6실, 요적대 2~3실, 요출대 3~4실, 계 18~22실로 증가되었다. 일제 때 축로한 1화점로는 16~18실로가 지배적이고, 2화점로에서는 32~34실로가 가장 많았으나 해방 후에는 일반적으로 1화점로를 20실로, 2화점를 38~40실로 하였다고 한다. 둘째, 연간 조업일수는 인공건조를 하여 연중무휴로 조업할 것인지, 천연건조로 연간 7~8개월만 조업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셋째, 소성능력은 소성공들이 1일간 소성하여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윤로 1화점에서 1일 소성능력은 일제 때는 2만 5,000~3만 장 정도였지만 해방 후에는 2만 5,000~4만 장 정도이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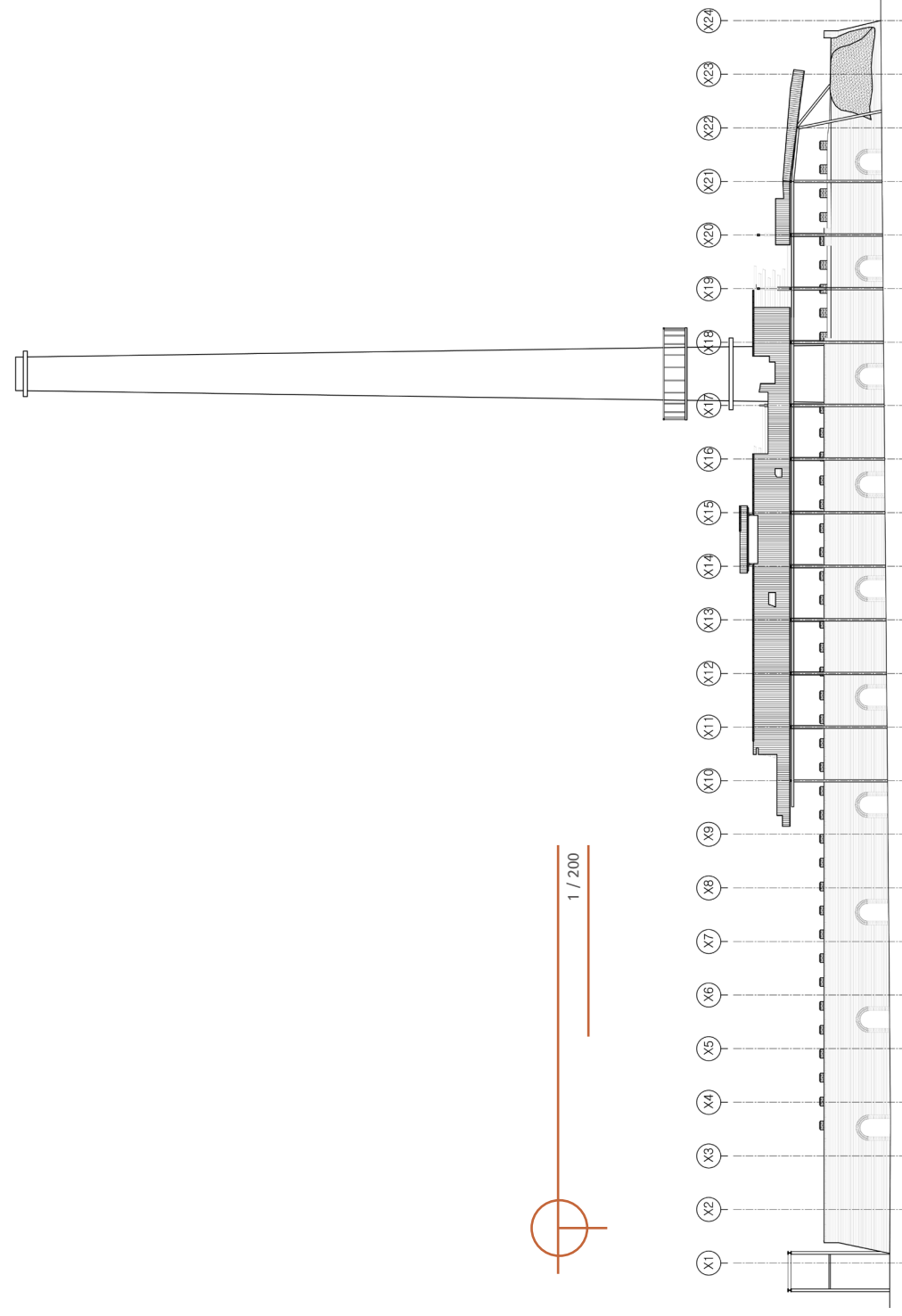
영신연와의 가마는 1화점로로 설계되었으며, 22실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크기는 길이 62.8m, 폭 13.7m, 높이 3.2m이다. 또한 천연건조로 연간 7개월 정도 조업하고, 1일 5만 장 정도를 소성하였는데, 이는 연간 1,000만 장 이상을 소성할 수 있는 규모이다.





제회

국정농단 정면도(계획, 수원시, 『수원 영신연와 벼룩국장인원 기록화사업』, 2020)



한글

국가통정면도(수원시, 『수원 영신여와 벼돌고장 일원 기록화사업』, 2020)

연도(煙道) 만들기

가마를 만들 때에는 맨 처음 지면을 파서 지하 1층 정도 되는 깊이에 터를 잡는 것부터 하였다. 그리고 바람이 다니는 통로인 중앙연도(대연도)와 소연도의 자리를 잡았다.

이상길 포크레인이 와 가지고 깊이 파 가지고, 기수를 그 밑에 공구리를 쳐 올라와요. 이게 지하로 한 1층 내려간 거 마냥 이렇게 내려갔어요. 기수가 단단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다가 그게 이제 한 3m 정도 올라오니까 굴뚝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가마 밑에를. 가마 앉히기 전에 밑에 바닥. 이 지면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굴뚝 자리를, 엔도(えんとう) 자리를. 바람이 통할 자리.

대연도는 ‘중앙연도’라고 하는데, 가마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각 소연도를 통하여 배출되는 폐가스를 모아서 연돌(굴뚝)로 보내는 구실을 한다. 영신연와 대연도의 높이는 1.7m이며 너비는 1m 정도이다.

소연도는 가마 안의 폐가스를 중앙연도로 배출시키는 연도이다. 이 소연도의 설치 방법은 <표 1>과 같이 네 종류가 있다.

<표 1> 소연도 설치의 종류

이름	설명	순서
내외벽쌍구식	내벽과 외벽 같은 위치에 1개씩 설치	1
지그재그식	내벽과 외벽에 지그재그로 어긋나게 설치	3
외벽단구식	외벽을 따라 설치	2
내벽단구식	내벽을 따라 설치	4

내외벽쌍구식은 내외벽에 각각 구멍이 있으면 열 분포를 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성조작이 간편하다. 또한 시설비도 별로 많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2개의 구멍을 중앙연도에서 한 개의 댐퍼에 연결시키는 것이 좋다. 지그재그식은 물론 내외벽쌍구식만은 못하지만 비교적 열 분포가 좋은 편이다. 우리나라 가마의 소연도는 대부분 지그재그식이었다. 외벽단구식은 소성진도가 느린 외부 쪽의 진도를 촉진시키는 데 유효하기 때문에 내외벽쌍구식만은 못하지만 지그재그식과 함께 비교적 좋은 편이다. 내벽단구식은 외부 쪽에 비하여 내부 쪽의 소성진도가 빠르데다가 소연도가 내벽에 있게 되면

소성진도의 내외 차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이 방식은 선호되지 않았다. 소연도는 열 분포를 고르게 하기 위해 단구식보다 쌍구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양쪽 끝 커브 칸에는 한 칸에 2좌를 외벽단구식으로 설치해야 커브에서 불이 약해진 상태로 회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벽돌도 고르게 소성할 수 있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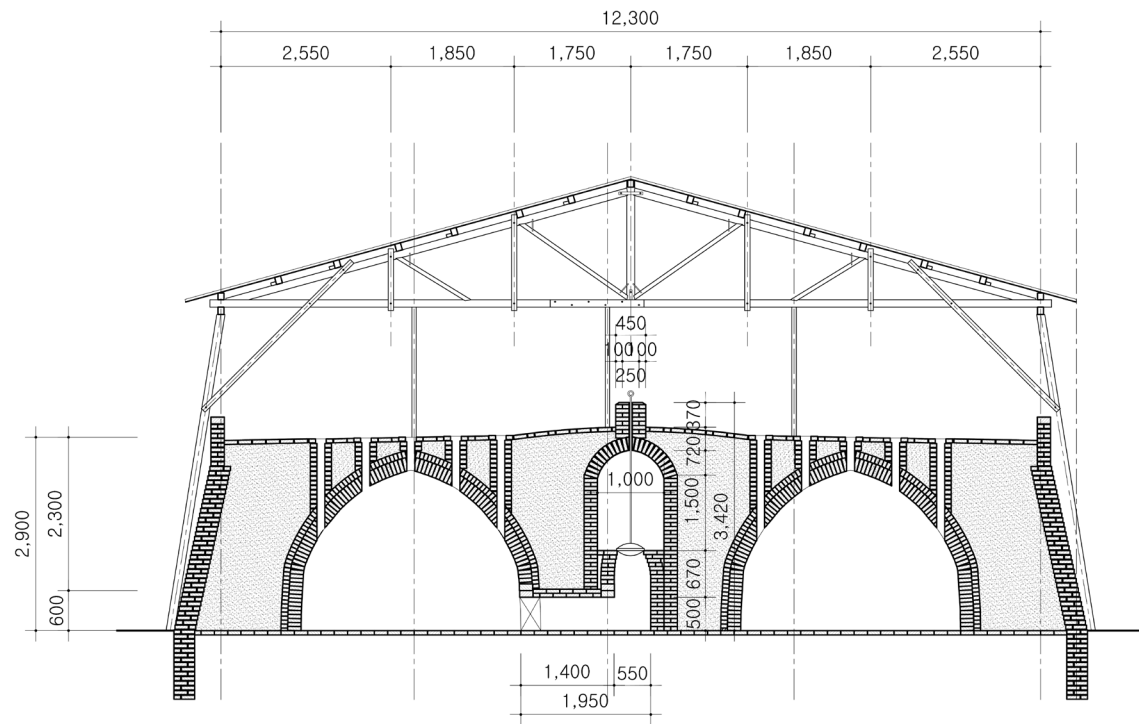
영신연와의 경우 지그재그식으로 내벽과 외벽에 각각 1좌씩 소연도를 설치하였고 커브 칸 한 쪽에 1좌를 더 설치하여 41개의 소연도를 설치하였다. 중앙연도 쪽으로 설치된 소연도는 너비 0.6m, 높이 0.4m, 길이 1.9m이며, 외벽 쪽에 설치된 것은 지하를 통해 중앙연도와 연결됐기 때문에 너비 0.6m, 높이 0.4m, 길이 약 6m로 만들어졌다.

댐퍼(damper)는 노실의 폐가스가 중앙연도로 배출되도록 알맞게 조절하는 장치로, 소연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41개가 설치되어 있다. 윤로의 소성이 등로(登爐)나 도염로(倒焰爐), 터널로에 비해 어려운 것은 이 독특한 댐퍼가 있기 때문이다. 댐퍼는 조물제로서 암수로 이루어졌다. 암컷은 밑 빠진 솔꼴로 되었으며 수컷은 팽이형으로 되었다. 암컷 내경은 45~50cm 전후이고 높이는 일반적으로 20cm 전후의 것이 많은데 이를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25cm 정도로 높이는 것이 좋다. 댐퍼 샤프트와 팽이의 연결장치는 수리에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댐퍼는 가마 내의 환경을 조절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와공장에 설치된 댐퍼의 팽이는 대부분 끝이 무뎌서 예민하게 작동하지 못하였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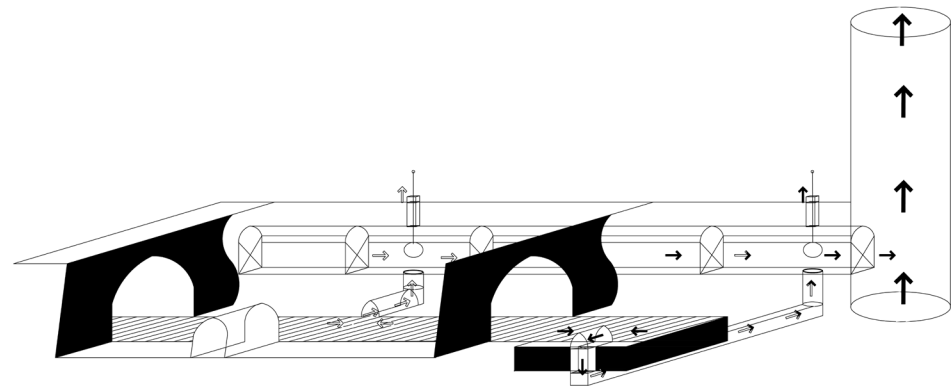


댐퍼의 예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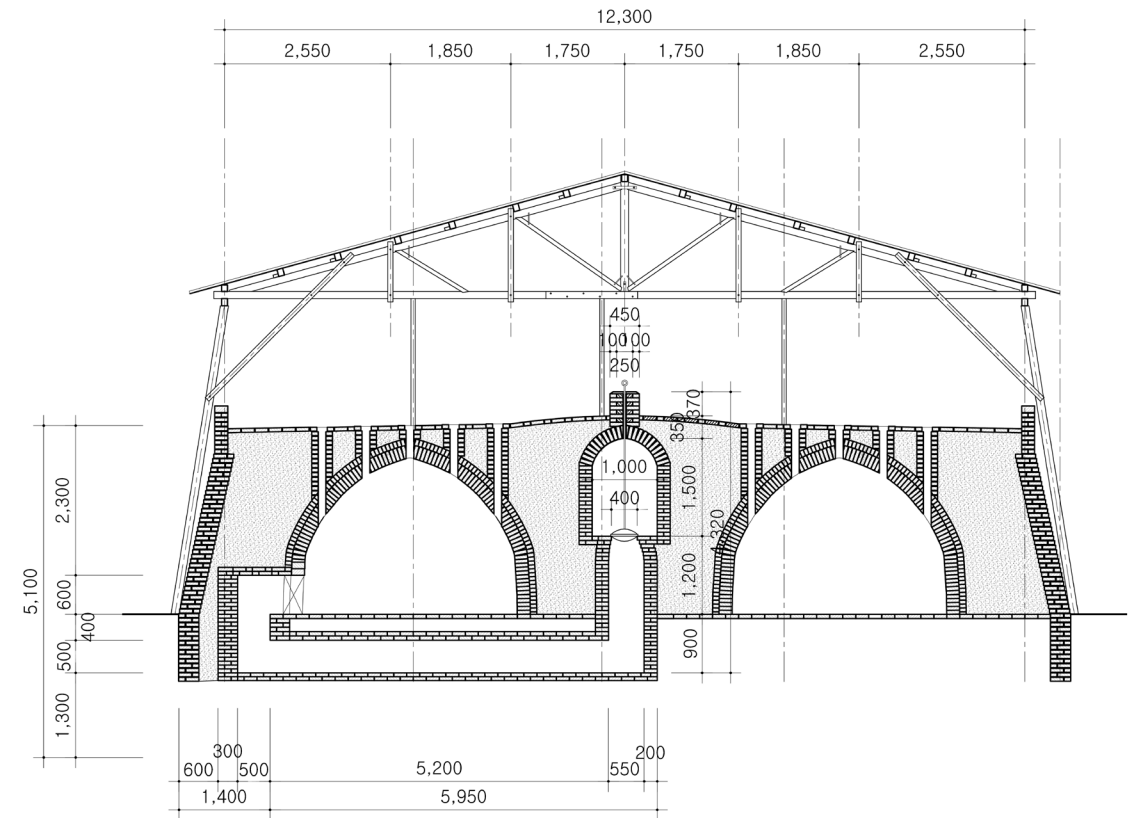
또한 댐퍼의 직경을 지나치게 크게 하면 댐퍼 승강과정에 충격이 심하기 때문에 연도 구에 틈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에는 암 댐퍼의 수명까지도 감소시키게 된다. 댐퍼의 역할은 첫째, 열 분포를 상하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자동차의 핸들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면으로 열 분포를 고르게 할 수 있다. 둘째 소성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댐퍼는 자동차의 기어 변속장치처럼 소성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심지어 불을 후진시킬 수도 있다. 셋째, 바닥불과 윗불을 조절할 수 있다. 바닥불과 윗불을 세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다. 넷째, 폐열처리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 폐열을 최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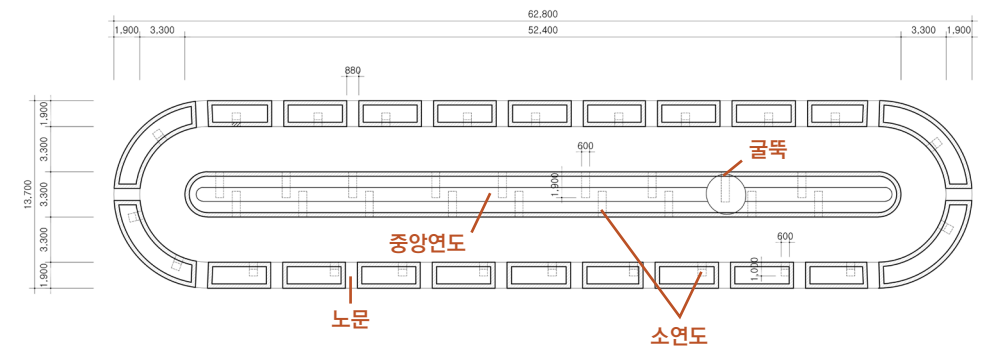
내벽 소연도와 중앙연도 연결(수원시, 『수원 영신연와 벽돌공장 일원 기록화사업』, 2020)



연기의 흐름(수원시, 『수원 영신연와 벽돌공장 일원 기록화사업』, 2020)
댐퍼를 조절하면 내벽과 외벽에 설치된 소연도를 통해 연기가 모여져 중앙연도를 거쳐 굴뚝으로 빠져나간다.



지하로 연결되는 외벽 소연도와 중앙연도(수원시, 『수원 영신연와 벽돌공장 일원 기록화사업』, 2020)



영신연와 가마 하부 평면도(수원시, 『수원 영신연와 벽돌공장 일원 기록화사업』, 2020)
중앙에 대연도가 자리 잡고 있고, 소연도 41좌가 내벽과 외벽에 지그재그식으로 설치되어 있다.



외벽에 설치된 소연도(다큐멘터리사진그룹 각 제공)



내벽에 연결된 소연도

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윤로가 어느 가마보다도 열효율이 좋다는 것이다. 다섯째, 인풍력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다른 소성로는 20시간 정도 연소작업을 하면 불이 죽게 되지만 윤로는 최소한으로 땀퍼를 열어 두면 20시간 동안 투탄작업을 중지해도 불을 되살릴 수 있다.⁷⁾

굴뚝(연돌) 만들기

중앙연도의 자리가 잡히면 그 다음으로 굴뚝(연돌)을 세웠다. 굴뚝은 대연도에 집합된 폐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굴뚝 외부는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하단은 내화벽돌을 쌓아 만들었다. 내화벽돌로 안을 감싼 것은 뜨거운 연기가 닿는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둥근 철제 토관(土管)을 놓고 시멘트를 부어 굴뚝을 만들어 갔는데, 굴뚝이 올라가는 만큼 그 옆에 나무로 구조물을 쌓아 작업공간을 조성하였다. 지상에서 물로 갠 시멘트를 곤돌라로 달아 올리면 위에 있는 작업자가 토관에 부어서 만들어 갔는데, 하루에 1.5m씩 높여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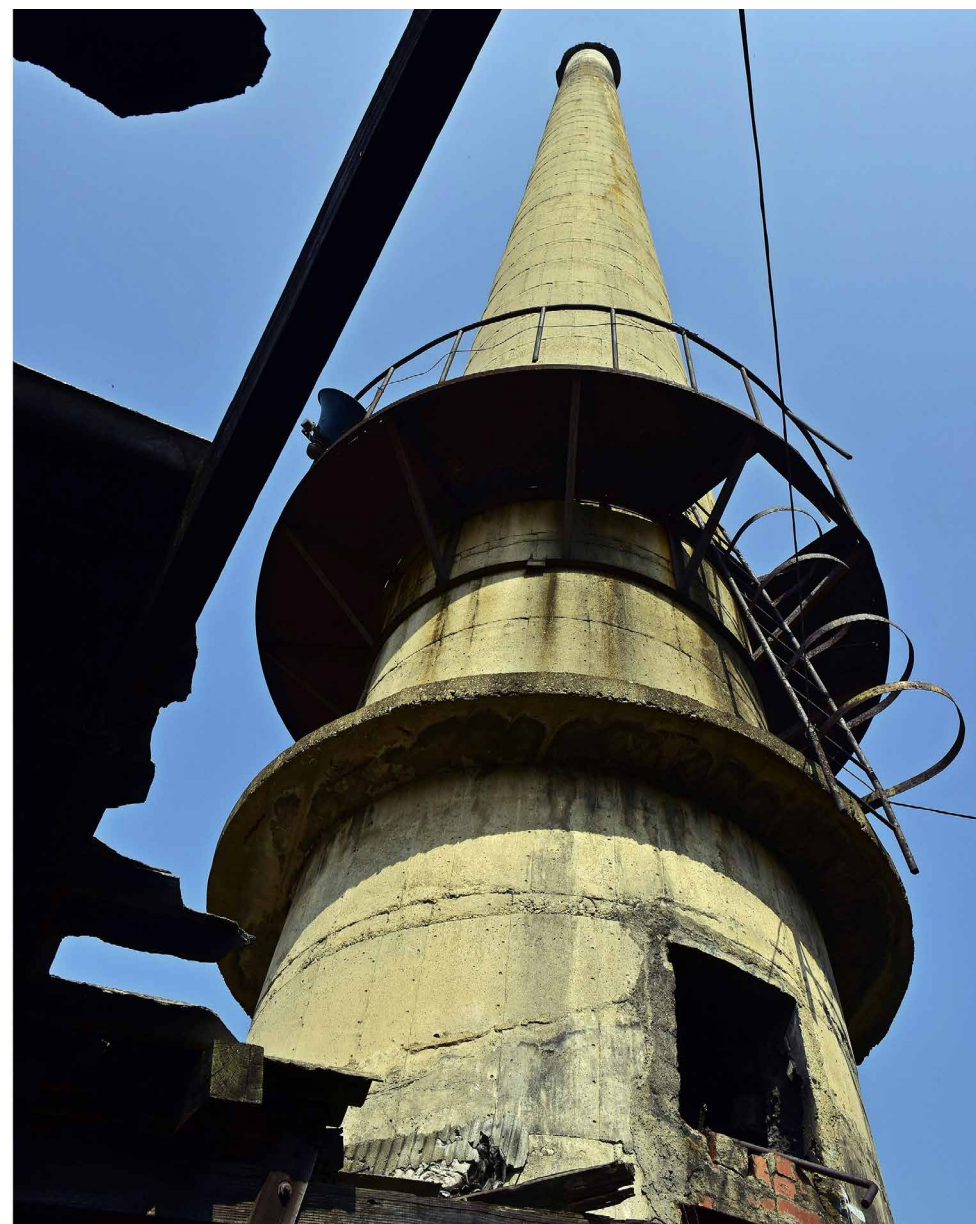
이상길 (굴뚝이) 하루에 1.5m씩 올라가요. 그게 그 저기 뭐라 그럴까 노깡(토관) 같이 이런 철이 있어. 그거를 갖다 놓고 사람이 공구리 쳐 갖고 갖다 부어서 대대서 맨드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한 쪽은 벽돌을 쌓고, 공구리 쳐서 또 이렇게 되고. 바깥에 이 틀이 있잖아요. 안에 틀이 있고, 이거를 올리는 거여. 올리고 또 하고, 해고 또 하고. 이거 가마 짓는 데 그땐 1년이 더 걸렸어. 옛날에는 낙엽송 같은 걸로 이렇게 땀어. 이렇게 매 났다고. 가에서 저 끝까지 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올라가서 달아 올렸어. 옛날엔 그렇게 했어. 나무로. 옛날엔 나무로 만들었지.

1화점 윤로에서 굴뚝의 위치는 어디에 세우나 무방하지만 2화점 윤로에서는 중앙에 세워야 한다. 영신연와 굴뚝은 전체 가마(62.8m)에서 약 44m 떨어진 지점에 치우쳐 위치해 있다. 일반적으로 굴뚝은 1화점로에서 높이 30~40m(지상)에 말구(末口) 내경 1.3~1.5m이며, 2화점로에서 높이 40~50m, 말구 내경 1.5~1.8m이다. 영신연와 굴뚝은 높이가 가마 꼭대기부터 41.3m, 지표면으로부터 44.5m에 이르고, 말구 외경이 1.7m이고 말구 내경은 1.1m이다.

굴뚝 지하는 넓고 두꺼운 기초에 3.5~5.0m가 묻히도록 한다. 윤로 연돌은 벽돌조와 철근 콘크리트조인데 전자는 바닥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 그래서 노의 중앙에 세우는



영신연와 가마와 굴뚝(다큐멘터리사진그룹 각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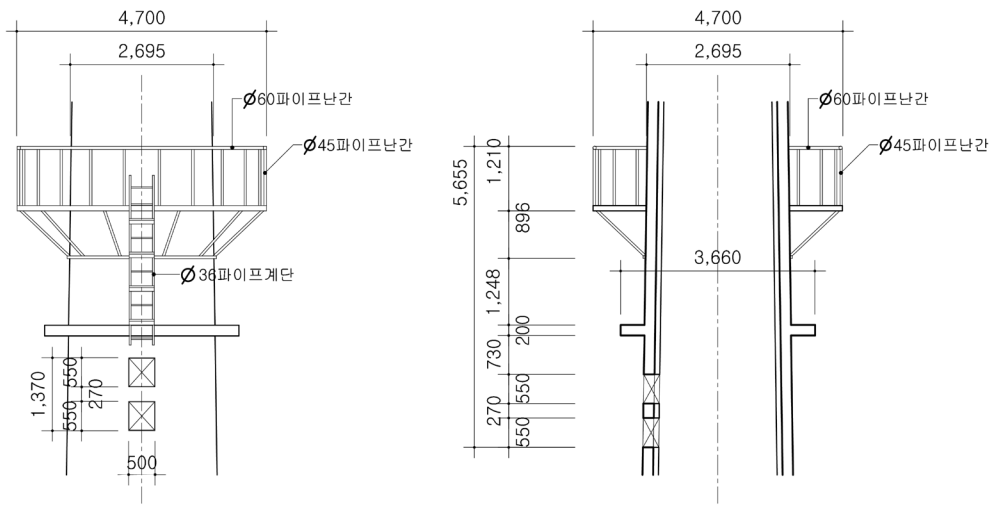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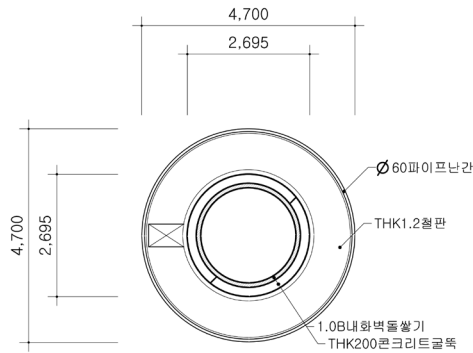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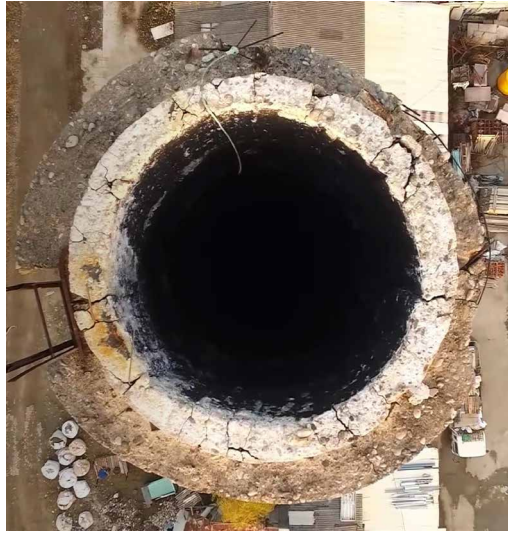
영신연와 굴뚝(다큐멘터리사진그룹 각 제공)



계호

70

והוא



굴뚝 상세도(수원시, 『수원 영신연와 벽돌공장 일원 기록화사업』, 2020)

데는 대연도의 폭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가마 중 굴뚝의 높이가 평균보다 높는데 말구 내경이 더 좁은 경우가 있다. 즉 굴뚝 높이가 1화점에 거의 42~45m인데 말구 내경이 1.2~1.3m인 것이 있는가 하면 2화점 윤로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인풍력(引風力) 부족으로 소성진도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⁸⁾

영신연와 굴뚝 외부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굴뚝 내부 청소나 보수 때 사용되었다. 굴뚝 청소는 보통 2년에 1번씩 실시되었다. 파이프난간 아래에는 굴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구가 두 개 만들어져 있다.

노실(爐室) 만들기

굴뚝이 중간쯤 올라가면 그때부터 가마(노실)의 내벽을 만들었다. 나무로 된 가마 모양(아치형)의 틀을 놓고 그 모양대로 벽돌을 쌓아 갔는데, 가마 모양의 틀은 3~4개 나무를 연결해서 만든 것으로 하나만 빼도 쉽게 해체되었다. 가마를 만든 후 굽기 전에 나무틀을 해체하여 다음 가마의 벽돌을 쌓는 데 다시 사용하였다.

노실은 문 중심에서 중심 사이를 말하며 칸수로 해야 된다. 영신연와 윤로 노실의 길이는 5.46m로, 적당한 크기이다. 한 칸의 길이가 길면 댐퍼의 인풍력이 약하여 소성작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또한 요입과 요출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시설비도 많아지게 되므로 윤로 한 칸의 길이는 5.5~6m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영신연와 노실의 실폭(室幅)은 3.3m인데, 실폭이 넓으면 열효율이 좋아 연료가 절약되지만 천장의 수명이 짧고 견고성이 약하여 보수를 자주 해야 하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소성작업과 천장의 수명을 고려했을 때 실폭은 3~3.2m의 것이 가장 알맞다고 한다. 변색연와를 생산하는 조건에서는 좁은 실폭이 요구된다. 노폭이 좁으면 열 분포가 균등하기 때문에 균질품으로 소성하기 좋으므로 변색연와 생산을 위해서는 2.6~2.8m의 노폭이 가장 알맞다.⁹⁾

윤로뿐만 아니라 어떤 소성로든지 높이가 높으면 아래 위의 열 분포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소성작업도 힘들고 균질품을 생산하기도 어려워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적(窯積) 하기에 편리한 높이는 2.3~2.4m인데, 영신연와 윤로의 높이는 2.3m이므로 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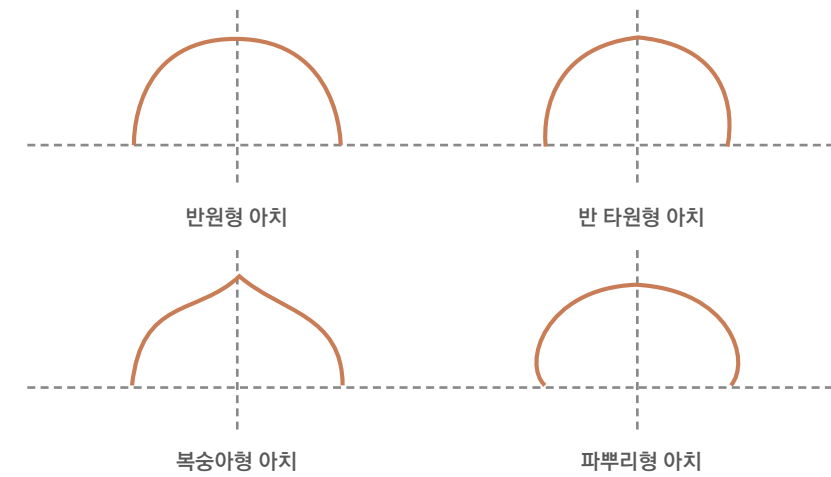
윤로의 출입문인 노문(爐門)의 크기는 요입과 요출 작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이 좋다. 작으면 열 손실이 적어 문에서 발생하는 미소현상(未燒現象)이 적을 뿐 아니라 문을 막는 데 노력도 적게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문 높이는 리어카로 요입과 요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계를 사용할 때보다 낮아져서 보통 1.6m 내외이며 문 너비는 리어카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0.9m이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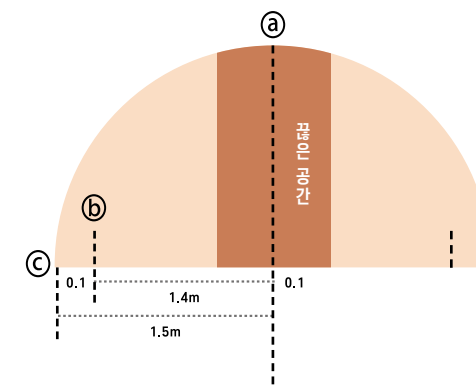
영신연와 가마 내부(다큐멘터리사진그룹 각 제공)

가마의 아치(arche)는 윤로의 천장 부분을 말한다. 천장 아치는 윤로의 수명과 직접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윤로 아치에는 네 가지 형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반원형이며 그 다음이 반타원형과 복숭아형이고 파뿌리형은 일제강점기의 윤로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네 가지 아치형 중 역학적으로 가장 견고한 것은 타원형이다.¹¹⁾

타원형 아치는 다음과 같이 만든다. 노폭이 2.8m의 아치일 경우에는 원점(a)에서 그 반경(b)인 1.4m에다 0.1m(여기서는 편의상 가감치라고 해 둔다)를 (+)하여 반경을



윤로 천장 아치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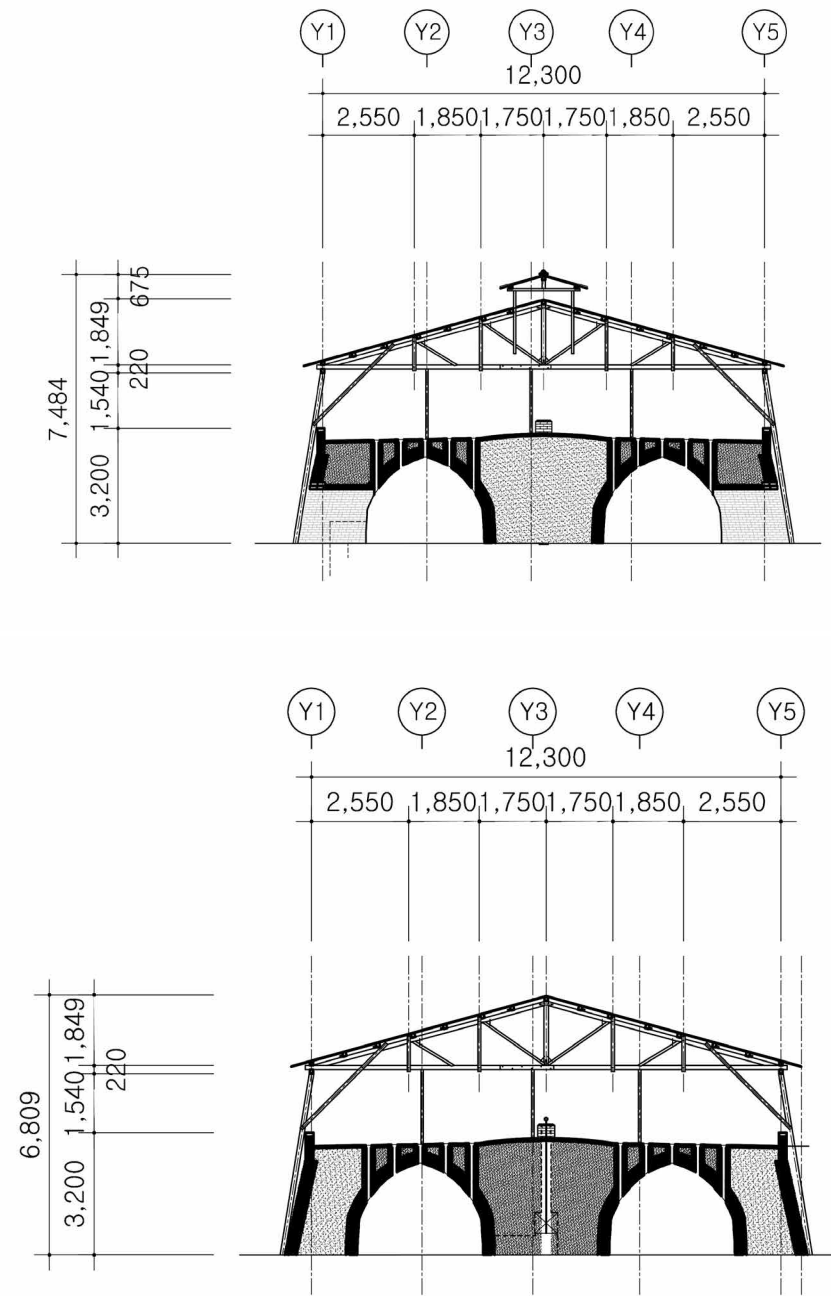


타원형 아치 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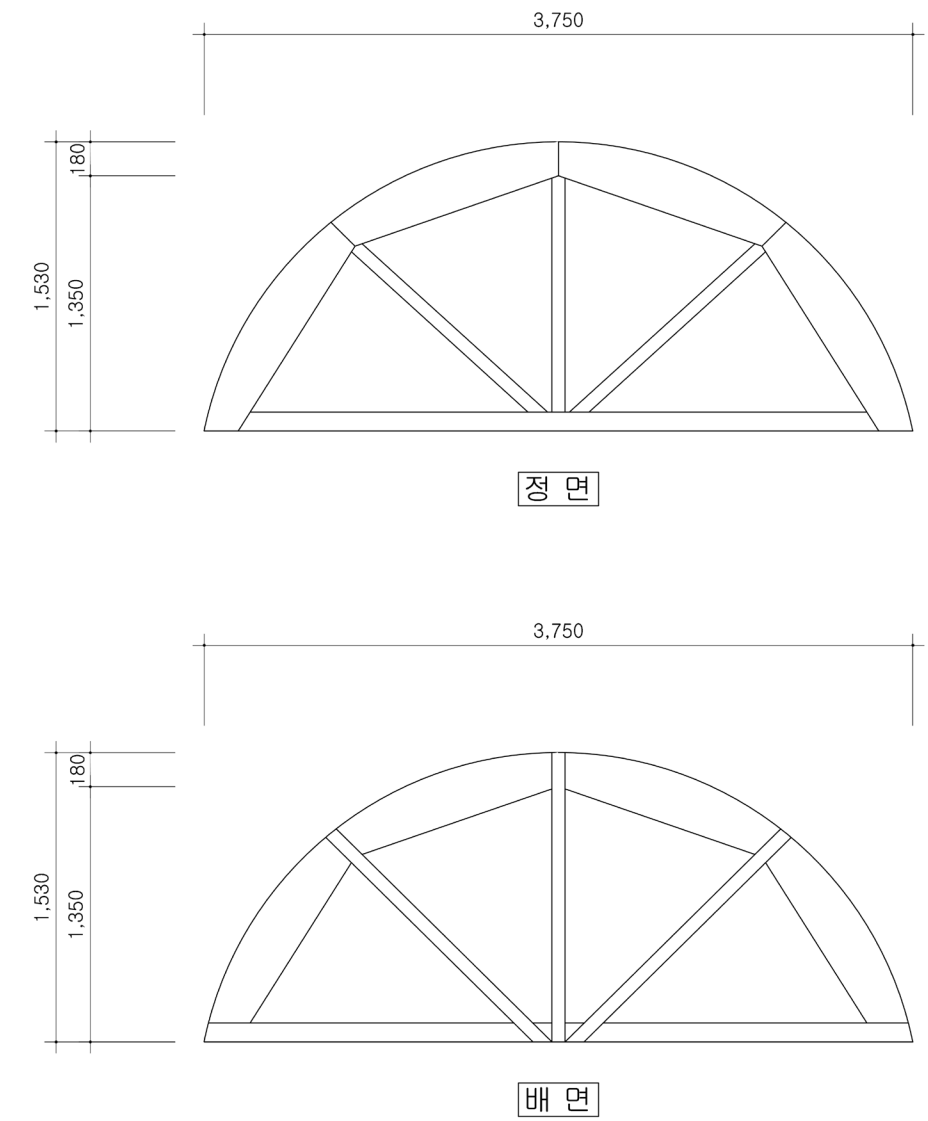
1.5m(c)로 늘려 반원을 그린 다음 다시 원점에서 양변으로 각각 0.1m(가감치)를 끊고 이 끊은 공간을 합쳐서 본래의 촛수로 한 타원형을 만든다.

가감치는 노폭에 따라 다르게 된다. 즉 노폭이 2.5~3.0m의 것은 가감치를 0.1m로 하고 노폭이 3.0m 이상의 노에서는 가감치를 0.15m로 한다. 아치는 반드시 이중아치로 하되 방열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중 아치의 간격을 1~2cm 띄워 단열효과를 노리는 것이 좋다.

외벽은 윤로의 외부 벽을 말한다. 외벽의 지면 벽폭은 보통 1.4~1.8m(1.5~2m)이다. 외벽은 가마 안의 외부 공기로부터 방어하는 동시에 노의 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는 구실을 한다. 윤로 외벽은 경사도가 있어야 잘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기울게 설계해야 한다. 보통 노고(爐高)가 3.0m 정도이고 최대 외벽 폭이 1.6m 전후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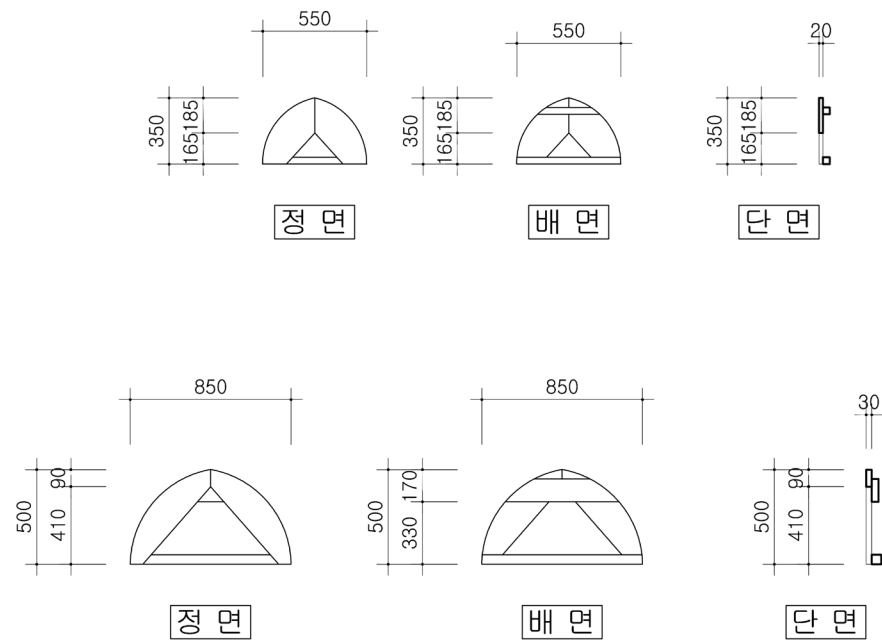
가마 종단면도(수원시, 『수원 영신연와 벽돌공장 일원 기록화사업』, 2020)



아치 틀(수원시, 『수원 영신연와 벽돌공장 일원 기록화사업』, 2020)



가마 상부에 방치되어 있는 아치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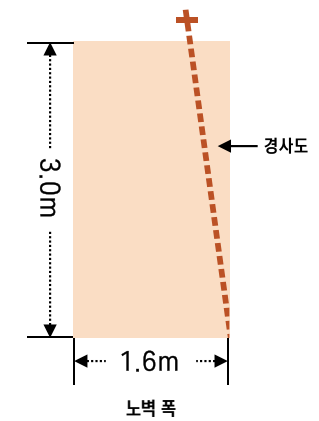
작은 아치 틀(수원시, 『수원 영신연와 벽돌공장 일원 기록화사업』, 2020)



영신연와 가마 외벽

때문에 최대 외폭을 4등분한 다음 상변 4분의 1 지점에서 하변 0점으로 빗변을 이으면 약 8도의 경사도가 생긴다. 우리나라 노퍽 외벽 경사도는 대부분이 2~3도 정도이기 때문에 노의 모서리 부분에는 모두 큰 균열이 생긴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외벽 속 공간에는 거의 모래로 충전하였는데 이보다는 모래와 점토분을 반반으로 혼합한 사질점토로 채우는 것이 좋다. 내벽은 노실 안쪽 벽을 말하는데 대연도(중앙연도) 쪽에는 병품 벽돌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¹²⁾

투탄구는 윤로 천장에 뚫린 구멍으로서 탄을 탄삽으로 떠 넣는 구멍을 말한다. 영신연와 가마 위에는 총 974개의 투탄구가 설치되어 있다. 벽돌을 골고루 소성하기 위해 투탄구는 일정한 간격으로 한 줄에 5개씩 설치되었으며, 가마의 곡선 부분만 간격을 조정하여 설치하였다. 투탄구는 주물제로서 내경 14cm 정도이고 높이는 보통 10cm 정도이며 떠(고리)는 3cm 정도이



외벽의 경사도



영신연와 가마 상부(다큐멘터리사진그룹 각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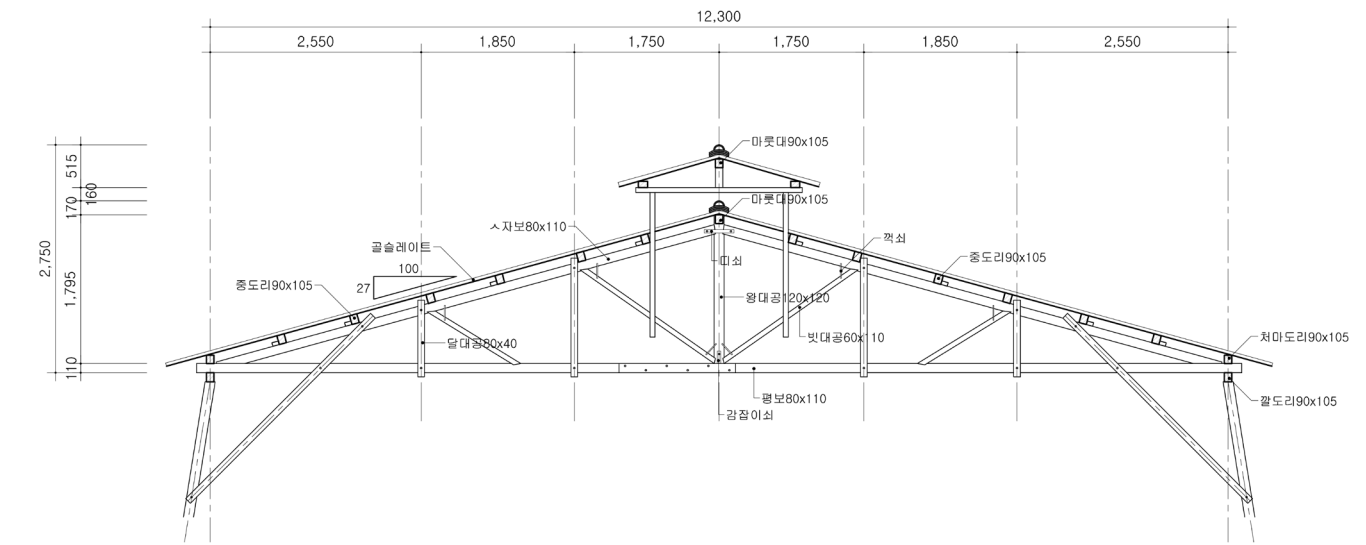


댐퍼 조절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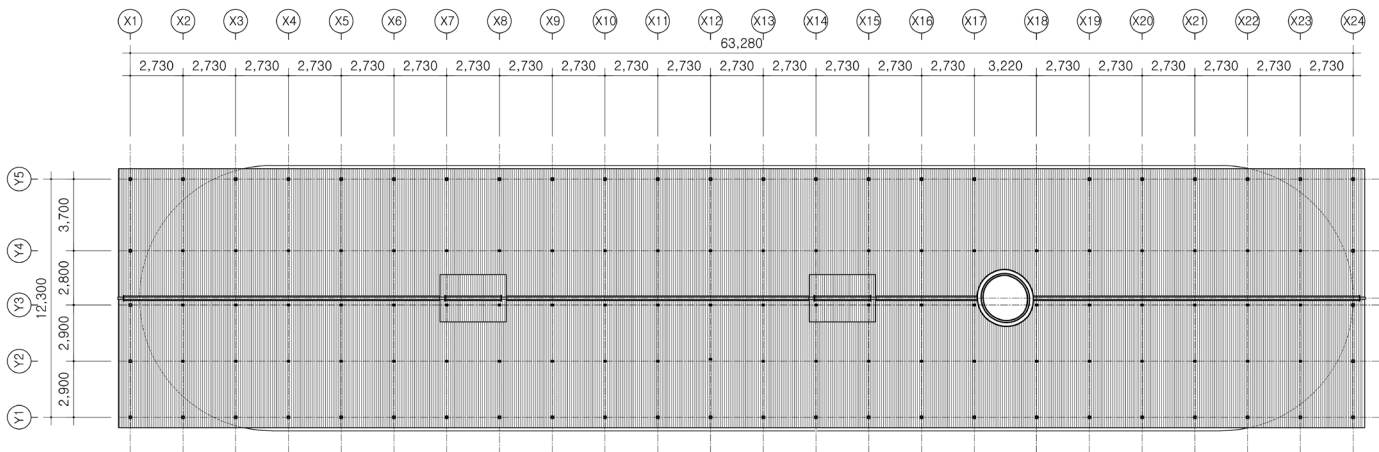


투탄구

오른쪽 동그란 구멍이 사용 당시 투탄구 모습이고, 왼쪽 사각 구멍은 폐업 후 쇠를 빼서 팔았기 때문에 드러난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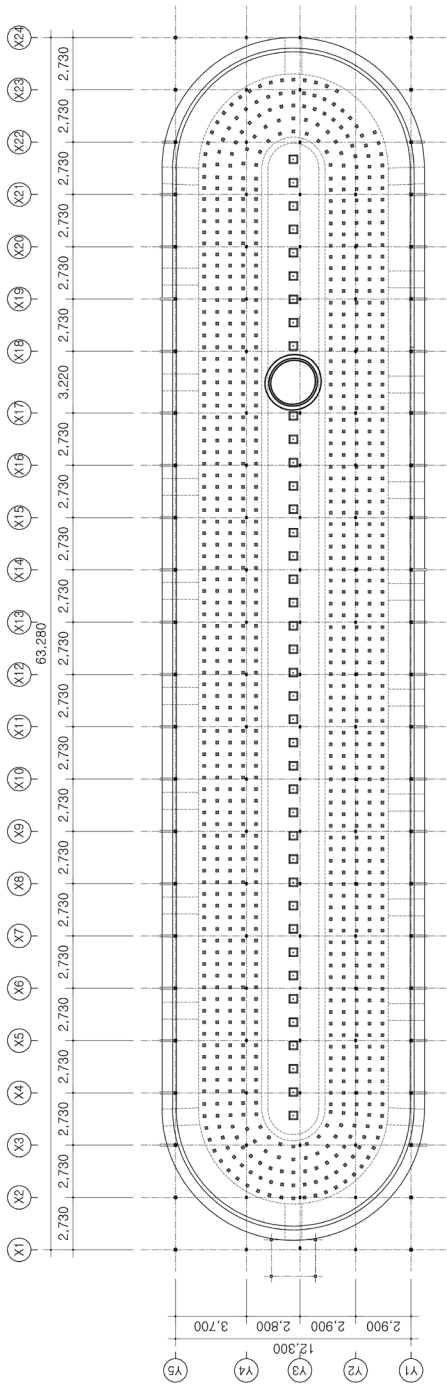


지붕틀 상세도(수원시, 『수원 영신연와 벽돌공장 일원 기록화사업』,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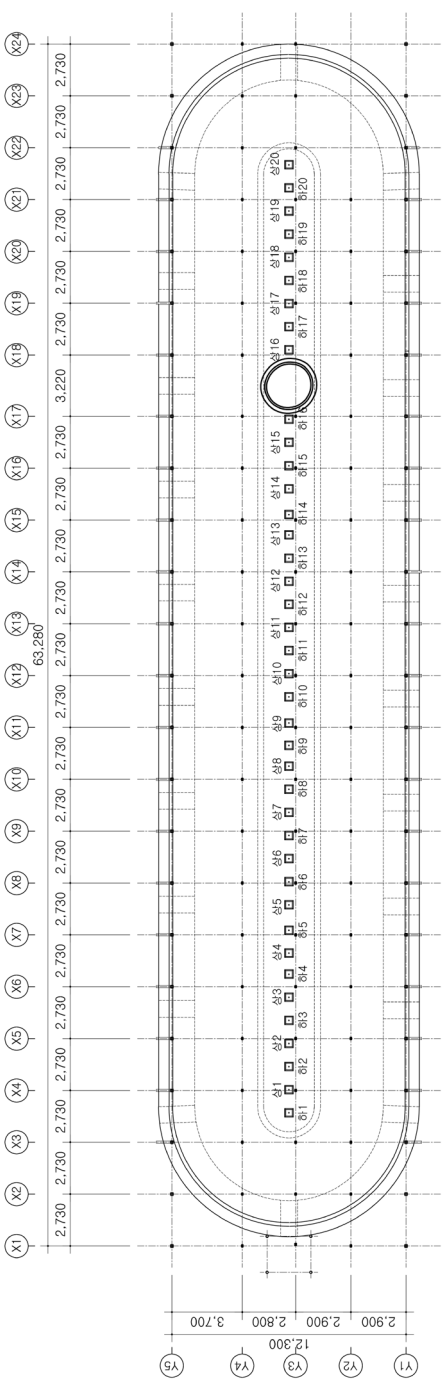


계획

지붕 평면도(수원시, 『수원 영신연와 벽돌공장 일원 기록화사업』, 2020)



가마상부 평면도(계획, 수원시, 『수원 영신연와 벽돌공장 일원 기록화사업』, 2020)



가마상부에 설치된 매퍼 조절장치와 번호(수원시, 『수원 영신연와 벽돌공장 일원 기록화사업』, 2020)



영신연와 투탄구(다큐멘터리사진그룹 각제공)



반원형 뚜껑



수평형 뚜껑

투탄구의 뚜껑

다. 투탄구의 하체(띠 아래 부분)는 일반적으로 원형이 많은데 이것은 방열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더 튼튼히 고정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투탄구의 뚜껑에는 반원형과 수평형이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다. 즉 반원형 뚜껑은 방열면적이 커서 열손실이 많은 반면에 갈구리질 하는 데는 편리하며 수평형 뚜껑은 이와 정반대이다.

투탄구의 간격은 좁을수록 열 분포가 고르게 되기 때문에 소성작업을 하기에 용이하다. 그러나 간격을 좁게 하면 시설비가 증대될 뿐 아니라 윤로 천장 수명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므로 투탄구의 간격은 소성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넓혀야 한다. 투탄구의 간격은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서도 결정되는데 유연탄이나 기름을 땔 경우에는 70~80cm로 간격을 넓혀도 된다. 무연탄의 경우는 55~65cm가 적당하지만 노의 수명을 감안하여 가급적 60~65c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변색벽돌을 소성할 경우에는 간격이 좁아야 하고 보통 벽돌을 소성하는 경우에는 약간 간격이 넓어도 무방하다. 투탄구의 간격은 가로는 좁아야 하고 세로는 약간 넓어도 무방하다. 투탄구의 종열수(縱列數)는 보통 4~6열인데, 영신연와는 5열이다. 노폭이 2.5m(±)는 4열, 3.0m(±)는 5열, 3.5m(±)는 6열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투탄구의 배열은 중횡으로 줄을 맞추어야 열 분포도 고르고 보기에 좋다. 열수가 홀수일 경우에는 아치 중심점에 투탄구가 생겨 노의 수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¹³⁾

윤로의 재료와 시공

윤로 노실(爐室)의 크기와 노재(爐材)는 어떤 벽돌을 생산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소품(燒品)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가마는 노폭이 넓어도 무방하고 노재도 보통 적연와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변색벽돌을 생산할 경우에는 노폭이 좁아야 하고 노재도 적연와와 내화연와를 사용한다. 또한 어떤 연료를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투탄구의 배열과 노재가 결정된다. 예를 들면 화염이 긴 유연탄이나 벙커C유를 사용할 경우에는 투탄구의 간격을 70~90cm로 배열하여도 무방하지만 화염이 짧은 무연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탄구의 간격을 55~65cm로 배열하여야 한다. 노재에서도 방카C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화연와를 사용하기도 한다. 소성작업에서나 요입과 요출 작업에서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즉 굴뚝이 잘 빨아들여야 하고 투탄구 간격을 알맞게 배열하여 소성작업을 편리하게 하며, 대형 운반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노문(爐門)을 크게 해야 한다.

윤로에 재료로 사용되는 적연와는 중앙연도용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소일품(燒一品) 적연와를 사용해야 고온에서 수축현상이 적다. 또한 노문은 출입과정에 대차(台車)와의 충돌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도 소일품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노실의 벽, 천장, 아치, 노문 외벽 등에는 소일품을 사용하고 고온에 접촉되지 않는 대연도에는 병품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윤로 축조에는 전부 흙 모르타르를 사용하지만 외벽에 한해서는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만일 흙 모르타르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표면만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끝손질을 하는 것이 풍수해의 방지와 외기 침투를 방지하는 데 유효하다. 외벽 내부에는 모래를 쓰지 말고 사질점토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질점토라 할지라도 건조된 것으로 채우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충전할 때에는 6~8% 정도의 수분으로 가습하여 벽돌을 축조하면서 사질점토를 채울 때 살살 손으로 다져 가면서 채우면 모래와 같이 벽면을 미는 경향은 없을 것이다.

아치는 가장 많은 압력을 받는 부분일 뿐 아니라 고온에 접촉되는 곳이기 때문에 축조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치 축로에 흙 모르타르를 많이 칠하기 때문에 압력에도 약할 뿐 아니라 변색 소성을 하는 공장에서는 이 모르타르가 용융되어 천장에 고드름 현상을 볼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천장이 무너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아치 축로의 흙 모르타르는 아치 안면에는 흙 모르타르가 없이 벽돌과 벽돌이 직접 접촉되도록 함으로써 고드름 현상에 따른 천장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투탄구 구멍이 많다는 조건에서 윤로 천장은 축로가 복잡할 뿐 아니라 투탄구로 인하여 벽돌 이음줄이 지그재그로 되지 않고 곧은 줄로 축로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천장이 약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긴 2분의 1 벽돌(반장 벽돌)을 사용하여

2매 이상의 곧은 줄로 된 이음줄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치 축로에는 켜기형 벽돌로 축로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윤로가 보통 벽돌로만 쌓고 마지막 한 장만 켜기벽돌을 사용하여 아치가 제 구실을 못다 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치 전부 다 켜기형 벽돌을 쓰지는 못하더라도 가급적 많이 사용하는 동시에 마지막 중심선에는 켜기질을 세게 쳐 가며 축로해야 한다.¹⁴⁾

1) 송재선의 『벽돌기술』(한국적연와협회, 1989)을 참조로 하여 정리하였고, 수원시 문화예술과의 「수원 영신연와 벽돌공장 일원 기록화사업 보고서」(도면)을 참조하여 보완하였다.

2) 김태중, 「구한말 도지부건축소 부설 연와제조소에 관하여」, 『연구논문집』 3, 경남대학교 부설 공업기술연구소, 171쪽.

3) 송재선, 『우리나라 벽돌사』, 미래문화사, 2006, 366쪽.

4) 송재선, 『벽돌기술』, 한국적연와협회, 1989, 173~174쪽.

5) 송재선, 『벽돌기술』, 한국적연와협회, 1989, 187쪽.

6) 송재선, 『벽돌기술』, 한국적연와협회, 1989, 180~191쪽.

7) 송재선, 『벽돌기술』, 한국적연와협회, 1989, 180~191쪽.

8) 송재선, 『벽돌기술』, 한국적연와협회, 1989, 192쪽.

9) 송재선, 『벽돌기술』, 한국적연와협회, 1989, 185~18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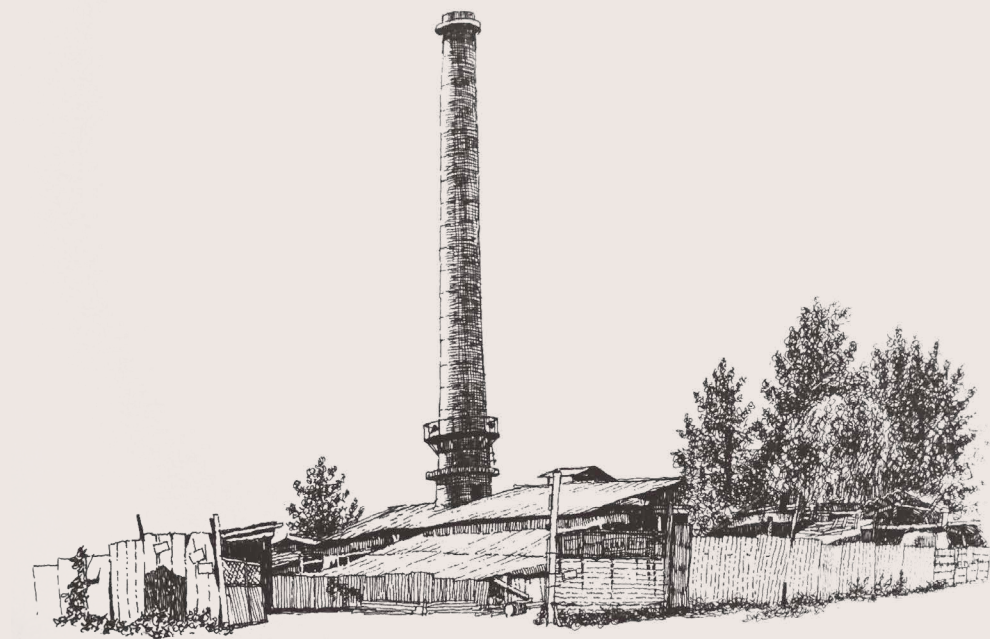
10) 송재선, 『벽돌기술』, 한국적연와협회, 1989, 187쪽.

11) 송재선, 『벽돌기술』, 한국적연와협회, 1989, 189쪽.

12) 송재선, 『벽돌기술』, 한국적연와협회, 1989, 177~178쪽.

13) 송재선, 『벽돌기술』, 한국적연와협회, 1989, 178~180쪽.

14) 송재선, 『벽돌기술』, 한국적연와협회, 1989, 181~18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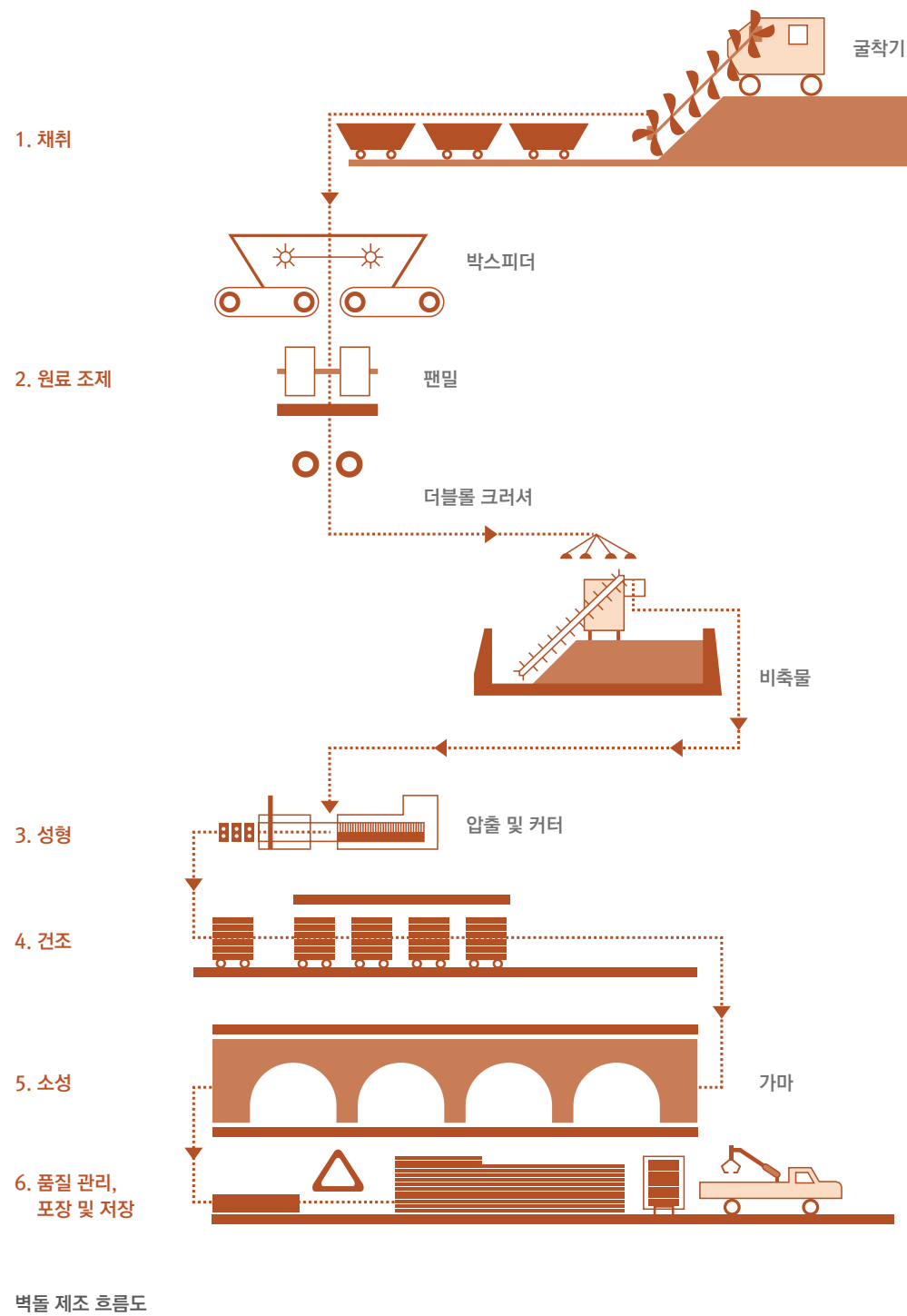


영신연와 벽돌 만들기

벽돌 제조 단계와 인력

한말 이후 서구식 벽돌건물의 건축이 늘어나면서 붉은 벽돌은 점차 주요한 건축재료로서 받아들여졌다. 벽돌의 제조기술은 시대 및 공간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벽돌 제조과정은 ‘제토→성형→건조→소성’의 단계가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영신연와 인력은 관리직과 생산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관리직 인력은 회장·사장·상무·부장·대리·경리 등이었으며, 제1공장의 생산직 인력은 100명 정도에 이른다. 벽돌 제조 작업에 따른 인력 배치는 <표 1>과 같다.

<표 1> 영신연와 벽돌 제조 작업과 인력

단계	작업	인원(명)	명칭(속어)	비고
채토	벽돌 생산 업무 총괄	1	공장장(감독)	직원
	원토를 이동하는 일	3	화물차 기사	직원
	적치장 흙을 기계창으로 옮기는 일	1	불도저 기사	직원
	수레로 흙을 기계창으로 옮기는 일(불도저 도입 전)	2		
성형	기계 관리	1		
	기계에 흙을 퍼 넣는 일	3	가쿠메	
	벽돌을 절단하는 일(자동기계 도입 전)	3	세시당	
	절단된 벽돌이 나오면 수레를 대주는 일(자동기계 도입 전)	2	도로마시	
	절단기 철사에 묻은 흙을 솔로 닦는 일	5	솔쟁이	
	생벽돌을 건조장까지 이동하는 일	20	앞차(딸딸이)	
건조	생벽돌을 건조장에 쌓는 일	4	마당모치(쓰미)	
	벽돌이 잘 마르도록 비닐을 덮거나 걷는 일	8	뒷일	
	벽돌 모서리를 다듬는 일		다대기	
	파벽을 골라내어 버리는 일	1		
소성	마른 벽돌을 건조장에서 가마 안까지 옮기는 일	8	시라지	
	가마에 벽돌을 쌓는 일	3	가마쓰미	
	가마 문을 막거나 트는 일	1		
	투탄구에 무연탄을 넣어 불을 조절하고 댐퍼를 열어 연기를 조절하는 일	3	화부	
	구워진 벽돌을 가마에서 꺼내어 판매 차량에 싣거나 창고로 이동하는 일	9	아가지	



영신연와 서쪽에 위치한 토취장(1974년, 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제토(製土)

벽돌은 진흙(점토)과 모래가 7 대 3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벽돌의 주재료인 진흙과 모래를 채토(採土)해야 한다. 원토의 채취와 운반 공정은 벽돌 제조 공정 중에서 가장 힘든 과정이었다. 원토를 채취하는 작업은 팽이, 곡괭이, 삽 등을 사용하여 야산을 파거나 평지를 깊게 파는 방식이었고 운반하는 작업도 매우 힘든 중노동이자 위험이 뒤따랐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군용 중장비와 중고품이 민간에 불하되면서 일부 벽돌공장에서는 이를 이용하거나 임대한 불도저로 원토를 파서 밀어 가게 되므로 원토 채취 공정이 기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60년대 원토 채취와 운반은 기계화 또는 반기계화되었다고 한다.

영신연와에는 채토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 전국의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벽돌 제조에 적합한 흙인지 검사한 후에 점토를 구해 왔다. 대개 흙 값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고 운반비만 냈다고 한다. 점토는 표토를 제거한 다음 굴착기계로 파냈으며 채취 운반된 점토는 적치장에 쌓아 두고 겨울 동안 풍화시켰다. 영신연와의 경우도 흙을 구하면 25톤 트럭으로 실어 와 공장 주변에 쌓아 두었는데, “산처럼 쌓아 두어도 기계가 돌아가면 1년도 못 가서 사라”진다고 한다.



영신연와 초기 토취장

이상길 삼대사방에서 공사를 하느라고 산 같은 거 밀잖아. 그럼 흙이 좋잖아. 벽돌 빼기에 적합한 흙이다, 검사를 해가지고 적합하다 하면 그걸 사와. 사장이 돈을 주는데, 무슨 돈을 주느냐면 흙 값은 안 줘. 운반비. 그러면 한대에 운반비가 만약에 저 조암 같은 데서 오잖아? 그럼 한 4만 원씩 줘야 된다고 운반비가. 25톤 차가. 그러면 그냥 밤낮으로 차가 오는 거야. 계속 갖다 붓는 거야. 이게 산이여 산. 기계가 돌아가면 1년도 못 가서 저거 다 없어져.

풍화된 점토는 기계실로 이동하게 되는데, 영신연와 설립 초기에는 2명의 인력이 직접 흙을 퍼서 수레에 담아 기계창으로 옮겼으나, 불도저가 도입되면서 불도저가 적치장의 흙을 기계창으로 이동하는 데 사용되었다.



영신연와에서 사용하던 불도저(다큐멘터리사진고를 각제공)

이상길 도저가 없을 때. 도저가 나중에나 왔지. 이거 공장 생기고 한 10년 후에 나왔어. 그전에는 원토 구루마라고 해서, 원토라고 해서, 사람이 구루마 하나에 두 사람씩 해서 내루(レール)철 맨들어서 짝 놓고 이렇게 파 실어 갖고 와서 쏘고 그랬어. 흙만 퍼다 갖다 여기다 부어 줘.

기계실에서는 분쇄·수파(水簸)·체거름 등을 통해 점토를 미세한 입도의 분말로 정제한 후 마사토·진흙·모래 등을 배합하여 반죽을 만들었다. 이때 ‘가쿠메’라 불리던 세 명의 인력이 기계 안으로 흙을 넣어 주었다. 점토의 반죽방법은 습식공법(수분을 첨가)과 건식공법(황토 자체 수분)으로 구분되는데, 영신연와는 습식공법으로 반죽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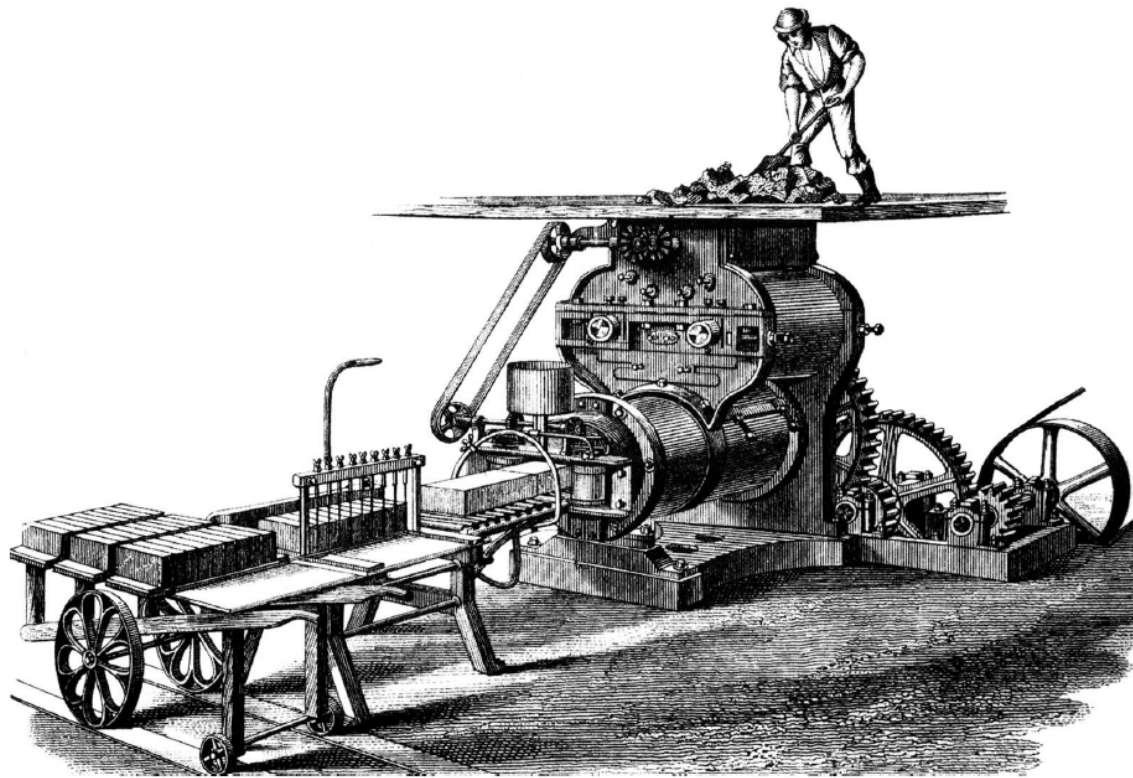
엄창용 세 가지. 이런 마사토(굵은 모래)하고, 진흙, 그리고 또 모래. 그렇게 (벽돌에) 서너 가지가 들어가. 그래야 이게 흙이 말라도 깨지지 않고 터지지 않아

성형(成形)

기계 도입과 관련하여 영신연와에서 벽돌 성형 과정은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에는 나무틀을 사용하여 손으로 벽돌을 찍어냈다. 두 번째 시기에는 한국 제품의 기계가 사용되었는데 반수동 과정이었다. 세 번째 시기는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이탈리아에서 기계를 도입하여 성형 과정을 자동화하였다.

박지원 벽돌공장은 초기에는 열악한 가운데 기계가 없어서 전부 손으로 찍어냈다. 그 뒤 들여온 벽돌 기계는 한국 것이었다. 그 다음 이탈리아 것을 사용했다. 차관을 들여와 도입했다. 가격이 지금 시세로 7~8억 정도 되었다. 이제 빨간 벽돌, 파란 벽돌 등 벽돌에 색깔을 넣어 만들 수 있었다.¹⁾

반죽된 점토는 일정한 규격을 갖추기 위해 주형틀에 맞춰 벽돌 모양으로 성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벽돌 성형기도 기계화가 되었는데, 크게 ‘압출방식(extruding)’과 ‘가압방식(pressing)’이 있다. 영신연와는 압출방식이었는데, 압출성형은 반죽된 점토를 성형기의 주형을 통해 길이와 폭이 일정하게 점토를 압출하고, 이를 물러를 통해 절단



근대 초기에 사용된 압출성형기

대로 이동하여 벽돌 두께 간격으로 세워진 철선으로 벽돌을 절단하는 방식이다.

압출방식은 연속조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단면적이 균일한 형태의 벽돌을 비교적 손쉽게 성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벽돌 생산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성형 시 주형의 크기와 철선의 간격 등은 벽돌의 수축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운반 물러에 제작회사 상표를 양각하여 벽돌에 상표를 새기기도 하였는데, 영신연와도 벽돌에 ‘영신’이란 상표가 새겨지도록 물러에 양각되어 있었다.

수동기계를 사용하던 시기에는 3명의 인력이 벽돌을 절단하는 일에 배치되었고, 이들을 ‘세시당’이라 불렀다. 이때 기계에 물을 흠을 닦아내는 일은 5명이 수행하였는데, 이들은 철사를 솔로 닦아낸다 하여 ‘솔쟁이’라 칭하였다. 자동화가 되기 이전에는 벽돌이 절단되어 나오면 수레를 대주는 ‘도루마시’도 2명 있었다.

이상길 초창기에는 세시당이라고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자를 때는 도루마시라고 구루마를 대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 그걸 도루마시라고, 그게 일본 말 이거든. 맨날 돌아다닌다고 해서 도루마시여. 그게 두 명이 있었거든. 자동화되기 전까지는.

1986년도 전후로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며 절단 과정이 자동화되었다. 절단기계에는 인력 1명을 배정하여 벽돌 규격을 맞추었다. 영신연와의 경우 하루에 보통 5만 4,000장의 벽돌이 생산되었는데, 성형기를 통과한 반죽은 세 장씩 절단되었다.

이상길 속에는 껍데기는 나무지만 속에는 기름 돌게 손가락같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기름이 돌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다 기름이 통하게. 그래야 물이 여기로 통해, 이렇게. 그러면 이게 나오면서 갈라지지 않아. 이제 말라서 나오면 나오면서 짜르르 갈라지잖아. 그러니까 이 모서리 같은데 이런 데 물이 이렇게 돌아다니게 만들어. 껍데기는 나무고 속에는 스텐으로 이제. 스텐인레스 판을 잘라 가지고 이렇게 대고 박아 가지고. 그 기계로 물이 흐르게 만들어 가지고 흠을 빼는 거야. 말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제 이렇게 돼있어요. 하네통이 이렇게, 물들은 하네통이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길어, 이제 이렇게 하네가. 이제 한 5미터 된다고, 기력지가.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비벼 주는 떡방아. 떡 비벼 주는 거. 똑같은 거야, 원리가. 그렇게 비비는 게 여기 있어요, 쪽 이렇게 한 5미터. 그러면 이 가운데 이렇게 둥그렇지만 이 가운데 끝에 와서는 이렇게 짜서, 벽돌이 이리 나오게 하면 여기서 많이 비벼서 막 강제로 기계로 밀어 넣으면 이리 탄탄하게 나올 거 아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나무를 이라면 이 안에다가 짜는 거, 물이 돌게. 그래갖고 그리 나오면 매끈하게 나오지. 이렇게 이제 나오면 여기서 이제 자르는 거야. 저기, 저 그거 뭐야 컨베이어벨트. 이제 컨베야로 이렇게 가서 자르지. 그러면 컨베야가 판이 계속 돌잖아 이렇게 아래로. 그래서 여기서 잘라서 두면 여기 나오잖아. 여기서 사람들이 집어서 이렇게 구루마들이 와서 54장씩 실어가.

성형이 된 벽돌을 건조장으로 이동하는 인력이 18~20명이 한 조로 구성되어 움직였다. 차로 벽돌을 나른다고 해서 ‘앞차’라 불렸으며, 주로 여성들로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72장씩 수레에 담아 옮겼으나 운반이 어려워 곧 수레를 개조해 54장씩의 벽돌을 담아 옮겼다고 한다. 앞차의 반장은 그날의 생산량을 점검하여 기록해 두었는데, 이렇게 기록된 생산량에 근거해 인부들의 인건비가 계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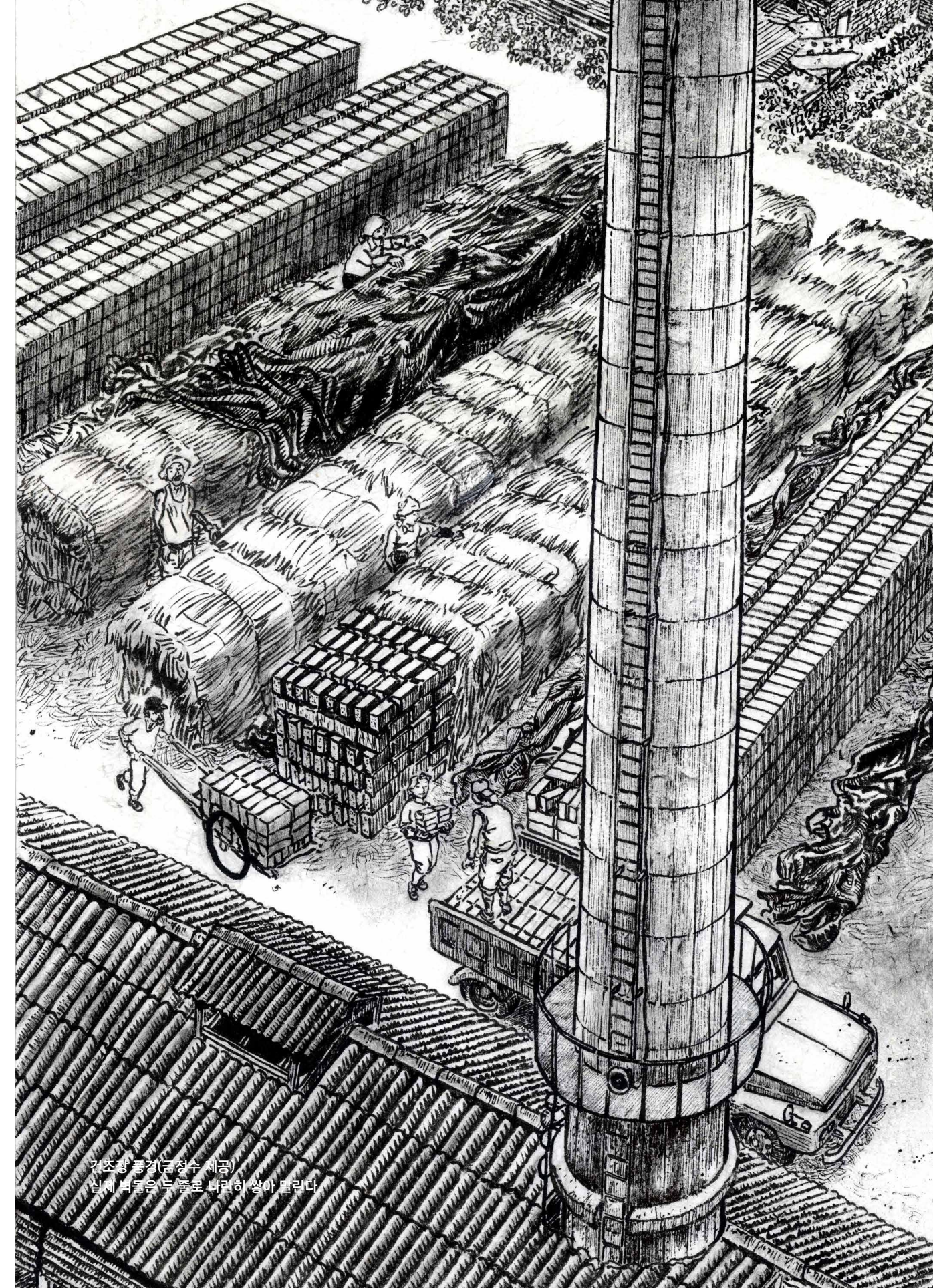
이상길 그리고 인제 자동화되고 나서 아줌마들이 직접 대지. 그때는 아줌마들만 아니라 남자들도 앞차를 했었어요. 남자들도. 그럼 그냥 기계에서는 많이 나오고 사람은 적어서 끌어내지 못하면 구루마가 좌악 앞에 나와 있었어. 쌓아 놓은 게. 그러니까 나르는 사람들은 한 발짝도 쉬지도 못 해. 계속 가야 돼. 그러니까 다리가 막 이렇게 붓고 그래. 하루 쫓일 걸으니까.

이영식 고정으로 나가는데, 앞차를 끄는 아줌마가 몇 대 뺐는지 계산을 해요. 만보가 있어요. 만보라는 게 뭐냐면 아줌마 한 대 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바둑알 같은 걸 하나씩 놓는 거야. 그래 가지고 오늘 몇 대 한 거를 아는 거지. 우리(가쿠메)는 그거 몇 대 가는 거마다 세지 않아. 아줌마가 그거(구루마) 한 사람이 끌고 가면 또 하나 놓고 그래 가지고 총계를 하는 거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오늘 몇 대 했다 하면 그거를 해서 마당오야 아줌마가 오늘 몇 대 했으면 몇 대 해서 빠진 사람 이름만 적어 놓고 딱 해는 거야. 그걸 노나 갖고.

건조(乾燥)

성형된 생벽돌은 건조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건조가 잘 되도록 야적장에 벽돌을 쌓는 일을 하는 사람이 네 명이 있었다. 건조할 벽돌을 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마당모치'라 불렀는데, 이들은 하루에 생산되는 벽돌을 모두 쌓아야 일이 끝났다.

이상길 기계실에서 나와서 건조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건조장으로 가면은 건조장에서 받아 쌓는 사람이 있어. 네 명. 그게 굉장히 힘들어. 네 명에서 계속 하루에 54,000장 나오면 54,000장 다 쌓아야지.



건조장 풍경(김정수 제공)
일해 벽돌은 두 줄로 나란히 쌓아 말린다

건조장은 배수가 잘 되도록 만들어야 하며,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지 않도록 벽돌 두 줄씩을 나란히 깔아 놓고 그 위에 생벽돌을 쌓았다. 비가 오는 날에는 비닐을 덮어 벽돌이 젖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비닐을 덮고 벗기는 일은 여성들이 도맡아 했으며, 비닐 양 끝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둘씩 짝을 지어 8명이 일을 수행하였다. 이런 인력을 일컬어 ‘뒷일’이라 불렀다.

업창용 비닐은 그냥 빗졌다, 덮었다 그러는 거지. 매일매일 벗기지. 이제 바싹 마르면 안 벗기고. 안 마른 거는 벗겼다, 덮었다, 해야 돼. 그래야 마르지. 벗기면 습기가 나가 버리잖아. 젖은 걸 비닐을 덮어 놓으면 습기가 꽉 차 있잖아. 그럼 안 마르고 푸시룩해진다고. 벽돌이. 그럼 깨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낮에는 열어 놔야 되거든. 저녁때는 또 이슬이 맞고 이러면 안 되잖아. 벗겨 뒀서 비 맞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럼 또 덮고. 이게 날씨가 좋으면 밤에도 안 덮어요. 마르라고.

기계화가 되기 이전에는 건조장에 벽돌이 쌓이면 벽돌 끝을 닦는 인력도 배치되었다. 즉 벽돌을 철사로 잘랐을 때는 벽돌 끝이 깨끗하게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벽돌 끝을 닦아내야 했는데, 주로 여성들이 이 일을 담당하였다. 마당에 적재된 벽돌 중 파손된 벽돌은 주로 남자 1명이 골라내 버렸다. 벽돌이 한 달 정도 건조되면 소성을 위해 가마 앞에 적재하게 하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은 8명이었으며 ‘시라지’라 불렀다.

소성(燒成)²⁾

소성작업대

소성은 ‘벽돌의 경도(硬度)를 높여 건축재료로서의 성능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벽돌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최종단계라 할 수 있다. 소성 온도는 1,200℃ 정도이고, 한 가마에서 1만 5,000장 정도를 구웠다. 생벽돌을 각 칸에 이격하여 상하 직교되게 쌓고, 열을 가한 뒤 서서히 냉각하여 요출하는데, 이 과정은 약 2주 정도 소요된다.

소성작업대는 소성작업을 하는 구간이다. 이 작업구간은 작업별로 구간을 일정하게 설정하고, 이것을 시계바늘이 돌아가듯 정상적으로 유지해야만 질 좋고 색이 고른 벽돌을 다량으로 소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성작업대를 설정하고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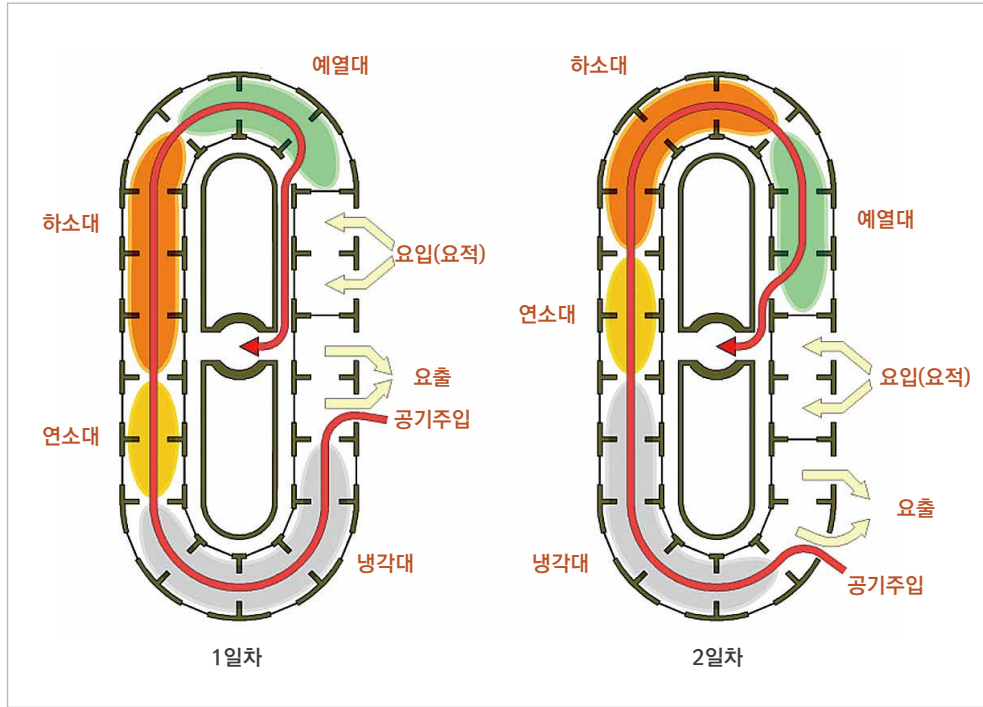
나 못하느냐에 따라 소성의 우열이 결정된다. 소성작업대는 소성대(燒成帶), 예열대(豫熱帶), 요적대(窯積帶), 냉각대(冷却帶), 요출대(窯出帶), 공간대(空間帶) 등으로 이루어졌다. 단 소성작업대의 칸수는 벽돌의 종류, 사용하는 연료, 그리고 인공력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또한 소성작업대를 설치하고 소성하는 조건에서만 고속소성도 가능하다. 이에 대한 배치는 <표 2>와 같다.

<표 2> 소성작업대의 칸수

구분	소성대	예열대	요적대	냉각대	요출대	공 칸	계
보통소성	1.5~2	3~4	3	5	3	2	17.5~20
고속소성	2~3	5~6	3	5	3~4	2	20~23

소성대는 연료를 연소시켜 소성하는 구간을 말한다. 터널가마(Tunnel Kiln)는 소성대가 고정되어 있고 벽돌이 소성대를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속도로 통과하게 되었기 때문에 소성작업은 간편하지만 윤로에서는 이와 반대로 벽돌이 고정되어 있고 소성대 자체가 이동하기 때문에 윤로 소성이 어려운 것이다. 벙커C유를 사용하면 소성대를 기름 소성대와 탄소성대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 기름 소성대가 변색대(變色帶)이다. 변색벽돌을 소성하는 경우에는 변색대가 요구된다. 변색대는 변색벽돌을 소성하는 대로서 소성대와 냉각대 사이에 있는 대를 말한다. 즉 변색대는 소성대의 뒤끝인 기점에서 시작하여 벙커C유를 넣는 구멍까지의 구간으로 각 대 중에서 가장 짧은 대이다. 벙커C유는 온도를 높여 변색벽돌이 만들어질 온도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엄밀히 말하면 변색대도 소성대에 속하지만 소성목적에 따라 소성대는 보통 적벽들로 소성하는 구간이고 변색대는 변색벽돌로 소성하는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름소성대의 구간을 보통 7~10구멍(칸수로는 약 0.7~1칸)으로 소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름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0.5칸 전후로 축소시키도록 하는 대신 탄소성대를 증대시키도록 해야 한다. 현재 탄소성대는 보통 1.5칸 전후인데 이것을 2~2.5칸으로 늘리면 고속소성을 할 수 있게 되며 연료와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예열대는 소성대 앞에 요직한 구간 중에서 마지막 벽지를 댄 구간까지를 말하는데, 이 구간은 소성대에서 배출되는 폐열이 통과하거나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예열대를 보통 3칸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4~5칸으로 유지하면 소성진도도 이에 비례해 빨라질 수 있다. 특히 배풍기(排風機)를 사용하는 공장에서는 예열대 5~6칸이 필요하다. 굴뚝을 사용하는 공장에서도 예열대를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



소성 과정

이 소성진도를 촉진시키고 폐열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된다.

요적대는 현재 요적 중에 있는 구간을 말한다. 실제로 요적하는 구간은 비록 한 칸이지만 요입하는 리어카가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적대의 구간은 3칸 이상이 필요하다.

냉각대는 소성이 끝난 구간으로 요출하기 위하여 서서히 냉각시키는 구간이다. 냉각대의 구간은 5~6칸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만일 이보다 구간이 짧으면 1차 공기, 또는 2차 공기의 과잉으로 급냉 균열이 발생하거나 벽돌 색이 곱지 않게 된다. 변색 소성을 하는 경우에는 소위 동색(누런색)이 많이 발생한다. 반대로 냉각대 구간을 너무 길게 남겨 두면 1차 공기 부족으로 연소에 지장을 주게 된다.

요출대는 냉각대가 40도 이하로 냉각되었을 때 가마에서 벽돌을 외부로 꺼내는 구간을 말한다. 요출대 구간은 그 공장의 소성진도에 따라 결정된다. 즉 매일 2칸씩 소성하는 공장이라면 2칸만 요출해야 하고 3칸씩 소성하는 공장이라면 요출도 3칸을 하여야 한다. 여기에 리어카가 출입하는 칸을 1칸 추가해서 사용하게 된다. 요출대는 요출하기 전날 투탄구 뚜껑을 열고 요출에 지장이 없도록 냉각시켜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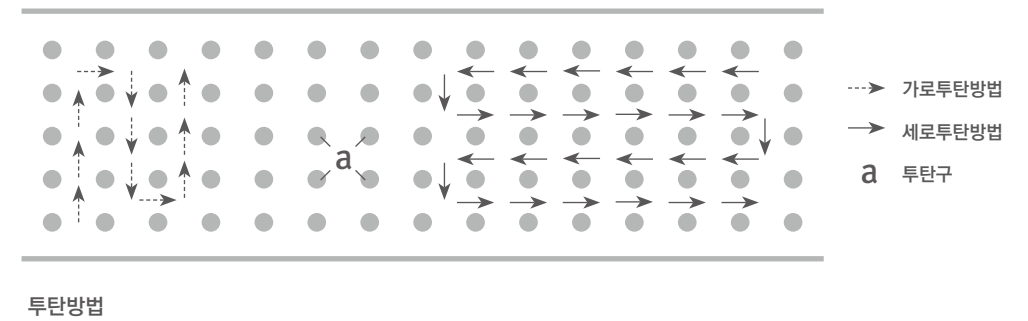
벽돌 적재와 가마 문막기

가마 앞에 적재된 벽돌을 가져다 요실에 쌓는 일을 하는 사람을 ‘쓰미’라 불렀고 3명이 한조를 이루어 작업하였다. 하루에 보통 3~4가마에 벽돌을 쌓아 5만 4,000장 정도를 구울 수 있도록 하였다. 가마에 벽돌을 쌓을 때는 투탄구 자리에 맞춰 불구멍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즉 화부가 투탄구에서 무연탄과 벙커C유를 떨어뜨렸을 때 불이 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 두고 벽돌을 쌓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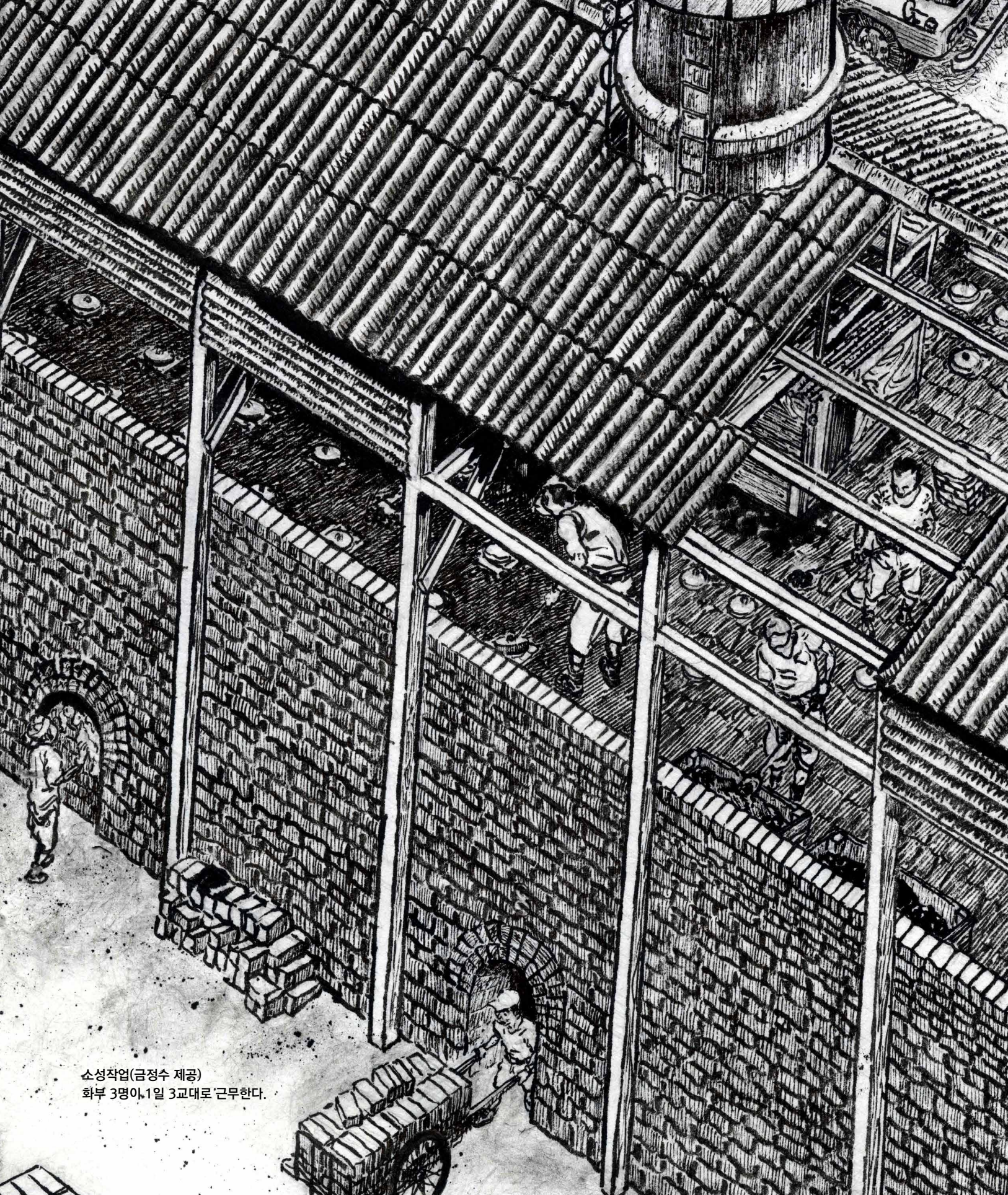
가마에 벽돌을 가마 문을 막거나 여는 일을 하는 사람은 1명이었다. 문을 막을 때는 안벽과 바깥벽을 쌓고 벽 사이에 모래를 넣고 막는 법과 모래를 넣지 않고 그대로 쌓는 법이 있다. 전자는 일제 때부터 내려오는 재래식 문막기법이며 후자는 근래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문막기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후자가 도입되어 현재에 와서는 대부분의 공장에서 이 문막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모래의 전도율은 공기의 37배이므로 모래를 넣으면 37배의 방열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모래를 넣고 문을 막는 것이 방열에 더 효과적일 것 같지만 과학적으로는 이와 반대이다. 모래를 넣지 않고 문을 막으면 노력도 절감할뿐더러 비싼 모래도 사용하지 않게 되므로 원가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투탄 인력과 투탄 작업

가마 위에서 투탄구에 무연탄 가루를 넣는 화부는 3명이 있었는데, 이들을 가마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하루에 3교대로 근무하였다. 투탄작업의 자세는 오른손에 든 탄삽으로 탄을 뜨는 동시에 왼손에 든 불가구리로 투탄구 뚜껑을 열고 투탄구 중심에 탄을 넣고 뚜껑을 덮는다. 이 동작을 빨리 하지 않으면 투탄구 뚜껑을 열었을 때 안에서 방출되는 열손실이 많게 된다. 투탄 작업에는 투탄 코스에 따라 가로투탄법과 세로투탄법으로 구분된다.



투탄방법



소성작업(금정수 제공)
화부 3명아, 1일 3교대로 근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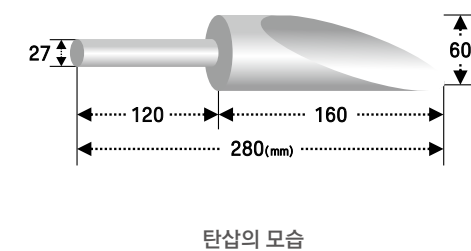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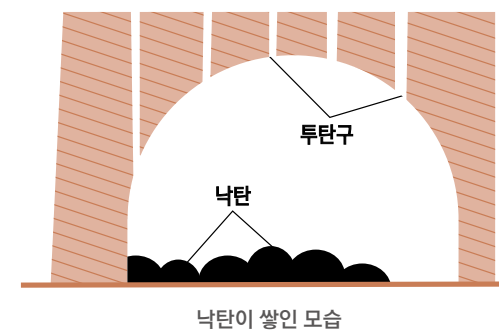
가로투탄법은 ‘ㄴ’자형으로 된 투탄코스이다. 가로투탄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서 시작하여 뒤로 가는 방법과 뒤에서 시작하여 앞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 매연이 적은 무연탄을 사용할 때는 어느 방법이든 상관없지만 매연이 많은 유연탄을 사용할 경우에는 앞에서 시작하여 뒤로 가면서 투탄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만일 뒤에서 시작한다면 앞으로 갈 때 매연으로 인하여 투탄구 속의 벽돌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세로투탄법은 투탄구가 세로 4~6열로 된 것을 2~3열로 나누어 ‘U’자형 코스로 투탄하는 방법이다. 이 투탄법은 앞에서 시작하든 뒤에서 시작하든 무방하다. 가로투탄법과 세로투탄법은 각자 장단점이 있는데, 가로투탄법이 소성공의 노력은 더 들더라도 진도가 빠르기 때문에 소성작업 면에서는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표 3〉 가로투탄법과 세로투탄법 비교

구분	가로투탄법	세로투탄법
열 분포	열 분포가 가로로 진행되기 때문에 고르게 분포된다.	열 분포가 단면 반쪽씩 각각 진행되기 때문에 고르게 진행되지 못한다.
소성작업	투탄 작업 시 소성공이 많이 돌아다녀야 한다.	소성공이 별로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작업이 편하다.
소성진도	소성 진도가 빠르다.	소성 진도가 비교적 느리다.

탄삽이 크면 가마의 투탄구 아래쪽 바닥에 둥글게 낙탄(落炭)이 쌓이게 된다. 이러한 미연소탄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삽도 작게 해야 한다. 각 공장에서 사용하는 탄삽용량은 대부분 300g 전후인데 240g 전후가 담기는 탄삽으로 투탄을 하면 미연소탄이 발생되지 않았다. 따라서 투탄량 230~250g 정도를 뜰 수 있는 용량을 가진 탄삽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단 유연탄을 사용할 경우에는 탄삽의 용량을 20~30% 키워야 한다.



투탄량은 투탄구간 위치에 따라 양을 달리 한다. 투탄 구간의 구멍수를 3등분하여 구간별로 첫 번째 구간부터 세 번째 구간까지 점점 양을 적게 투하한다. 점점 적게 넣는 이유는 앞으로 갈수록 불이 약할 뿐 아니라 세 번째 구간의 마지막 구멍 쪽에는 바닥 불도 붙지 않았으므로 연소능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양쪽 투탄구는 중앙에 비해 요적 높이가 약 3분의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넣는 투탄량도 중앙의 3분의 2로 하되 앞으로 5구멍씩 가면서 투탄량은 3분의 1씩 줄여야 한다.

〈표 4〉 투탄구 위치에 따른 투탄량

소성별	투탄구 위치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보통소성	중앙 투탄구	(한 삽)250g(±)	(한 삽의 3분의 2) 170g(±)	(한 삽의 3분의 1) 80g(±)
보통소성	양쪽 투탄구	(1삽의 3분의 2) 170g(±)	(170g의 3분의 2) 110g(±)	(170g의 3분의 1) 60g(±)
고속소성	중앙 투탄구	(1삽의 3분의 2) 170g(±)	(1삽의 3분의 2) 170g(±)	(1삽의 3분의 1) 80g(±)
고속소성	양쪽 투탄구	(1삽의 3분의 2) 170g(±)	(170g의 3분의 2)	(170g의 3분의 1) 60g(±)

자질하기

벽돌의 소결상태(燒結狀態)는 숙련된 소성공은 육안으로도 벽돌 표면이 누런 오렌지색이 되고 불 때가 벗겨져 맑게 되면 소품(燒品)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측정이 필요할 것이다. 고온 온도계로 측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벽돌공장에서는 주로 자로 재기, 즉 자질을 통해 소성수축률을 정확히 측정한다.

이것은 항상 활성화된 윤로에서는 요적층과 가마 천장 공간을 봐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이 소성수축률은 원토에 따라 다르게 된다. 자질을 할 경우에는 요적층 높이와 노의 천장 두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자질하는 치수는 그 공장의 경험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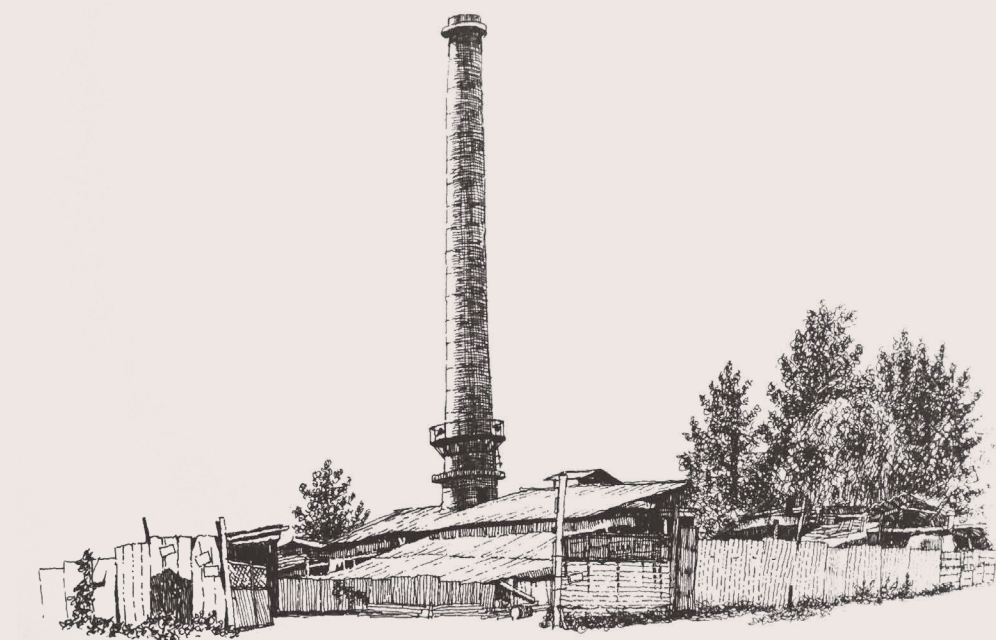
보통 소품의 치수는 18~20cm이다. 투탄구에서 요적층 덮개까지 거리에 소성수축 치수까지 가산하여 나온 소품의 치수를 백묵으로 기록해 놓는다. 기록된 치수가 될 때까지 소성을 한 후 자를 바로 세워 재는데, 한 교대가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자를 대야 한다. 소성이 끝난 바로 뒷구멍을 자주 자질해 주어야 과소(過燒)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특히 변색소성은 과소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질을 더욱 자주해야 한다.



영신연와에서 생산한 벽돌

소성 과정이 끝나면 가마에서 벽돌을 꺼내게 되는데 이를 요출이라 한다. 요출을 담당하는 사람을 ‘아가시’라 불렀는데, 9명이 배치되었다. 이들은 벽돌을 꺼내서 벽돌을 가져갈 차에 실어 주거나 적재장에 쌓아 두었다.

1) 「박지원가의 삶과 고색동의 변화」, 『수원 근현대 증언자료집Ⅳ』, 2010, 99쪽.
2) 송재선의 『벽돌기술』(한국적연와협회, 1989)을 참조로 하여 정리하였다.



영신연와 노동자들의 생활

영신연와 노동자사택

영신연와 노동자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자사택을 살펴보아야 한다. 영신연와 노동자사택의 구조나 시공방법은 근대 한국 노동자주택의 역사와 직결되어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내에서는 1930년대부터 노무자주택들이 건축되었다. 1930년대는 일제가 한반도의 대륙병참기지화 진행에 따라 공장 및 산업시설을 대규모로 건설하였고, 그에 따른 노동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대규모의 주택이 필요하였다. 이에 일제는 1939년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주택난을 해결하는 동시에 산업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무자주택 공급3개년 계획’을 실시하였다. 이 주택건설계획이 식민지 조선에까지 영향을 미쳐 오늘날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거 형태의 사택들이 지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은 1910년대 본토에 탄광노무자주택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노무자주택 공급3개년 계획’에 소개된 나가야(長屋) 주택에 해당된다. 나가야 주택은 단위 세대가 일렬로 연속되어 있는 것을 지칭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부평 미쓰비시(三菱) 연립사택이 이런 나가야형으로 건축되었다. 다만 부엌과 바닥의 높이 차이가 있고, 굴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온돌 설치 등 한국 풍토에 맞게 변형된 나가야형 사택이라 할 수 있다.

1942년 조선주택영단이 설립되면서 소형주택들이 집중적으로 건설되었는데, 1944년 이후 주택영단은 주로 노무자주택을 건설하였다. 이때 일본이 지은 노무자주택 구조를 한국 풍토에 맞게 조금씩 변형하여 건축하였는데, 영신연와 사택도 이러한 유형과 매우 유사하다.¹⁾ 영신연와 사택은 방 1칸과 부엌 1칸이 종렬로 배치되어 있으며, 부엌을 통해 세대로 출입하게 되어 있다. 온돌을 설치했기 때문에 부엌과 방의 높낮이가 다른 점도 유사하다. 또한 각 세대들이 횡렬로 배치되어 하나의 사택동을 구성하고 있다.



1950년대 수입되어 사용되는 흙벽돌 제조 기계

원래는 약 4.8평(15.984㎡) 정도의 규모로 국내 다른 나가야형 사택들과 크기가 비슷했으나, 이후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방을 증축하여 현재는 공간이 더 확장되었다.

영신연와 노동자사택은 구조는 동일하지만 지어진 시기는 조금씩 다르다. 공장 설립 초기인 1974년에는 사택이 2동이었는데, 1977년에는 3동으로 늘어났고, 1981년에는 1동이 더 늘어나 4동이 되었다. 한 동당 12가구가 살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4동에 48가구가 살 수 있었으며, 나중에 3가구가 살 수 있는 작은 사택 2채를 더 지어 총 54가구가 함께 살았다.

현재 남아 있는 사택 네 동 중 한 동(제2동)은 흙벽돌로, 나머지 세 동(제1동, 제3~4동)은 적벽돌로 만들어져 있다. 이는 가마가 만들어져 적벽돌이 생산되기 이전에 흙벽돌로 만든 사택이 먼저 건축되었기 때문이다. 영신연와 사택의 흙벽돌집은 재료의 측면에서 보면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피난민 구호주택으로 부산에 지어진 흙벽돌집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한국전쟁 피란민으로 주택난이 심각해지자 부산에 있던 피란정부는 1951년 전제민용 구호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일부를 대한주택영단 측에 위임하였다. 이에 대한 주택영단은 부산에 8가구 혹은 12가구가 칸막이벽으로 나뉘는 장옥 유형의 연립주택을 건설하였다. 또한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KRA, 운크라)의 지원을 받아 아프리카에서 흙벽돌 제작기구 80여 대를 들여와 부산 청학동 99번지 경사지 일대에 약 200여 호의 흙벽돌집을 지었다. 흙벽돌집 1동을 9평 규모로 건설하였는데, 마루, 부엌, 방이 각각 1칸이고 변소가 따로 있고 주택 외부는 시멘트로 마감하였다.²⁾ 이러한 흙벽돌집은 1950~1960년대 대거 건축되었으나 적벽돌 생산이 늘어나면서 1970년대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런 흙벽돌이 영신연와 사택 건축재료로 다시 사용되었는데, 이는 축로공사와 공장가동을 위해 노동자들을 모집해 온 상태에서 이들이 거주할 사택을 가능한 빠르게 짓되 비용이 가장 덜 드는 건축자재인 흙벽돌로 짓게 한 것이다. 첫 번째 사택 이후에 지어진 세 동의 사택들은 영신연와 공장에서 생산한 적벽돌로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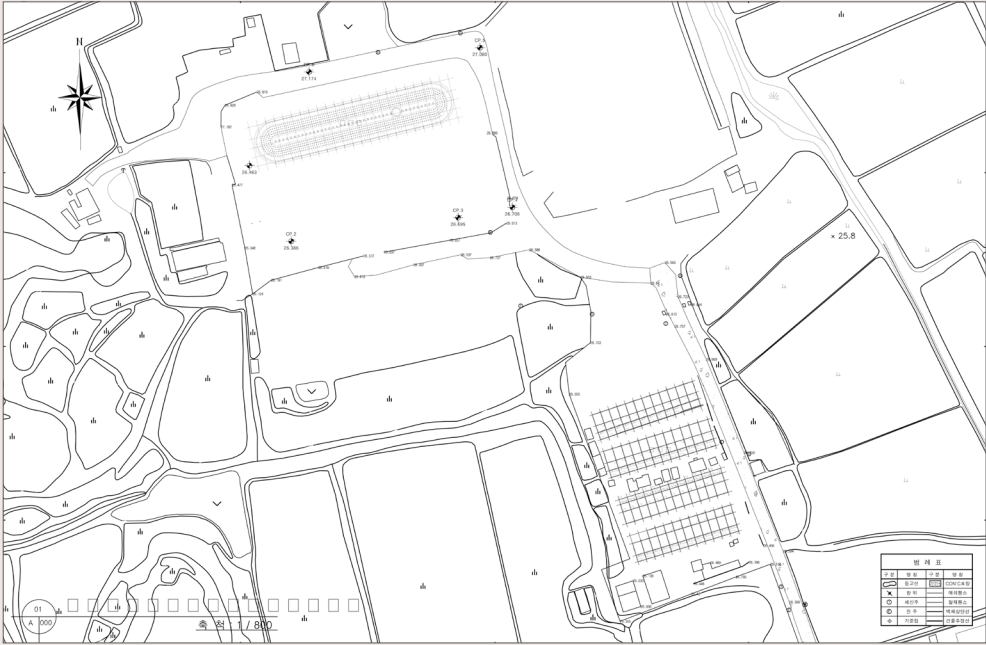
영신연와 노동자 사택은 처음에 방 한 칸, 부엌 한 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크기도 5평 미만이었다. 그러나 가족수가 늘어나고 공간이 더 필요해짐에 따라 부엌 쪽에 방을 들이거나 방을 덧대어 만들기도 하였다. 건물 앞뒤로 방을 한 칸씩 더 만들어서 방 2칸을 늘리고, 연탄을 보관할 용도로 창고까지 증축한 사택도 있었다. 사택구조를 바꿀 때는 공장에서 생산된 벽돌 중 파벽(깨진 벽돌)이라 상품으로 팔리지 않는 것을 가져다 자재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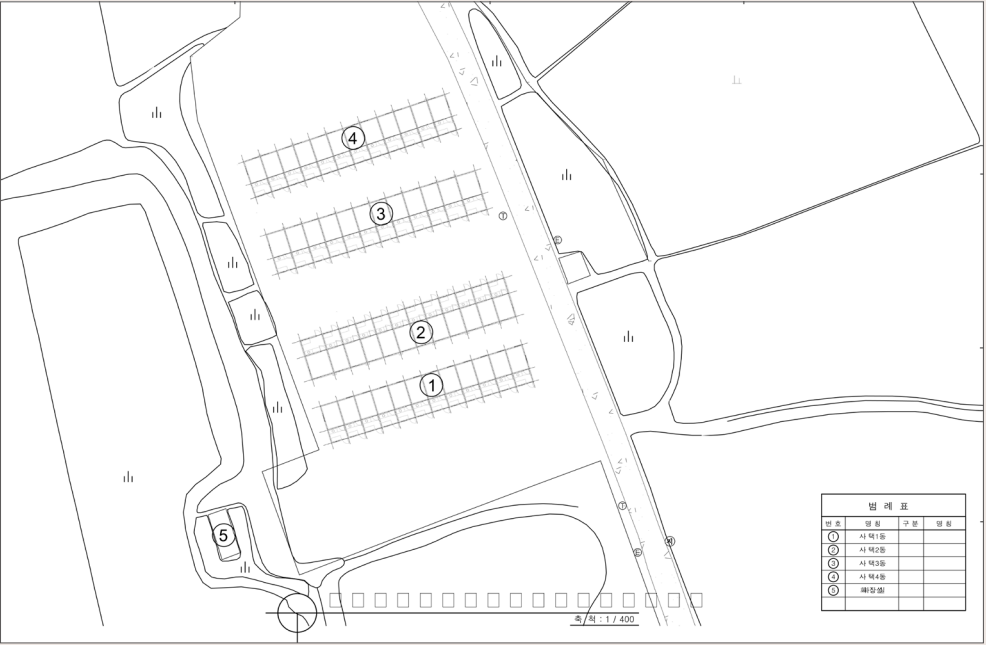
영신연와 사택(다큐멘터리사진그룹 각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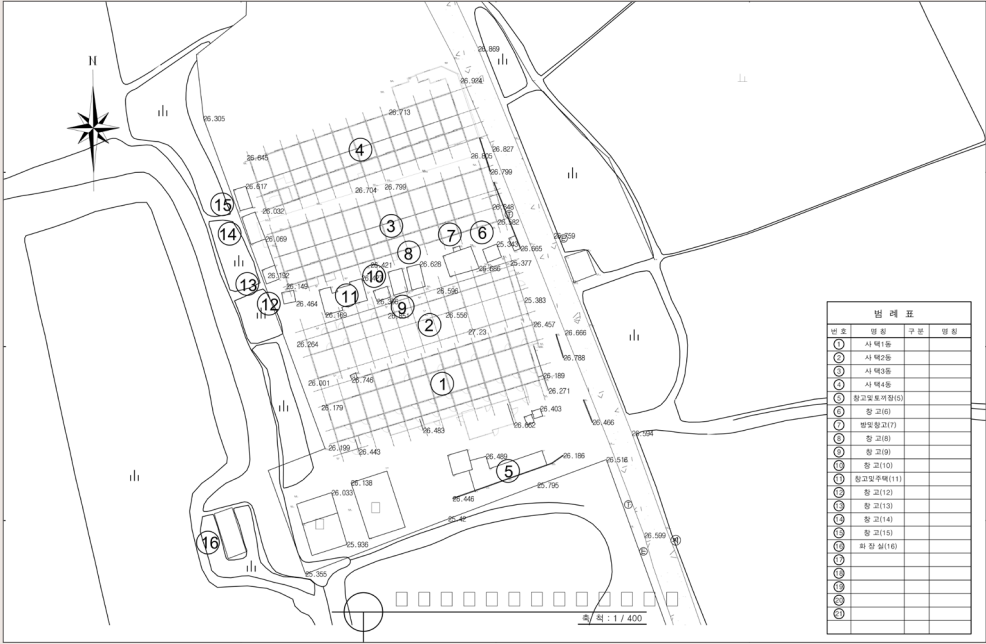
네 동이 나란히 있는 영신연와 사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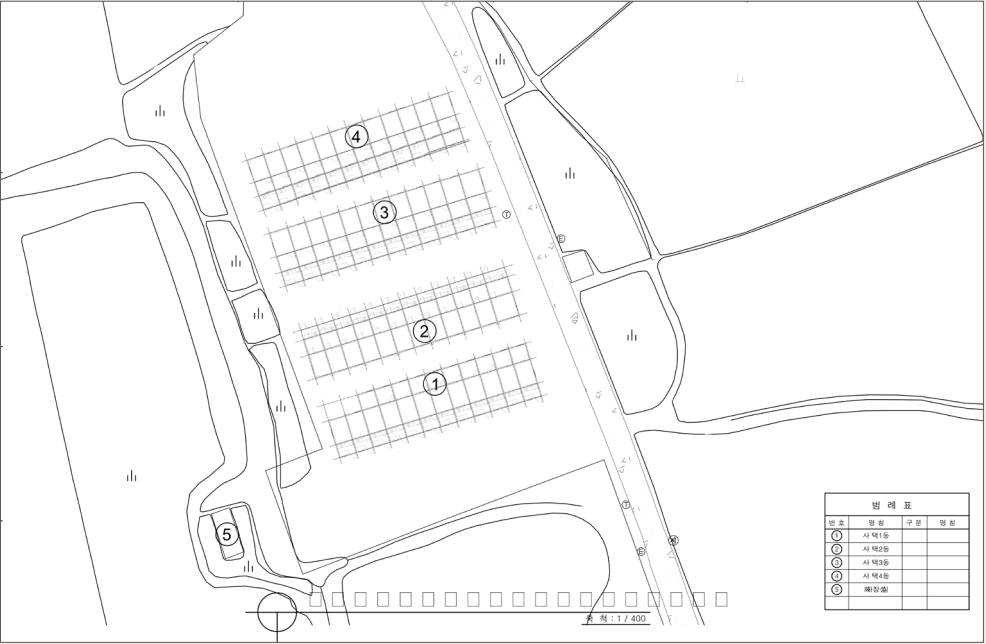
영신연과 배치도(수원시, 『수원 영신연와 벽돌공장 일원 기록화사업』,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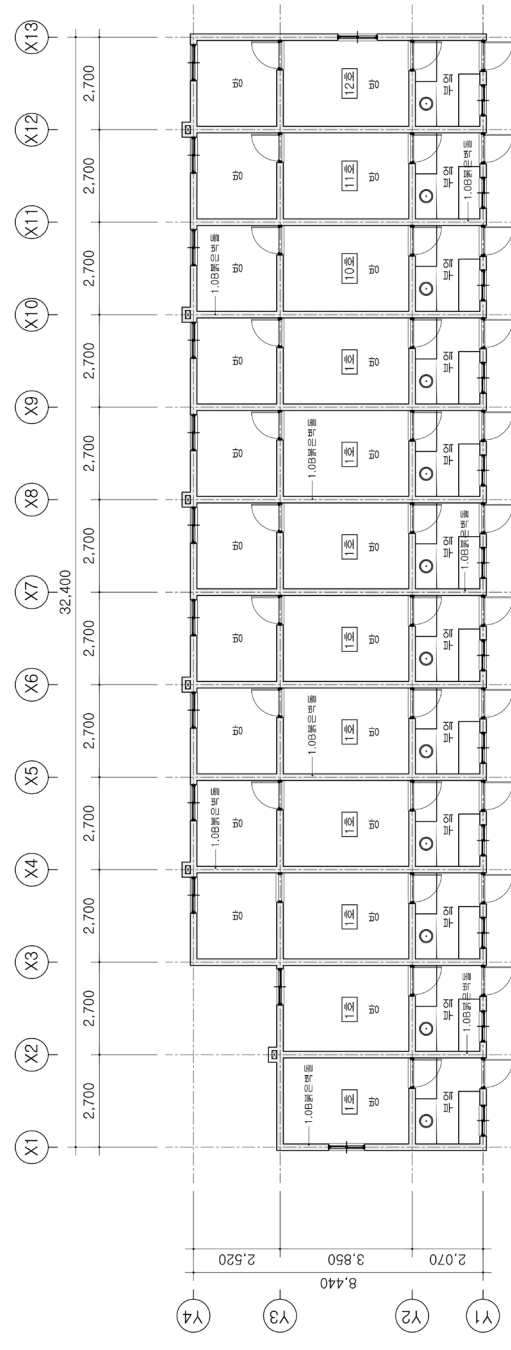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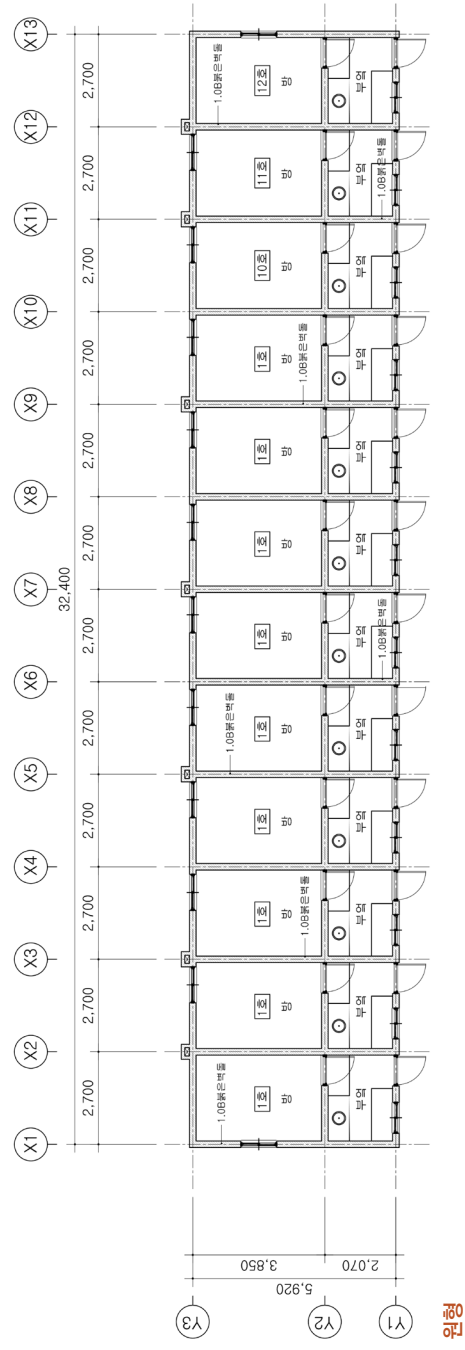
사택 확대 계획배치도(원형, 수원시, 『수원 영신연와 벽돌공장 일원 기록화사업』,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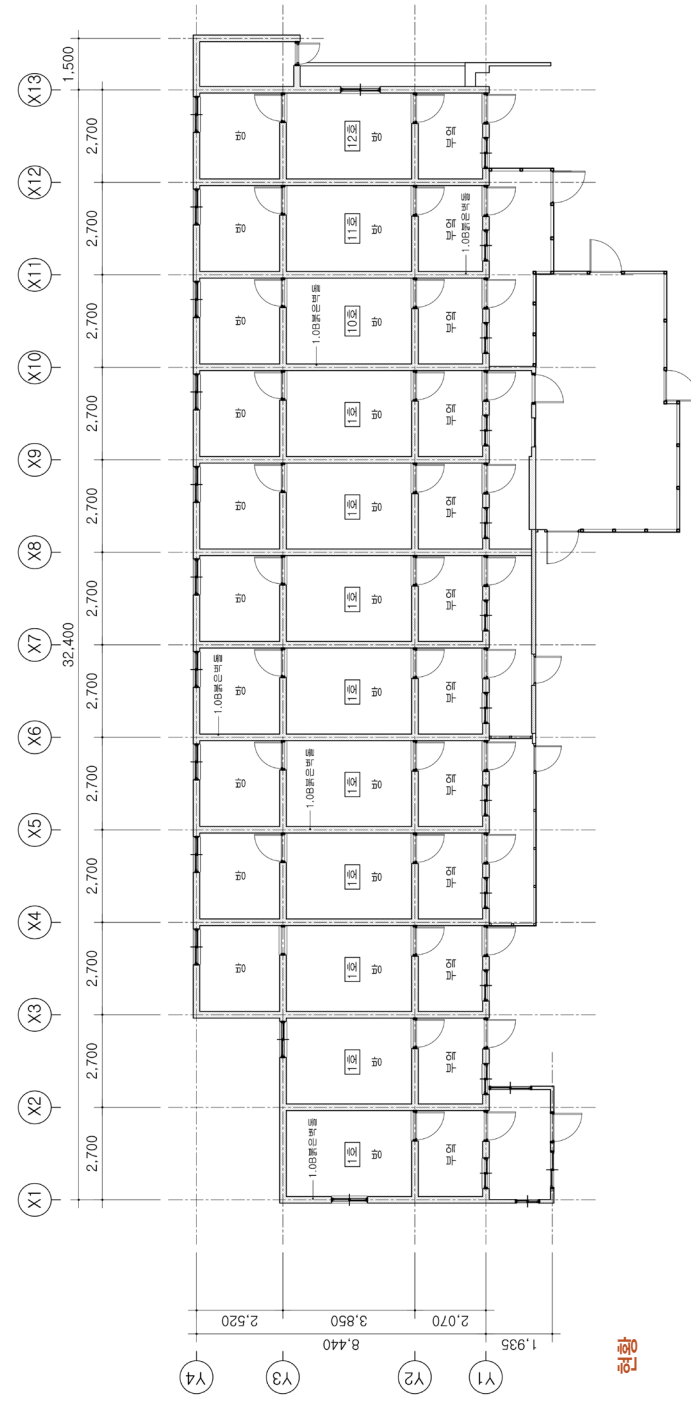
영신연과 사택 배치도(수원시, 『수원 영신연와 벽돌공장 일원 기록화사업』,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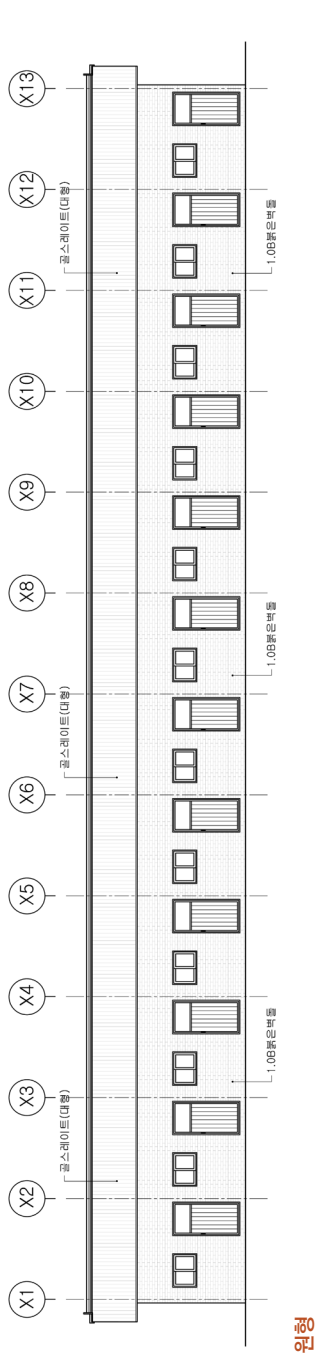
사택 확대 계획배치도(1차 증축, 수원시, 『수원 영신연와 벽돌공장 일원 기록화사업』,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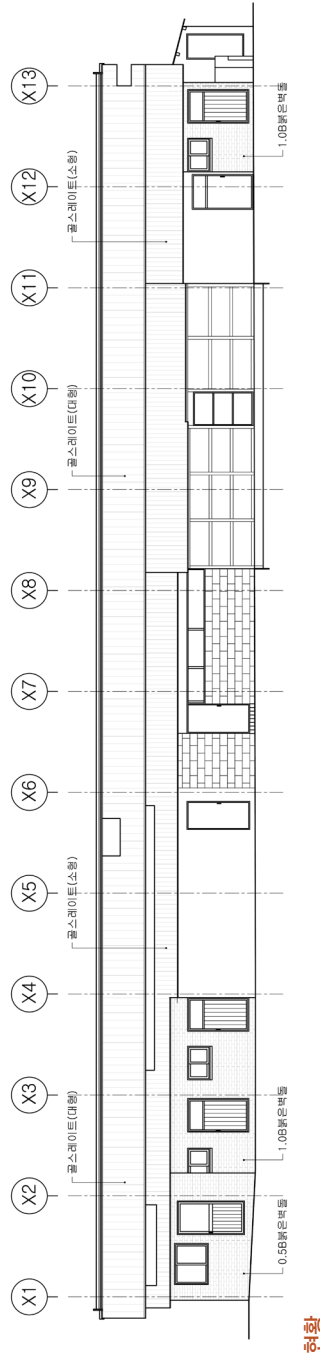
사택 1호 평면도(수원시, 『수원광역시 도시관리계획시설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관련법』, 2020)



사택 1백평면도(수원시, 『수원신도시영양개발사업기획화사업』,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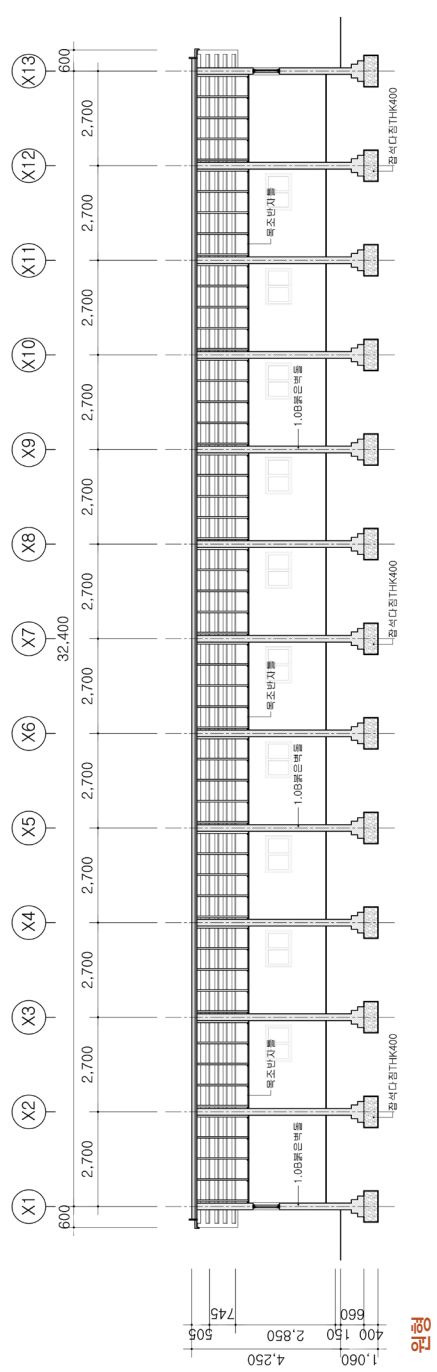


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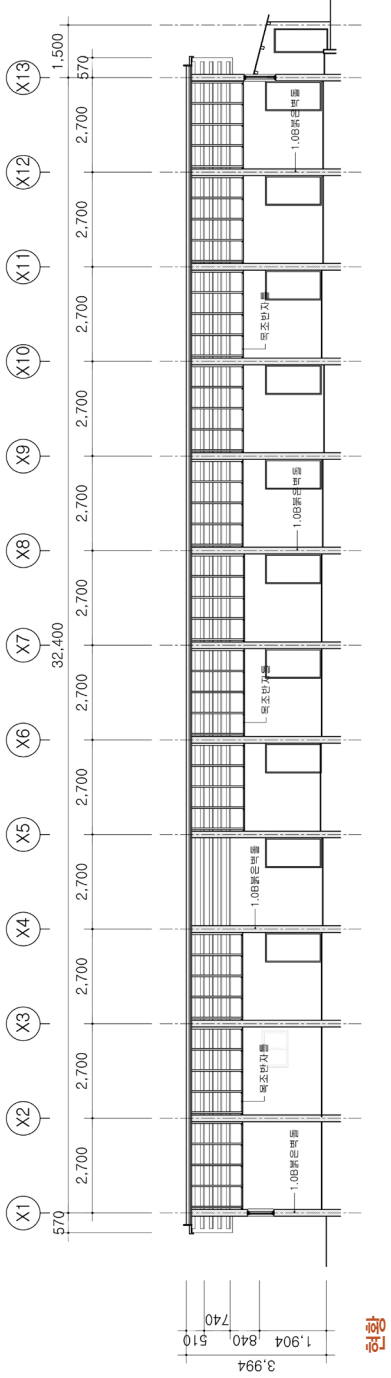


원형

사택 1동 정면도(수원시, 『수원 영신연와 벽돌공장 일원 기록화사업』,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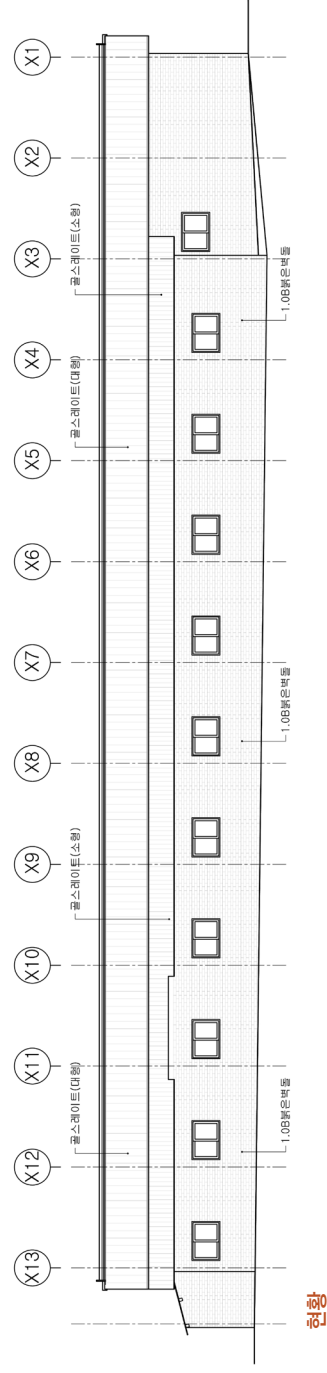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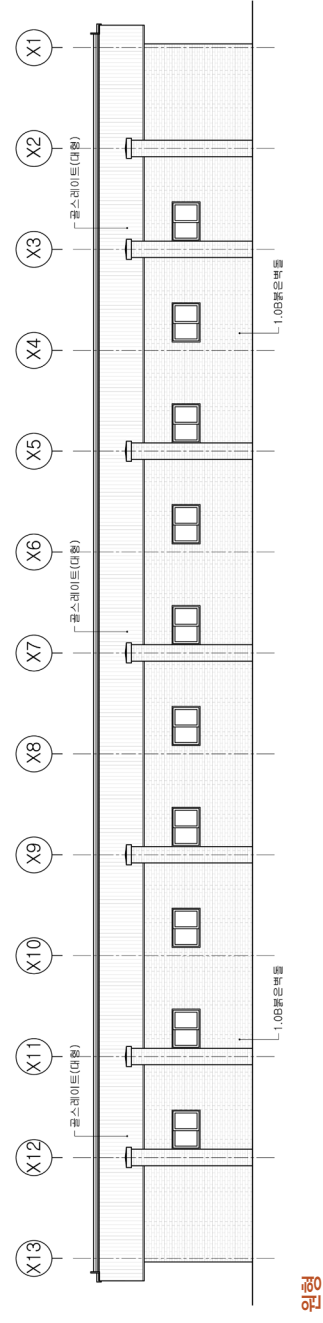


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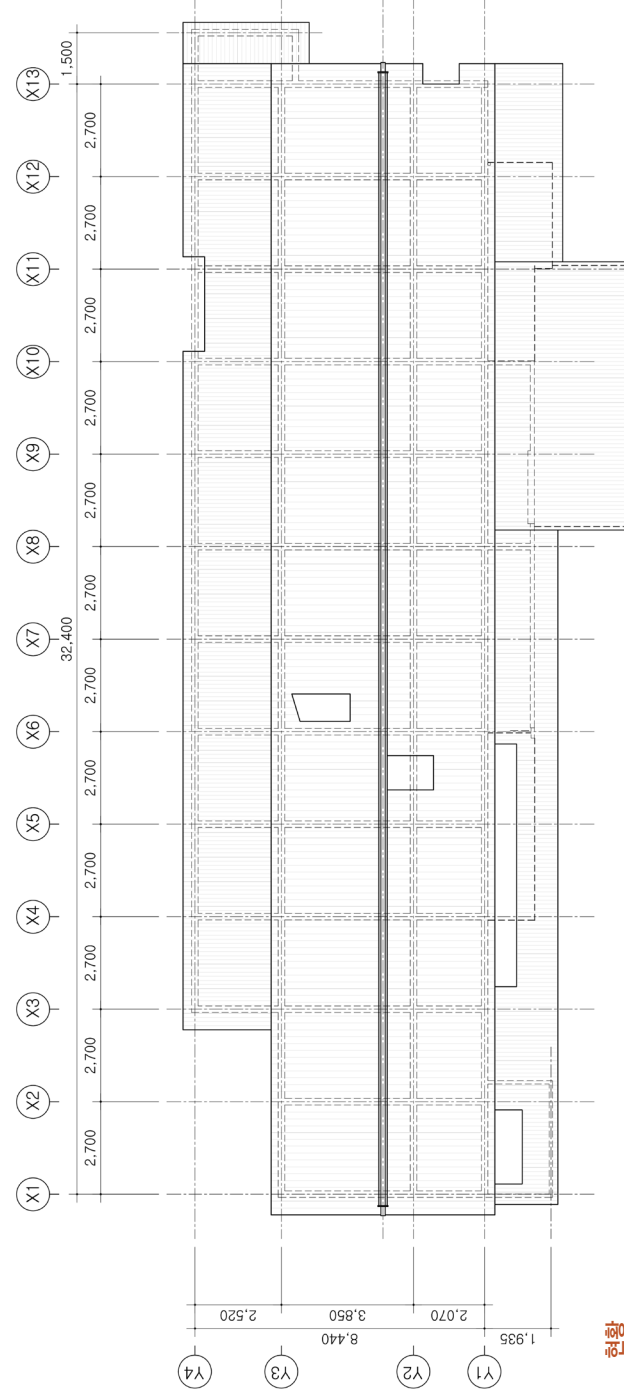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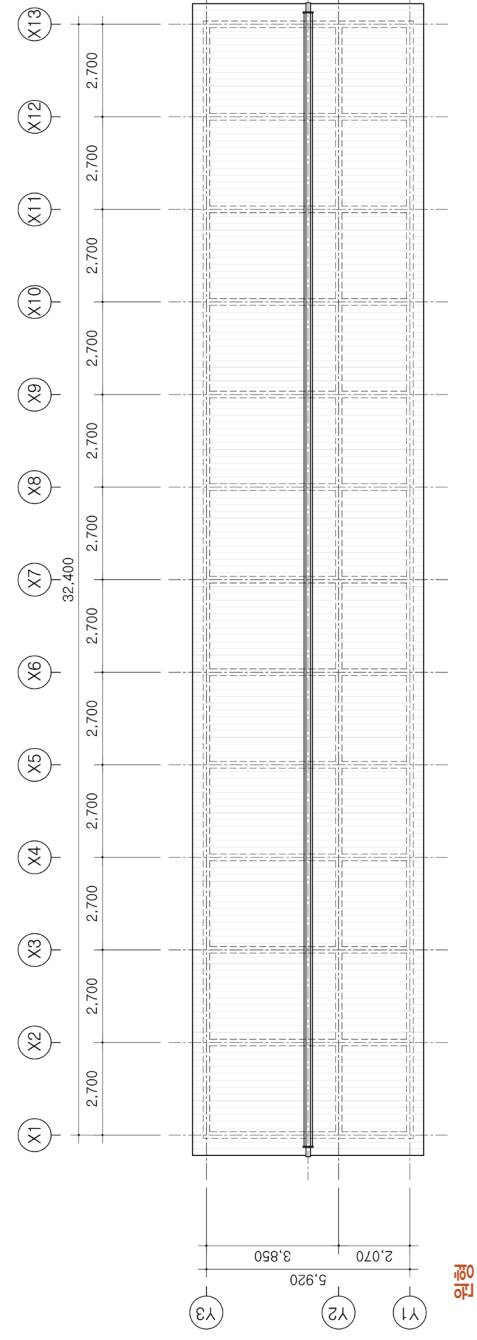


원형

사택 1동 횡단면도(수원시, 『수원 영신연와 벽돌공장 일원 기록화사업』, 2020)



사택 1동 배면도(수원시, 『수원 영신연와 폐텔국장 일원 기록화사업』, 2020)



사택 1동 지붕 평면도(수원시, 「수원 영신면외 뼉똥국장 일원 기록화사업」, 2020)



영신연와 사택

박명자 그래도 온벽들은 못 저. 파벽. 갖다 버리려는 거 있잖아. 그런 것 주워다가. 일 끝나고 조금씩 조금씩 지어 가지고 살았어. 시간 날 때. 일 하고 시간 나면, 일찍 끝나면 벽돌 싸고, 파벽, 벽돌도 다 반 동아리 부러진 것 그런 것 실어다가 방 들이고, 들이고. 몇 날 며칠 들이는 거지, 방을. 뭐 한 달, 두 달도 걸리지. 벽돌 저기 부시라기 갖다가 지어 가지고 가서 방 늘이고 두 개, 세 개씩 만들어 가지고 애들하고 살아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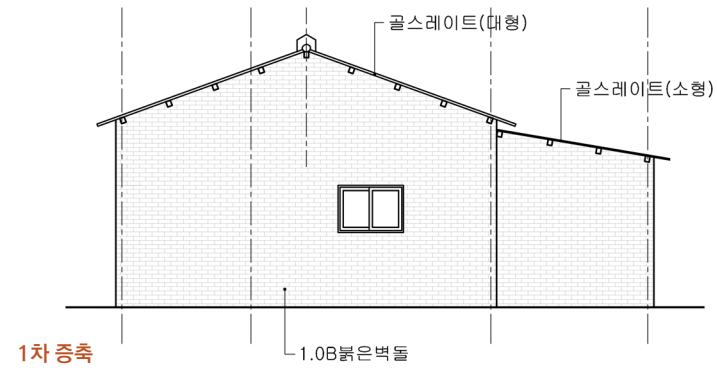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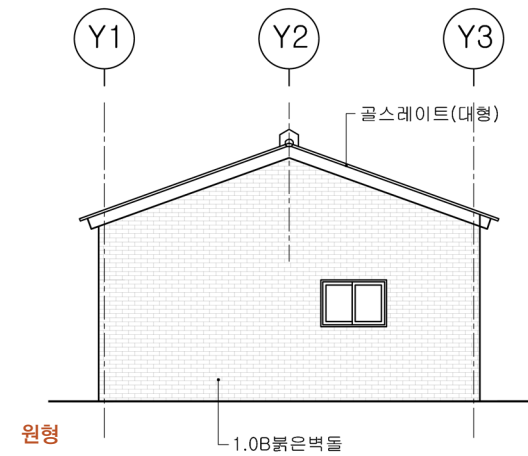
영신연와 사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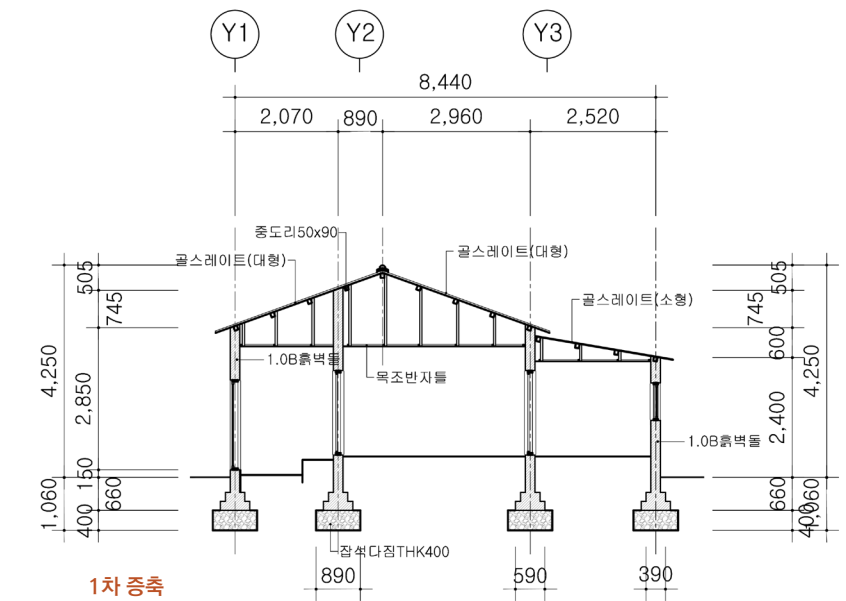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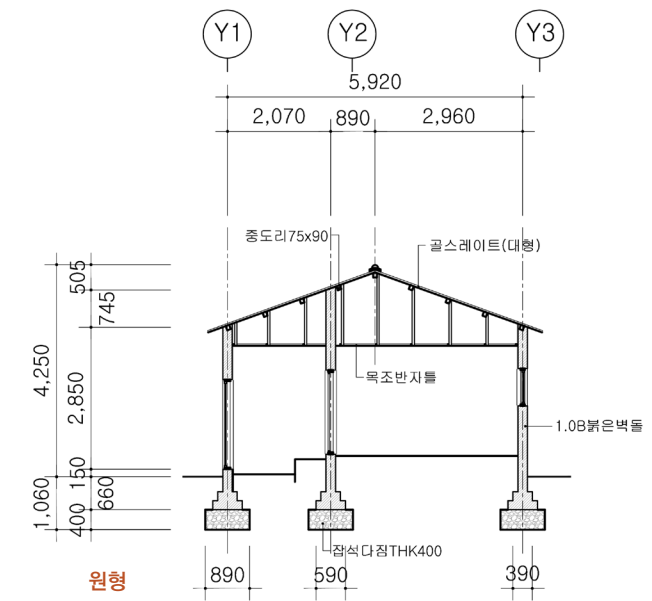
제일 먼저 흙벽돌로 만들어진 2동 사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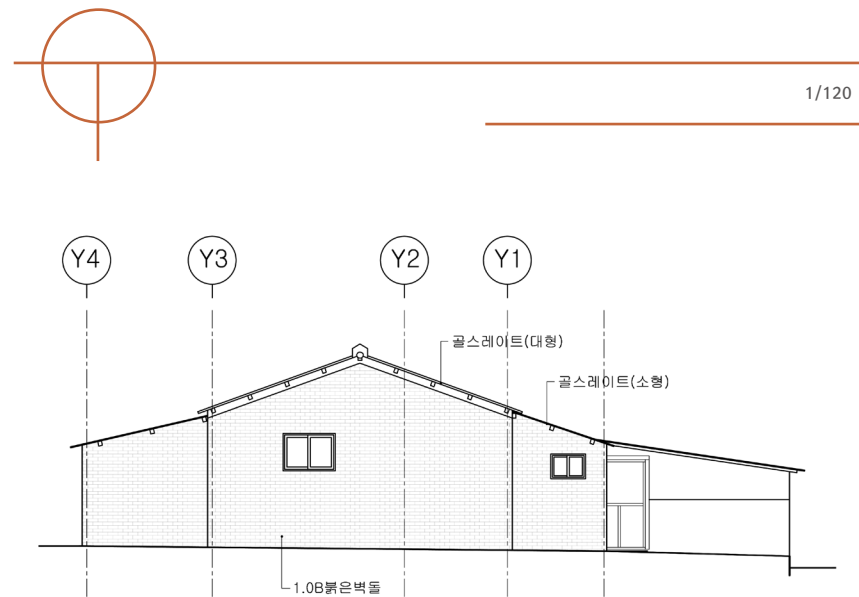
영신연와 사택(다큐멘터리사진그룹 각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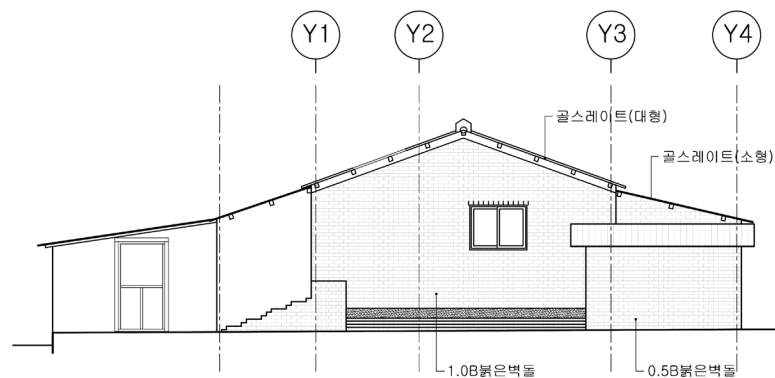
사택 1동 측면도(수원시, 『수원 영신연와 벽돌공장 일원 기록화사업』,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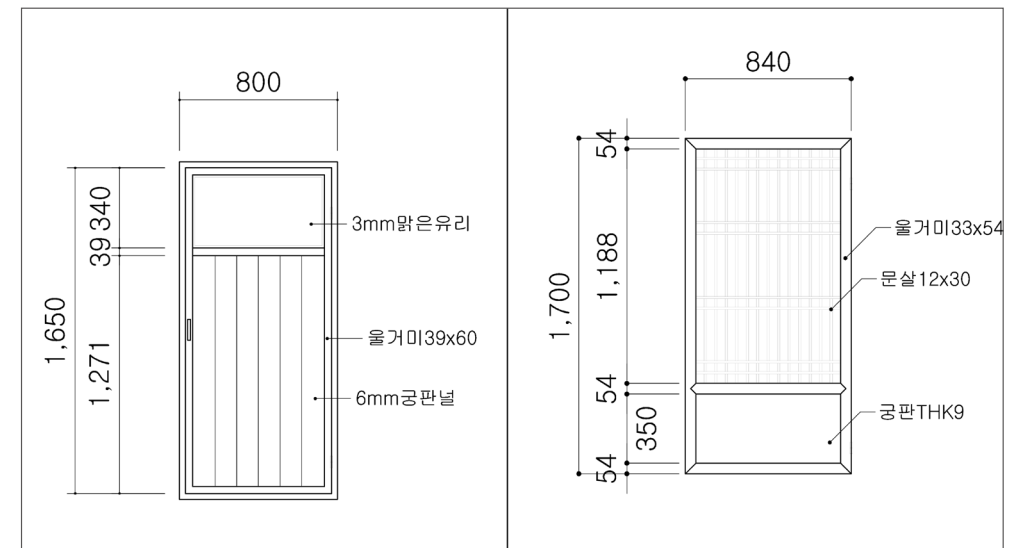
사택 1동 종단면도(수원시, 『수원 영신연와 벽돌공장 일원 기록화사업』,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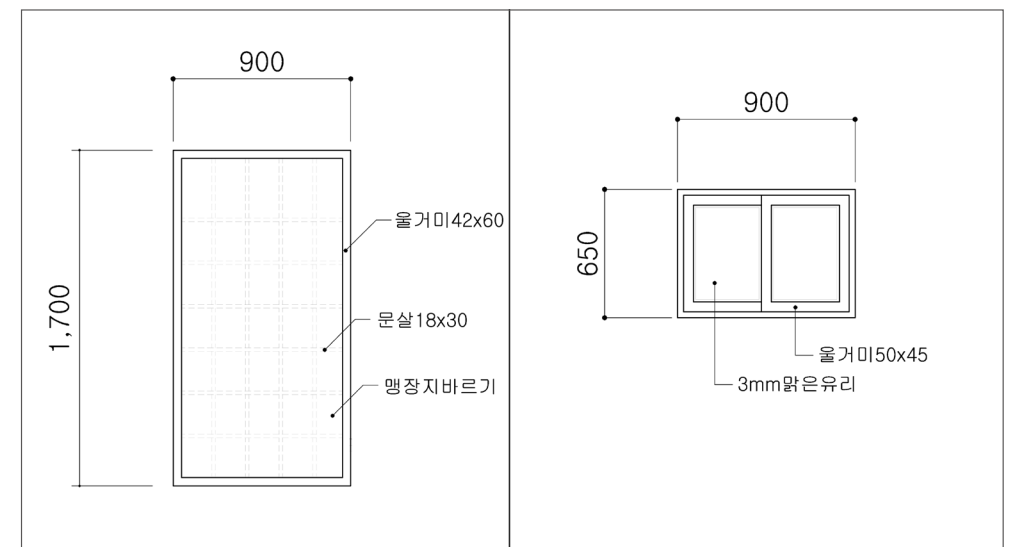
사택 1동 좌측면도(현황)



사택 1동 우측면도(현황, 수원시, 『수원 영신연와 벽돌공장 일원 기록화사업』, 2020)



정면 출입문과 거실출입문



방 출입문과 정면 창(수원시, 『수원 영신연와 벽돌공장 일원 기록화사업』, 2020)



영신연와 출입문

영신연와 노동자이면 집세를 지불하지 않고 사택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수도세와 전기세 등의 관리비만 거주자가 내도록 하였다. 배정된 사택에 들어오면 대개는 큰 변동 없이 계속 거주하지만 이직자가 생길 경우 회사에 보고하고 사택을 이동하기도 했다. 수도시설이 가까이 있거나 길옆에 있는 사택이 좀 더 인기가 있었고, 방이나 창고 등을 개조해 놓은 곳도 선호되었다. 사택 옆에는 공동화장실이 있었다. 남성용 5칸, 여성용 5칸으로 구성된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54가구가 모두 쓰기에 모자라 출근시간에는 공장 내 화장실을 이용하였다.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썼는데 각 사택마다 노동자들이 직접 계량기를 달아 전기 및 물세를 공평하게 나누어냈다. 맨 앞줄 첫 집은 간단한 생활용품 을 파는 구멍가게를 운영하였다.

벽돌공장 노동자사택의 기능

영신연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모두 사택에서 거주하였고, 50여 가구에서 살던 가구(부부) 단위 노동력에 의존하여 영신연와 공장이 가동되었다. 영신연와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벽돌공장은 노동자사택을 운영하였는데, 벽돌공장의 노동자사택은 단순히 주거공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벽돌공장의 노동관계를 성립시키는 중요한 기재였다. 즉 노동자사택이 없으면 벽돌공장의 노동관계 자체가 성립 또는 유지되지 않는다. 이처럼 벽돌공장에서 부부 단위 노동력에 의존하면서 노동자사택을 제공하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벽돌공장의 입지와 관련되는데 벽돌공장은 원료 구입 및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해 대개 외진 곳에 자리하였다. 즉 벽돌공장은 벽돌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구하기 쉽고, 건조장과 같은 넓은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가 밀집된 지역보다는 교외 지역 또는 하천 부근 구릉지대 등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벽돌공장에서 일할 노동력을 확보하려면 사택이 있어야 했다.

백팔규 공장이 대개 보면 교통이 굉장히 나빠요. 다 산 속에다 지어요. 교통이 다 나빠. 다들 한 십 리씩 걸어 다녀야 되고. 버스 한 번 타려면 한 시간에 한 번씩 다닐 동 말 동 하고.

둘째, 1980년대까지 벽돌 제조는 성형 과정 등 일부 작업만 기계화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공정이 노동력에 의존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벽돌을 제조하는 데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대규모의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사택 운영이 필수적이었다.



영신연와 사택 전경(다큐멘터리사진그룹 각 제공)

셋째, 벽돌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벽돌공장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벽돌공장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벽돌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도급제로 노동관계를 유지하였다. 벽돌공장에서 도급제를 채택한 이유는 1년 중 벽돌 생산이 가능한 시기가 6~7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벽돌공장은 1년 중 4~10월에만 가동되었다. 추울 때 벽돌을 만들어 말리면 얼어서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따뜻해지는 4월부터 벽돌을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10월 말이 되면 벽돌 생산 공정 중 성형 작업을 하는 기계의 가동은 멈추었고, 11~12월에는 건조장에서 이미 건조된 벽돌을 가마에서 굽는 공정만 진행되었다. 회사에서 노동자를 직접 고용을 할 경우 벽돌공장이 가동되지 않는 5~6개월 동안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생산량에 따라 지급되는 도급제의 경우 그럴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공장이 가동되지 않아 수입이 없으면 노동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공장을 떠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숙련된 노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노동력 수급이 불안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시기에도 노동자들을 공장에 묶어 둘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는데, 사택이 그 역할을 하였다. 노동자들에게 사택을 제공하여 주거를 안정화함으로써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시기에도 노동자들이 벽돌공장을 떠나지 않게 하였다. 즉 사택은 고용관계와는 달리 회사 측과 노동자가 지속적인

노동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물리적 기재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영신연와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벽돌공장에서 제공하는 사택에서 거주하며, 수원역 근처에 있던 삼천리연탄공장이나 대성연탄공장에서 일을 하였다. 연탄공장의 경우 연탄 수요가 없는 여름에는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 반면, 겨울에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따라서 계절별 노동력 수요가 정반대였던 벽돌공장과 연탄공장은 계절에 따라 노동력을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다. 더구나 연탄 제조과정은 가마에 굽는 단계가 없는 뿐 나머지 작업은 벽돌 제조과정과 매우 유사하여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치 않아 벽돌공장 노동자들은 연탄공장에서 일하기에 적합하였다.

넷째, 사측은 비혼 노동자보다 순종적이고 성실한 가족 단위 노동력을 선호하였다. 사측에서는 사택 운영을 토대로 가족(부부) 단위로 노동력을 충원 관리함으로써 이직률을 낮추었고, 노동자들의 주거비용을 낮춰 임금 상승 요인을 감소시켰다. 이렇듯 사택 운영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공장 내 노동자의 저항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벽돌을 생산할 때에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 기술이나 물리적 힘이 투입되는 작업 등이 있었기 때문에 사택에 거주하는 부부(남녀) 단위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면담자 그런데 공장 측에서 숙사를 제공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백팔규 예,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죽어도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고려연와는) 여자가 일 안 나가면 문 차고 난리 나고, 나가라고 막 그랬어요.

면담자 여자 분들도 나가서 뭔가 하라고?

백팔규 예, 같이 해야 돼. 부부, 부부조건. 둘이 해야 돼. 그래야 그 저기 집을 주는 거예요.

면담자 대신 일한 만큼 돈을 주기는 해요?

부인 돈은 주는데 싸지. 지금 같으면 안 하고 난리 나. 지금은 참 이게 편하고 엄청 좋은 거지. 그때 당시에는 아휴 하루만 아파서 안 나가도 감독이 와서 문짝 차고, 그러려면 나가라 그러고 막 난리가 아니여. 매달리고 그냥 이틀날 일 나가고, 아휴. “미안했어요. 아파서 못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고 그러고 일했어.

다섯째, 벽돌 생산은 계절이나 날씨 등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기가 노동 과정에 변수로 작용하여 갑작스럽게 일이 중단되거나 개시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였다. 또



영신연와 사택(다큐멘터리사진그룹 각 제공)



영신연와 사택 전경(다큐멘터리사진그룹 각 제공)

한 정해진 노동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 생산량을 채우는 방식으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새벽에 시작된 노동은 목표량이 채워질 때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공장과 근접한 거리에 노동자 주거지가 있어야 공장을 원활하게 가동할 수 있었다.

영신연와의 노동세계

영신연와 노동자들은 1970~1980년대 전국 각 지역에서 이주한 이촌향도민이었다. 이곳에서 일하기 전에 서울의 영등포, 경기 파주·남양주 등에 소재한 벽돌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대개는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지인들의 소개로 영신연와 공장에 들어왔다.

면담자 맨 처음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박명자 우리는 같이 왔어요. 우리 아저씨하고. 원래 다른 데서 이런(벽돌공장) 일을 하다가. 파주에서 일하다가 이리로 왔어요. 이리 와가지고 같이 하게 되고.

면담자 여기 오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는지, 누가 소개를 시켜 줬나요?

박명자 다 그렇죠. 우리 시누가 살았었지. 소개로, 연줄로 오는 거지, 이런 데는 그냥은 못 와요.

1970~1980년대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30~40개의 벽돌공장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들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좀 더 좋은 조건의 공장으로 이동하기도 하였다. 영신연와는 비교적 벽돌공장 노동자들이 선호하던 곳이었다. 그 이유는 경영상태가 상당히 안정적이었던 영신연와의 경우 보름에 한 번씩 임금 지급을 규칙적으로 하였고, 교통이나 교육환경도 다른 공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곳에 입지하였기 때문이다.

백팔규 고려연와는 돈 안 주는 걸로 우리나라에서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영신연와는 죽어도 사람들이 안 나가. 돈도 잘 주고. 영신연와하고 동보연와하고는 죽어도 안 나가. 여기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여. 여기는 들어오고 싶어도. 돈도 잘 주고, 교통 좋고, 애들 학교도 있고.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도 다른 벽돌공장에 비해 좋은 편이었다. 이렇듯 영신연와가 노동자들에게 ‘인심을 잃지 않은 것’은 고색동예 이웃하고 있는 동보연와와의 경쟁관계가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동보연와와 오랫동안 소송을 할 만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영신연와 측은 설립 초기에 노동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좋은 조건을 제시해 동보연와 노동자들을 데려오기도 했다.

면담자 초반에 동부연와에서 일하던 분들이 이곳으로 오셨다고 하던데요?

이상길 있지. 여러 집 오셨지. 한 네다섯 집 되나 본데 저기도 동부에서 데려온 거고. ... 한 다섯 명 정도 이쪽으로 왔었죠. 여기 사람은 그리 안 갔어.

면담자 동보에서도 영신 사람들 오라고 했어요?

박명자 그렇죠. 사람이 모자라서 오라 그러고, 일 잘하고 그러면 오라고 그러는 거지.

이상길 영신 사장님이 동보 사장보다 배짱이 더 좋았어요. 그래 갖고, 동보 일꾼들을 돈 더 주고 이리 데려왔었어. 그때 여기가 돈도 이 근방에서는 제일 많이 줬어요. 초창기에. 여기가 엄청 부자였거든.

이런 경영주 간의 관계는 노동자들 사이에도 영향을 미쳐 영신연와 노동자들은 동보연와 노동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종종 술자리에서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고 한다. 심지어 동보연와 정문 주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영신연와 측은 동보연와 정문 주변에 흙을 밀어 놓아 정문 이용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해묵은 감정이 어느 정도 사그라든 것은 1970년대 후반 이후이다. 벽돌산업이 호황기에 이르자 영신연와와 동보연와는 공장 터를 좀 더 확보해야 할 상황이 되었고, 서로의 토지를 교환하여 공장 작업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면담자 동보연와 직원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영식 나 올 때만 해도 저(동보연와) 공장하고 여기하고 앙숙이었어. 일꾼들도 앙숙이었어. 길가다 만나면 서로 싸움하고. 일꾼들도 그랬어. 개들하고 서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면담자 상대도 안 했어요? 서로 얘기도 안 하고?

이영식 그때 이 동네(고색동) 사람은 동보에도 있고 영신에도 있고 대부분 알지. 그래서 상관없는데 객지에서 온 놈들은 정말 좋지 않았어. 나도 여기 와서도 몇 번 싸움 했어 동보 애들하고. 술 먹다 보면 동보가 잘 났니 영신이 잘 났니 하고 싸운다고. 근데 동보연와 정문 앞이 그게 영신 땅이래. 정문이. 동보연와 벽돌공장 거기 들어가는 정문이 영신연와 거니까 여기에서 도저로 흙을 밀어 놓는 거야. 그럼 애네(동보연와)들은 공장을 돌아서 들어갔어. 나중에 한 4~5년 있다가 합의를 본 거야. 동보 땅이 여기(영신연와 공장) 주변에 있고, 여기(영신연와 공장) 땅이 저기(동보연와)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걸 서로다가 맞교환을 한 거야. 동보 땅이 여기 와 있고 여기 땅이 거기 가 있고 그걸 맞교환을 한 거야.

영신연와의 일과를 보면, 새벽 4시경에 각 작업반의 반장들은 반원들을 깨워 작업을 준비시켰고 새벽 5시면 작업이 시작되었다. 부인들도 4시에 일어나 아침식사를 준비해 둔 후 출근하였다. 5시에 새벽 작업을 시작한 후 2시간 후인 7시에 아침식사를 하였다. 7~8시에 아침식사를 한 후 8시에 다시 아침 작업을 개시하였고 2시간 노동 후에 잠시 휴식을 갖은 후 12시까지 오전 작업을 하였다. 1시까지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노동이 시작되었는데, 하루에 평균 5만 4,000장의 벽돌을 만들어 이동하고 건조하고 쌓고 굽는 일이었다.

김운임 4시에 일어나서 애들 밥해서 도시락 싸놓고. 5시 기계창까지 가야 돼. 그 래야 기계가 돌아가면 빨리빨리 꺼내서 마당으로 갖다 줘야지 아저씨들 일을 하니까. 그리고 저 뭐야 아침 7시 되면 밥 먹으러 아침 먹으러 들어 와요. 그리고 아침 먹고 또 나가서 8시부터 또 12시까지. 12시에 들어와 점심 먹고 또 1시부터 5시, 6시까지 그렇게 하는 거야.

영신연와는 공식 휴일을 지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공장 가동을 멈추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추석과 설날 같은 명절을 제외하고는 기계가 고장 나거나, 비가 와서 건조가 어려운 날에 불규칙적으로 쉬었다. 다만 1년 중 사월초파일은 공식 휴일로 지정하여 공장에서 1인당 닭 반 마리를 지급해 주어 부부가 모두 일하는 가구의 경우 닭 한 마리를 먹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해마다 벽돌공장을 재가동할 때는 큰무당을 데려와 아무 탈 없이 공장이 잘 운영되기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냈다. 그 당시에는 서



영신연와 노동자(다큐멘터리사진그룹 각 제공)

수원 지역에 제조업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영신연와에서 고사를 지내는 날에는 기관장들이 초대되어 오기도 했다. 또한 200~300근씩 되는 돼지를 잡아 가구수대로 나누어 주었고, 고색동의 수인양조장에서 술도 받아 와 동네잔치를 열었다.

이상길 여기, 여기 이제 화입식 하는 게 최고 큰 생일이여, 생일. 불 시작하는 날, 화입식 할 때, 불을 처음 이제 살리는 거여. 회장이 와서 불 탁 켜서 살릴 때 그때는 돼지, 통돼지 잡아 놓고 무당님들이 두 분이 오서 갖고 막 이렇게 다 고사지내고 다 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돼지고기 나눠서 들 먹고.

박명자 자전거에 (돼지고기를) 매달아 갖고 오다가 연탄가루가 다 뒤집어써서 버려 버렸는데 뭐. 술 취해서 갖고 오다가. 떨어트려 가지고. 한번 떨어뜨리면 못 먹어. 그거 연탄가루가, 연탄재가 다 묻어 가지고. 돼지고기가



영신연와와 불도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영신연와 노동자 (다큐멘터리사진그룹 각 제공)

다 그거 기름 저기인데. 갖다 버리고. 그거 먹을래도 속이 터져서도 못 먹어. 부애(부아)가 나서도. 하하하. 아이고, 난 아주.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술, 담배를 끊어서 저기지만. 애들 같으면 밟아 죽이고 싶지. 하하하.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아이고.

벽돌공장의 생산 과정은 작업반별로 운영·관리되었고, 임금도 작업반별로 지급되었다. 임금은 15일에 한 번씩 지급되었는데 일정한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량을 계산하여 실적에 따라 지급하였다. 그런데 작업량은 개인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작업반별로 산정되었다. 작업공정별로 벽돌 1장당 지급되는 임금을 책정해 두고, 이를 작업반원의 수대로 나누어 갖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모든 작업반원들이 성실히 일을 해서 작업량을 늘려야만 개별 노동자의 임금도 올라갔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작업량을 늘렸다 하더라도 불성실한 노동자가 있어 작업반의 작업량이 적으면 임금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 작업반의 실적에 따라 도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노동자 관리 및 통제 수단이기도 했다.



영신연와 노동자 (다큐멘터리사진그룹 각 제공)

이상길 일당이라는 게 인제 뭐냐면 저기가 있어. 부서별로 돈이 책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건조장이 있으면 우리는 인제 건조장에서 들어오는 거 아냐. 건조장은 세 명이서 (1장당) 9전 6리. 이게 54,000장 하면 가격이 나올 거 아냐. 그러면은 이걸 세 명이서 뿔뿔이(분배) 해먹는 거야. 일해는 대로야. 능력대로. 그런데 능력대로래도, 개인적으로 능력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능력. 단체가 될래면 첫째. 기계에서 생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 5만 장 6만 장 빼내야지. 그러면 여기서도 인제 거기에 피해가 가지 않게 여기서도 자리를 내줄려면 여기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자리를 비워 줘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놓이는 거야.

회사는 노동자 개개인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작업반의 반장들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 노동자들을 관리하게 하였다. 작업반의 반장들은 실적을 높이기 위해(최소한 다른 작업반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작업량을 배분하고 반원들이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도록 일과를 관리하는 등 회사를 대신하여 노무관리를 담당하였다.

이상길 이 바빠. 힘들어. 사람들 다 통솔해야지. 만약에 여덟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일을 해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가서 앉아서 술 먹으면, 넷이 먹으면 그 사람들 패가 갈려. 그럼 일할 때도 패 갈리고 이래. 그러면 한 사람은 더 해자 그래고 한 사람은 그만하자 그래고. 노다지 반장은 신경 무지하게 써. (반원끼리 마음이 안 맞으면) 내가 데리고 나가서 달래고 술 맥이고. 술 사맥이고 내 돈으루. 회사에서 돈 주는 거 아니지.

벽돌산업은 노동자들의 고된 노동과 저임금을 토대로 성장하였다. 노동자들은 고된 노동을 이겨내기 위해서 술을 마셨고, 노동과정에서 일어나는 갈증을 풀기 위해서 술자리를 자주 가졌다.

박명자 술 많이 먹으면 남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속 썩으니까는 그냥 술 먹으면 저기, 술 먹는 거 속 썩어 갖고 살기 힘들다. 술 많이 먹으면 뺨박질하고 그러는 거지 뭐.

또한 부부가 함께 영신연와에서 일을 하였지만 워낙 저임금이었기 때문에 기본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도 빠듯하였다고 한다. 이에 영신연와 노동자들의 가계생활에서 외상은 중요한 거래방식이었다. 15일에 한 번씩 제때에 임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수원 관내에서 외상거래는 수월하였다.

이영식 그러면 어디든 벽돌공장 사람이면. 옛날에 나 올 때만 해도 구두 좀 맞춰 불라고 그러면 주인이 “집에 돈 있냐?” 그래. 그러면 “영신이야.” 그렇게 하면 돼요. “나 영신에서 왔는데 구두 좀 주세요. 돈 없어요.” “아 영신에서 왔어요? 아 알았어요.” 그럼 그 보름이면 와. 보름이면 와 돈 받으러. 그럼 몇 천 원만 주고 다음에 오라 그러면. “알았어.” 하고 실은 기색도 없어. 수원극장 근처에서 쌀가게가 오는 사람한테 쌀 갖다 달라면 한 가마 갖다 주고. 거기서 왔어. 돈 받으러 왔을 때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줘도 “알았어.” 이려고 가고. 그때는 애들이 돈 생각을 안 하고, 나도 여기 와서 술 한 잔 사고, 두 잔 얻어먹으면 한 잔 사야 되기 때문에. 역전 가서 술 먹고 “아쭌마 영신에서 왔어. 달아 줘.” “그렇다.” 그러면 “그래요.~” 이려고 날 몰라도 그렇게 줘 그냥. 보름이면 주니까. 그러면 난 또 신용이 있고 해서. 돈 얼마를 해서 외상값 갖고 집에 갖다 주면 남는 게 뭐가 있어. 남는 게 뭐가 있어.

벽돌산업이 호황을 누렸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1980년대 후반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벽돌산업 내에서 노조가 만들어지고 임금인상투쟁이 벌어졌다. 영신연와는 1980년대 후반에 조업을 멈추고 임금인상투쟁을 한 적이 있는데, 회사 측이 신고하자 종로에 있던 수원경찰서에서 주동자를 잡으러 공장에 오기도 하였다.

영신연와 노동자들은 이곳에 와서 노동과 일상을 함께하면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다. 비록 가난하고 고된 노동으로 이루어진 삶이었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 일처럼 도왔다.

이상길 애경사가 생기면 올 스톱이야. 불 때는 사람 한 사람만 남고, 전 직원이 다 가서 일 봐주고. 축하해 주고. 뭐 초상 장사 다 치러 주고. 개인적으로 다 부조도 하고 다 해고 그랬지만. 기계를 딱 세우고 뭐. 전부 세웠어. 불만

꺼지지 않게 그렇게 해고 다 가서 초상 장사 딱 치러 줘. 초상집 같은 데
뭘 볼일 있잖아. 그러면 회사차가 다 해 주고, 또 개인적으로 차 있는 사람
들 있어 친척이. 여기 사람은 없지만. 친척들이 차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영식 가 한번 이 동네에 찾아오고 나면은 사는 게 어려워도 엄청 부러워했어.
왜 그러냐면 초상나고 그러면 일 안 해. 다 일 봐줘.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른 동네 사람들이 여기 와서 몇 번 왔는데, 옛날 시골집 같았다고 그렇게
단란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 좋았어 여기. 무슨 생일이고, 누가 집에 뭐
생일이고 환갑이다 그러면 생일날 뭐 동네에서 오겠어? 가지 않지. 고기
들어간 거, 생일 남은 거 죄다 구워 먹어 버리면 동네 사람들이 그거 먹
고 일 하고. 좋았어 여기.

하지만 1990년대가 되면 벽돌산업은 점차 경기가 나빠져 갔고, 영신연와도 1993년
부터 조업을 멈추었다. 그 후 공장은 경매로 넘어갔고 사택에 살던 노동자들은 하나 둘
씩 이곳을 떠나갔다. 그러나 공장이 멈춘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도 사택을 떠
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몇 십 년 동안 이곳에서 살면서 이곳이 고향이 되었다
고 한다. 이들에게 영신연와는 일을 하고 생활하며 자녀들을 낳고 키우고, 또 가족을 잃
기도 하였던 삶의 여정의 모든 것이었던 공간이라고 한다.

이상길 여기다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이팔청춘을 다 여기다 바쳤다고. 그래도 여
기 떠나기가 좀 그래.



영신연와 노동자 (다큐멘터리사진그룹 각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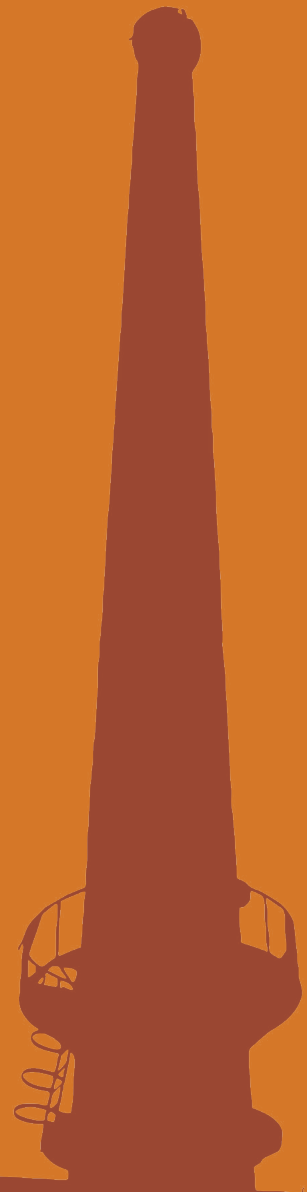
1) 이연경 · 홍현도, 「부평 미쓰비시(三菱)사택의 도시주거로서의 특징과 가치-1930년대 말 부평의 병참기지화와 노무자주택의 건설」, 『도시연구』 22, 도시사학회, 2019.

2) 유재우 · 김준 · 송혜영 · 홍지원, 「부산의 한국전쟁 피란민 주거지와 피란주택 특성」,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6(3), 2020년 3월호, 5쪽.

interview

영신연와 노동자들

the Heritage of Modern Cultural
Brick Factory YOUNGSHINWEONWA





영신연와의 시작과 끝을 지킨 이상길

면담자 : 홍현영(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류현희(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면담일시 : 2020년 3월 15일
면담장소 : 영신연와 사택

영신연와 취업과 가마 만들기

면담자 몇 년도에 태어나셨어요?

이상길 1949년 6월 23일.

면담자 고향은 어디세요?

이상길 충청남도 아산 온양온천이야.

여기 온 게 스물다섯. 73년도일 거야 아마. 시골에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취직해서 온 거지. 벽돌공장에.

면담자 여기 벽돌공장하고 무슨 인연이 있어서 오시게 된 거예요?

이상길 고향마을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다가, 시골에서 일거리 없으니까 오라 그래서 일을 시킨 거지. 회사에서는 일하는 대로 주니까. 월급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일당이야. 일하는 대로. 회사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 거여.

면담자 그럼 선생님 그때 군대는 갔다 오신 거고?

이상길 군대는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내 나이 신체검사를 통과해도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군대 안 데려갔어. 중학교 나온 사람 이상만 데려갔어.

면담자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어디서 사셨어요?

이상길 여기에 숙소가 처음에는 벽돌이 안 나왔잖아. 가마를 못 지어 갖고. 우리가 (와서 가마를) 지었으니까. 마을에다가 방을 얻어 주고 와서 일하라 그랬지. 그렇게 하고 나서 가마를 만들어서 벽돌을 구워 가지고 그 걸로 집을 지은 거야 이거를. 그래 갖고 들어 와서 살으라 그런 거지.

면담자 여기 왔을 때 공장에 가마가 없었어요?

이상길 없었죠. 우리네 와 갖고 지은 거여. 벽돌도 뺐어요. 빼 가면서 기계창을 지어 가지고 흙을 해서, 벽돌을 빼서 마당에서 말렸지. 말려 놓고 굽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말려서 쌓아 놓고 그것이 다 마르려면 한 달은 더 걸려. 그걸 말려 가지고 굽고 그랬지. 가마를 지어 가지고. 가마 짓는 게 1년 걸렸어 1년.

면담자 가마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상길 서울에서 천호동 이화산업 이런 데 기술자들이 와서. 그 일본에서 배워 갖고 온 전문가들이 와서 지은 거지. 이게 지금 한국에서 개발해서 한 게 아니예요. 일본에서 배워 온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서 늘어난 거지. 그래서 공장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랄까 그 공장 돌아가는 방식이 전부 일본말이야. 한국 말이 아니라구. 일할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을 썼고, 원 기술자들만 와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와서 감독하고 지시해서 하는 대로 만든 거지.

면담자 가마 만들 때 힘들었던 점 있으세요?

이상길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그런 거 모르지 뭐. 지금 생각해도 기술자들이 하는 시스템 그대로 하니까. 우리는 그냥 잡부로 일만 시키니까 모르지. 해라는 대로 또랑 파라면 파고 굴뚝 밑에 파라면 파고.

면담자 가마도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약간 흙을 빼내고서 터를 잡는 것부터 하는 거죠?

이상길 기수를 이제, 포크레인이 와 가지고 깊이 파가지고, 기수를 그 밑에 궁구리를 쳐 올

라와요. 이게 지하로 한 1층 내려간 거 마냥 이렇게 내려갔어요. 한 1~2층 내려간 거 마냥 지하로 내려갔어. 기수가 단단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다가 그게 이제 한 3m 정도 올라오니까 굴뚝을 파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가마 밑에를. 가마 앉히기 전에 밑에. 바닥. 여기 지면 아니예요 지면. 이 지면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굴뚝 자리를, 엔도(えんと) 자리를. 바람이 통할 자리.

면담자 이렇게 큰 굴뚝이 있으면 이거랑 연결되는 통로가 있는 거네. 이 지하에서.
이상길 문 옆에야 바로 굴을 뚫으면 문 옆에는 이게 외벽인데, 여기는 앞으로 가는 구멍(소연도)이란 말이야. 그렇게 하고 여쪽이 안쪽으로 뚫리는 거. 소연도 문을 열고 닫으면 불이 꺼지고 켜지고 하는 거.

면담자 이 안으로 들어가는 구멍(소연도)들을 파는 거군요.
이상길 그렇죠. 거미줄이여 여기가 이게(소연도) 40개가 넘게 뚫리니까. 이게 40개가 넘게 뚫리는 거여. 왜 그러냐면 가마가 스물두 개 아니야. 한 가마에 두 구멍씩 있으니까 40개 이상이 뚫리는 거야. 뽕 둘러.

면담자 굴뚝 세울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상길 그거는 하루에 1.5m씩 올라가요. 그게 그 저기 뭐라 그럴까 노깡(토관) 같이 이런 철이 있어. 그거를 갖다 놓고 사람이 공구리 쳐 갖고 갖다 부어서 대대서 맨드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한 쪽은 벽돌을 쌓고. 공구리 쳐서 또 이렇게 되고. 바깥에 이 틀이 있잖아요. 안에 틀이 있고, 이것을 올리는 거여. 올리고

또 하고, 해고 또 하고. 이거 가마 짓는 데 그땐 1년이 더 걸렸어. 옛날에는 낙엽송 같은 걸로 이렇게 땀어. 이렇게 매 났다고. 가에서 저 끝까지 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올라가서 달아 올렸어. 옛날엔 그렇게 했어. 나무로. 옛날엔 나무로 만들었지.

면담자 만들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상길 그 끝까지 갔어.

면담자 공구리는 누가 짊어지고 올라갔어요?
이상길 짊어지는 게 아니라 달아 올리는 거지. 곤도라로.

면담자 그리고 이제 그걸 퍼부를 사람이 올라가서 있는 거죠?
이상길 거긴 사람이 있지. 기술자들이. 밑에선 우리네가 쉬어서 대갖고 통에다 담아 주면은 곤도라로 달아 올려 가지고 거기서 부어 가지고 맨들고 그런 거야 그게. 그러니까 1년이 더 걸리지. 저게 42m인가 그렇게 될 거야. 밑에서 저기 다 했지. 위에서 이렇게 한 거야.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한 댓 명이 올라가 있었어. 그 기술자들이지. 전문가들. 그 양반들이 '아니'라 그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수도 없지 뭐. 한 열댓 명. 이십 명.

면담자 다 만들고 나면 굴뚝은 사람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상길 사다리가 밖에 있잖아. 위로 올라가게 다 돼 있다고. 지금도 있어 굴뚝. 수원비행장이 있어 갖고 꺾뽕꺾뽕하는 다마(전구)가 있는데. 그것도 나가서 갈아 끼고 그러는 모

양이더라구. 그거 할 때 사람이 서울서 왔어. 옛날에 와서 그거 고치고 그러더라구. 그렇게 하고 이 두께가 두꺼워서 사람 들어가면 찾지도 못해요.

면담자 가마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예요. 굴뚝 만들고 난 다음에 가마 만드는 거죠?
이상길 그것이 가마가(굴뚝이) 중간쯤 올라갔을 때 이 가마도 만들기 시작했어. 굴뚝 반 이상 올라갔을 때 이거 가마도 기수 만들고 했어.

면담자 가마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길 그건 사람이, 다 사람 손으로 다 했어요. 벽돌 하나씩 다. 아치로 구멍 내고 쌓고. 벽돌 쌓는 기술자들이 시키는 대로 쌓으라고 하면 그렇게 쌓고. 아치를 만들어서 놓고 그틀대로 쌓는 거여.

면담자 아치 틀을 이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쌓고 나중에 빼내는 거예요?
이상길 그게 아치 틀이 한 틀로 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이어서 대지. 틀을 대. 그러면 빼. 하나 빼면 다 빠지게. 아치 틀이 한 틀로 딱 맞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이만한 것이 세 개 네 개 이렇게 대서 이렇게 해놓으면 나무를 놓고 해놓으면 문이, 이렇게 타원형이잖아 이렇게. 아치 틀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틀을 이렇게 이어서 대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이어서 대면 하나만 빼면 위에 다 떨어지지 않아.

면담자 떨어져 나가니까. 그럼 그 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상길 거기도 똑같어. 이렇게 한 가마 쌓아지

면, 이거 굳기 전에 먼저 맨들어 놓은 거 있잖아. 그거 빼다가 앞에 놓고. 또 이거 굳으면 또 앞에 갖다 놓고. 그래 갖고 스무 가마야. 수도 없어. 어마어마하게 많아.

아. 그럼 여덟 구멍이면 삼팔 이십사, 셋이 하면 스물네 구멍, 스물네 구멍이면 이만큼 올 거 아니여. 그러니까 여덟 구멍씩 한 사람이 불을 지피 가고 꺼 주고.

면담자 그럼 이 가마를 이동할 때 세 명이 불을 지피고, 세 분이 쌓는 거잖아요 그리고 빼내는 분이 아홉 명이셨잖아요. 그럼 가마 문을 닫는 일을 하는 분들은 여기와 따로 있어요?

이상길 따로 있어요. 한 사람. 문만 막고 터주고 하는 사람. 그 한 사람 따로.

면담자 막는 거는 벽돌로 막아요?

이상길 그렇죠. 벽돌로 막고 흙으로 싹 발라 가지고 공기가 안 들어가게, 다 하고 요 사이에 다가 모래를 놓고 또 쌓고 흙 바르고 해서 이렇게 두껍게. 그래야 공기가 안 들어가지.

면담자 아니 그러면 가마 문 닫는 것도 굉장한 일이네요.

이상길 그러니까 한 사람이 책임지고 하는 거지. 벽돌을 처음에 쌓고, 흙을 발라. 물을 이겨서 흙을 바르고서 앞을 또 쌓잖아. 이만큼 띄어 놓고. 흙을 발라 갖고 모래를 퍼부어. 모래를 퍼부어서 채우는 거야. 끝까지 찰 때까지 다 채워서 인제 그렇게. 그럼 나중에 문을 화부가, 불 때는 양반이 문 터주쇼 하면 문을 하나 터주는 거야. 그러면 공기가 최악 따라 들어 가니까 식을 거 아니야 뜨거운 게. 그렇게 해서 하는 거야.

면담자 그러면 문을 막는 것도 하루 일거리네요?

이상길 한 사람이 하루에 세 개. 세 개 내지

면담자 쌓는 방법들이 되게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이게 벽돌 쌓는 부분들이 어떤 식의 유의점이라든가, 이런 걸 하셨던 거예요?

이상길 그걸 말하자면 이제 불을 때려면 탄이 들어가잖아요. 탄이 끝까지 들어갈 수 있게 굴을 만들어 주고. 불집을 만들어 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착착 쌓아 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여 구멍 있잖아요. 구멍이 다섯 개잖아. 여기 불구멍을 다섯 개를 만들어 주면서 가는 거야. 계속. 쌓을 때. 그러면 불구멍이 예를 들어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 가운데 다섯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면서 여기는 벽돌을 총총 놓고, 다섯 장 놓고. 여기 불집을 네모반듯하게 쌓아 주는 거야.

면담자 불집이 뭐예요?

이상길 여기서 무연탄을 넣으면 들어가서 이 끝까지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주는 거야. 그렇게 해 가지고 여섯 장 쌓고. 여기 불집을 만들어 주고. 또 여섯 장 쌓고. 또 불집을 만들어 주고. 불집도 하나만 만들어 놓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만들어 가는 거지. 여기서 불이 탈 수 있는 공간. 탄을 넣으면 탄이 탈거 아니여. 탄이 탐으로써 벽돌을 익힐 거 아니여. 그러면 그 공간이 있어야지. 불이 탈 공간이.

면담자 불집은 벽돌을 쌓고, 벽돌 사이사이 공간을 활용해서 만드는 거죠? 특별한 장치가 아니라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상길 그렇죠. 여기하고 맞춰서. 여기하고 똑같이.

면담자 그러면 아까 이렇게 해서 막는다고

했잖아요. 종이로.

이상길 예 여기 문 앞에 오면 막는 거예요. 한지로 한 번 막아 주는 거예요. 싹. 그럼 이 문을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 문도 막아. 막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래야 불이 한쪽으로 가니까. 그러면 요쪽 문 있는 데까지 갈 때가 이게 한 가마야. 요 문에서 요 문까지 한 가마.

면담자 그러면 불은 여전히 여기에 있는데 불길을 내쫓으로써 이 불이 이렇게 쭉 간다는 얘기네.

이상길 그렇죠. 여기 굴뚝마다 저기를 들어주니까 오는 거지 이렇게. 여기 한 가마 하고 신문 대놓으면 또 들어주면 오고.

면담자 만약에 한 가마가 끝났어요, 한 가마가 끝나서 여기 다 구워졌어요. 그래도 여기 화구는 여기 계속 있기 때문에 여기 거쳐서 또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상길 여기 화구마다 있잖아요. 화구가 위에서 들어오는 구멍이. 이게 한 가마에 다섯 개가 계속 박혀 있는 거예요 요만한 거리로. 계속 지나오면서 땀다니까 계속 여기서 있으니까 총총. 여기 지나오면. 여기서 자꾸 불을 들고 오면 이쪽은 꺼질 거 아니여. 이쪽은 꺼지고 이쪽은 살아날 거 아니여. 이 구멍이 자꾸 있으니까 계속. 땡 둘러 같이 있으니까.

면담자 여기가 끝나면 여기가 뜨거워지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불을 지피는 곳은 그것도 이동해요?

이상길 그럼. 다 이동하지. 이게 한 시간에 한 구멍씩 옮겨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덟 구멍을 지나갈래면 한 사람이 하잖

황토흙 가져오기

면담자 그러면 벽돌을 만드는 곳은 어디예요?

이상길 기계창. (항공시장을 보면서) 여기가 지금 흙이 이렇게 있는 데잖아. 이 흙이 여기 (기계창)로 들어가. 도저가 막 밀어다가 여기 다 쥐. 빨간 흙. 황토. 여기 다 파다 놓은 거 그 거요. 저게(황토) 다 돈 주고 사다 놓은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산이. 산에 나무가 있고, 농사짓잖아. 그게 다 흙 사다 놓은 거라구.

면담자 어디서 사와요?

이상길 뭐 삼대사방에서 공사를 하느라고 산 같은 거 밀잖아. 그럼 흙이 좋잖아. 벽돌빼기에 적합한 흙이다, 검사를 해가지고 적합하다 하면 그걸 사와.

면담자 그걸 누가 사와요? 주로 사오는 분은?

이상길 사장이 돈을 주는데, 무슨 돈을 주느냐면 흙값은 안 쥐. 운반비. 그러면 한 대에 운반비가 만약에 저 조암 같은 데서 오잖아? 그럼 한 4만 원씩 쥐야 된다고 운반비가. 25톤 차가. 그러면 그냥 밤낮으로 차가 오는 거야. 계속 갖다 붓는 거야. 이게 산이여 산. 기계가 돌아가면 1년도 못 가서 저거 다 없어져.

면담자 그러면 주로 이 산에서 흙들이 오는 철이 있어요? 아니면 되는 대로 와요?

이상길 되는 대로. 아무 때나 흙만 있으면 오는 거야.

면담자 주로 전국 공사장이나 이런 데 많이 가서 가져오나요?

이상길 그렇죠. 지하 판 데든지, 흙만 좋으면 가져오는 거지.

면담자 성형을 해서 틀에서 빼서 한 쪽에다 쌓아 놓고, 하루 말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 날 쌓아 놓고 쌓아 놓고 계속 하면서 마르는 순서대로 한 달 후에 굽는 거네요?

이상길 순서대로 또 가져가. 그러면 건조장도 계속 돌아가는 거지.

면담자 그러면 그 정도 쌓아 놓으려면 마당이 되게 넓어야 되는데, 몇 평이나 돼요?

이상길 그렇지. 건조장이 내가 보기에 한 15,000평 정도 돼요.

하루 일과

면담자 한 가마를 쌓는 데 벽돌 쌓는 데 얼마나 걸려요? 한 가마에 15,000장을 넣는다고 하셨는데?

이상길 새벽에 아침밥 먹기 전에 한 가마. 그렇게 하고 밥 먹고 한 가마. 쉬었다가 하면 또 한 가마. 오전에 세 가마를 하는 거여. 세 가마 하면 약 50,000장 정도. 오후 작업도 하게 되면 한 가마 또 하고 끝내는 거지.

면담자 보통 한 세네 가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세네 가마를 문을 터주고 넣어 주고 하는 거예요?

이상길 그렇지. 그렇게 하고 남는 시간에는 요가에다가 가마 둘레에 창간이라고 집을 지어 놓은 게 있어. 그런데 지금 다 뜯어내고 없애서 그렇지. 거기다가 마른 거 벽돌을 네 가마 넣고 나서. 그렇게 해서 시간을 채우는 거지.

면담자 그러면 아침에 작업은 몇 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상길 4시. 4시부터 일어나서 이제 반장들이 땀기면서 사람들 깨워. 맨날 술 먹고 늦게 자는 사람들, 말 안 듣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그럼 다 땀기면서 깨워. 다 여기 사니까. 그래서 나오라 해서 일 시작하면 4시 40분 정도 되면 일을 시작해. 다섯 시 안 돼서. 그러면 한 시간 반, 두 시간을 해야 한 가마를 넣는다고. 그렇게 되면 두 시간 하고 나서 아침 먹으러 오는 거야.

면담자 밥은 어디서 드세요?

이상길 여기서(사택) 다 사니까 여기서. 여기 (영신연와) 일하는 사람 여기서(사택) 살아. 그러니까 썩 들어와서 밥 먹고 또 나가서 한

시간 쉬어서 일을 해는 거지.

면담자 아침 8시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이상길 그렇죠. 10시까지 또 한 가마. 그레가지고 두 시간 걸려 한 가마 하는 데. 열두 시까지 하면 또 한 가마 하잖아. 그럼 오전에 세 가마를 한다고. 세 가마면 한 50,000장 된다고. 45,000장 조금 더 없고 그렇게. 한 가마에 한 15,000장이니까.

면담자 그러면 12시부터 점심식사 시작해서 가지고 한 1시쯤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네요. 오후 일정이라는 게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상길 마른 거를 모아 쌓는 거지. 그러면 그거 이제 기계에서 많이 나오니까, 기계에서는 54,000장이라는 게 매일 쏟아져 나온다고. 벽돌을 빼는 기계. 만들어내 갖고 물 섞어 가지고. 그제 젖은 벽돌이니까 햇볕에다 말려야 되잖아. 그니까 건조하는 사람들이 또 네 사람들 있고, 별도로 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

면담자 그럼 선생님 그때는 이제 벽돌 모양 만들어 놓은, 그 만들어 놓은 벽돌을 말리기 위해서, 건조시키기 위한 곳에서 쌓는 거군요
이상길 그렇죠. 건조시키는 마당에다 쌓는 거죠.

면담자 그러면은 말리는 데 한 달이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이상길 예. 한 달 걸려요.

벽돌 제조 과정과 인력 : 성형-건조-소성

면담자 그 업무를 하는 분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상길 직원들이 있잖아. 사무실 직원들.

면담자 사무실 직원들이 이제 흙 보러 다니는 거군요.

이상길 그제 옛날에는 흙을 어디다 메워서 하고 그런 게 별로 없었어. 농작물이 최고로 찢기

때문에 메꾼다는 거는 생각도 안 했던 거야. 옛날에는 그랬어. 지금이니까 아무리 좋은 밭도 메꿔 갖고 밭을 만들고 건축을 세우고 토지를 변경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어. 논이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논이여.

면담자 그래서 흙 얻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거네요 그때는?

이상길 그렇죠. 어렵진 않죠.

면담자 그러면 기계창으로 간다는 게, 기계창이 성형실인 거잖아요. 그럼 기계창의 형태나 이런 건 어땠던 거예요?

이상길 기계창의 형태라 그러면 이제 기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하네(はね)’라고 이렇게 길어.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돌아가게 되어 있지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하면 이게 흙을 밀어낼 거 아니여 이리. 그럼 여기서 이게 기계가 자동으로 잘라지는 거야.

면담자 벽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건 여기서 만들어져요?

이상길 아니. 여기서 흙이, 흙이 반죽이 되는 거지. 여기서 섞여서. 도자가 밀어다 여기다 넣어 인제 여기다.

면담자 큰 통에다 쏟아 주면 여기다 물하고 섞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섞이는구나.

이상길 그렇지. 물은 호스로 주니까 여기다 개요. 그러면 흙이 막 개지면 이리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네라고 잘라. 하리가네(はりがね)라고. 하리가네도 철사를 뜻하는 일본말이야, 이게 이렇게 벽돌을 자른다고. 석 장썩. 그 기계가 다를 거는 없어요. 뭐가 다르냐면 이 구자구가 다르고. 나오는 구멍. 구자구라고 그제 일본말일 거야. 구자구라고 입구를 얘기하는 거야. 구자구. 그제 일본말로 구자구일 거야. 그제 그제 갖고 그제 벽돌 사이즈에 딱 맞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무로 찢어, 이렇게. 나무로 네모반듯하게 찢는데. 가에는 이렇게 기름을 넣으면 기름이 뱅뱅 돌게. 통이 있어, 그러면 흙이 나가면서 그 기름을 묻혀 갖고 나가는 거. 그제 갖고 깨끗하게 나왔어. 그제 미다시(みいだす)라고 그러는데. 미

다시(見出す)벽돌이라고 깨끗하게 그렇게 나왔어. 그제 처음에는 그냥 막벽돌이고, 앞뒤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네모반듯하게만 나오면 그냥 구워서 팔고.

면담자 그럼 구자구를 찢다는 것은 벽돌 나오게 하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상길 그제 속에는 껍데기는 나무지만 속에는 기름 돌게 손가락같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기름이 돌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다 기름이 통하게. 그래야 물이 여기로 통해, 이렇게. 그러면 이게 나오면서 갈라지지 않아. 이게 말라서 나오면 나오면서 찢르르 갈라지잖아. 그러니까 이 모서리 같은 데 이런 데 그 물이 이렇게 돌아다니게 만들어. 이거 껍데기는 나무고, 속에는 스테인레스 판을 잘라 가지고 이렇게 대고 박아. 그 기계로 물이 흐르게 만들어 가지고 흙을 빼는 거야. 물 들은 하네통이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길어, 이제 이렇게 하네가. 이제 한 5미터 된다고, 기럭지가. 이게 뭐냐면 이렇게 비벼 주는 떡반국 비벼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원리가. 그렇게 비비는 게 여기 있어요, 쪽 이렇게 한 5미터. 그러면 이 가운데 이렇게 둥그렇지만 이 가운데 끝에 와서는 이렇게 찢서, 벽돌이 이리 나오게 하면 여기서 많이 비벼서 막 강제로 기계로 밀어 넣으면 이리 탄탄하게 나올 거 아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나무틀이라면 이 안에다가 찢는 거, 물이 돌게. 그제 갖고 그리 나오면 매끈하게 나오지. 이렇게 이제 나오면 여기서 이제 자르는 거야. 저기, 저 그거 뭐야 컨베이어 벨트. 이제 콘베어로 가서 자르지. 그러면 콘베어가 판이 계속 돌잖아 이렇게 아래로. 그래서 여기서 잘라서 두면 여기 나오잖아. 여

기서 사람들이 집어서 이렇게 구루마들이 와서 54장씩 실어가.

면담자 여기 자르는 기계가 별도로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이상길 여기 앞에서 자르지. 기계가 하네라고 철사가 이렇게 있어. 세 장씩 나오게. 철푸덕, 철푸덕 잘라지는 거.

면담자 그 기계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상길 응, 여기 틀이 있어. 기계가 장치가 돼 있어. 그러면 흙이 여기까지 나왔잖아. 여기 나오면 석 장이여. 그러면 자동으로 잘라지고.

면담자 이 기계를 작동하는 사람이 또 한 명이 있는 건가요?

이상길 한 번 이제 딱 조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다. 이게 기계가 이게 찰각 넘어가면, 찰각 잘라지는 거야. 그제 이제 석 장짜리가 이렇게 오잖아. 찰각 내려가서 잘라. 그러면 썩 밀려 나가잖아요. 그럼 또 석 장짜리가 오잖아. 그럼 또 찰각 이렇게.

면담자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상길 그전에는 사람이 잘랐지.

면담자 사람이 자르는 거예요. 들고 있다가 애가 오면 이렇게 자르고.

이상길 간단해 일리가. 일본식이니까. 전부다 대한민국에 벽돌 만드는 방식이 일본식이며. 한국식은 세멘 벽돌밖에 없어. 집 벽돌을 그 시골에서 하는 그 흙벽돌, 그제 한국식이며.

그래 갖고 민속촌 같은 데 다 그런 걸로 했잖아. 기와도 다 사람 손으로 찍었고, 토종은 그래, 한국식은, 이렇게 찰작 내려가면 이 철사가 세 개가 착 내려가서 잘라지는 거야. 그러면 벽돌이 석 장이 밀려 나가잖아. 그러면 또 나오잖아 그제, 그러면 또 자르고, 나오면 또 자르고, 그리고 이제 저 여기쯤 이제 컨베이어벨트 타고 나오면, 얼마큼치 사람이 집어서 이렇게 실어 주는 거야.

면담자 벽돌 크기 기억나세요?
이상길 아 그럼요. 벽돌이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잡으면 이래. 72전인가 그래. 이게 건조가 되면 한 70전 된다고. 그러면 건조가 다 되고 구워지면 또 한 1전이 줄어. 건조가 되면, 불에 구우면 줄어. 한 2전이 줄어 또, 그래 갖고 이제 그제.

면담자 말릴 때, 건조할 때, 다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이상길 그때도 잘 나오면 2전 줄고 잘못 나오면 1전 줄고, 벽돌 품질대로.

면담자 부서지기 쉬우니까 이게 움직일 땐 여기 벨트를 그대로 움직여져요?
이상길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 개가 나오면 사람이 집어. 집어서 여기 구루마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실어 줘. 벽돌 석 장을 들어. 그리고 구루마에 실어 줘. 구루마가 이렇게 돼 있어. 여자들이 구루마를 끌어. 그리고 받아. 여기서 딱 들어서 이렇게 구루마를 잘 대주면 여기서 들어서 이렇게 놓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밀고 가면서 또 넣고, 안 꺼져요, 그리고 기계가 반죽을 해 가지고서 이게

야물게 밀어 넣잖아. 에어를 빼고 진공을 시킨다고. 에어를 빼고 진공을 시키니까 벌써 딱딱하다고. 그러면 너무 질게 빼면 쌓는 사람들이 말하지. 손자국 난다고 질다고 소리 질러. 그러면 물을 좀 줄이고.

면담자 반죽 할 때 에어를 빼고 딱딱하게 만들어서 밀어내는 거예요?
이상길 그렇죠. 여기서 벌써 이미 도저가 여기다가 흙을 밀어 넣어 주면 여기다 파 갖고 넣어 주는 사람도 있어. 세 명.

면담자 흙을 성형기에 밀어 넣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이상길 가쿠메라고 해. 그 다음으로 완전 진공시킨 벽돌을 여기서 받는 것도 세 명. 세 명이서 하는 거여. 세 명이서 이것을 봐야지 혼자서 힘들어서 안 돼. 절대 못 해. 쉬어 가며 해야지. 기계에서 계속 나오니까 기계는 사람이 수동으로 끄기 전에는 계속 나온단 말이며.

면담자 그러면 여기 세 분이 계속 벽돌을 받는 일을 하시고, 이것을 이동하는 거는 누가 하나요?
이상길 아줌마들이 계속 리어카 가지고 돌아들어오는 거야. 여기 다 놓으면 나가고, 또 대고.

면담자 리어카 크기가 얼마나 돼요?
이상길 리어카 한 대에 싣넵 장 실려.

면담자 저 벽돌을 놓을 때 바로 그냥 봐도 돼요? 벽돌이 아직 마르지 않은 새 거니까 뭐 깔고 봐야 돼요?

이상길 그냥 여기 벽돌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쌓는 거야 이렇게. 세 장씩. 이렇게 면을 맞춰 줘. 이렇게 면을 맞춰서 쌓고 또 엑스자로 요렇게 면을 맞춰서 쌓고, 이렇게 엑스자로 놓잖아요. 계속 이렇게 나가면 여기 물리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놓는단 말이야. 이렇게 두 장을 또 놓는다고, 계속 이렇게 쌓는 거야. 이렇게 물리고 이렇게 물리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쌓아 나가면 이게 안 넘어가는 거야. 이게 마르면 줄잖아요. 줄면 움직이면 넘어가거든. 이걸 잘 쌓아야 안 넘어가는 거야.

면담자 수레에는 그냥 싣네 장을 그냥 쌓아요?
이상길 석 장씩 놓으니까. 석 장씩 놓는 게 아홉 손 들어가. 아홉 개가 두 줄이에요. 그렇게 들어가. 그러면 요렇게 받아 놓는 대로 밀어 줘. 구루마를. 밀어 주면서 끝까지 다 났잖아? 그럼 이 사람은 얼른 가야 돼 다음 사람이 또 들어와야 되니까.

면담자 사람이 구루마에다 싣고, 이게 맨 처음에는 세 줄로 실었다가 두 줄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상길 세 줄로 했었는데. 너무 힘들어 사람들이. 옛날 초창기에. 그 자동으로 할 때는 다 그렇게 두 줄로 실었어요. 아줌마들이 다 끌고 다녔지.

면담자 그니까 이게 세 장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상길 석 장이 딱 붙어서 나와. 그럼 석 장을 집잖아, 집으면 석 장이 이렇게 붙어서 나와, 그러면 딱 갖다 놓잖아. 이거 또 여기다 놓고.

그제 이제 한 줄에 아홉 개씩 놓는 거야. 아홉 개씩.

면담자 이게 붙어져 있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이상길 아니 기름 먹었으니까 잘 떨어져. 건조장에 가면. 다 쌓는 사람이 다 이렇게 하면 다 떨어져. 그러면 쌓아서 말리는 거야. 그러니까 잘라진 자리는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손을 이렇게 대보면 다 떨어져. 그러니까 그제 아홉 개씩, 저기 석 장씩 집어서 아홉 개씩이니까, 싣 넵 장. 한 구루마에. 그래 구루마가 모자라거나 이제 갖고 오다가 얹어 버리잖아. 그러면 또 혼나.

면담자 이게 부서지거나 이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상길 많죠. 오다가 구루마 미어 패는 수도 있고 뭐. 이거 물 벽돌은 가다가 한번 얹으면 다 버리는 거야, 다 그냥 헛 거여. 한 삼십 명 일한 게 다 헛 거여. 그러니까 조심해서 해야지. 그런 답에 이 마당에다 넣어놓으면, 비 오려고 그러면 그냥 비상 걸려, 비 단도리 하느라고. 비 맞으면 다 버리니까, 굳기 전에. 그랬어. 그래 추우면 못 하고.

면담자 벽돌을 받아서 한 분씩 계속 건조장으로 나가는 거죠?
이상길 그럼 기계창에서 나와서 건조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건조장으로 가면 건조장에서 받아 쌓는 사람이 있어. 네 명. 그게 굉장히 힘들어. 네 명이서 계속 하루에 54,000장 나오면 54,000장 다 쌓아야지.

면담자 그림(항공사진)에서 봤을 때, 이게 다

면담자 그럼 흙 넣는 사람들은?
이상길 가쿠메, 세 명, 세 명이야.

면담자 그리고 운반하는 아주머니들도 한 부서로, 인정해 주나요?
이상길 앞차. 처음엔 딸딸이라고 불렀는데 일본 사람들이. 50명 아줌마 중에 이거 하는 사람들은 한 열여덟 명 정도 돼.

면담자 이게 아주머니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앞차는?
이상길 아줌마들은 다른 일 해는 아줌마들이 많지. 이제 여기에 마당, 건조장에 물건을 쌓아 놓으면 그전에는 이렇게 닦았어. 끄트머리를, 철사가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까시레기가 나오거든. 그럼 그걸 이렇게 닦아 줬어. 그러다 자동기계가 나오면서 이제 깨끗하게 나오니까 안 썼지 아줌마들을. 아줌마들이 여러 가지 일을 다 들어갔지.

면담자 그러니까 앞차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차 운반해 주는 분들, 이 분들이 거의 여자 분이세요?
이상길 거의 여자야. 한 스무 명? 기계창 안에 여자들까지 하면 한 열여덟 명하고 다섯 명하고 스물세 명 정도 돼.

면담자 다섯 명은 뭐예요?
이상길 안에 여기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딱 내려가서 잘라지고 올라오면 흙을 이 철사에다가 갖고 온다구. 묻혀 갖고, 그 흙도 닦아 주고, 그걸 닦아 줘야 돼. 그게 왜 그러냐면 딱 잘라질 때는 들어가니까 속에까지 갔다가 올라올 때 이게 계속 밀려 나오니까 묻어 버리니까. 묻어

오잖아 암만 빨리 나와도 들어갔던 데로 도로 나오니까 묻지. 그러면 그걸 닦아 주는. 딱 올라오면 탁 닦고, 탁 올라오면 탁 닦고.

면담자 그게 불량이 생기면 벽돌을 버리는 거죠?
이상길 그렇죠. 불량 생기면 그냥 버리는 거여. 여기다 실었어도 다 버리고.

면담자 그러면 의외로 성형실에도 사람이 꽤 많네요? 흙 닦아 주는 분 다섯 명, 앞차 하시는 분 열여덟 명, 다음에 흙 넣는 분 세 명, 그다음에 세시당 하시는 분 세 명 해 가지고 여기도 이게 다 기계창에 있는 분들인 거잖아요?
이상길 초창기에는 세시당이라고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자를 때는 도루마시라고 구루마를 대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 그걸 도루마시라고, 그게 일본 말이거든. 맨날 돌아다닌다고 해서 도루마시여. 그게 두 명이 있었거든. 자동화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자동화되고 나서 아줌마들이 직접 대지.

면담자 그러면 구루마만 딱 대주는 도루마시가 있었던 거예요?
이상길 예. 그때는 아줌마들만 아니라 남자들도 앞차를 했었어요. 남자들도. 그럼 그냥 기계에서는 많이 나오고 사람은 적어서 끌어내지 못하면 구루마가 좌악 앞에 나와 있었어. 쌓아 놓은 게. 그러니까 나르는 사람들은 한 발짝도 쉬지도 못 해. 계속 가야 돼. 그러니까 다리가 막 이렇게 붓고 그래. 하루 종일 걸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연탄재를 때니까 흙이 다 까매. 그래서 다 까매지지. 신발이고 옷이고. 그래서 여기가 까막골이야 까막골.

작업반의 명칭과 인력수

건조장인 거잖아요?
이상길 여기가 다 건조장인 거지. 건조장이니까 쌓아 놓으면 말려야지. 덮었다 제꼴다. 비 올라 그러면 덮고, 밤에 비오면 잠도 못 자. 책임져야 되니까.

면담자 반장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반장은 몇 분이 계신 거예요?
이상길 반장은 각 부서마다 반장이 있지. 아가지라고 있어. 꺼내는 사람. 그리고 넣는 사람은 시라지.

면담자 가마에다 벽돌을 넣는 일하는 건가요?
이상길 이제 마른 벽돌을 가마 안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여덟 명. 건조장에서 마른 벽돌을 가져다 안에서 내가 쌓고 있는데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여덟 명이고 요걸 꺼내는 사람들 아홉 명. 그리고 쌓는 사람 세 명. 쓰미.

면담자 선생님은 쓰미셨군요?
이상길 쓰미에다가 이 건조장 사람이 없어서 이리 나오라 그래서 나가서 또 해고, 나는 왔다 갔다 했어

면담자 여기 작업반에 반장이 하나씩 있는 거죠?
이상길 그렇죠. 각 부서마다 한 사람씩. 건조장에도 마당모치라고 있어. 건조장에서 쌓는 거지 셋이서. 셋이서 하루 종일 54,000장씩 쌓는 거지.

면담자 기계창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상길 셋이 여기 절단이라고 자르는 사람들 있어. 사람 손으로 잘랐어 옛날에는. 그러다 나중에는 자동기계가 와서 자동으로 잘라 줬지. 이게 자동화된 것은 아마 86년도나 그쯤.

면담자 벽돌 절단하시는 이 분들은 뭐라고 했죠? 이분들도 따로 반이 있는 거예요?
이상길 이 사람들 이름이 세시당이라고 있었어.

연간 작업 주기

면담자 1년 동안 작업은 언제 끝나요?
이상길 그래 거기가 마른 벽돌 쌓아 났다가 겨울에 물벽돌 안 나오면 겨울에 구웠어. 젖은 벽돌 안 나올 때. 10월 말이면 (기계에서 벽돌 생산이) 끝나 그제. 그러면 겨울에 한 12월 달까지 늦으면 그냥 1월 달까지도 구웠어요. 그렇게 하고서 다 구우면 끝났어. 불 꺼.
면담자 그러면 불이 꺼지고 나서 쉬는 시기가 있어요?
이상길 있지. 그제 3월 말까지야. 4월 초부터 일해. 얼면 못해 얼면, 얼면 다 버리는 거야 암만 많이 만들어 봐도. 10월 말 무조건 끝나. 이게 과학적으로 4월 15일까지 서리가 와. 그리고 10월 15일까지 서리가 오고. 그날 지나 가면 얼어. 그래서 4월 초에 시작을 해서 10월 말이면 딱 끝나. 땀띠 나든 뭐 하든. 더워도 끝나. 11월 달 가면, 어느 해든지 11월 달에는 눈이 와, 얼어. 그리고 11월에 빠는 거는 얼어서 못 써요. 한 달을 말려야 되는데 그동안에 얼어 버린다고. 그러니 못 써. 그래서 그때까지 딱 빼고서 날이 암만 좋아도 그냥 덮어, 저기 하거든, 기계 딱 끝나. 그 이듬해 4월 달에 또 하지. 그래 갖고 10월 말서부터 11월, 12월, 1, 2, 3, 4월까지 6개월을 놓고, 육 개월을 일하고.

면담자 10월 달에 생산하는 걸 성형이나 말리는 것도 끝내는 거예요?
이상길 예. 다 그냥. 그리고 시작할 때는 4월 말. 아니 3월 말.

면담자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계속 생산하고, 건조하고, 말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면담자 사무실은 어디 있었어요? 사무업무 보는 데는?
이상길 지금 여기 자동차 있는데 여기 이게 사무실이야.

면담자 정문 입구 있는 바로 옆에~ 그럼 트럭이 여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길 그렇지. 이게 길이잖아요. 요렇게 들어오면 사무실이고, 요렇게 들어와서 뽕 돌아댕 기계 돼 있어. 요렇게 뽕. 이게 창간이네. 여기 지금 있는 게.

면담자 창간이 뭐예요?
이상길 벽돌 마른 거 갖다 저장해 놓는 자리.

사무실 직원

면담자 하루에 흙 실어 오는 차는 몇 대나 들어왔어요?
이상길 어우 많이 들어올 때는 계속 24시간 계속 들어와요. 차는 밤에도 오니까. 그렇게 해서 갖다 붓고 그러지. 흙이 좋은 거 있다 그러면 다 파울 때까지 다 계속.

면담자 그럼 흙 들어오는 걸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직에서, 사무실에서 하는 거예요?
이상길 예. 직원이.

면담자 그때 당시 사무실에서 사무업무, 월급 주는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무직들은 몇 명이나 있었어요? 전체가?
이상길 회장님은 따질 것도 없고. 사장부터. 사장, 상무, 대리, 부장, 또 반장.

면담자 여기 반장은 어느 반장이신 거예요?
이상길 감독이지.

면담자 총감독은 어느 분이셨는지 이름 기억나세요?
이상길 양광길이라고 있어.

면담자 부장님은 누구셨던 거예요?
이상길 박윤행 씨라고 고색동 큰말에 사셨어.

면담자 그러면 사장님은 그때 누구였나요?
이상길 박양일이 다음에 막내 박덕원이. 박양일이가 자동화되기 전까지는 했어. 80년대 초반. 이게 자동화되면서 덕원이 막내가 했지.

면담자 근데 박덕원 씨는 영신여고 서무과에 계셨던 거 아니에요?

이상길 젊어서. 여기 사장 오기 전에 형 밑에가 있는 거니까. 셋째가 박창원이, 그 영신학교 이사장 동생 아니여, 막냇동생. 총각 때 있을 때는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둘째 형인 박양일이가 하다가, 박덕원이한테 쫓단 말이야. 인수받기 전에 영신학교에 가 있었지. 학교 땡기고 그랬어. 우리 여기 왔을 때, 일헐 때. 덕원이가 우리보다 나이 적어요. 박양일이가 둘째요. 그렇게 하고 박덕원이가 막내고, 박창원이가 셋째. 그리고 저기 그 국회의원한 양반이 박지원 씨.

면담자 그럼 상무님은 누구셨던 거예요?
이상길 상무는 저기 박덕원 친척이라고, 박 상무라고. 그렇게만 계속 해서. 대리도 젊은 사람인데 저기가 사장이 데려온 사람이야 사장 친구가.

면담자 그럼 이렇게 있고, 전체적으로 사무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셨던 거예요? 한 열댓 명 됐어요?
이상길 열댓 명은 아니고, 사장, 상무, 대리, 부장, 감독. 그렇게 있었나 봐. 다섯 명이 있고.

면담자 여직원은 없었어요?
이상길 있었어. 여직원 한 명이 있고. 누가 월급쟁이로 되느냐면 (불)도저 기사. 도저 기사가 항상 한 사람이 낮에만 해니까. 화물차 운반하는 기사 세 명. 그러면, 열 명이지. 한 열 명, 그 정도 있었나 봐. 열 명, 열한 명 이렇게 됐었나 봐.

이상길 그계 기름으로 해는 거야. 여긴 무연탄으로 해는 거고, 여긴 재래식 가마고 거긴 새로 신형 가마여.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긴 막 벽돌. 거기는 미다시벽돌.

면담자 미다시벽돌은 뭐가 달라요?
이상길 타이루마냥 곱대는 거.

면담자 반짝반짝거리는 벽돌?
이상길 깨끗한. 타이루식으로. 여기(고색동 공장)는 거친 막벽돌이고.

면담자 임금 받으셨을 때 일당으로 받으셨됐잖아요. 얼마 정도 받으셨는지.
이상길 일당이라는 게 뭐냐면 저기가 있어. 부서별로 돈이 책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건조장이 있으면 우리는 인제 건조장에서 들어오는 거 아냐. 건조장은 인제 저기, 세 명이서 9전 60전인가 9원 60전, 아니 9전 6리. 9전 6리. 그계 전으로 나가는 거야. 장당. 이게 일본식이야 일본식. 3명이여. 3명이서 아마 9전 6리가 나올 거야. 이게 54,000장 하면 가격이 나올 거 아냐. 그러면은 이걸 세 명이서 뿔뿔이 해먹는 거야. 그러니까 일해는 대로야. 능력대로. 그런데 능력대로래도, 개인적으로 능력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능력. 단체가 될래면 첫째, 기계에서 생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 5만장 6만 장 빼내야지. 그러면 여기서도 인제 거기에 피해가 가지 않게 여기서도 자리를 내줄려면은 여기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자리를 비워 줘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놓이는 거야. 여덟 명이서 해면은 한 3전으로 해면은 삼팔에 24전 아냐. 24전 이렇게 나뉘. 전으로 나뉘. 전, 리.

면담자 그러면 부부로 일하시는 분들을 모집 하나요?
이상길 결혼한 사람을 선호하지 회사에서.

면담자 왜 그랬던 거예요?
이상길 총각을 선호하질 않아. 총각은 술 한 잔 먹으면 일 안 해. 술 한 잔 먹으면 제켜. 그래서 일해다 말고도 힘들면 총각은 저기 가서 잠자고 오지도 않아. 일하는데. 그럼 맨날 찾으러 다녀야 되니까 안 쓸라 그래.

면담자 선생님 동보도, 동보도 부부끼리 사는 숙소가 있었어요?
이상길 그럼요. 똑같지.

면담자 벽돌공장들이 대체로 그랬던 건가요?
이상길 그럼.

면담자 동보보다 항상 돈을 더 줬어요? 일하는 분들한테?
이상길 동보에서도 여기로 많이 왔지. 여 끌어내고 그러는 사람들 다 저기서 온 사람들. 동보에서 온 사람들. 얼마나 열 받으면 그랬겠어.

면담자 조암에도 벽돌공장이 있었어요?
이상길 예. 거기 있었어요. 이보다 더 좋은 벽돌공장이.

면담자 장안면 어은리 쪽에 있잖아요.
이상길 그러 맞아. 나도 거기 가서 일하고 그랬어요.

면담자 어은리 공장은 가마가 다르던데. 터널가마라 그러던데요?

노동자 구성과 임금 지불

면담자 여기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이 열 분 정도 됐고, 공장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몇 명인 건가요?
이상길 50가구에 부부가 일하면 100명 아니여.

면담자 맨 처음에 오셨을 때 그러면 총각 분들은 없었어요?
이상길 나도 총각으로 와서 우리 마누라 만나서 애 놓았지. 서울서 만나 갖고 같이 온 거야.

면담자 그러면 여기는 일하시는 분들이 다 부부로 일했던 분들이세요?
이상길 그렇죠.

면담자 그럼 맨 처음에 이분들이 70년대에는 젊었지만 90년대 되면 나이가 20년이 지난 건데 그분들이 거의 그대로 계셨어요?
이상길 나가는 사람도 있고, 더 좋은 데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또 다른데서 데려오고 또.

면담자 그럼 맨 처음에 취업하실 때 가능한 부부가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데려오셨어요?
이상길 아니지.

면담자 그럼 만약에 남자 한 분만 오게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이상길 남자 하나가 오면 그냥 독신자로 있는 거지.

면담자 그럼 그분은 어디서 살아요?
이상길 마을에 방이 있었잖아.

거예요?
이상길 그렇게 하고 굶는 거는 두어 달 더 해. 굶는 거는. 가마는.

면담자 그래서 12월까지 구워 가지고 개는 바깥으로 나가서 판매를 하면 되니까.
이상길 그렇지.

면담자 그럼 1년에, 처음 가마 굶기 시작할 때 고사도 지내고 그러나요?
이상길 그러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그때 당시만 해도 고기도 귀할 때지. 먹는 게 귀할 때니까. 돼지를 큰 걸 잡아. 고기의 질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한 200~300근짜리 큰 놈을 잡는다고. 그래 갖고 역전에 전문으로 당기는 무당 할머니가 있어. 그 양반이 지금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럼 그 양반이 이제 와. 남자 여자 다 해서 와 가지고 굿 해는 거 마냥 고사를 크게 지내. 그렇게 하고 그 돼지를 전부 조각내서 50명 나눠 주는 거야. 그니까 100근 이런 게 아니라 200근 300근 되는 큰 돼지를 잡아. 고기질은 안 따지고. 그러면 한 100명 되면 100근으로 쪼개는 거야. 그렇게 해 갖고 한 집 에 한 근씩 가져가고. 한 사람 앞에.

면담자 그럼 여기 도축장이 있었는데 거기로 가서 도축해 오는 거예요?
이상길 거기서 해 갖고 오면 그렇게 놓고 지내면서 고사 지내고 나서 우리 다 잘라 갖고 그 때 당시는 그거 불(화입식) 시작하고 그러면 수원시장도 오고 도지사도 오고 다 왔었어요. 큰 행사지.

사택

면담자 그러면 장당으로 한 다음에 돈을 계산
을 다 한 다음에 매일매일 주셨어요?
이상길 아니지. 15일에 한 번. 그러니까 돈이
모이지질 않아. 왜냐하면 술 먹는 사람들은
인제 15일치 돈 받아 봤자 얼마나 돼. 많이
받아야 35만 원 30만 원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70~80(만 원) 버는 거면 많이 버는 거거
든 돈은 액수로는? 그런데 모아지질 않아.

면담자 사택비용은 회사에서 대주는 거예요?
이상길 사택만큼은 세를 안 받아요. 세를 받으
면 올 사람 하나도 없지. 그 대신에 전기세고
불 때는 거 이런 건 개인이 해야 돼. 여기서 다
내야 돼. 사는 사람이.

면담자 이 집을 선정을 할 때, 뽑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상길 그게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50명이잖아요. 50명인데 이 집이 선네 개야.
하나 둘 셋 네 줄. 한 줄에 열두 집씩 이렇게.
마흔여덟 집에 또 있었어. 이 뒤에 두 줄이 있
었는데 뜯어냈어. 이렇게 있었는데. 한 집마
다 부엌하고 방 이렇게 한 칸씩.

면담자 그럼 이게(방 하나와 부엌 하나) 12개
가 있었던 거예요?
이상길 예. 이렇게 열두 개. 그리고 이게 네 동

면담자 여기도 방인 거죠?
이상길 예. 처음에 방 하나 부엌 하나 요렇게
딱 쪼개. 그리고 여기서 자식들 낳고, 자식들
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그러
니까 (덧대서) 새로 맨든 거지. 벽돌 못 쓰는
거 갖다가 내가 쌓아서 맨드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하잖아.

면담자 그럼 여기가 원래 뭐였었어요?
이상길 부엌이었지. 그건 회사에서 해준 게 아
니라 개인적으로 만들 거야. 세 칸씩인 건 개
인적으로. 요런 데는 요쪽 집은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쑥 들어가 있잖아.

면담자 그래서 이렇게 울쑥불쑥한 거구나.
이상길 예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지.

벽돌 판매처

면담자 사택에서 이사를 다녔어?
이상길 여기서 저쪽 방에서 살다 이쪽 방으로
좀 나온 데로 이사 다니고. 이게 쪼끔 도로가
예로 가까우면 좋잖아요. 저 끄트머리로 가는
것보다. 그래서 회사에다 얘기해구 방도 바꾸
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다 다 없어져 부렸어.

면담자 기숙사 관리도 회사에서 했어요?
방 배치나 이런 거?
이상길 예 그랬지.

면담자 1년에 한 번씩 해 준다든가 이런 거예
요 아니면 사람 빠질 때마다 했어요?
이상길 사람이 나가든 다 다시. 우리는 한번
들어오면 그냥 살지.

면담자 보통 여기 가구들이 있는데, 부부들이
있고 자녀분들이 몇 명 정도씩 쪼개요? 방을
대략? 자녀 분 숫자가 몇 명 정도였어요?
선생님은 자녀분이 몇 분이세요?
이상길 우리 넷. 네 명. 다른 데는 딸 셋 뭐.
두 사람, 세 사람 보통. 넷이 제일 많은 거야.
내가 제일 많은 것 같애. 하하. 전부 둘, 셋 그
렇지 넷은 드물어. 나만 넷인 것 같애.

면담자 여기가 생산되는 벽돌이 계속 똑같았어
요? 시기별로 벽돌 모양을 바꾼다든가, 다른
걸 만들기도 하잖아요.
이상길 처음에는 에어 진공을 안 시켰지. 진공
을 안 시키니까 이게 아무래도 잘 깨지고.
잘 부서지고, 먼이 곱지도 않고. 그래 나중에
10여 년 지나간 다음에 자동화를 해면서, 에
어 진공을 하니까, 공기를 싹 빼고 해니까, 눌
러도 탄탄하고. 매끄럽하고. 그래. 품질이 향
상됐지. 여기는 저 벽돌, 빨간 벽돌. 그래 가지
고 가마에다 굽는 거. 그거만 했지.

면담자 이게 공장이 80년대까진 되게 잘
됐잖아요.
이상길 예. 그땐 이런 쪼가리도 다 사갔어. 건
축해는 데. 그래 집을 보면 옛날 집들은 전부
빨간 벽돌이여. 동네 들어가도 옛날 집은 전
부다 빨간 벽돌이여. 주택이지. 전국적으로
다 됐지. 옛날에는 전부 뭐 여기서 해가지고
전국으로 다 나갔기 때문에 몰라. 하여튼 이
앞에 나가도. 여기에 농협 앞에 거기 이쪽으
로 골목 있어요. 농협 있으면 저쪽 골목. 그 커
피 파는 데 골목, 거기 그 벽돌들이 전부다 여
기서 나온 걸로 집 지은 거야. 고색동에 있는
주택들 집들 다.

면담자 여기 오다 보면 그 박지원 씨네 집 벽돌
도 그럼 여기서 나갔겠네요.
이상길 아, 그럼 다 여기서 나간 거지. 다. 여기
서 다 만들었지. 저런 데 그때 다 저거 여기서
나갔었지. 단독주택들 다 여기서 다 나간 거
야. 여튼 영신사 벽돌이라고 그러면 경기도
지방 위로는 거의가 다 여기 벽돌, 서울도 여
기서. 그게 이제 전국구니까 이게, 자기 소개

노동자 일과

면담자 여기가 보통 동네 가구가 있었고 부부끼리 살았으면 100명 정도의 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셨던 거예요?

이상길 예. 그렇죠. 부부가 다 일을 하니까.

면담자 그러면 아침에 4시부터 일어나 갖고 일을 하는 것도 여자 분들도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서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이상길 똑같애. 기계창에 여자들은 팔려 있는 거니까, 여자들은 남자들 나가서 해는 거보다 조금 늦게 나가지. 그 양반들도 다 살림하는 양반들이니까, 다 밥해 놓고 나가고.

면담자 몸을 쓰는 일인데, 그럼 만약에 결혼했는데 임신하고 그러면.

이상길 그래도 일했어. 그 애기들이 생기면 가마때기 깔아 놓고 거기 앉아 있으라 그러고 일하고, 우리 딸내미도 내가 업고도 하고 그랬어. 우리 딸내미가 지금 여기 와서 낳은 게 마흔일곱이여. 호랭이 띠. 호랭이띠가 우리 큰 딸이여.

면담자 그러면 여기 가마 뻔 때 여기서 고기도 구워 드시고 막걸리도 거기서 드시고.

이상길 아유 거기 할 때는 회사에서 고기 한 번씩 구워 주면 막 꿀맛이지.

면담자 젊은 사람들이 술도 먹고 그러면 박지원 씨네 하는 양조장 가서 술 사다가 먹었어요?

이상길 거기서 무슨 저기가 있으면 이렇게 통에다, 말통에다가 술 배달하는 양반이 있어. 그 양반이 실어다줘. 그러면 그걸 먹는 거여.

면담자 술 배달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면담자 이게 들어오기 전엔 어떻게 이 작업을 했어요?

이상길 도저가 없을 때. 도저가 나중에나 왔지. 이거 공장 생기고 한 10년 후에 나왔어. 그전에는 원투 구루마라고 해서, 원투라고 해서, 사람이 구루마 하나에 두 사람씩 해서 내루(레ール)철 맨들어서 짝 놓고 이렇게 파 실어 갖고 와서 쏘고 그랬어. 흙만 퍼다 갖다 여기다 부어 줘. 그러면 여기서 갖고 오는 애가,

면담자 성형기계는 초창기부터 있었던 거네요?

이상길 있었죠.

면담자 흙과 물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상길 물은 비율을 뒀, 몇 프로다 알기보다 물을 호스로 부어. 여기다 따러 넣어. 여기서 인제 물건 나올 때 사람이 만져 보면 어느 정도 알잖아. 그러면 물이 많다 적다 그러면은 거기서 조절을 해. 물을 좀 더 뿌리고 그래. 특별한 저기는 없고 그런 식으로.

벽돌 생산 : 채토 및 반죽

면담자 기구들이나 도구들 같은 것들이 어떤 게 사용이 됐어요? 아까 구루마도 사용이 됐고, 손으로 성형을 할 때나 이럴 때는 도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틀 만드는 거라든가 그런 거.

이상길 아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어떻게 되냐면 기계시설이 들어갈 때 하네가 있잖아요? 여기가 흙 들어가는 데 아녀. 흙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이 저 모터가 250만 원짜리 모터를 달아 가지고, 돌을 이렇게 잔돌이 들어가면 아주 짝 분쇄를 시키는 거여 그거를. 가루를 만드는 거지. 모래를 만드는 거지. 모래가 들어가면 벽돌이 더 트지도 않고 좋아요.

면담자 여기에 흙이 들어가잖아요. 흙 외에 또 다른 거 집어넣는 거 없어요?

이상길 다른 거 없어요 몰밖에.

면담자 물하고 그 흙으로만 해요? 그럼 흙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찾는 건 되게 중요하네요. 그 황토흙 찾는 게.

이상길 그렇죠. 그것도 전문가가 땡기면서 봐요. 이 흙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면담자 그럼 여기에 스크류 같은 게 있어 갖고, 물하고 흙이 들어가면 여기서 막 섞어주는 거죠?

이상길 그렇죠. 이게 그 저기 하네라고, 이게 돌아가면서 여기서부터 이게 장축이여.

면담자 장축으로 길게 돼서, 톱니 같은 게 돌아가는 거죠? 스크류가? 그러면서 막 섞어주는 거고.

소개로 팔아먹는 거야. 서울도 공장이 몇 개 있었는데. 그 뭐 다 서울사람 벽돌 여기서 팔고, 여기서 서울로 팔고, 서울로 다 팔았어. 그게 이제 주문을 하면 돈 관계는 회사에서 차로 싣고 가서 계산을 하니까. 회사 차로 하니까 얼마가 되는 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 거기에 다 포함됐을 거야, 가격이. 그래 이 서울사람들도 이제 자체 내, 자체 회사 그 화물차가 있으니까 그걸로 실어 나르고. 그리고 농촌에서, 농촌에서 이렇게 와서 사가는 사람들은 집 한 동씩 짓는 사람들은 경운기. 그 경운기를 두 번만 싣으면 집 한 채 짓고 그랬어요.

면담자 그러다 안 되기 시작한 게 언제쯤이예요?

이상길 90년대. 90년대 들어서 인제 그때 인제 전부 다 아파트 시기로 들어가면서 연립주택들 짓고 막 돌 붙이고, 그러면서 들 됐지.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인제 학교만 많이 들어갔지. 창원이가 많이 다리 놔서 학교로만 많이 들어갔지. 학교는 전부 벽돌이여. 그게 아마 왜 그랬는지, 불에 위험해서 그러는지. 하여튼 학교 하나 걸렸다 하면 뭐 거의 뭐 그냥 한 달 빼는 거 다가야 되니까. 학교는 전부 벽돌이잖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학교는 벽돌이여.

면담자 왜요? 콘크리트로 안 하고?

이상길 콘크리트로 해서도, 곁에다가 벽돌을 또 쌓아요.

면담자 그럼 벽돌은 단독 주택일 때 가장 많이 소진이 됐던 거죠?

이상길 그렇죠. 그때 많이 들어갔죠.

이상길 그 양반이 월급 받고 해던 양반인데, 지금도 저 평동 살어. 내 이름을 몰라 갖고 그러지. 내가 여기 처음에 와서 내가 동네 저 동네 거기 집도 몇 가구 안 됐어요. 스물다섯 가구, 스물다섯 가구, 한 40~50가구밖에 안 됐어. 경운기로 청소도 해구 그랬었어.

면담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여기는 사람들이 잘 안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길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뭐 건축이 이렇게 많이 저기 되지 않았고, 이 동네에 열두 가구, 열세 가구 살았어. 원주민이. 이 동네에. 그렇게 하고 저쪽에 한 30가구, 저쪽에 한 40가구. 이렇게 큰 마을, 작은 마을 해서 한 70가구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길도 전부 마차길 이런 길밖에 없었어. 다 이 길이 네 번 밀린 거야, 네 번 늘린 거야.

면담자 여기 고색동 사람들하고는 어울릴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이상길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뭐 하고 그럴 사이는 없어요. 일 안 할 적에는 여기 사람들끼리 앉아서들 그냥, 부서 사람들이 앉아서 술 먹느라고 얘기하느라고 바쁘지 뭐. 어디 가서 돌아다니는. 여기도 한 50여 명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 한 50명이 들썩거려 봐요, 정신없어요. 예. 하하하. 우리 여자들하고, 여자들 50명 남자들 50명 한 100명이요. 그래서 그냥 우 들어가서 일하고, 우 나오고 그러면 정신 하나도 없어. 하하하.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게 그 한 28년 정도, 28년 정도, 30년 그만큼 일을, 그런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사는 거야. 다른 일 하면서. 문 닫은 이후에.

영신연와 제2공장 (터널가마)과 폐업

면담자 선생님 어은리 공장이 있었잖아요. 거기는 터널가마인데, 터널가마는 공정이 좀 달라요?

이상길 예. 다르죠. 거긴 내루(レール)야.

면담자 내루가 뭐예요?
이상길 내루가 철길이야. 레일로 되어 있어 갖고 네모반듯하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레일로 여기서 집어넣어. 레일로 여기다가 해서 주면 여기서 잡아당기면 딱 잡아당기면 땡기면 들어가 부러. 여기다 바깥에다 레일을 딱 한 대 놓고, 여기다 벽돌을 딱 쌓아 전부다. 쌓아서 갖다가 여기서 인제 쌓아 갖고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어. 철길하고 애만 딱 맞춰 놓으면 여기서 우인찌(ウインチ) 딱 걸면 자동이 아니고 반수동인데, 여 바깥에서 사람이 쌓아 가지고 길어 놓는 거지. 넣고서 한 가마를 다 채우고서 불을 때는 거. 여기는 계속 돌아가잖아,

면담자 가마 단위야 거긴요? 불이요?

이상길 한 가마당 이게 다 하나야. 하나야 이게.

면담자 몇 장 정도 만들었어요?

이상길 대차 하나가 1,300장인가 쌓아. 차 하나가. 구루마 하나가. 이게 열여덟 갠가 들어가.

면담자 그게 이 한 가마에 다 들어가서 그냥 불을 확 지피는 거예요? 불은 어떻게 지피는데요?
이상길 기름. 그 푸셔로, 화구가 여기 있어. 쪽. 그러면 푸셔 있어. 저기가 있어. 여기다 꽃아 넣고 눈으로 봐 가매 불을 조절을 해는 거. 그 저기로. 에어로 불어 넣어 주는 거지. 토치 같은 거로 그냥.

면담자 계속 때는 거예요?

이상길 그렇죠. 기름으로만 때는 거.

면담자 이게, 여기 공장보다 오래 갔죠? 어은리 공장이? 아니면 같이 다 망했어?

이상길 같이 다 망했지. 다 똑같이 부도났지.

다음 주인이 지금 다 바뀌었지.

면담자 그럼 폐업하고 나서 필지를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팔은 거예요 아니면?

이상길 한 사람한테 다, 채권자한테 다 넘어간 거야. 채권자가 경매를 시킨 건지 하여튼. 경매로, 지금 땅주인이 경매로 받았어. 경매로 이게 땅이 평당 63만 원인가, 넘어갔어. 지금 600만 원. 지금 땅 경매로 넘어간 지가 근 한 17년 정도 됐어.

동보연와

면담자 저 태산아파트는 누가 지은 거예요?

동보에서 지은 거예요?

이상길 아니 동보에서 다 팔아서 어떤 업자가 지어 가지고 거기 조업원들 전부 다 보상해 줘서 나갔지.

면담자 선생님네는 그럼 보상도 없었던 거죠?

이상길 여기는 부도나기 바로 직전, 고 직전에 데모들 해가지고 다 한 200만~300만 원씩들 받았지. 200만~300만 원 받고 그 정도로 받고서 그냥 끝나 버린 거. 그래고서 그 이듬해 부도난 거지.

면담자 영신연와와 동보연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세요?

이상길 동보연와가 원래 박지원 씨 할아버지 (박건유) 거야. 동보연와 이거를 그 양반이 일본 사람들하고 해다가 자기 것이 된 거여. 일본 사람들이 싹 돌아가 버리니까. 박지원 씨 아버지가 사무실에다 총무를 똑똑한 놈을 앉혀 뵈어야 되니까. 나중에 동보연와 사장이 되는 이용균이라고 해는 양반이 거기에 총무로 있었던 거여. 그랬는데 그 양반이 땅문서를 전부다 자기 앞으로 해 놓은 거. 자기 월급 받아먹으며 회사도 전부다 자기 앞으로 해놓은 거야. 그런 말을 들었지. 나도 본 건 아니고. 이사장이라는 양반이 전부 관리를 하면서 전부 자기 앞으로 해 놓은 거. 전부 자기 땅으로 자기 걸로.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지 아버지 재산을 받을라 그러니까 전부 남의 거거든. 그래 가지고 재판에서 졌잖아. 뺏겼어 전부 다. 그래서 알거지가 됐어. 양조장을 했잖아 양조장. 양조장 한 돈으로 여기다 땅을 산 거. 말하자

노동문화와 공동체문화

면 자식들은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로. 유산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갖고 여기다 땅을 사갖고 오기로 여기다 공장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다 돈을 더 쫓아 여기가. 처음에.

면담자 동보연와 이용균 씨는 박씨네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네요?

이상길 그렇지.

면담자 이 동네 사람도 아니고요?

이상길 이북 사람이라는 거 같애.

면담자 이용균 씨가 여기서 일하기 시작한 건 언제서부터 일한 거예요?

이상길 박지원 씨 아버지가 할 때부터 초창기부터 들어와서 했나 봐.

면담자 여기서 일하시던 분들은 고색동 동네 사람들이 주로 와서 일을 한 건가요?

이상길 동네 사람은 없어요. 전부 외지 사람들. 전부 다 충청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다 여기 각 처 사람들 다. 그래도 어디서 그래도 다 조금씩이라도 벽돌공장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면담자 그런 분들이셨어요? 월급을 나누는 것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생산량에 따라 나누는 식이잖아요. 그럼 손발을 맞춰야 되잖아요. 팀끼리. 부서끼리.

이상길 그래서 반장이 바빠. 힘들어. 사람들 다 통솔해야지. 한 두 사람 말 안 들으면 반 이상 말을 안 들어. 그 사람이 끼고 나가서 맨날 앞서 술 먹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여덟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일을 해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가서 앉아서 술 먹으면, 넷이 먹으면 그 사람들 패가 갈려. 그럼 일할 때도 패갈리고 이래. 그러면 한 사람은 더 해자 그라고 한 사람은 그만하자 그라고. 노다지 반장은 신경 무지하게 써.

면담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반장 하셨을 텐데.

이상길 나는 여덟 명 반장이 아니라 세 명 반장. 쌓는 거. 그래도 그 세 사람끼리 잘 모아, 그것도 셋이서도 마음이 안 맞아.

면담자 안 맞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상길 내가 데리고 나가서 달래고 술 맥이고. 술 사맥이고 내 돈으루. 회사에서 돈 주는 거 아니지.

면담자 여기서 술 사먹으면 주로 어디 가서 사 먹어요? 수원역?

이상길 수원역 많이 땡겼죠. 수원역 저기 그 로데오길 가면 우체국 지나서 저기 그 짜장면 집 하나 있었어. 옛날에. 그 반점 집인데, 직접 물에다 끓여서 짜갖고 맨들어서 주는 집이 있어 거기. 도청 올라가는 데 밑에 있어요. 거기 맨날 땡겼어 여기서. 버스타고, 걸어땡겼지 거기.

면담자 거기 중국집에 가서 많이 드셨어요?

이상길 예. 그런데 많이 가고, 매산시장 술집에 많이 가고. 여기도 있었어. 가게가 있었어. 직원 아난테, 그 반장이, 감독이 저기서 데리고 오면서 그거를 하도록 해준 거지.

면담자 그럼 쪼끄만 슈퍼 같은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상길 예. 그렇죠. 가게가, 여기 앞줄에 첫 집. 거기가 가게 했었어.

면담자 딱 좋은 위치네. 여기 물은 어떻게 했어요? 수도?

이상길 수도가 있는데요, 열두 집이 다 하나. 물은 잘 나왔어요. 물은 뭐 모지래서 이런 거. 물도 좋았구.

면담자 처음부터 수도시설이 들어 있었어요?

이상길 수도는 없고 자가 지하수. 물 잘 나왔다구. 여기가 수원시에서 지하수가, 많이 쓸 때. 그때는 물이 참 좋아가지고 막 일등수였어. 어디 검사 말을래든 이 물 떠다 했었어. 식당에 검사 말을 때. 그랬는데 지금은 물이 나빠졌어요. 식당에서 여 물을 떠다 검사를 맡아

서 식당 허가내구. 그렇게 물이 좋았어요. 여럿이 먹고. 하튼 열두시간 물을 푸니까 물이 깨끗할 수밖에. 물이 고여 있는 물이 아니니까. 물맛도 좋았어요. 그랬는데 인제 못 먹어.

면담자 여기 우물도 있는데 우물도 쓰셨었어요?

이상길 아유. 여기 우물들 이렇게 푸는 거 있었구. 이렇게 펌프로 하는 거 있었구, 기계식으로 하는 거는 모터로 해서 물을 퍼서 쓰구.. 물 부족은 없었어요. 씻는 거는 개인이 그냥 해는 거구, 부엌에서 해든지.

면담자 그럼 여기 공동화장실이 있었던 거예요?

이상길 공동화장실도 끝에 어디 있어. 요건가? 어디께 있어. 열 칸 있었어.

면담자 여기 일도 같이하고 또 여러 동네서 오신 분들이 오시고 그래서 사이가 좋거나, 싸우는 일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상길 많지. 그런 것들. 서로 싸우고 그러는 것도 많았고. 그 인제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애경사가 생기면 올 스톱이야. 다. 불 때는 사람만 남고 한 사람. 불 때는 사람 한 사람만 남고, 전 직원이 다 가서 일 봐주고. 축하해 주고. 뭐 초상 장사 다 치러 주고. 그렇게. 아주 올 스톱이야. 얘기할 것 없이. 다 모이면 백 명이야. 그때는 그랬죠. 그랬어요. 지금은 다 이사 가고 그래 갖고 없어.

면담자 그러면 뭐 회비 같은 거 모아서 공동 운영도 하고?

이상길 그런 건 없었어. 개인적으로 다 부조도

하고 다 해고 그랬지만. 기계를 딱 세우고 뭐. 전부 세웠어. 불만 안 저기. 꺼지지 않게. 그렇게 해고 다 가서 초상장사 딱 치러줘. 회사 차로 다 해 줬어요. 초상집 같은데 뭘 붙일 것 같아. 그러면 회사차가 다 해 주고. 또 개인적으로 차 있는 사람들 있어 친척이. 여기 사람은 없지만. 친척들이 차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 주고 그랬어.

노동자 임금투쟁

면담자 회사하고 관계는 어땠어요?

이상길 한 번은 경찰이 잡으러 다녔는데. 노임이고 뭐고, 공정하게 할라니까. 내가 조업원들을 내가 꼬서 가지고 헨 걸로 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수원경찰서에서 그냥 잡으러 다녔지.

면담자 언젠데요 그게?

이상길 80년대지. 그 왜냐면 노임도 이게, 이게 1년에 한 번씩 올라가. 노임이. 그래 노임 투쟁할 적에도 들어가서 말할 사람들이 딱 세네 명밖에 없어. 끄내는 사람, 넣는 사람 인제 그런 사람들 하고 기계창 인제 반장하고. 세네 명이 들어가서 얘기해서 타협이 안 되잖아. 그런데 세네 명도 다 달라. 이게 개인면담 해면은 다 틀려. 일해자고 다 나온 놈들도 있고, 못 한다고 안 나온 놈도 있고 이래. 그러면은 그거 맞추기도 쉬운 일이 아니야. 안 되는 수가 많죠. 거의 다 안 되지. 꼭 이루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지. 그러니까 인제 강하게 나가 는 사람들은 경찰이 잡으러 가는 거여.

면담자 태업하자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상길 일을 안 하고 조업원들을 스톱을 시켜 놓으면은 회사에서 잡으러 대니는 거여. 경찰한테 신청을 해니까. 사무실에서 저놈들이 일 안 하고. 회사에서 파업하니까.

면담자 파업 얼마나 하셨어요? 한 몇 개월?

이상길 몇 개월씩은 못했지. 그렇게는 못 했지. 일주일만 파업해도 난리 나요. 불 꺼야 돼.

면담자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도 망 다녔어? 종로경찰서에서 선생님 잡으러 왔

다면서요.

이상길 왔었어요. 왔는데 사람들이 안 갈켜 줘서. 사람들이 우리 집을.

면담자 여기 그러면 주소가 어떻게 돼요?

호수를 어떻게 매겼어요?

이상길 호수는 여기 호수부터 1호. 줄마다 다 1동 1호. 1동 1호. 3동 1호. 내 기숙사 주소는 고색동 887에 38번지. 그렇게 했었어. 23동. 여기가. 23동. 그렇게 하면 여기 다 저기가 되고, 네비게이션으로 여기 오면 딱 떨어져. 여기 38번지.

면담자 고향에서 여기 오신 지 거의 인제 50년 넘으셔서 여기가 고향이 되신 거네요?

이상길 고향에 가면 아무도 없슈. 우리 조상님 산소밖에 없어.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고향 가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면담자 근데 90년대에 벽돌공장이 거의 끝났는데 여기를 계속 지키신 거예요?

이상길 못 나갔죠. 돈 버는 게 없으니까.

계절노동

면담자 겨울에는 공장이 멈춘다고 하는데, 그럼 겨울에는 무슨 일하셨어요?

이상길 연탄공장 일 땡겼지. 삼천리공장하고 대성연탄공장 두 개 아니여? 거기 연탄 공장은 맨날 여기서 일 잘 하는 사람 데리고 갔어. 여기서 걸로 일 땡기면 겨울에는 연탄공장에 가서 일하고, 여름에는 여기서 일하고. 왜냐면 여기가 10월 말이면 기계를 꺼버리니까. 그래 먼 연탄공장에 가서 약 한 4개월 일해요. 3개월이나 이렇게.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로.

면담자 연탄공장으로 갔어요?

이상길 갈 때가 없어요. 그때 당시는. 여긴 여름에 일해니까. 거긴 또 여름에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니까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질 않다고. 저기 여기 사람들 거의 다 거기 땡겼어요. 삼천리 대성이 딱 붙어 있잖아요. 철길 옆에.

면담자 그럼 주로 삼천리 가셨던 거예요, 대성도 같이,

이상길 삼천리도 하고 대성도 하고.

면담자 그러면 어디가 임금이 더 좋았어요?

이상길 연탄공장이 더 좋았지. 연탄공장은 월급이잖아. 연탄공장이 겨울에가 돈 더 벌었어.

면담자 연탄공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들이 공장 안에서 해요, 아니면 공장 밖에.

이상길 안에. 공장에 안에서 일하는 거죠. 안에서 이제, 연탄 만드는 과정에 이제 들어가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벽돌 일하고 똑같아요. 이제 뭐 하는 방법이 좀 틀리고. 그거는 24시간 하고 막, 연탄이 막 모자라면 막 밤새워서 하고 그러지만 이 기계 이거는 그렇게 못

하지. 연탄은 딱 찍어서 그냥 차에다 싣고 팔러 가지만.

면담자 그럼 연탄은 찍어 놓고, 이렇게 배합하고 뭐 찍어내고 이러는 것까지 거의 똑같은데 말리거나 굽지도 않고, 그냥 찍어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길 그렇죠. 그런 거 없어요, 연탄은. 왜냐면 연탄은 찍으면 차에다 싣는 거야. 찍어서 기계에서 나오면 차에다 싣고 그냥 나가잖아, 팔러. 근데 이거는. 틀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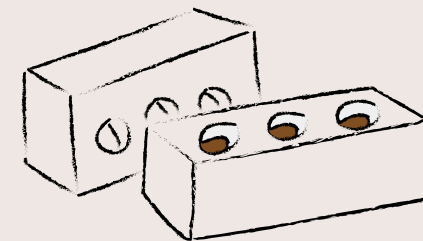
면담자 그러면 선생님 한 70년대는 30 몇 만 원 받고, 80년대는 조금 그래도 좀, 얼마정도 규모였던 것 같아요? 월급의 규모가? 월급으로든 두 달에 한번이든 그 액수가.

이상길 그래도 조금 더 늘었겠지. 15일에 30만 원 다 쓰면 1년 지나가면 33만 원, 32만 원 이렇게 됐었지. 사장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후하게 잘해 줬어. 잘 해준 거야. 잘해 줬는데 인제 노임가지고 일 저기 돈을 더 달라 뭐 달라 해는 것도 다 사람들이 속마음은 다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다 틀려. 그래 사장 마음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사람 나름대로 그 저기 통솔하는 방법은 틀리겠지. 왜? 비공식도 많고

면담자 비공식은 뭐죠?

이상길 뭐 말하자면은 일을 1년간 이렇게 맞춰 주면은 잘 속 썩이지 말고 잘해서 열심히 맞춰 주면은 반장한테 뭐 얼마를 준다 뭐, 옛날에 뭐 쌀을 세 가마씩 더 준다. 여기 뭐 전부 농도가 사장님 거니까 가을되면 쌀이 뭐 수십 차가 들어오니깐, 쌀 같은 거야 쌀 세 가마 더 줄 테

니까 속 썩이지 말고 일꾼들 잘 통솔해서 일 해라 그러면 해는 놔들 많았어. 아우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나중에 밝혀 가지고 그거 가지고 훌쩍 내가 뒤집었지. 공장장이고 뭐고 전부 꽤 죽인다고 내가 막 쫓아다니고 막. 사무실 여기서 금방 말해고서 사무실 뒤 가서 고기 구워먹으면서 고자질 하는 놈이 없나. 별놈이 다 있어. 세상을 살다보면. 그래 사람 속은 몰라요. 아무리 저지레해도 내가 맨날 하루 정 일 일을 부려먹고 그냥 이? 저기를 해도 고마운 사람이 있고, 내가 일을 해줘도 고마운 사람이 있고, 내가 밤새도록 술을 얻어먹어도 때려칠 놈이 있어. 그거 된 소린지 알겠슈? 내가 밤새 술을 얻어먹고도 저놈 아주 죽일 놈이란 얘기여. 바로 같이 앉아서 이렇게 하자고 서로 굳게 약속 해놓고, 가서 그걸 확 다 뒤집어서 탄말해 갖고 경찰이 잡으러 오잖아.



영신연와 '알차' 아줌마 김윤임과 박명자

면담자 : 홍현영(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면담일시 : 2020년 6월 13일
면담장소 : 영신연와 사택

영신연와 취업

면담자 김윤임 어머니는 여기 언제 오신 거예요?

김윤임 여기 50년 됐어요. 원래 고향 경상도, 신랑을 만나서 여기 왔지.

면담자 결혼하신 후에 이리로 오신 거예요?

김윤임 여기 와서 만나서 결혼했지. 우리 아저씨는 원래 영등포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거 지으면서 여기서 살았다고. 연와공장에서 공장장으로 계셨어요.

면담자 결혼하시면서 여기 사택에 사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김윤임 그렇죠.

면담자 몇 년도에 이곳에 오셨어요?

김윤임 71년도부터.

면담자 맨 처음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박명자 우리는 같이 왔어요. 우리 아저씨하고. 원래 다른 데서 이런(벽돌공장) 일을 하다가. 파주에서 일하다가 이리로 왔어요. 이리 와가 지고 같이 하게 되고.

면담자 여기 오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는지, 누가 소개를 시켜 줬나요?

박명자 다 그렇죠. 우리 시누가 살았었지. 소개로, 연줄로 오는 거지, 이런 데는 그냥은 못하고요.

면담자 여기 처음에 왔더니 어땠어요?

박명자 처음에 오니까 뭐, 맨날 일하는 식 똑같죠.

면담자 몇 년도에 이곳에 오셨어요?

박명자 72~73년도인가 봐

면담자 여기 왔을 때 공장이 세워져 있었어요?

박명자 우리 미영 아빠(이상길)가 와서 저 가마간 굴뚝을 지었잖아, 뒷일로 하면서.

면담자 사택은 처음에 두 동만 있었다면서요?

박명자 맨 처음에는 두 동밖에 없었대. 그러다가 무허가로 지금 두 동을 다시 또 지었을 거예요.

면담자 응, 그런가 보다. 맞아. 그렇죠.

김윤임 이제 살면서 지은 거지. 지으면서 사람이 오니까 방을 또 줘야 되니까. 벽돌은 있겠다, 또 지어서 주고, 주고 한 것 같아.

면담자 지금 사택이 네 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동당 열두 집들이 있는 거라면서요?

박명자 네. 열두 집.

면담자 그런데 세 가구가 사는 사택이 따로 더 있었다고 하던데?

김윤임 있었는데 헐었어요.

면담자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

박명자 화장실이 사택 옆에 공동화장실. 재래식으로 남자 다섯 칸, 여자 다섯 칸.

면담자 그럼 아침에 화장실 쓰려면 난리도 아니었겠네요?

김윤임 괜찮아. 뭐 난리도 아니어. 그러면 공장에 가면 또 공장에도 화장실 있고.

면담자 3월 말부터 공장이 다시 가동이 되잖아요? 공장 가동되면, 여기 막 그 잔치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잔치 준비는 누가 해요?

김윤임 새로 이제 일을 하면 고사를 지내는 거지. 잔치가 아니라. 그거는 여기 공장주인 박지원 씨 어머니, 염씨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할머니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우리는 다 쉬는 날이야. 그러는 거지 뭐. 공장 주인이 고사도 지내고, 이제 단오 날 같은 때는 이제 먹을 것도 해 주고, 놀라고 쉬라고 하고 그러는 거여.

면담자 그거는 주인 집 식구들이 알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군요?

김윤임 그렇죠. 사장이 엄마가 다 돈 내서 하는 거지. 음식은 다 저기 하고.

면담자 몇 시부터 일을 하셨어요?
김윤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애들 밥해서 도시락 싸놓고, 5시 기계창까지 가야 돼. 그래야 기계가 돌아가면 빨리빨리 꺼내서 마당으로 갖다 쥐야지 아저씨들 일을 하니까. 그리고 저 뭐야 아침 7시 되면 밥 먹으러 아침 먹으러 들어와요. 그리고 아침 먹고 또 나가서 8시부터 또 12시까지. 12시에 들어와 점심 먹고 또 1시부터 5시, 6시까지 그렇게 하는 거야.

면담자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주변이 어땠어요.
박명자 여기가 다 논이었어요. 그래 갖고, 땅이 비가 오면 진짜 장화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도야. 질퍽질퍽 해갖고. 지금 이렇게 저기 다, 지금 다 이렇게 중학교 들어오고 그랬죠. 다 거기가 아주 캄캄한 아주 저기 했었어.

김윤임 다니지를 못해요. 70년대는 말도 못 했어 여기.

박명자 아주 촌이에요. 아주 다 이게 지금 이렇게 건물이 들어와서 그렇죠. 다 여기가 논이고, 밤에는 무서워서 옆에 누가 쳐도 모를 정도로 암흑의 세계였었어, 이 도로가. 여기 아스팔트, 여기 비포장도로라 그냥 비가 오면 질퍽질퍽해서 다닐 수도 없어. 그런 거였어. 이 동네가.

면담자 어머니 여기서 겨울 되면 김장이나 이런 것도 담갔어요.

김윤임 그럼요.

면담자 김장 담글 때는 어떻게 담갔어요?
김윤임 먹고살아야지. 여럿이 같이. 이 집 해주고, 다음 저 집 해주고. 내일은 또 저 집 해주고. 김장하면은 내가 다 돌아다니면서 속 다 버무려 줬어. 녀 다 만들어 어 내가. 나이 먹은 사람들 있으면, 다. 내가 선수치고 가서 다 해줘.

면담자 배추나 이런 것은 어디서 사와요?
박명자 배추야 시장 가 사오고. 또 누구 심었다고 그러면 그거 밭에서 사갖고 오고.

면담자 사택이 원래 방 하나, 부엌 하나였다면 서요?

김윤임 응.

사택 개조와 확장

면담자 애 키우는 것은 어땠어요?
김윤임 애 키우는 건 나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 다 키워 줬지. 나는 일하고. 그래야지 사니까.

면담자 애는 몇이나 낳으셨는데요?
김윤임 우리 셋. 삼남매.

면담자 그럼 시어머니가 키우셨어요. 그럼 삼남매에다가 부부에다가 여섯 분이 이제 사셨던 거네요?
김윤임 응, 응.

면담자 방이 작잖아요?
김윤임 방이 적으니까, 이렇게 내다는 거야. 방 하나, 부엌 하나 췌는데 다 두 개, 세 개씩 있잖아. 방 쪽으로 해서 자꾸 내 물리는.

면담자 회사에서 뭐라고 안 해요?
김윤임 사람이 일을 시키려니까 말을 못 하지.
박명자 그래도 온 벽돌은 못 쓰고 파벽, 갖다 버리려는 거 있잖아. 벽돌도 제일 나쁜 거 그런 것 주워다가 일 끝나고 조금씩 조금씩 지어가지고 살았어. 시간 날 때 일하고 일찍 끝나면 벽돌 쌓고, 파벽, 벽돌도 다 반 동아리 부러진 것 그런 것 실어다가 방 들이고, 들이고. 몇 날 며칠 들이는 거지, 방을. 뭐 한 달, 두 달도 걸리지. 벽돌 저기 무시라기 갖다가 지어가지고 가서 방 늘이고 두 개, 세 개씩 만들어가지고 애들하고 살아야지.

면담자 그러면 와서 저녁때 밥 해먹고 조금씩 쌓는 거예요?
박명자 그렇죠. 시간 날 때마다 방을 들이려면

그렇게.

면담자 그럼 방은 몇 개나 들였어요?
박명자 우리 2개. 있는 것까지 3개. 벽돌집이라 튼튼해요. 이렇게 봐도 빨간 벽돌집이야.
김윤임 우리도 3개. 집은 얼마나 튼튼하다고. 바깥은 안 쓰러져. 안이 쓰러지지.

면담자 벽돌을 가져다가 직접 쌓은 거네요?
박명자 : 남자들이 한 거지.

면담자 어머니들은 거들어 주시고요?
김윤임 그렇지. 거들어 주는 거지. 뒷일을 해주는 거지.

면담자 지을 때 되게 힘들었을 아니에요? 일 해 가면서 와서 밥 해 먹으면서.
박명자 그럼요. 일 끝나고 남은 시간마다 짓는 거니까 뭐 오래 걸리지. 하나 시작하면 오래 걸리지. 벽돌만 쌓고 나면, 안에서 하는 것은 비가와도, 안에는 내장 수리는 뭐 시간 날 때 마다 하니까. 뭐 그래도 한두 달씩 걸리지.

면담자 한두 달씩 걸렸어요? 방 하나 들일 때.
박명자 그럼요. 일하고 와서 그 시간 날 때마다 하니까 그렇지.

앞차 작업과 인력

면담자 어떤 일 주로 하셨어요?

김윤임 앞차 했지. 여자들이 하는 일 있어요.

벽돌 갖다 마당에다 갖다 주는 거. 구루마 끄는 거. 구루마에다가 물건을 싣고 갖다 주면 이제 마당에 아저씨들이 마당에다 쌓아 갖고 말리는 거야. 저는 앞차밖에 몰라요. 다른 것은 안 하고. 기계창에서 벽돌이 나오면 그걸 실어 주면 우리가 리어카에 담아 주면 끌고 마당에다 갖다 주면 남자 아저씨들이 쌓는 거야. 말리느라고. 한 20명이 끝었어요. 하나 가면, 하나 가고 오고, 가고 막 계속 이렇게.

박명자 20명이 한 저기로 묶여졌어. 한 조가 됐어요. 그니까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계가 나오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20명이 한 조가 돼갖고 계속 갖다가 나른 거야. 계속 해 갖고, 기계에서 물건은 계속 나오니까. 계속 로테이션을 그냥 가고 오고, 가고 오고하는 거죠.

면담자 그러면 거기 반장님도 계셨겠네요?

박명자 반장이 아니라 오야 있었지. 이제 마당 쌓는 데는 최고 잘 쌓는 사람이 오야고. 기계 창에는 기계 제일 잘 보는 사람이 오야지고. 다 그렇게 뽑는 거지. 근데 앞차에는 오야 없었어. 여자들이니까. 나오는 것만 그냥 해주니까. 우리는 실어다 주기만 하니까 오야라는 것은 없어.

면담자 각 가구마다 이제 아주머니들이 한 분씩 계셨다 치면 한 여자 분들이 오십 분이었을 것 아니에요?

박명자 그렇죠.

면담자 그러면 앞차가 한 스무 집, 스무 집에서 앞차를 하면 나머지 분들은 무엇을 해요?

김윤임 나머지는 여자들은 이제 뭐 이렇게 마당에서 벽돌 비닐로 덮는 사람도 있고. 비닐로 덮어. 비오면 덮어야 될 거 아니야. 흙이니까. 벗기고 덮고 하는 일하는 여자들도 한 열명 되고. 또 이제 마당에 또 이제 갖다 주면 벽돌 이렇게 두드려서 예쁘게 또 만드는 아줌마도 한 몇 명 되고. 면이 찌그러지니까, 면을 살리기 위해서 그거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제각기 할 일이 있었어요. 다 자기 것 다 있어. 다 했어요, 여기는. 여기 사는 사람은 일을 다 했어. 부부가 안 하면 여기에 못 사니까. 나가야지, 일 안 하면. 여기는 못 살지. 사택이니까. 그렇게들 살았지.

박명자 여기는 비오는 날은 놀아요. 비오는 날은 흙일을 해야 하니까 못 하니까. 비오는 날은 놀고. 비 안 오는 날은 일을 하고. 아침 4시, 4시면 일어나야 돼. 5시면 기계 돌리니까.

면담자 하루에 내가 얼마 정도를 옮겨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벽돌 옮길 때. 대략.

김윤임 그게 몇 장씩 실리냐? 한 차에.

면담자 쉰네 장씩 실었다면서요?

김윤임 쉰넷, 54장씩 실리나. 하루에 저기 천대씩 뽑으면. 개인당 50대는 갖다 주죠. 5만 4천 장을 빼니까.

면담자 앞차 하셨어요?

박명자 그럼, 거기서 같이 다 했어. 기계서 나오는 거는 아저씨들에게 다 갖다 줘야 되니까. 한 20명이 다 갖다 주는 거야 그거를.

면담자 그러면 가마에다가 이제 벽돌을 집어넣잖아요. 집어넣고 나면 그게 확 돌아 가지고 다음에 꺼내려면 며칠이나 걸려요?

이상길 오늘 들어간 거를 다음 돌아가서 꺼내려면 15일 걸려, 15일. 2주일.

면담자 앞차를 20년이 넘게 하신 거잖아요?

김윤임 앞차 많이 했지. 몇 년인지 몰라도 많이 했지.

면담자 힘들셨을 것 같은데.

김윤임 이 여름에 하려고 그래 봐. 수건 뒤집어쓰고, 6시까지 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식구들 밥 해먹고. 그래도 다하고 살고. 학교 보내고 그냥 일하고 벌어먹고 살았어요.

박명자 힘들죠. 그 덥기도 하고, 모자 뒤집어쓰고. 그 갖다 주고. 밥 해먹고 잠은 또 일찍 자야지.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썸머타임 할 때는 3시에 일어났었어. 썸머타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뭐 전기밥솥이나 있었어. 연탄아궁이에다가 밥 해가지고, 밥해서 부뚜막에다가 애들 밥 도시락 전부다 쌓아 놓고. 그러고 일 나가는 거야. 7시 들어오면 애들 밥을 어떻게 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서, 부뚜막에다가 밥을 다 퍼놓고, 도시락 쌓아 놓고 그러고 새벽에 일 나갔어. 학교 보내고 다 했어. 애들 셋, 넷을 다.

면담자 점심식사는 집에 다시 들어와서 드신 거예요?

박명자 집에 들어와서 먹고 또 나가는 거지.

김윤임 사는 거는 누구를 만나든 간에 다 똑같아. 그 얘기가 그 얘기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저기 한 사람들은 많이 산 사람들이 없

어 그렇게.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살았으니까. 좀 아는 게 있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들어와서 그냥 살다가 또.

공동체문화

면담자 여기서 같이 살다 보면 싸우는 일도 이렇게 생기지 않아요? 일 때문에.

박명자 일 같은 거 갖고 싸우는 거지.

면담자 일하다가 왜 싸웠어요?

김윤임 일하다가 뽀새가 안 맞을 수도 있지. 니가 먼저 가냐, 내가 먼저 가냐 이런 걸로도 싸우고 그런 거지 뭐. 그래도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의가 참 좋았어. 일 안 하면 술 먹는 날이야. 우리는 비오는 날이면 술 먹는 날이여. 저 기계창에서. 재밌었지. 근데 여기 나가니까, 삭막해 사는 게. 바깥에서는.

박명자 김치 담으면 그 김치 담은 다라에다가 밥 비벼서 그냥 다라 밥 먹어 가면서 술 먹고 들 그랬어. 간식 때는 국수 삶아 주고.

면담자 기계창이 넓어요?

김윤임 그럼, 넓지. 기계를 놓고 하는 건데. 기계가 돌아가는데 그럼 넓죠.

면담자 누가 국수를 삶아요?

박명자 뒷일 하는 아줌마들이. 마당에서 비닐 덮는 아줌마들이 10명 있어. 그 아줌마들이 돌아가면서 돌이씩. 국수 삶아 갖고 담아 주면 우리네는 가서 이제 먹고. 3시에 간식. 뒷일 하는 아줌마들이 국수 삶아 주면, 멸치 국물에다가 국수 삶아 주면. 비오면 덮고 또 아침에는 벗기고 하는 그 뒷일 아줌마들이 두 명씩 당번해서 국수 삶아서 간식 주고. 이제 국수가 없어지고, 국수가 없고 나서는 라면을 하나씩 줬어, 라면을. 재미있었어요.

김윤임 여럿이 어울려서 돼지도 잡아서 노나 먹고.

면담자 돼지는 어떻게 잡았어요?

박명자 아저씨들이 잡지. 돼지를 여기서 살아 있는 것도 그렇지만, 그 돼지 잡는 데(도축장)에서. 통 돼지를 한 마리를 잡아 가지고 해 갖고 와서. 우린 잘라서 하기만 하는 거야, 배만. 돼지를 한 마리를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 거기 도살장에서 잡아서 통돼지 갖고 가서 나눠서 들 이렇게 하는 거지.

면담자 그 돼지 잡는 날은 무슨 날이에요?

김윤임 먹고 노는 날. 사월초파일 같은 때. 5월 단오 같은 때. 뭐 그런 날 먹고 놀아. 사월초파일에는 이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닭 반 마리씩 줬어. 그럼 부부가 일하면 한 마리잖아. 한 마리씩 얻은 거야. 한 앞에 반 마리씩이야, 사월초파일 날. 그럼 두 부부가 가니까 무조건 한 마리씩이야, 한 집에 들어가는 거야.

면담자 그러면 생닭을 주는 거예요?

박명자 생닭을. 집에서 먹으라고. 집에 갖고 가 끓여 먹으라고.

면담자 공장 주인 분들이 불교신자였나 보군요?

김윤임 할머니가 불교여. 절에 다니셔.

면담자 단오 때는 어떻게 놀았어요?

김윤임 여기는 사월초파일 날이 제일 크게 노는 거야. 이제 단오 날은 그냥 쉬고.

면담자 그럼 명절 때는 어땠어요?

김윤임 명절 때는 이제 각자가 다 해먹는 거지 뭐. 각자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초상났다, 잔치다 그러면 다 일 제끼고 동네 사람이 다 하는 거야. 먹는 거는 이제 그 초상 난 집에서, 그 집에서 이제 다 해서 다 나눠 먹고.

우리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박명자 올 스톱이야. 완전히. 기계창도 딱 다 놓고. 단합이 잘 됐어. 뭐 큰일을 치르거나 그러면 다 단합으로 다. 그때에도 일손들은 단합으로 다 해줘. 내 일같이 다 해 주지. 기계 딱 멈추고.

면담자 돌아가셨을 때 장례는 어디서 치렸어요?

김윤임 장례는 공동묘지로 갔고 여기서 치렸어, 여기서.

면담자 그럼 여기에 차양 다 치고?

김윤임 저기가 세 집 사는 한 채가 딱 있고 이게 다 마당이야. 마당이었어, 뒷마당. 여기서 일 다 치르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다 했어.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 칠순도 내가 여기서 다 해 드렸어.

박명자 차양 치고. 겨울에 돌아가시면 왜 연탄 불 불 켜놓고 돛자리 깔고, 밖에서 음식 여기서 다 장만해서. 여기서 술이고 뭐고 다. 일 다 봐 줬어요.

면담자 회갑 잔치나 이런 것도 여기서 해 드린 거예요?

박명자 잔치 같은 것도 가방 보는 거, 음식 전부 다 여기서 만들어 갖고. 여기서 장 봐다가 음식 다, 지금은 예식장에서 다 하잖아, 지금은. 그전에는 여기서 음식을 집에서 다 장 봐다가 다 음식을 만들어서 가방 보러 다녔어, 아줌마들이.

면담자 그럼 여기서 누구네 잔치다, 그러면

모이는 거네요?

박명자 자연스럽게 가서 다 하는 거야. 다 여기 사는데 뭘 다 와. 부르지 않아도 가.

면담자 그러면 재료 사다 놓으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박명자 그렇지, 장만 봐다 놓으면 뭐 뿔는 사람, 뭉치는 사람, 부치는 사람, 뭐 그냥 다 있어. 그런 걸 사진을 옛날에 좀 찍어 왔어야 하는데. 진짜 재미나게 살았는데.

김윤임 그런 걸 몰랐어, 우리가. 그런 걸 사진을 좀 찍어 왔어야 하는데 그런 걸 몰랐단니까, 바보들이. 아휴.

까막골의 유래와 석탄재 연탄

면담자 창고도 좀 냈죠?

박명자 창고들도 있었죠. 각자 연탄. 연탄을 땀으니까. 연탄 창고를 들여야 될 것 아녀. 그러니 창고들도 각자 하나씩 다 있었어. 개인이 다 연탄창고, 창고를 다 만들었지. 그래 갖고 썼지. 연탄 들여놓고 쌓아 놔야 하니까.

면담자 겨울 되면 그런 연탄도 들여놓고, 쌀도 들여놓고. 연탄은 어디서 들여왔어요?

김윤임 연탄은 옛날에 여기서 찍었어. 우리 형님이 찍었어. 우리 아저씨 형님 마누라가 찍었다고. 근데 돌아가셨어.

면담자 어떻게 찍는 거예요?

김윤임 기계가 있잖아요. 연탄가루 석탄 갖다 놓고. 여기서 말려 갖고, 그 사람이 이제 우리 네한테 파는 거야. 그걸로 돈 버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연탄이 일반연탄보다 수명이 일반 연탄은 24시간 가면, 이거는 18시간 정도밖에 안 가. 수명이 짧아. 그래 갖고 재가 잘 부스러져, 연탄집게를 집으면 힘이 없어갖고 연탄재가 부스러져, 다 탄 재를 뜨려면. 그러면 그거를 연탄아궁이에서 그 재가 부서졌으면 국자 있잖아, 국자로 연탄재를 퍼냈어. 연탄불을 갈을 때. 잘 부스러져서.

면담자 퍼내는 것도 일이었겠는데요?

박명자 그럼. 퍼내려면 손이 뜨겁잖아. 이 팔뚝에다 수건 같은 것을 감고 국자로 연탄재 깨진 것은 전부 다 퍼내고 또 연탄불을 갈고 그랬어. 우리 살을 때. 조심조심 그래도 잘 꺼져. 왜 그러냐면 저 가마간에서 불을, 벽돌 구워낸 재가, 재를 갖다가 배합을 해가지고. 섞어서 하니까 힘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벽

돌을 한 번 구워낸, 석탄으로 벽돌을 구웠잖아. 굽고 나면 그 재를 퍼낼 것 아니야. 한 가마 벽돌 꺼낼 때 재를 퍼내면 그 재 가지고서는 하니까, 연탄을 찍으니까 재가 힘이 없어. 일반 사는 것하고 다르지.

면담자 가마에서 타고 남은 석탄을. 밑에 떨어진 무연탄가루를 모아 가지고 다시 연탄을 만든 거예요?

박명자 그니까 연탄이 힘이 없지. 연탄이 힘이 없어서 갈라 그러면 부스러져. 그런 연탄도 그래도 가을이면 쟁여 놓느라고. 그냥 연탄창고들 하나씩 다 만들어서 짓고 살았어.

면담자 좀 썼던 거예요?

박명자 싸지.

면담자 얼마나 썼길래?

박명자 얼마나 싸나마나 그래도 여기서는 그래도 그거를 의지를 하고 살아서.

면담자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무연탄이 타잖아요. 타 가지고 밑에 이제 떨어진 재들인데도 그게 다시 연탄이 돼요?

박명자 응. 흙하고 뭐하고 배합을 해 가지고. 배합을 해야지, 뭘 섞어야지.

면담자 그것도 이제 공장에서 허락을 해 줘서 할 수 있잖아요?

김윤임 아 그거는 그렇죠. 다 여기 사는 사람이 했으니까 그것도. 여기서 사는 사람이 하는 거여. 다 직원이었죠. 영감님은 가마간 일하고, 부인도 마당에 덮으면서 연탄 찍어서 팔고.

벽돌 제조 인력 구성과 기계

면담자 마당에서 비닐 덮는 분들이 하루 종일 거기서 일하나요?

김윤임 아니. 아침에 가서 벗겨 놓고. 비 안 오고 이렇게 좋은 날은 안 하지.

면담자 그분들은 그다음 무슨 일을 해요.

김윤임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밖에 할 게 없어, 그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 있다가. 비가 온다, 그러면 뛰어 나가서 빨리 덮어야 돼. 또 햇볕이 났다, 그러면 또 뛰어나가서 빨리 벗겨야 돼.

면담자 그 대신 수월하니까 주는 돈도 적고요?

박명자 작지요. 뒷일이 적지. 우리가 돈이 제일 많아요. 앞차하는 게. 앞차가 돈이 제일 많았어. 앞차하는 게 제일 많지, 제일 힘들고. 이거는 새벽에 나가서 저녁때까지 하니까 힘들어. 종일 걸어 다니니까 얼마나 다리가 아프고. 내리찍는 이 땡벌에, 지금 한참 일할 시간 이어 이거. 저기서 저 끝에까지 다니는 거야. 마당이 매일 멀리 있으면, 얼마나 멀다고.

면담자 돈을 더 주는 게 앞차니까, 서로 앞차를 하려고 했어요?

박명자 그렇죠. 그거는 있었지.

면담자 앞차가 제일 좋았고, 또 그다음에 돈을 많이 받는 거는요?

김윤임 그다음에는 이제 다 그렇고 그래.

면담자 비슷비슷해요?

김윤임 응. 여자는.

면담자 여자 분들이 앞차하는 거랑 그다음에

건조장에서 비닐 덮고 걷는 거 하고?

김윤임 모양 하는 것은 또 한두 명이 따로 있고, 벽돌이 나오잖아. 옆에 찌그러졌잖아. 그럼 그걸 두드려서 살려야지 먼을. 그걸 살리는 거야. 그걸 다대기라 그러는 거야. 그게 일본말이며, 다대기 다 일본말이며. 일본 놈 할 적에 한 거라.

면담자 아가지는 꺼내는 분들을 일컫는 거죠?

김윤임 옳지, 잘 아네. 박명자 : 쓰미는 쌓는 분이고.

면담자 그리고 시라지는?

김윤임 시라지는 이제 넣는 거, 마른 것 넣는 거.

면담자 [항공사진 보며 설명하기] 기계창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가 지금 사무실이 있었던 데고.

김윤임 이게 사무실이고 가마간이고, 기계창 있는 텐데. 이게 가마간이고 기계창에서 만들어 갖고, 이게 다 길이라고. 이쪽으로 다 길이 있어. 그럼 이제 여기가 마당으로 오는 거야. 여기다 갖다 쌓는 거야. 마당으로.

면담자 이런 데가 지금 다 쌓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다 여기 저기 쌓는 곳들인 거예요?

김윤임 응. 마당으로.

면담자 가마 주변 이런 곳들에다 다 쌓고, 앞차는 벽돌을 갖다가 그냥 놓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쌓는 분들은 남자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박명자 남자 분들이. 네 명이서 하는 거지.

면담자 벽돌 건조장에 있던 거를 다시 가마로 옮기는 분들은?

박명자 그게 시라지.

면담자 건조장에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김윤임 마당모치. 그렇게 이제 모든 건 가마간으로 가는 거여. 마른 거 갖다가 넣어서 구워지면 아가지가 또 구워진 걸 빼고, 또 마른 것 같다 넣고 구워진 것 빼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시라지가 벽돌을 넣고, 아가지가 빼고. 마당모치는 젖은 벽돌을 건조장에 쌓고.

면담자 기계창 안에는 어떤 기계가 있었던 거예요?

이상길 기계가 하네가리. 말하자면 흙을 반죽을 해. 물이 나오면서. 반죽하는 그 하네 통이 한 15미터 정도 되는 길이가 있어. 그러면 그 속에서 이 떡가래 빼듯이 흙을 반죽을 해서 밀어내면 끝으로 나오는 거지, 기계 앞으로. 기계로 나가는 거지. 흙이 반죽을 해 갖고, 끝에 가면 이제 떡 모양이 나오듯 벽돌 모양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착착착착 자르지. 절단기가 있었어. 그러면 거기서 자동으로 잘라져, 이렇게.

면담자 반죽이 돼서 나오면 절단기가 딱 세 장씩 자르는 거예요?

이상길 응. 세 장씩. 절단기가 자동으로 잘라지는 게 세 장으로 잘라져서 밀고 나와. 세 장 잘라서 밀어 주면 그걸 사람이 들어서 리어카에 실어주는 거야. 아줌마들 리어카에.

김윤임 우리가 끌고 가는 거야. 20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거지. 리어카. 나오면 한 리어카 갖

고 가고, 또 뒷사람이 또 갖고 가고. 이제 갔다가 오면 또 받고 이렇게 돌아서 또 받아 갖고 가고.

면담자 기계는 기계 버튼 누르면 돌기 시작할 것 아니에요?

이상길 맞아요.

면담자 그러면 여기에서 흙을 넣어 주는 사람이 세 사람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상길 네, 있었어요. 가쿠메. 흙을 파서 이리로 넣어 줘. 보조가 밀어 주면. 아저씨가 이렇게 곡괭이로 파서 이렇게 골을 타고 간다고, 기계가. 기계식으로 흙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컨베어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게 흙이 기계로 들어가서 물로 반죽이 돼. 물 주는 사람이 또 있어. 그럼 물로 반죽을 해 갖고 이게 이렇게 나가는 거지.

면담자 술쟁이는 뭐예요?

이상길 술쟁이는 이 절단기가 이렇게 자동기계가 할랑한 철사여, 그게. 이렇게 잘라 주고 이렇게 올라오려면 기계는 계속 밀어주니까. 이게 꺾어져서 여기에 타잖아. 철사에 흙이 묻잖아. 그럼 그거를 닦아 주는 게 그게 술쟁이야. 이렇게 닦아 주는 거야. 솔로 이렇게 한 번씩 훑어 줘. 그러면 흙이 싹싹 떨어지는 거지. 떨어지면 잘라지는 거지. 그러면 깨끗하잖아요, 위예가. 그러면, 안 닦아 주면 이 흙밥이, 흙밥이 위에 남으면 지저분하잖아. 그럼 갖다 쌓아서 그제 말라서 들어가면 그게 다 붙어서 구워져 나와. 그럼 안 되는 거지.

면담자 안 예쁘니까.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이상길 그니까 그거를 이렇게 닦아서 없애는 거야.

면담자 물주는 분도 있으셨던 거예요?

이상길 그거는 이제 가쿠메라고 흙을 파 넣는 사람이 물 조절을 해 줘. 다 끼얹어 주고. 이제 여기서 공장장이나 그 기계창 반장이 다 물을 조절을 해 줘. 아줌마들도 물이 질면 다들 조절할 수 있고 그래. 나오는 속도에 비해서 이제 물 조정도 하고 그래요.

면담자 반장님(오야)들한테는 좀 더, 더 뭐가 있었어요?

김윤임 오야비라고 조금 더 나가는 게 있겠지.

면담자 그 월급에서요, 아니면 어땠어요?

김윤임 이게 일이 월급이 아니에요. 우리네 임금이 하는 대로, 수당대로 먹는 거야. 그니까 반장님은 이제 그걸 다 책임을 맡아 갖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돈이 반장한테는 조금 더 나가겠지, 여기 사무실에서 나가는 게. 그런 거지.

공장장의 역할과 노임 인상

면담자 공장장님은 어떠셨어요?

김윤임 우리 공장장. 공장장은 월급쟁이고.

면담자 정식직원이었던 거죠?

김윤임 그렇죠. 월급쟁이.

면담자 음. 그러면 공장장이셨는데 기술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원래 이쪽 분들과 좀 아셨던 것 아니요?

이상길 그건 아니구요. 이 공장을 설립을 할 때 공장에서 사람들을 시켜고 어느 공장, 어느 공장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선별해서 데려오는 거지. 스카우트해 오는 거지. 돈을 더 준다든지. 이래 갖고 스카우트하다가 여기서 가르쳐서 또 하고 그러는 거야.

면담자 어떻게 해서 (남편 분은) 공장장이 되신 거예요?

박명자 오래되셨고 기술이 좋으니까. 손재주가. 기계 같은 것도 만질 줄 알고. 기계창 고장 나면 기계 만지잖아요. 뭐라도 이렇게 저기 해서, 컨베이가 돌아가도 서면 공장장이 다 만지고 뭐하고 하셨지.

면담자 원래 그런 기술을 배우셨어요?

김윤임 원래 우리 아저씨도 총각 때 서울 어디에서도 하고 왔대요. 그리고 이리 오신 거지.

면담자 공장장 하시면서 어려웠던 일이나 이런 것은 없으셨대요?

김윤임 일하는 데 어려웠던 것은 우리 아저씨가 새벽에 전기가 나가면 전기를 전보선대 올라가서 이어야 돼. 빨리 일을 시키려니까. 그래 갖고 우리 아저씨는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야. 그 전봇대에서 떨어져 갖고, 감전사고 나 갖고. 그래 갖고 죽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일은 공장장이니까, 일은 빨리 시켜야 되고. 이게 한전을 부르면 새벽이니까 안 오거든, 빨리. 그러니까 이제 그 안장이 다 있어, 있는데. 그걸 해 갖고 빨리 올라가서 그걸 이어야지 공장이 돌아가거든. 근데 이제 새벽이라 시계를 차고 올라가 갖고 그냥, 자다가 나갔으니까. 이게 이제 된 거야. 그래서 떨어졌어. 그래서 서울 병원 가서 오래 있었어요.

면담자 소식 들었을 때 깜짝 놀랐겠네요?

김윤임 아휴, 그럼. 우리 핏덩어리를 데리고 가서 있느라고 내가 아주 그냥. 여기서 이제 차로 싣고 갔지. 저기 남문 가는 데 한전중앙 병원 있는데 한전 그때 있었어. 그 앞에 보면 병원이 또 있어요. 무슨 병원인데. 이춘택병원 맞은편으로 하나 있었거든. 그리로 갔는데 거기서는 안 되니까 빨리 서울로 가라 그래 갖고 이제 119 타고 서울로 간 거지. 여기 이제 책임자하고 같이 갔는데. 나는 이제 뒤에 갔지. 내가 이제 애 데리고 가느라고. 가니까 그냥 뭐 밀쳐놓고 봐주지도 않아. 그렇게 많은 거야, 서울 감전사고 난 사람들이. 막 여기 갖다 밀어 놓고, 저기 갖다 밀어놓고, 안 돼. 그러니까 이 사장이 가 갖고 손을 써 갖고 빨리 들어간 거여 병원을, 입원실을. 여기서 살 떼어 갖고. 팔 끊는다는 거, 내가 얼마나 울며 다니며 그냥 끊지 말라고 그냥 살려만 달라고 해 갖고. 여 엉덩이에서 살을 떼어 갖고 여기다가 붙여 갖고 살은 거야. 그래 갖고 지금도 이 손이 많이 시리고 아파. 병신 다됐어, 우리 아저씨는 여기서. 그래도 보상 하나도 못 받았어. 그러. 옛날에 산재를 안 들어와 갖고, 이 사장

이. 보상 한 개도 못 받았어. 사람만 병신 됐어. 지금도 춥고 그러면 그냥 추위를 못해요. 이게 시려 갖고.

면담자 또 다른 어려움이 뭐가 있었어요?

박명자 이제 공장장님으로 계시니까. 1년에 한 번씩 노임 인상하는 거 있잖아. 노임. 임금 협상할 때는 직원들 비위 맞추고 이 노동자들, 인부들 저거하려고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많이 하시는 사람이.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공장장님이었어.

김윤임 중간에서 욕도 많이 먹고. 잘 해 주면 괜찮고.

박명자 우리 이제 일용자들 우리네 임금 인상한 뿐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고. 그 수습시켜서 안 조장 시켜서 일 시키려고 그러는 게 힘드셨겠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야.

면담자 여기 한 번 임금 올리려고 파업도 했었다고 그러던데요?

박명자 응, 그전에 한 번 그랬었어요, 한 번. 그랬는데 우리 미경 아빠, 우리 아저씨가 술을 먹고 해가지고. “이 놈아, 내 (경찰서에) 집어 넣을 거라.”고 막 차트도 이 부장인가 그 사람이 서류도 이렇게 꾸며 났는데 어떻게 잘 마무리지어서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냥 합의해서 다만 조금씩 올려 가지고 일을 다시 하는 거지 뭐. 임금 인상이 뭐 얼마나 그렇게 되나. 얼마나 올려 줘요, 조금이지.

면담자 그때 얼마나 받으셨어요?

박명자 몰라요. 지금 이 벽돌 인상은 몇 전, 몇 리, 몇 무까지 나와요. 1원, 2원이 아니야. 전으로 나와. 이 임금 인상이 이 벽돌 하나에 몇

전 몇 리 몇 무로 해서 월급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때 몇 전 몇 리 몇 무라는 것만 알지 뭐 얼마라는, 돈 얼마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김윤임 한 달에 두 번씩. 두 번씩 나오는데 이제 뭐 나오면 그걸로 먹고사는 거지 뭐. 얼마나 큰돈을 벌어.

면담자 아저씨도 받고 아주머니도 일을 하는 거잖아요?

김윤임 그러니까 새끼들 먹여살리지. 공부 가르치고, 혼자서는 못 살아. 그러니까 부부가 다 일해야 되고. 혼자서는 못 사니까 둘이 벌어서 먹은 거지.

면담자 왜 보다 보면 억척스럽게 돈 모은 집들도 있잖아요?

김윤임 그렇지. 이제 왕창왕창 쓴 집은 돈이 없고. 진짜 뭐 이렇게 좀 알뜰살뜰하게 산 사람들은 집이라도 뭐 오두막집이라도 하나 사서 나가고 그러는 거지.

사내 친목계와 휴일

면담자 근데 비오는 날 기계장에서 뭐 해먹으면 서 수다 떨고 그러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김윤임 살아가는 이야기고 그냥. “아 뭐 너 잘 났니? 나 잘 났니?” 어떤 집은 어땠고, 저 집은 어땠고 그런. 신랑 술 먹고 속 썩이는 거 홍보고 그런 거지.

면담자 술 먹고 어떠셨어요?
박명자 술 많이 먹으면 남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속 썩으니까는 그냥 술 먹으면 저기, 술 먹는 거 속 썩어 갖고 살기 힘들다. 술 많이 먹으면 찜박질하고 그러는 거지 뭐.

면담자 같이 일하시는 분들끼리?
박명자 그럼. 신랑들 홍보고 그러는 얘기지 뭐. 몇 날 며칠 풀어질 때까지 일도 안 나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지 뭐. 뭐 특별나게 얘기할 게 뭐 있나.

면담자 아저씨가 일을 안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김윤임 안 나가면 속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속상한 얘기 술 먹으면서 아줌마들하고 수다 떠는 거지. 기계장에 와서 얘기하는 거지. 어제 술 먹더니 일도 안 기어나가고 저러고 있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야.

면담자 그러면서 스트레스 풀고.
박명자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 풀고,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 풀고, 술 한 잔씩 먹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별 달라요.

면담자 한번 그렇게 쏟아내고 나면 속이 좀

낫잖아요.
박명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술 한 잔씩들 또 여자들, 킁킁하면 노래하면서 놀고.

면담자 놀러도 가끔 갔어요?
김윤임 관광가지요.

면담자 어디로 관광 많이 가셨어요?
박명자 강원도 쪽으로 많이 가. 설악산도 가고.

면담자 가면 다 같이 갔어요?
박명자 다 같이 가지. 친목계, 거진 다 친목계지.
김윤임 갈 사람 가고 이제 안 가는 사람 안 가고, 친목계로 가지. 여기서는 공장 자체에서는 뭐 그렇게 관광 안 보내 줘.

면담자 친목계가 있었어요?
박명자 친목계 있죠. 그거는 우리 친목 하는 거지.

면담자 친목계 이름은 있었어요?
김윤임 있지. 우정친목계. 부부동반이야.

면담자 몇 가구가 모였어요?
박명자 열여섯 집에서 했어. 부부면 서른두 명. 관광차 하나는 돼야지. 안 가는 사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어울려서 또 놀고, 엮어서 또 다른 친목계 모임을 가져 갖고 각자 다 그렇게 모임이 있어.

면담자 우정친목회가 가장 오래 있었던 분들 인 거죠? 그럼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모아요?
박명자 한 달에 회비 2만 원씩 내고, 먹는 거 내는 건 개인이 당번 돌아올 때마다.

면담자 그러면 회비 모아 가지고 주로 뭐 하시 는 거예요?
박명자 그걸로 관광 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씩 먹는 거 해 가지고 가서 관광 갔다 오는 거죠. 여수도 가고, 뭐 설악산도 가고, 통영도 가고 다 갔어.

면담자 우정친목회 사람들 말고 다른 친목회는 다른 거잖아요?
박명자 또 다른 친목회는 그 사람들끼리 따로 따로 또 친목계 하고.

면담자 어떻게 차이가 있었어요?
박명자 차이는 뭐 똑같죠. 그 사람들도 놀러 다니고 똑같지 뭐. 같이 합세만 안 했다 뿐이지. 친목회마다 이제 나이 차가 있지. 젊은 애들은 또 우리하고 다르잖아. 지금 따지면 70대하고 30~40대하고 같아, 다르지.

면담자 일하다 보면 나가는 분들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새로 누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박명자 새로 들어오면 신입술을 냈죠. 신입주. 새로 왔으니까 신고하라고, 술 내라고. 그럼 한 잔씩들 또 먹는 거지 뭐.

면담자 여기서 또 음식 같이 해 가지고 먹는 거예요?
김윤임 응. 그렇게 먹는 거야. 그 사람이 내는 거야. 새로 온 사람이. 신고식이지, 신고식.

면담자 그러면 누가 소개해서 온 사람이야 이런 건 다 서로 아는 거죠?
박명자 알죠. 다 그 정도야 알죠.

면담자 새로 온 분들에게 일은 어떻게 가르쳐요?
김윤임 와서 하는 거 보면 다 알지. 배울 게 뭐가 있어. 리어카만 잘 끌고 가면 되지.

면담자 새로 왔는데 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김윤임 답답해도 할 수 없지, 어떻게 해. 같이 합심해서 해야지.

면담자 계모임이 몇 개나 있었어요? 주로 그런데 여자 분들끼리는 여자 분들끼리 또 얘기 친하기도 하고, 남자 분들도 친해지는 게 있는데. 반별로 친해지셨어요?
박명자 그렇죠. 각자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다 자기네 조가 있잖아. 마당모치는 마당모치대로, 가마쓰미는 쓰미대로, 아가지는 아가지대로 이렇게 만나서 술 먹고. 다 그게 그렇게 통하는 거지. 각자 부서가 있어. 각자 부서대로. 우리 앞차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그렇게 만나서 먹는 게 더 쉬우니까.

면담자 월요일부터 금요일, 며칠까지 일을 하고 쉬는 날이 있었어요?
박명자 아니여. 비와야 쉰다니까. 쉬는 날은 없어. 기계 고장 나면 쉬고, 비오면 쉬고. 이제 쉬는 날은 정해진 날은 없어요. 사월초파일 날은 쉬었잖아. 일 년에 사월초파일 날 하루 쉬는 거야.

면담자 사월초파일에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이상길 사월초파일 날도 일하는 사람들은 다 해. 불 때문에 일을 하고. 쓰미 같은 경우에는 아가지도 가마 때문에 일부 일을 하고 쉬어. 회사에서 닭 반 마리 주고 그랬어. 그거 먹고

를 만들어 놓고 땀다고. 다 막고, 이렇게 아궁이만 만들어 놔, 네 개를.

면담자 아궁이는 밖에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상길 그렇지. 이렇게 밖에서 나무를 때는 거야 계속 불을. 처음에만. 그 불이 이제 온도가 1,000도가량 올라갈 때까지. 벽돌이 다 익을 때까지.

면담자 그러면 그 가마가 아예 특정하게 있는 거예요?

이상길 아니여. 만드는 거여, 시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는 이제 회장님이 어디다 해라 그러면 거기다 하는 거지.

면담자 그럼 1,000도 이상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위에서 넣는 걸로 계속 불씨를 살리는 거구나.

이상길 그렇죠. 응. 살려가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고선 밑에는 뜯어내면 이제 익은 것 꼬집어내는 거야. 처음에는 밑에서 이렇게 해서 불씨를 살려, 만들어. 여기서, 여기서 불을 때. 계속.

면담자 네 개 정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상길 응. 네 개. 불구멍.

면담자 중간에 불이 꺼지는 날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박명자 안 꺼지죠. 꺼질 수는 없죠. 꺼지려고 하면 무연탄을 넣어서 때고 그러니까 안 꺼지고. 꺼지면 안 되죠.

나서 들어와. 싸워야지 안 싸우면 집에도 안 들어와. 싸워야 일이 끝나는 거야, 누구하고. 같이 먹다가도 술 먹다가도. 일하는 사람하고 이제 말다툼하고 그러는 거지 뭐.

면담자 화입식이라는 게 불 넣는 거잖아요. 어떻게 불을 켜는 거예요?

이상길 밑에서 벽돌에 불이 1,000도가 올라갈 때까지 불을 때. 아궁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불을 때 가지고, 이게 불을 800도, 1,000도 올라갈 때까지 벽돌이 익을 때까지 그 불을 이제 계속 밑에서 때요. 뭘로 때느냐면 이런 나무 목재소에서 나온 것, 이런 것 이제 천 조각 많이 때고, 헌 옷, 냅마. 그때 당시는 냅마가 수출도 안 됐어. 그냥 다 쓰레기로 버리는 것 갖다가 태웠어. 그거 태우고 이제, 하여튼 이런 저기 머리카락 만드는 거 이런 거, 나일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갖다 태웠어. 사다가. 그럼 화구들이 이렇게 구멍이 다 있어요. 이게 화구라고 다섯 개씩 이렇게 있어요. 쪽 이렇게. 그러면 위에서 거기에 탄을 넣어.

면담자 화구를 어느 정도 크기로 넣는 거예요?

이상길 화구가 이렇게 네 개가 있으니까, 여덟 개를 만드는 거지. 이렇게 8개 구멍을 만들어 갖고 넣어. 네 개를 만들어 갖고. 한 가마에 네 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막아 갖고 구멍을 이렇게 여기 네 개, 여기 불구멍이 네 개가 있잖아. 이렇게 불구멍이 네 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네 개를 만들어 줘. 이렇게 불구멍을. 거기다가 계속 때는 거야. 24시간.

면담자 어떻게 때요? 이미 막았는데.

이상길 불구멍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아궁이

화입식(火入式)

면담자 명절하고 사월초파일 정도만 쉬는 거예요?

이상길 화입식 하는 게 최고 큰 생일이여. 불 시작하는 날. 가마에 불을 처음 살리는 거여. 회장이 와서 불 탁 켜서 살릴 때 그때는 돼지, 통돼지 잡아 놓고 무당님들이 두 분이 오서 갖고 막 이렇게 다 고사지내고 다 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돼지고기 나눠서들 먹고. 그날은 그냥 일하면서 먹으며 노는 날이여.

박명자 그럼 오십 명한테 떡 한 몫씩. 돼지고기 한 덩어리씩 다 따로따로 해서 집집마다 다 배급 주고. 고사 지내니까. 떡 하나 돼지고기 하나 이렇게 해 갖고, 그거 한 몫씩 해 갖고 집집마다.

면담자 집집마다 주는 거예요?

이상길 우리는 술 취해서 다툼에 휘말려서 못 먹었어.

박명자 자전거에 매달아 갖고 오다가 연탄가루가 다 뒤집어써서 버려 버렸는데 뭐. 술 취해서 갖고 오다가. 떨어트려 가지고. 한 번 떨어트리면 못 먹어. 그거 연탄가루가, 연탄재가 다 묻어 가지고. 돼지고기, 돼지고기가 다 그거 기름인데. 갖다 버리고. 그거 먹을래도 속이 터져서도 못 먹어. 부아가 나서도. 난 아주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술, 담배를 끊어서 좋지만. 애들 같으면 뱉아 죽이고 싶지.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아이고.

면담자 아저씨가 뭐 가지고 속을 썩이셨어요?

김윤임 술 잡수니까. 술 때문에 그러지.

면담자 술을 많이 드서 가지고?

박명자 그렇지. 그리고 나서 누구하고 싸우고

술 먹고 노는 거, 그냥. 사월초파일 날 닭 반 마리씩 준다니까. 부부가 일하니까 한 집에 한 마리씩 돌아가는 거여, 닭이.

김윤임 닭은 지금 쳐다보기도 싫더만 왜 이렇게 맛있었나, 그랬는지 진짜. 지금은 닭 같은 거 진짜 저기인데. 그때는 그계 닭 한 마리 주면 그날은 집안 식구들 아주 저기야, 잔치지.

면담자 정해져 있는 휴일이 없어요?

김윤임 규정돼 있는 날은 없어. 정해진 거는 이제 추석 때 이제 그 연휴 며칠씩, 구정 때 그 며칠 그거밖에 없어요. 겨울에는 대부분은 일을 많이 못 하지.

면담자 꺼지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으면 진짜 난리나요?

이상길 꺼지면 다 모가지 나가지.

면담자 불을 때는 거예요? 그러면 불길어 어떻게 이동해서 벽돌이 구워지는 거예요?

이상길 마른 벽돌을 가마에다 넣으면 불은 이렇게 쫓아가는 거고. 다 구워지면 꺼내는 사람들이 쫓 가면서 심는 대로 꺼내는 거야. 꺼내는 사람이 아가지야. 그럼 아가지가 꺼내고 시라지가 넣으면 화부가 불을 넣어 줘. 뜨거운 바람이 가는 거는 위에서 다 조정을 하는 거여. 화부들이 다.

면담자 벽돌을 쌓고 그 종이, 마분지로 칸을 이렇게 단는 거군요?

이상길 그게 거기다 막는 건데. 가마마다 막는 거여. 공기가 안 들어가게. 종이로. 어떻게 막느냐면 그 설명하기가 좀 저기한데. 이 연도 구멍이 입구에 하나 있고. 저쪽 안쪽에 하나 있어요. 두 개가. 한 가마에 두 개씩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들면 여기서 바람이 들어가는 거고. 저것을 들면 불이 딸려가는 거지.

면담자 중앙연도로 따라 들어가죠?

이상길 불이. 그렇지. 불이 따라 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종이를 대고 댄퍼를 열면 연도를 따라 바람이 쫓 들어가면서 종이가 착 붙어서 안 떨어져. 그러면 바람이 안 들어가.

면담자 벽돌을 쌓고 칸마다 종이를 단다는 얘기예요?

이상길 그렇지. 가마마다 막아, 한 가마 쌓고

막고, 한 가마 쌓고 막고 그래.

면담자 예를 들어 가마에다가 지금 벽돌을 넣었어요. 그럼 여기를 막아요. 여기도 지금 막았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빼내는 데예요. 빼내는 데고 공기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럴 때는 여기는 안 넣잖아요.

이상길 응. 여기는 안 넣지. 빼내는 데는 공간이 그냥 식어야지 빨리.

면담자 그러니까 지금 넣을 때 양쪽을 이렇게 막는 거잖아요?

이상길 그렇죠, 응. 그래 여기다 물건을 넣고, 벽돌을 쌓아서 넣고 한 가마를 막아 놓고. 또 쌓는 거야. 그렇게 해서 또 막아 놓고, 또 쌓고. 그럼 여기서 불을 들을 때. 불 조정을 할 때 이 한 가마만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야. 연도가 양쪽으로 있으니까. 이걸 들면 불이 따라오고, 이걸 들면 불이 안 따라오는 거야. 이걸 들면 불이 따라와 이리. 이걸 들면 불이 안 따라오잖아. 이걸 들면 바람이 들어가니까 불이 못 오지.

면담자 공기를 집어넣고 할 때 이런 연도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상길 그렇지. 그게 연도여.

면담자 그럼 댄퍼 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상길 조정하는 게 있어.

면담자 댄퍼는 뒤에 쓰는 거예요?

이상길 뚜껑인데 소연도와 중앙연도를 연결하는 데 있는 뚜껑인데, 구멍을 막게 생겨 갖고 이렇게 딱 막게 돼 있어. 댄퍼를 열면 연도로

벽돌 판매처

면담자 영신연와에서 생산한 벽돌을 사들이던 데가 주로 어디예요?

박명자 건물 짓는 데서 다 나갔지. 교회, 학교.

이상길 적벽돌 대리점이 있었죠. 대리점이 지역마다 있었어요. 그래 갖고 이제 벽돌만 쌓아 놓고 파는 데가 있어. 그 대리점에서 이제 1년치를 전부 계약해서 다 가져가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면담자 그 대리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상길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 수원에도 있었을 거야. 각 지역에 하나, 수원에도 하나 있고 있었다고.

면담자 1년 생산량을 대놓고 그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생산하는 거예요?

박명자 벽돌이 불티났으니까. 없어서 못 팔았어.

이상길 예, 하여튼. 동가리도 다 팔아먹었는데 그때. 그렇게 불티나게 팔렸었어요. 그때는 그래 갖고 막내 사장이 와서 1년 하고서, 그 이듬해 제주도 구경시켜 줬잖아. 전체 데리고 비행기 태워 갖고 가고.

면담자 막내 사장님이 누구신데요?

이상길 박덕원이라고 사남매 중에 제일 막내예요. 여기 회사를 맡아 갖고 할 때 1년 하고서 그 이듬해에 구경시켜 줬어. 겨울이면 1년 뻘 것 다 팔고 한 개도 없는데 뭐. 제주도여행 그 때 당시에 해주려면 돈 많이 가졌어야 되는 거여. 그때 당시는 비행기 샅도 비쌌어. 그때는 12만 원인가 그렇게 했었어. 지금이니까 7만 원인가 얼마 그러지. 그때는 그렇게 비쌌어.

영신연와 폐업

면담자 폐업 당시 얘기 좀 해 주세요?

박명자 92년도에 여기가 폐업됐어요. 92년도에 끝났어.

이상길 우리 여기 폐업될 때는 폐업되려니 생각을 안 했었는데. 결국 이제 그 이듬해 일을 못 시작한 거지. 부도가 나 가지고, 부도나서 그리 된 거야.

면담자 그래서 공장 쪽에서 와서 나가시라고 그랬어요? 여기 집 비우라고.

박명자 나가라는 말은 안 하지요.

면담자 여기 그럼 이 집들은 누구 거예요?

이 사택은 공장 것 아니었어요?

김윤임 공장 거지요. 근데 우리네가 살았잖아. 살다가 벌어먹을 길이 없으니까 다 나가는 사람은 나가고.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벌어먹고 살려면, 그래서 다 나간 거지. 우리네는 나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고.

이상길 이 땅도 경매로 넘어가고 그런 거고. 땅도 다 경매로 넘어가니까 그러고, 여기가 그때 당시는 다 나가서 벌어먹고, 그래 이 집주인과 건물주인 달라요.

면담자 맨 처음에 여기 이제 한참 일하시다가 마지막에 그만두실 때, 어떻게 이제 그만둔다, 여기 없어진다는 얘기 들었을 때 어땠어요?

김윤임 환장하지. 어디로 갈까. 갈 데 없잖아. 여기서 벌어먹다가. 어디로 갈 거여. 그 어떻게 해. 공장은 안 되고, 지금 아파트 시대에, 아파트 짓는 시대라 벽돌이 나가지를 았으니까. 이 사람도 문 닫은 거여, 이 사장도, 지금 다 시멘트로, 저기 뭐야 아파트만 짓잖아. 공

구리하고, 벽돌이 나가냐고. 이거는 단독을 지어야 나가는 벽돌 아니에요. 궁게 여기 그때 다 문 닫는 거지 뭐. 그러니 어디로 갈 거야, 다. 그래도 옛날에 벌어 놓은 것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먹고 살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 나가서 다른 데 방이라도 하나 얻어 놓고 계속 일가는 거지 뭐. 나도 나가서도 일 많이 다녔어요. 지금도 일 다녀 나는. 먹고살게 없으니까, 혼자.

면담자 그럼 여기서 이사 가신 분들 중에서도 근방에 사시는 분들 아직도 계세요?

김윤임 몇 명 살아, 많이. 이거 지금 여기 우리 옆에도 젊은 애 하나 있는데 오늘 일 가서 못 만나. 저 옆에도 또 하나 있고 뭐. 있기가 많이 있지. 근데 다 이사가 버렸어요. 안 하니까,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야지. 여기 있으면 뭐가 나와. 안 나오니까. 안 그래요. 벌어먹어야 되니까. 별놈의 일 다 했어. 식당예를 안 다니나, 뭐 그냥. 나는 모텔 청소도 다 다녔어. 그래도 못 살아요.

박명자 여기를 그만두고는 이제 막 나가서, 벌이가 없으니까 식당도 다니고, 아파트 청소도 하러 다니고, 나무 그 조정하는 데도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일도 하고, 뭐 안 해본 일이 별로 없어. 여기 일 그만두고 나가서 벌어먹어야 되니까. 그냥 뭐 아파트 청소 그냥 다 그런 거 하고 다니고, 식당에도 다니고, 그렇게 벌어먹고 여직까지 살은 거예요.

면담자 여기 살면서 가장 좋았던 때가 뭐였어요?

김윤임 좋았던 때는 새끼 놓고 조곤조곤 살 적에 제일 좋았지 뭐. 힘은 들어도 애들 커가는 거, 애들 공부하는 거 그런 거 보고 사는 거지.

겨울 노동

면담자 사택에서 이사는 안 하셨어요?

김윤임 예.

면담자 사오십 년을 계속 있으니까 집에 대한 애착이 크겠네요?

박명자 그렇죠. 내가 여기가 48년 됐는데. 이 집에서.

면담자 이사 나간 집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살게 되겠네요?

김윤임 한 번 들어오면 잘 나가질 않아. 나간 사람이 거의 없어. 그냥 여기서 일하고 먹고사는 거야.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갔어. 나가면 뭐해 먹고살아. 이거를 해야 밥을 먹고 사는데.

면담자 겨울 되면 연탄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아니면 아저씨들만 했어요?

박명자 남자들만 했지. 우리는 다른 일했지, 겨울에는 파출부 다녔지.

면담자 연탄공장은 남자들만 가서 일해요?

김윤임 겨울에는 벽돌공장은 일을 안 하니까 남자들은 뭐 연탄공장 같은 데 가서 일을 하고, 여자들은 파출부 쪽으로 나가고 그렇게 벌어야지. 아파트 같은 데 가서 청소하고, 별 것 다 했어요. 준공 청소 같은 거, 아파트 준공 청소. 벌어먹어야 되니까. 겨울에는 여기 차단하고 일을 안 하니까.

면담자 11월쯤 되면 이제 더 이상 벽돌을 안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말려놓은 것들은 구워야 되잖아요?

이상길 12월까지 굽는 거, 불은 때는 거지.

면담자 그럼 가장 마음이 아팠던 때는 뭐가 있었어요?

김윤임 마음이 아팠던 때는 애들 아프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신랑 아프고 그럴 때고.

면담자 아까도 사고 나고 그랬을 때는요?

김윤임 그럼. 그때가 제일 마음 아프고.

면담자 여기 사고가 좀 많이 있어요.

김윤임 없어. 사고는 거의 없어. 위험한 일은 없고, 이제 기계만 위험하지. 이런 데는 뭐 마당이고 그러니까 위험한 거는 없어.

면담자 기계 쪽에서도 사고가 좀 있어요?

김윤임 거의 없어. 우리 아저씨는 그냥 감전사고 한 번 난 거고 사고 날 일은 없어. 여자들도 그렇고. 사고 날 일이 뭐 있어.

면담자 초반에 동보연와에서 일하던 분들이 이곳으로 오셨다고 하던데요?

이상길 있지. 현준 네도 동보에서 데려온 거여. 마리아네. 현준이도 그렇고 옥자, 황석기도 다 동보연와에서 데려온 거야. 여러 집 오셨지. 한 네다섯 집 되나 본데 저기도 동보에서 데려온 거고. 서창학 씨도 동보에서 오신 거고 해진이 아버지도. 저기 동보에서 온 사람이 또 누가 있냐? 한댓 명 되는 거 같아. 한 다섯 명 정도 이쪽으로 왔었죠. 여기 사람은 그리 안 갔어.

박명자 그래도 그리 갔어야 되는 거여. 오라고 그럴 때. 거기 이사비용 2~3천만 원씩 받았잖아. 여기는 하나도 못 받고 있는데. 그리 갔어야 되는 거야, 동보연와로.

김윤임 우리는 억울해 죽겠어. 비행기 소음 피

해보상금도 안 줘. 여기 살면서 50년을 비행기 소리를 들었는데 안 주고, 이제 이사 오는 사람들 신청하라고 신규 신청하라고 써 붙여놔다. 비행기 소음. 이게 뭐냐고. 50년 산 사람은 왜 안 주냐고. 50년 동안 비행기 소리 듣고 살았는데 안 주고 이제 이사 오는 사람은 왜 줘. 여기 주소는 제외된다고 그러더라고.

면담자 동보에서도 영신 사람들 오라고 했어요?

박명자 그렇죠. 사람이 모자라서 오라 그러고, 일 잘하고 그러면 오라고 그러는 거지.

이상길 영신 사장님이 동보 사장보다 배짱이 더 좋았어요. 그래 갖고, 동보 일꾼들을 돈 더 주고 이리 데려왔었어. 그때 여기가 돈도 이근방에서는 제일 많이 줬어요. 초창기에. 여기가 엄청 부자였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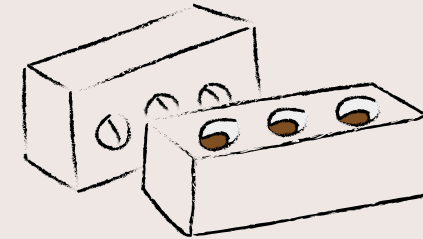
면담자 맞아요. 고색동에서 엄청 부자였죠?

김윤임 어마어마하게 땅 많았는데, 형제가 많으니까 그냥 분리해 갖고 팔아먹었고.

면담자 동보연와는 이사비용을 이삼 천을 주었는데 영신연와는 안 준 거예요?

김윤임 여기는 뭐가 안 들어오니까 안 주지. 저기는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준 거지. 여기는 안 들어왔으니까 안 주고, 동보연와는 아파트가 들어오느라고 내쫓느라 준 거지. 3천만 원씩 나왔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어. 우리도 이사비용 주면 얼른 나가는데 이사비용 못 받아서 그렇지. 비행기 소음도 안 주고 억울해서 살겠소,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냐고.

이상길 여기다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이팔청춘을 다 여기다 바쳤다고. 그래도 여기 떠나기가 좀 그래.



영신연와 이영식이 전하는 기계창 이야기

면담자 : 홍현영(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면담일시 : 2020년 10월 30일
면담장소 : 영신연와 사택

영신연와 취업

면담자 고향이 여주라고 하셨는데 몇 년 생이 세요?

이영식 53년이요. 내가 원래 52년인데 한 살 줄어 가지고 53년이여.

면담자 수원으로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이영식 여기에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76년도에 왔나? 원래 친구가 여기 앞에 살았어. 고색동에.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방을 저기(고색동) 큰말에다가 얻었어요. 그래 가지고 비닐공장을 땡겼어요. 이사 오고 나서 한 2개월 있다가 비닐공장에서 손가락이 잘린 거예요. 여기 바로 옆에 길옆에 농협 바로 건너에 거기 있었어.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거(잘린 손가락) 때문에 일은 못 하고, 하여튼 갖는데 이 벽돌공장을 아는 사람이 소개해 줘 가지고 여기 와서 일을 해라. 두 달인가 한 달 놓고 한 세 달 만에 일로 이사 온 거지.

면담자 그럼 오실 때 사택을 받으셨어요? 영신연와를 오시면서 살 집을 받으셨어요 사택을? 아니면 고색동에서 친구랑 같이 살았던 그쪽에 있으셨던 거예요?

이영식 여기 와서 살았지. 여기는 일하는 사람은 방을 주니까.

면담자 가족이 다 오신 거예요?

이영식 그렇지. 다 왔죠. 그래 가지고 방하고 부엌하고 있는 거를 받았지. 이거를(증축한 방) 내가 제일 먼저 들인 거예요. 애들 때문에. 뒤에도 방 하나를 들이고, 여기서 저녁에 일 끝나고 벽돌을 쌓아서 방을 이렇게 더 만든 거야. 처음에는 부엌이랑 방밖에 안 컸어.

면담자 방, 부엌 있는 거를 오시자마자 벽돌이나 이런 거 가지고 더 늘린 거예요?

이영식 예. 그때만 해도 애들을 다 낳는데, 비행기 소리가 엄청 나는 바람에 고생 엄청 했어. 비행기 소리 때문에 우리 애가 울고 새벽에 4시에 일 나가는 거한테 밤에 울어. 그때는 지금 있는 여기 학교도 없었어. 학교 정문 다 논바닥이지 여기랑 똑같은 논바닥. 거기에서 겨울에, 재우고 그리고 와서 재우고. 나 고생 엄청 했습니다. 여기 와서. 비행기 뜰 때마다 애들 놀래고 이 창문이 다 울리고 그랬어 정말이야. 이런 사람을 보상을 해 줘야지. 그때는 또 비행기가 지금은 뜨면 그만이지만 비행기 야간 훈련 있었어. 그땐 여기서 비행기가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밤에는 저기서 내려왔다가 석 내려왔다가 석 올라가니까 애들 놀래고, 증말이야 엄청 고생했어. 우리 애들 세 놈을 여기서 키운 거야. 잠을 못 자지, 새벽에 4시에, 나 4시에 일 나가야 되는데.

기계창 작업

면담자 그럼 영신연와에 와서 처음에 어떤 일 부터 하셨어요?

이영식 최하바리니까 가쿠메지. 켕이질, 흙 찍 어서 내리는 거지.

면담자 그 기계창에서, 기계창에서 흙 내리는 거 하신 거예요?

이영식 그렇지. 기계창에서.

면담자 그러면 하루 종일 흙 내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영식 그렇지.

면담자 보통 4시에 시작하면 몇 시까지 일을 하셨어요?

이영식 그제 앞차 아줌마들이랑 같이 끝나는 건데, 보통 4시에 끝나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빨라요. 다른 데는 5시 6시에 끝나는데 4시에는 끝나지. 성형은 일찍 시작하고 끝나고, 그렇게 살았지. 말도 마세요.

면담자 가쿠메 하시면서 계속 그 일을 하시고 몇 년 정도 그 일을 하셨어요?

이영식 가쿠메를 하다가, 마당 쌓는 사람. 마당모치를 내가 한 2~3년 하다가 마당모치를 배워 가지구 마당모치를 해구, 집 사람은 그때 깨진 파벽 주워 내는 거 했거든. 그래서 저녁에 끝나면 파벽 마누라 거 들어서 해구. 파벽 갖다 버리고. 그런 식으로 일했쥬 뭐. 그러다가 나중에 기계 고장 나면 비가 오고 그러면 기계 수리하지. 그러면 제가 날일 나가서 일했어요. 도저 고치고, 날일 나가고. 애들 셋이니까는 빈손으로 온 놈이 어쩔까나. 도저 고치고 내가 날일 나가서.

면담자 기계 고치는 상황이 되면 가서 일당 받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영식 예 그렇지. 기술 있고 그런 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거기 가서 또 3일 만에 할 거를 내가 하니까는 나만 쓰지. 기계 고치는 사람들이 판 사람 안 써. 나만.

면담자 기계를 고치는 걸 배우셨어요?

이영식 아니 배운 게 아니라 나는 할 줄 모르는 데 뭐든지 말 잘 듣는다 이거지. 지 말을 잘 듣고, 손발이 맞는다는 거지. 그래 가지고 도저 고쳐도 오합마질을 많이 하는데, 그니까 오합마질을 하는데 나는 왼손잡이여. 그러니까 오합마질하고 왼손잡이하고 손발이 맞는다 이거지. 그래서 돈 만 원 쪼끔, 몇 천 원 더 주고 나를 시키지. 판 놈 안 시켜요.

면담자 그러면 기계가 망가지면 누가 와서 그걸 고쳐요?

이영식 기계오야가 날 데리고 가서 나하구 같이.

면담자 기계 오야는 누구였어요?

이영식 이명옥. 근데 기계 밋으면 뭐 미리 손보잖아. 그래서 나보고 나오라 해서 죄 뜯고.

면담자 기계창 오야가 있으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었어요?

이영식 감독이니까 맞춰서 다 아줌마들이고 다 책임이지.

면담자 기계오야가 있고, 가쿠메도 기계오야랑 같이 일하는 거고?

이영식 그 사람이 기계감독이나 마찬가지로.

면담자 여기서 생산하는 벽돌은 어디로 많이 나가는지 아세요?

이영식 그때만 해도 벽돌이 어디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작업물이 엄청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름이고 한 달이고 이게 벽돌 산다고 돈 갖다 놓으면, 언제 쯤 오라 그러면, 내개 새벽 4시에 나오면 4시에 나가면 세시 반엔 나가면 차들이 쭉 서 있어. 그래 가지고 아가지(다 구워진 벽돌을 꺼내는 사람)들이 끌어내려서 착착 끌어 나왔는데, 대개 대리점들이 많이 오는 거지 벽돌 대리점들이. 뭐 오면 차가 여기에서 저까지 쭉 서 있어. 그렇게 쭉 서 있어 실어 주면 나가고. 그때만 해도 참 벽돌이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그 아가지, 벽돌 불속에서 끌어내는 사람들은 돈 많이 생겼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좋은 거 실어 달라, 빨리 실어 달라, 그래 가지고 이 술값을 많이 주구. 그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어. 아가지들이 단가도 제일 켜고, 돈이 생길 때가 많아. 아가지가 제일 세지.

면담자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가지가 제일?

이영식 벽돌 식힌 다음에 가마 안에 가면 온도가 40~50도가 되지. 거기서, 불 속에서 깨가면서 나오니까. 가마 속에서 깨면서 나오니까. 그제 3~4일 이렇게 식히면서 나와도 그 안에 가면 후끈후끈해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뜨거워서. 저 불속에서 땀에 온통 흠뻑 젖지. 아가지 그 사람들은 챙기는 것도 많았지. 그 사람들은 여기서 차 오면 아무튼 술값 돈은 제일로 그 사람들이 술값도 많이 내고 돈도 제일 많이 모아 났지

면담자 4월부터 일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겨울철에 연탄공장에 가서 일하셨어요?

이영식 그치. 대개 연탄공장에서도 내가 일했지마는 거기 못 잡으면 노가다일, 하루 이틀 누가 부르면 그때 가거나. 누가 알아요? 이 동네에서 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술을 먹다 보니까 노가다 애들을 많이 알다 보니까는 공구리 치러 땡기는 놈들, 사귀다 보면 재도 이렇단다 얘기해 보면 그래 가지고 여기(영신연와) 사람들이 다 빠진 게 노가다 일이에요. 개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나도 노가다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공장, 벽돌공장 아니면 비닐공장이야. 비니루 갖다가 장판 원료를 땡드는, 그런 공장이야. 겨울철에 그랬었지 뭐.

면담자 가쿠메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인데 어떤 분이 반장을 해요?

이영식 가쿠메 그 세 사람이면 아무래도 똑같은 일을 하지만, 젤 먼저 있는 사람이 반장 아니야?

면담자 그러면 가쿠메 일도 맨 처음에 가선 배우는 게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이영식 아니. 요령은 있어야지만 배우는 거는 한 달이면, 열흘이면. 완전히 시골 일을 안 해본 사람이면 좀 저거 하지만, 시골서 일을 한 사람이면 한 보름이면 다 알지.

면담자 보름 정도면 요령도 깨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영식 그렇지. 근데 젤 오래 있는 사람이 일단 반장이지. 돈 똑같이 받아도. 근데 거기서 돈이, 가끔가다 나오면 셋이 하면 똑같이 나

와. 똑같이 노나.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라. 얼마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줌마들하고 똑같애. 아줌마들 벽돌 한 차 끌고 와서 한 달에, 쉽게 말해 만 장을 했다. 그럼 만 장 값을 받아 가는 거고, 우리도 만 장 값을 받아서 셋이 노나 갖는 거야. 그렇게 해는 거야. 아줌마들 스물댓 명이 만 장을 했든 십만 장을 했든 이렇게 하면 그걸 노나 갖는 거야. 그래 노나 갖는 게 빠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는 죄 적지. 오늘은 밑에 했는데 밑에 빠졌다, 그걸 죄 적어서 노나갖 는 거여.

면담자 그걸 다 기록하는 사람은 누가 기록해요?
이영식 그건 앞차 아줌마 반장이 있고 그런 거지. 그제 반장이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여자들이 조금 덜 받지. 그거 한 저 것도 있으니까는.

면담자 앞차 아줌마니 중에 한 분이 그걸 기록하고 그담에 빠지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다 기록을 해요?
이영식 다 이렇게 다 빠지는 거 기록해고.

면담자 앞차 아줌마가 가쿠메 일도 기록해요?
이영식 가쿠메는 가쿠메, 마당모치는 마당모치.

면담자 그렇게 하루에 일한 사람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영식 그렇지 그렇지.

면담자 그걸 회사에다 내면 회사에서 알아서 나눠 가지고 돈을 주는 거예요?
이영식 그렇지.

면담자 선생님은 영신연와 직원이었어요?
이영식 저는 처음에는 아니고, 나중에 직원 했었어요. 93년도에 문 닫는 걸로 알고 있어. 문 닫기 전에 1년 전에 직원이 됐어요. 문 닫고 나가서도 한 2년인가? 내가 보기엔 2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2년인지 3년인지 하여튼 직원으로 있었었어요.

면담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직원으로 있으셨어요?
이영식 아니 나만. 왜 그러냐면 그때 기계창하고, 기계 관리를 해 가지구.

면담자 나머지 분들은 다 직원이 아니었던 거네요?
이영식 그렇지. 직원이 아니지. 그때 직원을 할 때는 왜 그러냐면 문 닫는 게 아니고, 기계는 끝났지만 내년에는 다시 다 용접을 하고 이 기계를 다 분리해 버려. 그래 가지고 분리해.

면담자 한 해 일이 끝나면 기계를 다 분리해요?
이영식 응. 분리해. 그래 가지고 내년에 그걸 다시 재조립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는 월급쟁이로 있었어.

면담자 1년 일이 끝나면 기계를 왜 분리하는 거예요?
이영식 이제 기계가 흠을 분쇄하면서 닳고 닳고 해가지고 1년 동안 쓰면 기계가 오래 못 가잖어. 그러니까는 흠덩어리를 이만(덩어리 흠)한 걸 이렇게 작게 하는데 다시 용접해서 수리하지.

면담자 용접도 새로 하고 깨끗이 치울 건 치우

영신연와 취업과 가마 만들기

고 있다가 다음 해에 다시 조립하는 거예요?
이영식 그렇지.

면담자 그러면 선생님과 기계를 다루는 이명호 그분이 계속 같이 하신 거예요?
이영식 같이. 같이.

면담자 아침에 가시자마자 처음에 하시는 일은 어떤 거예요? 4시에 일하잖아요?
이영식 기계창에 가면 문 다 열고 기름칠하고, 기계 이것저것 작동시켜 보고 그럼 이제 아줌마들 오면 벽돌이 처음에는 물을 안 쥐 뽕뽕해서. 그래서 물 조정을 잘 하고.

면담자 처음에 가자마자 불 키고, 기계들이 잘 작동이 되도록 준비하시는 거네요?
이영식 그렇지.

면담자 벽돌이 나오는 입구 쪽에다가 기름칠하는 건가요?
이영식 기계마다 다 해야지. 제대로 들어가나 봐야, 그래 아줌마들이 한꺼번에 왔는데, 와 가지고 일하자마자 고장나 봐. 아줌마들이 뭐 하냐고. 아줌마들은 일하는 대로 먹는 거 아니야. 아줌마들한테 욕먹지.

면담자 미리 기계 준비를 다 해 놓고 아줌마들 오시면 그때부터 직업을 시작하는 거군요?
이영식 어. 딱 (앞차를) 끌고 나가게 해야지.

면담자 흠들이 쪽 들어오잖아요. 흠들이 들어오면 이 속도를 관리하는 건 누가 해요? 하루 생산량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오늘은 뭐 2,000대가 나간단 1,500대가 나간단을 계산하

는 거요?
이영식 고정적으로 나가요. 고정으로 나가는데, 앞차를 끄는 아줌마가 몇 대 뺐는지 계산을 해요. 만보가 있어요. 만보라는 게 뭐냐면 아줌마 한 대 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바둑알 같은 걸 하나씩 놓는 거야. 그래 가지고 오늘 몇 대 한 거를 아는 거지. 우리(가쿠메)는 그거 몇 대 가는 거마다 세지 않어. 아줌마가 그거(구루마) 한 사람이 끌고 가면 또 하나 놓고 그래 가지고 총계를 하는 거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오늘 몇 대 했다 하면 그거를 해서 마당오야 아줌마가 오늘 몇 대 했으면 몇 대 해서 빠진 사람 이름만 적어 놓고 딱 해는 거야. 그걸 노나 갖고.
백팔규 근데 대신 백 대를 끌면 다섯 대를 까요.

면담자 왜요?
이영식 쉽게 얘기해서 (리어카) 한 대가 60장을 끌고 나간단 그러면 열 장을, 나가서 거 못 쓰는 벽돌이라 생각을 하고 옹고 깨지고 그러니까, 홀리고 그러니까.

면담자 생산량과 상관없이 파손분을 미리 계산하는 거네요?
이영식 응. 미리 까는 거지, 미리 까는 거지.
백팔규 벽돌공장이 사업주만 엄청 이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노동자예요. 완전히 방 하나 준다고, 이게 집이에요? 집이 아니야.

면담자 그러면 일을 한참 하시고 난 다음에 언제쯤에 식사를 하실 거 아니예요 점심식사나 이런 거를.
이영식 12시. 그리고 1시에 딱 끝나는 거야. 집에 와서 먹는 거여

면담자 집에 와서 먹고? 그 다음에 1시에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시쯤에 끝내시는 거고요?
이영식 응
면담자 종료할 때는 어떤 순서가 있어요? 그냥 기계를 갑자기 탁 멈추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멈춰요?
이영식 1시에 시작하면 1시에 딱 해 가지고, 만약에 4시쯤에 돼 가지고 오늘 아줌마들이 한 오십 대가 남았다 그러면 한 오십 대 더 하자 하면 4시 반에 끝날 때도 있고 450대 했는데 500대 채우자 그러면 500대 해. 그러면 5시에 끝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대로 먹는 거니까는 아줌마들이 하는 거니까.

벽돌 건조작업

면담자 가쿠메를 하시다가 가서 이제 마당모치를 하신 거잖아요. 마당모치로 가시게 된 이유?
이영식 돈이 좀 많잖아.
면담자 가쿠메보다 마당모치가 돈을 좀 더 받아요?
이영식 가쿠메가 제일 하바리고.
면담자 마당모치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영식 벽돌 한 장을, 두 장들을 하루 종일 돌리고 쌓고 돌리고 쌓고 이래 돌리는 거고, 한 장 이렇게 탁탁 쌓는 게 아니라. 면이 있잖아면, 여기는 꺼칠하고 맨들하잖아. 여기 딱 뽕으면 반들한 게 위에 있지? 그러면 얹어야 반들한 거하고 해서 반들해지지.

면담자 그러면 앞차 아주머니들이 벽돌을 가지고 오시면 쌓으실 때 그거를 이렇게 왔던 걸 뒤집어서 쌓는 거예요?
이영식 한 번 놓고 한 번 뒤집어 얹고 한 번 놓고 한 번 뒤집어 얹고 그니까 면은 면끼리 한 번 처음에 뽕으면 반들한 게 위에 올 거 아니야. 위에다. 위에 다시하면 뒤집어 쥐야 반들한 게 똑같애지지. 쌓을 때 그렇게 한다구. 이렇게 한 번 쌓으면 얼굴 이쁜 거 면이 있어요. 면이. 그거를 불에 지저 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스가 안 나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기가 이게 벽돌이라 그러면 반드래하잖아. 다 반드래하죠? 이거를 밑에 뽕어. 그럼 여기 번드래하지? 거친 게 오면 번드래한 게 거칠어질 거 아니야. 그니까 이거를 별도로 이렇게 돌려. 이렇게 번드래지게.

면담자 이게 반질반질한 면끼리 겹치지 않도록 해야 벽돌 면이 예쁜 상태가 계속 유지되니까 쌓을 때 옆면이 위로 가도록 쌓은 거군요?
이영식 그렇지. 여기 보면 이게 이쁜 면이 있어요. 이거는 바닥이고 이게 이쪽이 면이고. 이렇게 놓으면 이게 기스 나니까. 이렇게 한 번 놓고 한 번 이렇게 놓고 면대로. 하루 종일 이렇게 무거운 거를 쌓은 거야. [벽돌 쌓는 법 알려 주는 중]

면담자 앞차에서 내려서 벽돌 면을 그렇게 돌려 가지구 쌓아 놓는 거라고요?
백팔규 그니까 한 번은 그냥 놓고 한 번은 뒤집어. 애가 지금 바닥이에요 애가. 이쪽이 면이에요 이쁘지요? 애는 여기가 지금 이쁘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여기다 붙여 주는 거예요.

면담자 벽돌을 쌓을 때 이렇게 쌓아요?
백팔규 지그재그로 놓는 거예요 이렇게. 안 넘어지게. 열한 줄.

면담자 열 줄 올리고 마무리는 하나만 딱 얹는 거죠?
백팔규 그렇지. 이게 마르면 바람 많이 부는 쪽이 이렇게 마르걸랑요? 그럼 이렇게 쭉그러져요. 바람 맞으면 먼저 마르니까 쭉그러지지. 그럼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게 하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기술이에요 그게.

면담자 네 장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된 게 이걸 10층으로 올린다고요?
백팔규 예예. 그리고 마무리는 열한 층을 올리면서 한 줄만 쌓아요. 나중에 가서 끝에 가서는 한 줄만 쪽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물리고.

면담자 밖에서 며칠이나 말려요?
이영식 벽돌 한 보름 말렸지. 한 보름 가야 돼 보름. 한 바퀴 도는데.

면담자 한 바퀴 도는 게 무슨 뜻이죠?
이영식 마당이 있으면 뽕 돌아가며 쌓는 거잖아 한 바퀴가. 가마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쌓은 거예요 한 바퀴 도는 게. 벽돌이 들어가는 가마 순서대로 벽돌을 그 앞에 돌아가면서 편리하게 쌓는 거예요. 그게 한 바퀴인데 보름 걸려요.

면담자 벽돌을 쌓을 때 가마 앞에다가 쌓는 거예요?
백팔규 가마칸 앞에다가 뽕 둘러싸면서 쌓는데, 벽돌이 가마에 들어가는 순서가 있어서 그 순서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남는 거는 장마철에 쓸라고 야적이라고 있어요. 야적장에 쌓아 뽕다가 비 오는 날 비 와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안에서 하계끔 만들어 뽕.

면담자 그러면 가마 앞에 쌓는 거는 구우려고 하는 거고, 야적장에 또 하나 쌓아 놓은 거는 나중에 비올 때 쓰는 거네요?
백팔규 나중에 비올 때 쓰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딱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면담자 건조장에서 일하다가 기계 관리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영식 별도로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기계 고치는 그 사람도 오래 뽕는데 혼자 하기 힘드니까 사람을 하나 써야 된다 그러고 거기서 날 택한 거지.

노동자들의 생활

면담자 화입식 하던 날은 어때요 분위기가?
화입식 하는 날. 공장 이제 불 피우는 날 어땠어요? 불 피우는 날은 처음 일 시작하는 거잖아요? 일이 언제부터 불 때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 다 모이는 거예요?

이영식 그럼. 그때는 다 모여야지. 잔칫날인데 그날. 잔칫날인데 돼지 잡고, 불 때는 날은 술도 갖다 놓고, 무당 데려와서 굿도 하고.

면담자 1년 잘 되게 해 달라는 형태로 굿을 하는 거예요?

이영식 사장이 무당을 믿으면 그걸 하는 건데 여긴 믿었어.

면담자 박지원 어머니가 믿어서 하는 거예요?

이영식 응. 믿었어. 사장하고 회장이 다 와서 해지.

면담자 항아리가 문제라 그러면서 항아리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좀 나아졌어요?

이영식 몰르지. 뭐 하다 보니 아무 일 없으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면담자 화입식 때 혹시 정치인들이나 시장 같은 사람들도 왔어요?

이영식 정치인들은 안 왔어. 불 살리고, 떡도 두 가마 세 가마씩 해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여기 와서 먹고.

면담자 사택에서 같이 살다 보면 좀 부딪히는 일들 없으셨어요?

이영식 아유 그런 건 없었지.

면담자 전기세 그런 문제들도 싸울 수도 있잖아요.

백팔규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집집마다 계량기가 있어. 그거는 개인적으로 산 거고, 물세는 똑같이 내면 되는 거구.

면담자 동보연와가 원래 박지원 씨 아버지인 박정환 씨가 운영하던 거잖아요?

이영식 동보연와도 원래 이 집안 거지. 그래 가지고 재판을 걸었는데 박지원 씨가 졌다는 거 아니야. 결국엔 갈라섰는데 박양일, 박덕원 땅이 여기 있으니까는 이게 4형제 땅이라 이거야. 그래 가지고 공장을 여기다 지은 거야. 지었는데 나 올 때만 해도 저 공장하고 여기하고 양숙이었어. 일꾼들도 양숙이었어. 길가다 만나면 서로 싸움하고. 일꾼들도 그랬어. 근데 동보연와 정문 앞이 그제 영신 땅이래. 정문이. 동보연와 벽돌공장 거기 들어가는 정문이 영신연와 거니까 여기에서 도저로 흙을 밀어 놓는 거야. 그럼 애네(동보연와)들은 공장을 돌아서 들어갔어.

면담자 동보연와 정문 앞이 여기 영신 땅인 거예요?

이영식 그래 가지고 도저로 흙을 밀어 댔대요. 못 나가게.

면담자 흙을 동보연와 입구에다가 쌓아 놓은 거예요?

이영식 나갈 수가 없으니까 동보연와는 밤에나 몰래 벽돌을 팔아먹고.

면담자 그럼 나중엔 어떻게 해결됐어요?

이영식 나중에 한 4~5년 있다가 합의를 본 거야. 동보 땅이 여기(영신연와 공장) 주변에 있

고, 여기(영신연와 공장) 땅이 저기(동보연와)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걸 서로다가 맞교환을 한 거야. 동보 땅이 여기 와 있고 여기 땅이 거기 있고 그걸 맞교환을 한 거야.

면담자 화해를 한 거예요 한 80년대 초반에?

이영식 그렇지

면담자 동보연와 직원들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영식 깨들하고 서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면담자 상대도 안 했어요? 서로 얘기도 안하고?

이영식 그때 이 동네(고색동) 사람은 동보에도 있고 영신에도 있고 대부분 알지. 그래서 상관없는데 객지에서 온 놈들은 정말 좋지 않았어. 나도 여기 와서도 몇 번 싸움 했어 동보 애들하고. 술 먹다 보면 동보가 잘 났니 영신이 잘 났니 하고 싸운다고.

면담자 동네 사람들이 직원으로 일할 경우는 안 그러는데 타지에서 온 사람들끼리 동보하고 영신하고 싸워요?

이영식 어어. 대개 객지 놈들이 많지.

면담자 술 먹다가 시비가 붙는 거예요?

이영식 그렇지. 재들이 나오면 그렇게.

백팔규 그때 당시는 월급쟁이가 없었어요 벽돌공이. 월급쟁이라고 해 봐야 화부하고 감독, 공장장 몇몇만 직원이고 나머지는 자기가 하는 대로 먹고살았어요.

이영식 근데 그때는 저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이 벽돌공이라는 게 옛날서부터 군대

가기 싫어 가지고 도망댕긴 놈들, 여기 살기 딱 좋아. 방 주고, 일만 저기 하면 딱 되고. 쌈 박질 하고 난리를 해 저거 하는 놈들. 그런 놈들이, 대개 그런 놈들이 많이 살았거든.

면담자 그러면 술은 어디서 드셨어요?

이영식 술은 뭐 나가면야. 그땐 수원역전에 가서 외상을 해 놓고 먹어도 얼마든지 줘요. 옷도 외상으로 잘 맞췄어. 그래 가지고 한 달 지나면 죄다 받으려 와. “아이 7,000원인데, 오늘 2,000원만 해 줘.” 이럼 “알았어.” 이러면서 그냥 가고. 참 그때 쌀들이 여기로 막 갖다 주고 보름 간격으로 임금을 주니깐 외상을 하면 무조건 갖다 주고.

면담자 외상을 다 주는구나 돈이 나올 걸 아니까.

이영식 여기까지 쌀 갖다 달라 그러면 서 말어치 갖다 줬어. 돈 잘나오는 공장은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정말 여기에 돈 보름마다 딱딱 나오기 때문에 은행 같았어 증말.

면담자 은행 같았어요? 요 근처 마을에서도 술 드셨고 역전 가서도 술 드셨고?

이영식 그러면 어디든 벽돌공장 사람이면. 옛날에 나 올 때만 해도 구두 좀 맞춰 불라고 그러면 주인이 “집에 돈 있냐?” 그래. 그러면 “영신이야.” 그렇게 하면 돼요. “나 영신에서 왔는데 구두 좀 주세요. 돈 없어요.” “아 영신에서 왔어요?” “아 알았어요.” 그럼 그 보름이면 와. 보름이면 와 돈 받으려. 그럼 몇 천 원만 주고 다음에 오라 그러면. “알았어.” 하고 실은 기색도 없어. 수원극장에서 근처에서 쌀가게가 오는 사람한테 쌀 갖다 달라면 한 가마 갖

영신연와 폐업

다 주고, 거기서 왔어.

면담자 수원극장 쪽에서 여기까지 쌀을 배달 하던 거예요?

이영식 어. 돈 받으러 왔을 때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줘도 “알았어.” 이러고 가고, 그때는 애들이 돈 생각을 안 하고, 나도 여기 와서 술 한 잔 사고, 두 잔 얻어먹으면 한 잔 사야 되기 때문에. 역전 가서 술 먹고 “아줌마 영신에서 왔어. 달아 줘.” “그렇다.” 그러면 “그래요, ~” 이러고 날 몰라도 그렇게 줘 그냥. 보름이면 주니까. 그러면 난 또 신용이 있고 해서. 돈 얼마를 해서 외상값 갚고 집에 갖다 주면 남는 게 뭐가 있어. 남는 게 뭐가 있어.

면담자 여기 분들끼리 모임이나 이런 것도 있었어요? 계모임이라든가 이런 거? 친목회!

이영식 그전엔 있었지. 다른 사람들이 이 동네에 와서 보고 엄청 부러워했어. 왜 그러냐면 초상나고 그러면 일 안 해. 다 일 봐 줘. 다 그냥. 다른 동네 사람들이 여기 와서 몇 번 왔는데, 옛날 시골집 같았다고 그렇게 단란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 좋았어 여기. 무슨 생일이고, 누구 집에 생일이고 환갑이다 그러면 잔치하고 남은 거 고기 그런 거 죄다 같이 구워먹고 그거 먹고 일하고. 좋았어 여기.

면담자 여기 공장이 최종적으로 운영을 안 하기 시작한 게 몇 년도였는지 기억나세요?

이영식 내가 보기에는 93년도.

면담자 92년까지 운영이 됐고, 그 해를 마지막으로 93년부터는 불을 안 땀 거죠?

이영식 불은 땀지. 불은 한 2년 땀지.

면담자 불은 왜 이렇게 땀 거예요?

이영식 남은 거 구원야지. 재고 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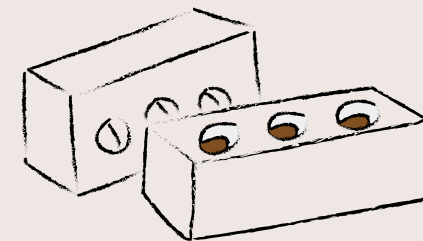
면담자 그렇게 많은 걸 쌓아 났어요?

이영식 그렇지. 이거 벽돌만 잘 들어가면 벽돌 바깥에 여기다가 다 쪼더미만큼 쌓아놔.

면담자 기계창은 93년에 멈췄는데, 이 야적장에 쌓아 놓은 것들을 소진하기 위해서 95년까지 가마에서 벽돌을 구운 거네요?

이영식 그치. 그전에는 바깥에 벽돌을 쌓으면 한 달 두 달에 다 구웠는데 요때는 바깥에다 이렇게 쪼대미로 쌓아 났어. 수십만 장을 쌓고 일을 했지. 그래서 아가지들은 일을 하는 거고 우리는 일을 안 하는 거고. 아가지들만 일하는 거야.

백팔규 넌 모레면 기계창 문 닫네. 31일이면 문 닫아야 돼. 얼기 때문에. 근데 그걸 그동안에 한두 달 땀 거를 저장을 하죠. 한 12월 달까지 보통 불은 때요. 한두 달. 불 살릴라면 2월 달 구정 쇠고 거의 살리잖아. 불 살릴 때.



영신연와 마당모치 엄창용

면담자 : 홍현영(수원시청연구원 연구원)
면담일자 : 2020년 10월 27일
면담장소 : 영신연와 사택

영신연와 취업

면담자 선생님 몇 년생이시고, 고향은 어디세요?

엄창용 1948년생. 충북 단양.

면담자 고향을 떠나신 게 몇 년쯤이세요?

엄창용 38년. 38년 됐나, 37년 됐나. 80년대에 왔어. 83년도에 수원을 왔으니까. 그전에는 시골 살았죠.

면담자 수원으로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엄창용 여기 아는 사람 있어 가지고, 농사지를 라니까 좀 그래서. 원래 농사짓는 사람이 아닌데.

면담자 여기 오셔서 영신연와 쪽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건 언제쯤인 거예요?

엄창용 84년도 봄서부터 했지. 83년도 가을에 와 가지고 여기로. 여기 자리가 있다 해 가지고 이리 왔지.

면담자 영신연와에 아시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엄창용 여기는 아는 사람이 없고, 다른 데 아는 사람이 있었어. 우리 식구, 나한테 딸린 식구는 같이 다 왔었지. 네 식구.

면담자 그럼 오시자마자 사택 하나를 받으신 거예요?

엄창용 그렇지. 사택 하나 받았지. 그냥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로 수리해 가지고 내가 들어간 거지.

면담자 들어올 때 선생님이 수리를 하셨어요? 어떻게 수리를 하세요?

엄창용 헌 집을 개비하고, 농막 따라 비새는 거, 비도 저런 스텐트 가지고 다시 해서 엮고 그러

고. 여기 네 동 있었는데 복판에 벽돌로 쌓은 집을 그거를 내가 수리를 했었지. 금세 오려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래 했었지. 그렇게 살다가 기존에 있는 사람이 오산 세마대가 집인데 그리 가가지고 출퇴근한다고 그랬어요. (불)도 저 운전수가 그리 이사를 가가지고 내가 그리 들어간 거지. 그거는 새로 지은 집이니까. 이쪽에서 벽돌로 새로 한 거니까. 그리고 살던 집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낫죠. 수도 가깝게 있고, 거기서 바로 옮긴 거예요.

벽돌 기계창 노동

면담자 처음에 오서 가지고 하신 일은 어떤 일이었어요?

업창용 처음에는 흙 내리는 거를 했는데. 기계창에서. 도저가 이제 흙을 밀어다 놓으면. 컨베이어벨트 타고 기계로 올라가 가지고, 기계에서 이제 돌은 뿌시고 굵은 돌은 다시 밖으로 나오고. 그런 일을 했지. 작은 돌들은 다 분쇄가 다 돼. 물러가 이 양쪽에서 딱 물고 돌아가. 이렇게 물고 돌아가면 속에서는, 굵은 거는 이제 안 들어가니까. 안 빠져지고. 그럼 로라가 말하자면 보드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굵은 돌은 타고 나간다고 이게. 방앗간에 서 일해 보면, 저기 하는 거 보면 저 떡가래나 오듯이 그렇게 나오고 그런단 말이야. 한쪽으로 그리고 자리한 거 뭐 이만 거는, 그냥 막 이런 거는 다 바스러져 버려. 물리면 부서져 버리니까. 나는 맨 처음에는 흙 퍼 내리는 것을 했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일을 했지.

면담자 컨베이어벨트에서 몇 분이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업창용 세 사람. 매일 하는 거지. 매일 하는데. 이제 11월, 시방 이때 되면 마감돼 버려. 이게 흙이 마르지 않고 얼었다 녹았다 이러면 못 하거든. 그러면 이제 그건 안 하고. 저 뭐야 그러니까 이제 10월 달부터 그 이듬해 4월까지는 놀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놀 때는 나는 다른 데 가서 일을 한 거야.

면담자 어디 가서 일을 하셨어요?

업창용 여기 연탄공장에 가면 그때는 연탄공장에 연탄이 많이 나가잖아. 30년 전이고 그러니까 연탄이 많이 나갈 때니까. 거긴 뭐 우리가 가면 아주 좋아 했었지. 대성연탄.

면담자 대성연탄은 그때 가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업창용 얼음 때문에 연탄 얼은 것 있으면 얼은 거 깨주고, 그리고 거기도 맨 그 컨베이어 타고 올라가서, 기계창으로 들어가서 분쇄해 가지고 찍어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흙 내리는 거나, 거기 가서 탄 내리는 거나 똑같은 역할을 했었지.

면담자 여기에서는 월급을 어떤 식으로, 돈을 어떻게 받았어요, 임금을 한 달에 두 번씩 받았다고 그러던데요?

업창용 한 달에 두 번. 보름에 한 번씩. 우리는 도급이니까. 우리는 앞차라는, 여자들이 끌고 나가는 그게, 벽돌을 찍어 나오면 마당에 갖다 쌓는 그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제 한 리어카 나가는 데 얼마. 우리가 얼마 먹고, 전수가 다 나눠 먹는 거야 그거를, 한 리어카를. 그 기계에 메인 사람들은. 그럼 이제 가마에 일하는 사람들은 또 다, 틀려요. 다. 우리는 이제 그거 나가는 숫자만 이제 한 장에 얼마씩. 여기가 다 마당이었어, 마당. 이 뒤에 이리 앞에, 전수가 이 벽돌을 찍어가지고 나오면 여기다 갖다 짹 쌓았어. 그래야 마르잖아. 건조가 되니까. 건조가 되면 이제 저리 들어가서, 가마에 들어가서 구웠지.

면담자 아침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업창용 새벽 4시. 4시부터 대략 리어카 한 2천대 나가는 걸 계산하면, 거의 끝내 버린단 말이야.

면담자 빨리 2천 대가 나가면 거기서 일을 멈

추는 거고. 근데 대략 하루에 2천 대 정도를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업창용 그렇지. 근데 비오면 못 하고, 기계고 장 나면 또 못 하고 늘 그랬어.

면담자 기계가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업창용 망가지면 또 바로 대책을, 수리를 해야지. 우리가 다 했었지. 자체 기계창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했어, 그거를. 다 하니까.

면담자 기계창이 어떤 구조인지 혹시 그릴 수 있으세요. 잠깐만요.

업창용 그리는 거는. 그림을 지는 그리지 못해 가지고. 도저에서 흙을 내리고, 여기 컨베이어벨트, 여기서 기계가 이렇게 설치가 돼있어 여기. 이게 기계가 양쪽에 이렇게 로라가 이렇게. 이렇게 로라가 이렇게 쭉. 여기에 와서 흙이 떨어지면 그럼 이게 분쇄가 돼버린다고. 그리고 굵은 돌은 이쪽 바깥으로 빠지고. 그러면 이제 이 흙이 바로 그 기계, 큰 기계로 바로 떨어져 버려요. 여기서. 흙이. 그럼 여기서 스크류되면서 섞여. 배합이 되는 거지. 물을 주면서 배합이 되는 거야. 물을 안 주면 배합이 안 되니까. 그냥 마른 것만, 말라 있잖아. 흙이. 그러니까 물 조정을 해야 된다고.

면담자 여기에 들어가는 흙들이 왜 진흙도 있지만. 모래도 있어요?

업창용 그니까 세 가지요, 세 가지. 이런 마사토하고, 진흙, 그리고 또 모래. 그렇게 서너가지가 들어가. 그래야 이게 흙이 말라도 깨지지 않고 터지지 않아.

면담자 이게 한 종류가 아니고 이렇게 세 종류

가 넣어서 여기서 배합이 되고.

업창용 여기서 배합이 돼야 내려와 가지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여기가 또 진공해서. 안에서 이제 공기를 빨아들여 내면, 빨아내면. 이 흙이 딱딱해지면서 기계 속으로, 이제 그 안에는 로라가 없고. 바로 벽돌 모양으로 모양이 나가도록 입구 구조가 돼있어. 그러면 여기서 또 기계가 앞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절단을 해. 기계가, 이 안에 기계가 크지.

면담자 큰 기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지막 나오는데는 이렇게 네모나게 쭉 나오도록 해서, 그래서 이제 애가 똑 나오면 절단을 하는 거예요?

업창용 그니까 그 절단하는 기계가 또 따로 앉아 있어, 거기에 바로 앞에. 이렇게 타다다다다다다다. 알아서 잘라 주는 거지. 한 바퀴 돌아가면 하나 자르고 나면 하나 또 그만치 나가면 또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그건 이제 맞춰놓은 거니까.

면담자 주로 여기에서 흙을 퍼 내리는 걸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세 분이 있는데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업창용 그건 그게 가쿠메라고 그러는데.

면담자 절단하시는 분들 따로 있잖아요?

업창용 절단하는 거는. 사람이 그게 오야짱, 기계창 반장이 또 있었어. 그게 그 사람이 이제 기계조정하고 다 이러면 절단은 다 된 거야.

면담자 물이나 이런 것 넣어 주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그것도 이제 다 기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벽돌 건조장 노동과 인력

업창용 사람이 조정해야 돼, 그거는. 물은. 비가 와 가지고 흙이 이제 저 안에서, 저 위에서 진흙이 내려오잖아. 물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알아서 안 주고 그냥 나가고. 너무 많이 질면 위에서 도저가 섞어 더. 그럼 물이 줄게끔 만들어 내린다고.

면담자 이거는 물을 조절하시는 분이 따로 한 분 계세요? 매일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업창용 그렇지. 한 명. 그냥 물 조정이라고 불렀어.

면담자 그럼 여기까지 내려오는 기계, 여기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이렇게 인력이 이렇게 만 있었어요?

업창용 그렇지,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여기서 절단이 돼서 나오면 이제 아줌마들이 열 몇 명 쯤 있었나. 아줌마들이 마당까지 가져다주는 거야. 이제 이 가마에서 벽돌이 마르면, 실어 나르는 사람들이 지어서 가마에다 갖다 넣으면 그 자리가 나잖아 또. 거기에 갖다 쌓는 거여.

면담자 앞차들은 벽돌을 마당에 갖다 주기만 하죠?

업창용 그렇지. 쌓는 사람 네 명 있었어. 내가 그거를 하다가 여기에 와서 마당에서 그 벽돌을 쌓았어.

면담자 하루에 2천 대 정도인가요?

업창용 2천 대. 그런데 이젠 뭐 꼭 2천 대라고 볼 수는 없어. 대략 이제 많이 하면 한 2천 대 하고, 그러지 않으면 1천 5백 대. 대중없어요.

면담자 그럼 생산량을 기록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오늘은 얼마 생산했다 이런 거.

업창용 없어. 그런 적은 없고. 벽돌을 갖다 쌓아 놓으면 다 이려고 하나 하나 세면 장수가 딱 나와. 이렇게 높이 쌓아도, 한 줄만 딱 세 갖고 나가면 그 앞뒤로 다 장수가 똑같으니까 그게. 곱하기 몇.

면담자 맨 처음 가쿠메 하시다가 마당으로 오셔서 벽돌을 쌓는 걸 하신 거잖아요. 쌓는 거 하시는 분 이름이 뭐예요?

업창용 그건 하도 이제 오래돼 가지고. 뭐라 그러더라.

면담자 아주머니들이 벽돌 쪽 가지고 오시면 리어카 있잖아요?

업창용 이렇게 탁 돼 있어. 벽돌을 딱 여기 깔아 놓는. 구운 벽돌을 이렇게 딱 깔아놔. 이런 모양으로. 아쿠까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아쿠까리. 여기다 아쿠까리. 마당에 구운 벽돌로 기존에 것을 딱 깔아 놓고, 거기다가 습기 못 올라오게 저기 뭐야 비닐을 짙 깔아 놓는다고 이렇게. 벽돌 딱 두 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장, 이쪽으로 한 장. 그 두 줄이 딱 쌓여야 이만한 대로.

면담자 미리 구운 벽돌로 이렇게 두 줄이 쌓이게 해 놓는 거예요?

업창용 그렇지, 응.

면담자 구운 벽돌을 깔아 놓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업창용 시끼리. 그 위에 비닐을 깔아 놔야야 습기가 안 올라오고. 안 땅가져야지 그게 그 대로 있지. 그 습기가 올라와 가지고 하면, 밑의 것은 저 뭐 깨지면 막 깨져. 막 무너져 버려. 잘못하면.

면담자 그러면 벽돌을 두 장씩 이렇게 약간 간격을 두고 두 장씩을 이렇게 놔요. 그러고서 그 위에 그대로 쌓는 거예요?

업창용 그렇죠. 그대로. 속에는 사이가 좀 있지. 여기다 두 장, 여기다 이렇게 한 장 더 위에 해 봐.

면담자 여기다 이렇게 하나 더 그럴까요.

업창용 그렇게 하나 그러면 이 장에다가 또 대각선으로 놔.

면담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놓고요.

업창용 응. 그러면 이게 두 장이, 넉 장이 딱 맞아. 그러면 넉 장이 딱 맞으면 우리가 열두 커 정도로 쌓는데. 높이가.

면담자 층수를 이게 지금 2층이잖아요. 그러면 이 2층인데 이거를 똑같은 걸로 12장이면 스

물네 층이 올라가는 거예요?

업창용 그렇지. 스물네 장. 이렇게 하면 또 나중 에 여기다 또 올리면 여기 밑의 것하고 똑같아.

면담자 그러니까 여기 하나 이렇게 또 올리고, 이렇게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제일 잘 말라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업창용 예.

면담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총 스물네 층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또 몇 개까지가 여기 쌓아지는 거예요?

업창용 그건 한계가 없어. 이제 뭐야, 보통 하 나가 여기서, 여기서 저 전주대가기만 할까. 그만 못할까 그래요. 그런 게 짧은 거 요만한 것도 있고 뭐. 마당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니까 길 따라, 길 복판으로 길 나고 그러니까.

면담자 그런데 기본은 이렇게 두 장 두 장씩을 놓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쪽 쌓는 거군요. 그리고 위층으로는 스물네 층이 되도록 하는 거네요.

업창용 스물네 장. 그렇죠. 그니까, 이게 다섯, 다섯 개가. 두 장 씩 얹어서 다섯줄이 올라오는가 그래. 그러면 20장 가까이 돼. 처음에는 이게 두 장이 한 번에 이렇게 포개 쳐. 이게 한 장이 밑에 깔리면 이게 이렇게 한 장이 또 얹아. 그러면 이 위에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8장이 되는 거지.

면담자 네. 그렇게 해서 총 스무 장을 올리는 거예요, 한 칸에. 네.

업창용 그렇죠. 마지막에는 한 줄만 놓는데,

한 줄 놓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봐야 돼. 한 줄을 놓는 것은 그렇게 쌓다가. 비닐을 덮으면 물이 잘 흐르게. 그래야 위에다 이렇게, 이렇게 쌓아 놔는데. 양쪽으로 그냥 편하게 놓으면 물이 잘 안 흐르잖아. 그러면 여기 다 한 장을 이렇게 놓는다고. 맨 위층은 두 장을 안 놓고 한 장만 놔서. 한 장만 쪽 놔. 그 장수 대로 한 장만 쪽 놓는다고. 그러면 양쪽에는 이만치 벽돌 이만치니까. 그게 10센티, 12센티 막 이렇게 남기거든. 그러면 그 위 창이 이만치 이렇게 되잖아. 비가와도 물이 그냥 주르륵. 예를 들어 저 지붕이라고 생각하면 돼.

면담자 벽돌을 다 쌓고 난 다음에 비닐을 덮는 거예요?
엄창용 비닐은 그냥 빗졌다, 덮었다 그러는 거지. 매일매일 벗기지. 이제 바짝 마르면 안 벗기고. 안 마른 거는 벗졌다, 덮었다 해야 돼. 그래야 마르지. 벗기면 습기가, 습기가 나가 버리잖아. 젖은 걸 비닐을 덮어 놓으면 습기가 꼭 차 있잖아. 그럼 안 마르고 푸시룩해진다고. 벽돌이. 그럼 깨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낮에는 열어 봐야 되거든. 저녁때는 또 이슬이 맞고 이러면 안 되잖아. 벗겨놔서 비 맞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럼 또 덮고. 이게 날씨가 좋으면 밤에도 안 덮어요. 마르라고.

면담자 그럼 이런 비닐 덮는 분은 또 따로 있어요?
엄창용 여자들이 또 따로 있지. 여섯 명. 그 사람들만, 매일 저녁 그거만 하는 거지. 여섯 명인가 여덟 명인가 돼.

면담자 그분들도 여기에 사택에 사시는 여자

분들이 하시는 거죠?
엄창용 그렇죠, 다 부부니까. 부부가 둘이서 여기서 다 일을 하니까.

면담자 거의 다 일을 다 하셨어요?
엄창용 그렇지. 다 일 했지.

면담자 여자분들 중에서 일 안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엄창용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죠. 누구 말마따나 돈이라도 벌려면 하는 거고. 돈 안 벌고 놀려면 집에서 혼자 노는 거죠. 심심해서 도 다 이 일을 해야 돼, 여기에서는. 여기 살 때는. 혼자서 집에 뭐 가만있으면 뭐해. 나와서 해야 다만 한두 푼이라도 벌지.

면담자 여기 없어질 때까지 계속 벽돌 쌓는 것을 하셨던 거예요?
엄창용 그렇죠.

면담자 아까 벽돌 쌓는 것은 뭐라고 부른다고 하셨죠?
엄창용 마당쓰미라고 그랬나. 쓰미.

면담자 마당쓰미는 몇 분 정도셨어요?
엄창용 네 명.

면담자 네 명, 네 명이 마당쓰미. 이거 그러면 그 수레에서 내려서 쌓고 이러는 것을 하루 종일 하시는 거예요?
엄창용 그렇죠.

면담자 이거는 계산을 어떻게 해요?
엄창용 그것도 그래. 딱 맞아.

면담자 결국은 하루에 얼마를 생산하느냐가 전부 전체적으로.
엄창용 그니까 그동안에 뭐 보름에 뭐 20만 원 탈 때도 있고 뭐, 15만 원 탈 때도 있고 뭐. 그건 대중없어요.

면담자 그러셨구나. 이 사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사택에 사시면서.
엄창용 그렇죠. 그래 회사가 망가지니까, 다 뿔뿔이 다 헤어졌지.

면담자 여기 한참 짓다 보면 벽돌을 쌓다 보면 이게 파손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엄창용 많지. 파손되는 경우는 이제 이 안에서, 마당에서 이제 갖다 놓는 사람들이 여기다 마당에다 다 골라 내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거 치우는 사람도 따로 있어.

면담자 그분들은 몇 명이나 있으셨어요?
엄창용 하나. 남자지.

면담자 이분을 부르는 이름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엄창용 아이 몰라. 오래돼 가지고 이름을.

면담자 마당에는 이제 수레로 갖다 놓고 나면, 선생님처럼 쌓는 분이 한 네 명이 계셨고. 비닐을 포장을 덮었다, 뺐다 하는 여자분들 한 여섯에서 여덟 명. 여덟 명 정도 있었고.
엄창용 그건 짝이 맞아야 되니까. 그니까 양쪽에서 넘겨 덮어야 되니까. 혼자선 한쪽에선 못 덮잖아. 벽돌 갖다 쌓는 사람들이 시라지. 이 안에 가야야, 안에 갖다 주면 이제 쌓는 사

람이 또 세 명이 또 있어. 가마 안에까지 들어 간다고 리어카 쪼만한 게 있어. 시라지가 여섯 명인가 일곱 명인가. 안에 또 쓰미라고 있어, 쓰미. 쌓는 사람. 쓰미가 세 명. 다 달라. 부서대로.

면담자 한 부로 묶여지는 분들이 쌓는 분만 한 부로 묶여져요?
엄창용 아니지. 다 틀리지.

면담자 그니까 선생님네는 쌓는 네 명과 별도로 반장님이 계세요?
엄창용 그렇지. 나중에 그 뭐야 돈 계산하고 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지. 반장이, 반장이라고 그래도 되고 뭐.

면담자 여기에 아까 아주머니들도 이게 하시는.
엄창용 거기엔 또 있어. 아줌마는 아줌마대로 또 따로 있어요.

면담자 그리고 여기 시라지는 시라지대로, 쓰미는 쓰미대로 이렇게 있는 거죠?
엄창용 그렇게 다 있어.

면담자 그런데 마당에는 지금, 지금 여기까지가 마당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엄창용 그래.

면담자 시라지는 여기서부터. 가마까지 갖다 주는 거고.
엄창용 응.

면담자 가마 안에 쓰미가 있는 거니까. 그 마당 쪽에서는 마당모치 네 분, 뒷일 여덟 분, 파벽

벽돌 판매처와 영신연와 폐업

고르는 분까지 합쳐서 열세 분 정도가 있는 거
네요. 마당과 관련돼서는.
그럼 마지막에는 마당에서 지금 쌓는 것까지
만 하시고 회사가 그만둔 거예요?

엄창용 응.

면담자 여기 회사에서 나오는 이 벽돌들은
어디에 많이 팔려나갔어요?

엄창용 주택.

면담자 그런데 영신연와, 저 이걸로 서울농대
도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벽돌로.

엄창용 서울농대. 그랬지. 그것도 짓지. 저기
뭐 내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에도 들어갔었
어, 여기 짓어.

면담자 네, 서울대학교 들어갔고. 또 어디 들어
갔는지 기억나시는 데 있으세요? 영신
여고 같은 경우도 당연히 들어갔을 거고.

엄창용 그렇지. 인천이든가 어디 내가 배 타
고 한 번 같이 갔었는데. 그거는 공장인 거지.
공장 짓는 데도 들어갔었는데. 아 그런 거 자
꾸 기억을 안 하니까 모르지. 서울대도 내가
그냥 일 안 하느냐고 서울대 간다고 그러더라
고. 그래서 같이 가봤지. 서울에. 거기도 들어
가고, 섬에도. 섬에도 어느 섬인지 인천. 하여
간 어디 섬에까지 갔었어.

면담자 선생님이 그때 그 납품하러 갈 때 같이
가신 적이 있으세요?

엄창용 응. 같이 갔었지.

면담자 회사 마지막에 그만둘 때는 어땠어요?
언제쯤 폐업된 거예요?

엄창용 일 끝나고. 일 다 끝나고 내년엔, 내년
도에 가서 일 안 한다 그러니까. 할 때까지는
다 했지. 그 다음 해에 가서 못 했지. 안 한다
고 해서.

면담자 올해 일은 다 마쳤는데 그 다음 해가

돼서, 끝나면서 내년에는 없다 이렇게
말 한 거예요?

엄창용 그래.

면담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떠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엄창용 그렇지. 다 많이. 사방으로. 누구 말마
따나 여기 있어 봐야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일거리 찾아서 다
나간 거지.

면담자 회사에서 뭐 돈을 좀 더 주거나 그런 것
도 없었어요? 선생님은 그럼 여기 폐업되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엄창용 나는 건축 일을 배웠지. 집 짓는 건축.
그래 가지고 사뭇 했는데. 이제 한 3년 됐나,
5년 됐나. 이제 나이 많다고 이제 못 하겠다
고, 안 써주니까 못 하는 거지.

면담자 여기 대성연탄 같은 경우에, 대성연탄
에서 겨울동안 일을 하신 거잖아요?

엄창용 예, 3개월인가 4개월인가. 한 5개월
되는구나. 12월에서 4월 달까지 하니까. 5개
월 거기서.

면담자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 연탄공장이
인건비가, 돈이 좀 더 나왔어요?

엄창용 더 나왔지. 거기는. 겨울에는 그리고
돈을 좀, 야근도 막 하고 그러니까 돈이 많았
었지. 여기 한 달 타는 거면 거기 한 보름, 보
름해도 거기가 돈은 더 많았지. 그래도 이제
여기는 단지 한 가지, 집을 공짜로 있으니까.
방을 공짜로 있으니까, 이제 그거 한 가지를
믿고 여기 들어왔는데. 별로더라고. 내가 나



고려연와 노동자 백팔규

면담자 : 홍현영(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면담일시 : 2020년 10월 27일
면담장소 : 영신연와 사택

벽돌공장 취업

면담자 벽돌공장에서는 어떻게 일하게 되셨어요?

백팔규 우리는 어렸을 때 먹고살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도 나올 땀 말 동 하다가 누가 그 벽돌공장 아는 사람 있다고 가자고 해 갖고 따라간 게, 서울 영등포구 태성연와야. 거기서 있으면서 여기 저기 다닌 거죠.

면담자 고향은 원래 어디셨는데요?

백팔규 고향 저 부산.

면담자 태어나신 해가 몇 년도예요?

백팔규 57년.

면담자 60년대 말에 서울로 올라오신 거네요? 영등포로.

백팔규 그렇죠. 열세 살에.

면담자 그때도 거기는 기숙사라든가, 사택이라든가 있었어요?

백팔규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똑같아요. 이런 식의 다 비슷해, 벽돌공장 사택은.

면담자 어린 나이잖아요. 그럼 사택 하나를 다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백팔규 아니 하나는 줘요. 독신자들만 자라고 주는 방이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 그전에는 먹고살라니까, 서울 같은 데 방 하나 주면 그게 장땡인 줄 알았지 뭐여. 일하고, 일도 엄청 힘들어요. 아침 새벽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해야 돼요. 그 일 기계창 하는 거는.

면담자 기계창은 새벽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을 했던 거예요?

부인 새벽 4시부터요.

면담자 기계창 일이 제일 힘들었겠네요?

백팔규 예. 아주머니들이 힘들지요, 엄청. 여자들이 거의 다 아니까. 리어카로 아저씨같이 이 마당에서 쌓도록 갖다 주는 거여. 리어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보통이 아니야. 지금 같으면 아마 한 시간만 하면 다 못 한다고 가. 그때는 먹고살기가 힘들잖아.

면담자 그러면 영등포에 계셨을 때도 사택 중에서 방 한 칸을 얻고, 그건 무료로 쓰는 거죠?

백팔규 그렇죠. 사택이니까.

면담자 그때는 임금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백팔규 한 리어카 끄는 데 그때 12원인가. 12원인가 줬어요. 한 리어카 끄는데, 이게. 내가 갔을 때.

면담자 선생님 처음에 가면 리어카 끄는 거 하셨던 거예요?

백팔규 예. 기계창에서. 어린 나이니까 할 게 뭐 있어요? 리어카를 나도 손도 다쳐 갖고 그때 뭐 하는데 어린 나이에.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한 거지. 가서.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몇 시간은 할 만해요. 어린 나이래도 왔다 갔다 하면, 아휴 근데 하루 종일 하려면 이 다리가 막 물이 잡혀 갖고 엄청 힘들어요. 그걸 먹고살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때는 일 거리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뭐 엉망진창이었어. 지금 같으면 일 않죠. 그때는 임금을 15일 간격으로 줬.

면담자 15일에 한 번씩 돈 줬다는 거죠?

부 인 예, 한 달에 두 번. 지금 나와서 이렇게 생활해 보니까 차라리 나오는 게 나아. 벽돌 공장은 힘만 들고, 돈도 벌은 거 없고. 그거 해 봐야 겨울에는 놀고, 겨울에 김치, 김장해 봐야지, 쌀 팔아야지, 연탄 사야지. 그게 목적이야, 일단은. 지금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회사 다니고, 차라리 이게 나아.

백팔규 딱 50년 전이네. 그러니 나와서 맛벌이 해 갖고 어디 회사 다니는 게 백 번 나올 텐데. 그런데 그때 그 당시도 회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 공장도.

면담자 언제 결혼하셨어요?

백팔규 우리 지금 35년. 지금 35년 됐어. 서른에 했어.

면담자 어머니는 몇 년생이세요?

부 인 57년 똑같아요.

면담자 57년. 그럼 결혼 전에도 벽돌 일을 하셨어요?

부 인 나도 부모 일찍 잃고 이모네서 컸어요.

면담자 고향이 어디신데요?

부 인 경상도인데 어렸을 때 나왔으니까. 형제간들하고 이렇게 살면서 이제 뭐 벽돌공장에서 형제간들이고 다 있었으니까.

면담자 형제들이 벌써 벽돌공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부 인 이제 친척들이 하니까. 애들도 우리 형제간도 다 거기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우리는 저기 신장에도 있었고, 덕소도 있었고.

덕소에서 조금 올라오면 거기가 하여튼. 그때가 내가 나이가 아홉 살인가 열 살인가 됐나. 그때가 근데 덕소에서 조금 올라오면 거기가 그전에 한흥연와라고 했나. 한흥연와 벽돌공장이 있었어요.

면담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신 거 같아요?

백팔규 이모 따라서, 부모를 일찍 여의니까요. 갈 데도 없고, 이모 따라서 이제 이 사택 받은 거야, 식구가 많으니까 두 개씩 주고. 이모부가 책임자로 있었어요. 공장장 했었거든.

부 인 그래서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 다 알지. 그래 갖고 우연히 또 이렇게 다 만나게 되잖아.

면담자 그래서 이렇게 벽돌 일도 잘 아시는 거군요?

백팔규 어려서부터 벽돌공장에서 컸으니까. 고생 많이 했지 진짜 그때는. 다 먹고살기가 바빠서.

고려연와와 영신연와의 차이 : 노동자들의 선호도

면담자 그러면 여기 그 고려연와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월급을 형태를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일한 만큼 돈을 주는 거잖아요?

백팔규 그렇죠.

면담자 그러면 직원은 아닌 거잖아요?

백팔규 아니죠, 아니죠.

면담자 그런데 공장 측에서 숙사를 제공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백팔규 예,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죽어도 일을 해야 돼는 거야. (고려연와는) 여자가 일 안 나가면 문 차고 난리 나고, 나가라고 막 그랬어요.

면담자 여자 분들도 나가서 뭔가 하라고?

백팔규 예, 같이 해야 돼. 부부, 부부조건. 둘이 해야 돼. 그래야 그 저기 집을 주는 거예요.

면담자 거의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백팔규 그렇죠, 강제예요. 그게.

면담자 대신 일한 만큼 돈을 주기는 해요?

부 인 돈은 주는데 짜지. 지금 같으면 안 하고 난리 나. 지금은 참 이게 편하고 엄청 좋은 거지. 그때 당시에는 아휴 하루만 아파서 안 나가도 감독이 와서 문짝 차고, 그러려면 나가라 그러고 막 난리가 아니여. 매달리고 그냥 이틀 날 일 나가고, 아휴. “미안했어요. 아파서 못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고 그러고 일했어.

백팔규 지금 같으면 난리 난다니까요. 지금은 우리 노가다도 8시간 되면 딱 일하면 끝나요. 점심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래도 먹고살려니까. 그걸 참고 하고, 완전 지금 같으면 완전히

진짜 강제로 그렇게 하는 데 없지. 그 잘나빠진 집만 아니면.

면담자 집 하나 준 게 그렇게 큰일이었군요?

백팔규 예. 그게 목적이야. 그때는 먹고살기가 워낙 힘들었어요. 돈 벌이가 될 데가 없어. 할 게 없었어요.

면담자 고려연와에서 일하면서 영신연와를 가끔씩 와 보셨어요?

백팔규 우리가 고려연와에 있을 때 여기(영신연와)랑 가깝잖아요. 봉담하고 여기가. 친구가 하나 있어 갖고 놀러 왔다가 저녁 때 오니까 나가서 술이나 한 잔 먹고 가고 그랬지. 여기 노동일 하는 사람끼리 많이 아는 편이지.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면담자 여러 벽돌공장을 다니셨으니까.

부 인 그래서 아는 거야, 어느 공장은 돈도 안 나오고 가불만 많이 해 줘. 돈 안 나오는 데는. 왜? 사람들이 갈까 봐. 가불을 왕창 넣어 주면 그걸로 묶어 놔. 이제 월급 때마다 조금씩 떼고. 그게 있으니까 어디를 못 가잖아. 고려연와는 돈 안 주는 걸로 우리나라에서 소문이 났어요. 고려연와는 월급이 안 나오는 공장이라서 가불을 왕창 해 준다고. 그런데 영신연와는 죽어도 사람들이 안 나가. 돈도 잘 주고. 영신연와하고 동부연와하고는 죽어도 안 나가. 여기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여. 여기는 들어오고 싶어도. 돈도 잘 주고, 교통 좋고, 애들 학교도 있고.

백팔규 벽돌공장이 대개 보면 교통이 굉장히 나빠요. 다 산 속에다 지어요. 교통이 다 나빠. 다들 한 십 리씩 걸어 다녀야 되고. 버스

벽돌 나르기와 가마 기술자

한 번 타려면 한 시간에 한 번씩
다닐 뚱 말 뚱 하고.

면담자 처음 일할 때 벽돌 나르면 얼마씩 주었
나요?

부 인 그때(1960년대 중반) 당시에 벽돌 그거
하나 이거 2원, 3원인가. 그렇게 해서 조금 올
라가는 거지.

백팔규 나는 늦게 들어가 그런지 그게 석 줄 배
기(구루마로 벽돌을 옮길 때 쌓는 줄)라고, 석
줄 배기면 72장이야. 그것도 벽돌 72장인데.
12원인가 나를 준 걸로 알아. 한 대 끄는데.

면담자 한 리어카에 72개가 들어갔던 거예요?
석 줄로.

백팔규 예. 석 줄, 이렇게 한 번 딱 잘리면 석
장씩 잘려요. 그러면 삼팔에 이십사, 해봐 봐
요. 8줄씩 24손. 72장이 맞는 거지. 하도 그냥,
하도 그거는 봐서 알지. 그리고 이제 그러다
가 조금 있다가 두 줄 배기로 나온 거야. 리어
카가 너무 이제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그게 8,
9손. 9손이구나. 삼구 이십칠 오십넉 장.

면담자 오십넉 장짜리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제 해놓은 거예요?

백팔규 네. 리어카를 만든 거죠. 리어카예요.

면담자 리어카 크기를 좀 줄었네요?

백팔규 옆으로 이제 빠죽하게. 이제 넓이가 넓
었는데요, 길게 두 줄로 바뀌었어. 석 줄 하면
넓어 가지고 너무 커. 힘들고, 거기서 쌓는 사
람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머리가 조
금 튼 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 이제 조금 줄인
거지 그게.

면담자 그러면 그 기계가 성형 기계가 그걸 두
줄짜리로 나오게 변형을 시켜야겠네요?

부 인 아니여. 그게 아니고, 저 리어카를 이렇
게 한 거지. 만드는 거지.

백팔규 기계서 나오는 거를 잘라요, 절단기라
고 있어. 그 사람들이 이제 둘이 위에서 이제
교대로 하걸랑 돌, 돌. 서른다섯 개면 서른다
섯 개씩 자르고, 자기네들은 이제 서로 일 안
할 때, 담배 피고 이제 쉬고. 교대로 자르는 거
야 하루 종일. 그런데 옆에 또 대주는 아줌마
들이 있어요. 리어카를.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서 대줘야 하는 것도 일이에요. 열리면서 비
면 찌그러지니까. 여기서 잘라서 이렇게 이리
로 이렇게 대고 나가는 거야.

면담자 그런데 나올 때 세 장씩 절단됐잖아요?
세 개씩 나왔던 거를 리어카에다 넣을 때 두
장씩 넣게 해주는 거였군요? 넣어 주는 사람이
맨 처음에는 세 줄로 넣다가 나중에 두 줄로
이렇게 쌓기를 해 준 거네요?

백팔규 힘드니까, 무거우니까. 발전이 된다고
그렇게 좀 덜 힘들게 한다고 머리가 조금 띄어
가지고 두 줄로 쌓는 거지.

면담자 선생님 그러면 가마 만드는 것도 보신
적 있으세요?

백팔규 가마 만드는 거 봤지만 우리는 그거는
잘 몰라요. 기술자, 그건 기술자들이
쌓는 거야.

면담자 기술자들이 누구였어요?

백팔규 원래 다 천호동에 원래 이화산업이라
고 있어요. 거기가 벽돌공장 본 기술자들이
다 다녀요. 가마 짓는 사람들이.

면담자 그런데 이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벽돌공

장인데 왜 그 가마 만드는 기술자들이 거기에
소속이었던 거예요?

백팔규 거기가 최초로 벽돌공장이 뭉쳐 있었
어. 1공장, 2공장, 3공장 막 그 근방에서, 어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그 저기. 신장 쪽에 엄
청, 그때 벽돌공장들이 거기가 많이 뭉쳐 있었
어요. 그래 갖고 이렇게 거기서 번져서 가마
지으러 다니고, 사람들이 불 때는 사람, 옛날
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마 지으러 다닌
것 같아. 어디 벽돌공장 창설할 때마다. 그렇
게 다녔어요. 저거 본 저것도, 저것도 보통일
아니예요. 벽돌 뭐, 무지하게 들어가. 가마 짓
는데.

벽돌 생산과 판매

면담자 벽색벽돌이 뭐예요?

백팔규 변색벽돌이 고급벽돌이에요. 변색도 이름이 많아. 1급, 2급, 3급 이렇게 나가. 그래 갖고 이제 그 약기라고 있어요, 약기. 일본 말로 빨간 벽돌만, 빨간 것만. 그거 보고, 쇠 소리 나잖아, 딱딱 때려 보면 항아리 구우면 쇠 소리 나듯이요. 그럼 그제 1급, 약기 1급, 2급, 3급이 있다고 그것도 또. 그니까 제일 밑에 가마간 땅바닥에 있는 게 최고 핫바리. 그거 보고 나미라고 그래요, 나미. 그 벽돌이 불을 덜 먹은 거요, 그거는 제일 밑에 있는 거. 거의 중간에서 불이 제일 세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고급 벽돌이 나오는 거죠.

면담자 그럼 한 가마에서도 벽돌의 질이 다 다른 거예요?

백팔규 그럼요. 거기에서 이제 아가지라고 있어요, 꺼내는. 일본말로 아가지라고 하는데. 지금은 가만있어 봐, 요출이라고 그러지. 요입, 요출이지. 대개 벽돌공장 사람들이 시라지, 아가지 해요, 이렇게. 시라지는 이렇게 구울 거 들어가서 쌓는 사람이고. 또 아가지는 구워 낸 걸 끄집어내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되는 거여. 요입, 요출이지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면담자 근데 그 안에서 같은 불인데도, 불이 이제 중간쯤이 제일 세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제일 좋은 게 나오는데. 아까 말했듯이 기름을 넣었잖아요. 석탄 먼저 넣고 기름을 넣는데. 그 기름을 넣을 경우 가마 안의 것들은 거의 다 검정색이 나오지 않아요?

백팔규 아니에요. 그니까 이, 중간에 이 불이 제일 좋아 갖고 거기서 불을 정상적으로 먹는

벽돌보고 최고 고급 벽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기름을 맞다 보면 이게 막 달라붙어갖고, 이제 흠이 녹다 보니까. 달라붙어 가지고 울룩불룩한 벽돌보고 모부라라고 그런다고. 일본말로 하니까 뭘 뜻인지는 모르고 우리는 그냥 벽돌공장에서는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부르니까 같이 따라서 부른 거지요. 그니까 한 가마에 보통 1만 2천 장 들어가는 가마가 있고, 뭘 1만 3천 장 들어가는. 가마가, 가마도 이제 크고 적고가 있기 때문에. 한 가마, 1호가마, 2호가마, 이제 3호가마 그러면서 불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저쪽에서 빠는 조정하는 게 있어요. 그거보고 연도라고 하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쪽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앞에서 넣어 주면 벽돌을. 근데 하루에. 가만있어 봐 하루에 두 가마 빠니까, 한 2만 몇 천 장 빠네. 하루에 24시간, 그거는 교대로 24시간 무조건 1년 365일 불만, 이 요입만 들어오면 계속 때는 거요, 안 꺼지고. 한번 불 살려 놓으면 안 꺼지는 거여, 그건. 그러다가 겨울, 이 겨울에는 이제 여기서 못 빠잖아요, 추워서. 기계창에서. 못 빠니까 이제 한 몇 달 놀아요. 불 끄고. 뭘 나오는 게 없어. 얼어서 못 하니까. 쉬는 거요. 그때 일 년에 대개 보면 한 두 달. 한 1월 달, 2월 달은 거의 이렇게 불을 못 땀다고 봐요. 12월까지지는 뭘 수 있게끔 여기서 다 빠요. 기계창에서 빼 갖고 저장을 해 놔요. 비 안 맞게 딱. 덮어, 갑바. 그러면 1년 내, 돌아가려면 1년 내내 돌아가는데 터널가마는 1년 내내 돌아가죠. 이 가마 열 빼서 말리잖아.

면담자 터널가마에도 좀 해 보셨어요?

백팔규 터널가마도 잠깐 기름불 때다 말았죠.

터널가마는 그거는 탄을 위에서 때는 게 아니고 옆에서 때는 거요. 이 우리 항아리 구우면 옆에서 불 때듯이요. 오피라고 해 갖고 이 총이 있어요, 온도 재는 거. 그거 봐 가면서 내 조정을 해 주는 거지. 쉽게 말해서 우리 저가 스펀지 식으로 불 세게 하고 적게 하고 그런 식으로 버너가 짹짹 구멍마다 다 있어요.

면담자 벽돌 나오면 어디에다가 판매가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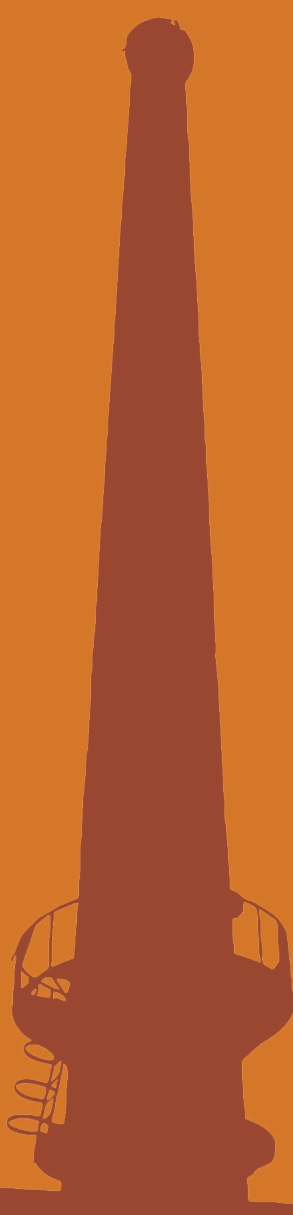
백팔규 집 짓는 데로 가는 거지. 저기 단독주택 짓는 데.

면담자 이제 관공서들 중에서도 왜 어디 들어간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백팔규 관공서 같은 데도 들어가겠지. 근데 그 판매하는 것은 영업사원들이 있으니까, 사무실에서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 이, 모르죠. 어디다 파는지, 싣고 가면 어디로 가는가 보다 하는 거지. 전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죠. 이제 뭘 그 아가지인가, 그 꺼내서 차에다 실어 주는 사람들은 이 전표를 받으니까 어디로 간다는 것은 알겠지만 우리는 전혀 모르죠, 그거는.

면담자 그 가마에서 나올 경우에 주로 트럭에 싣려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안 나가는 경우도 있을까요?

백팔규 예, 있어요. 그러면 마당에다 쪽 쌓아 놔요. 그런데 나중에 또 실으러 오면. 차가 들어오면 이제 실어 주고. 그런 사람이 딱딱 있어. 실어 주는 부가 다 있잖아요. 상차반이 있어요.



epilogue

서수원 역사의 흔적
삶과 노동의 현장, 영신연와

the Heritage of Modern Cultural
Brick Factory YOUNGSHINWEON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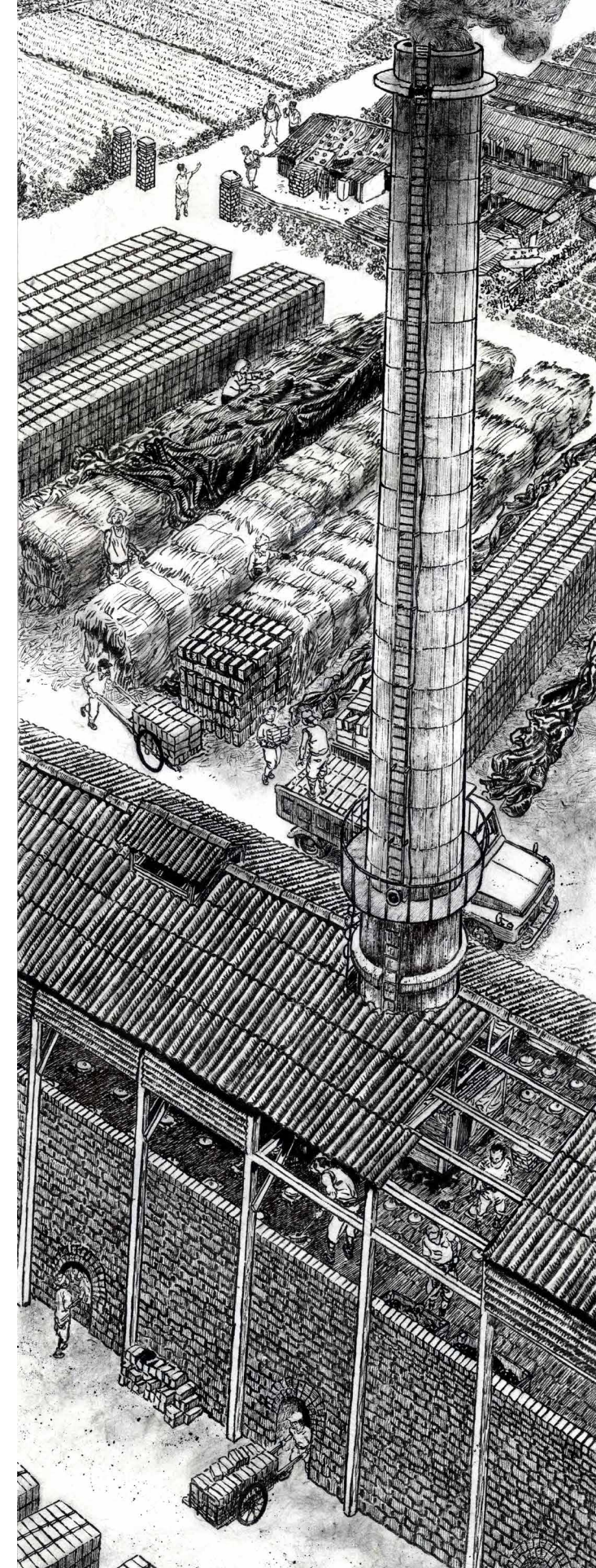
서수원 역사의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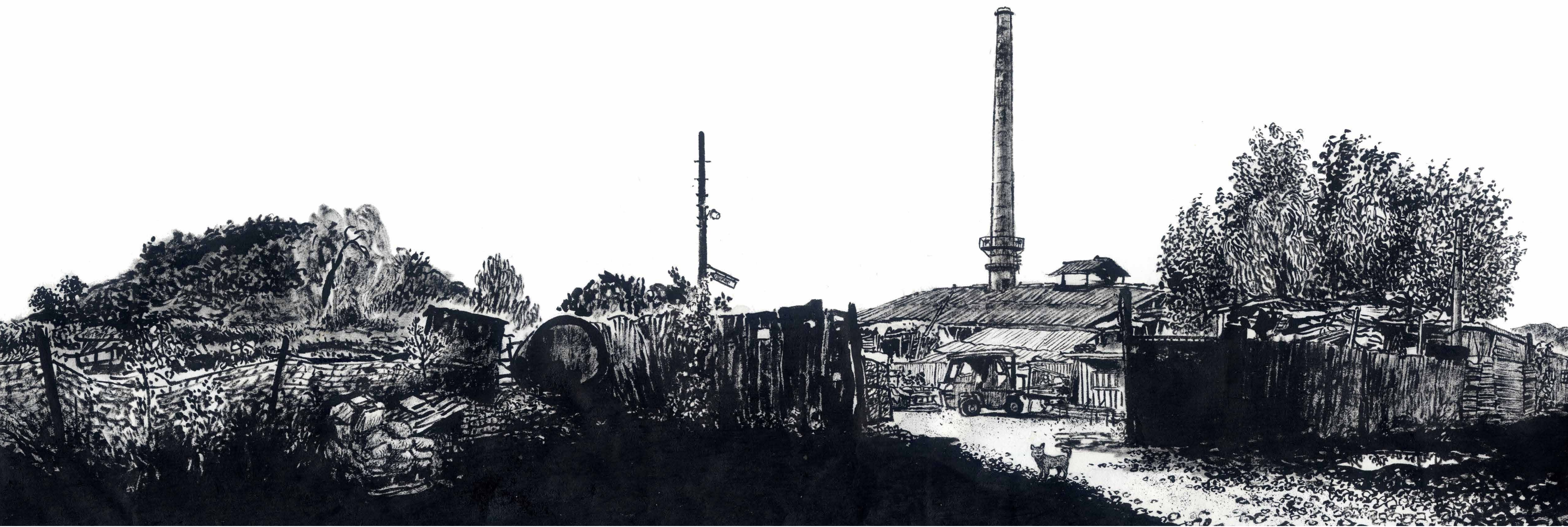
삽화_금정수

사진_다큐멘터리사진그룹 각

멀지 않은 과거 그래서 더 소중한,
개발의 뒤편길로 사라질 위기의
고색동 영신연와를 기록하는 사람들
그들이 기록한 서수원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삶의 흔적들……

개발만능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네 아버지 시대의 존재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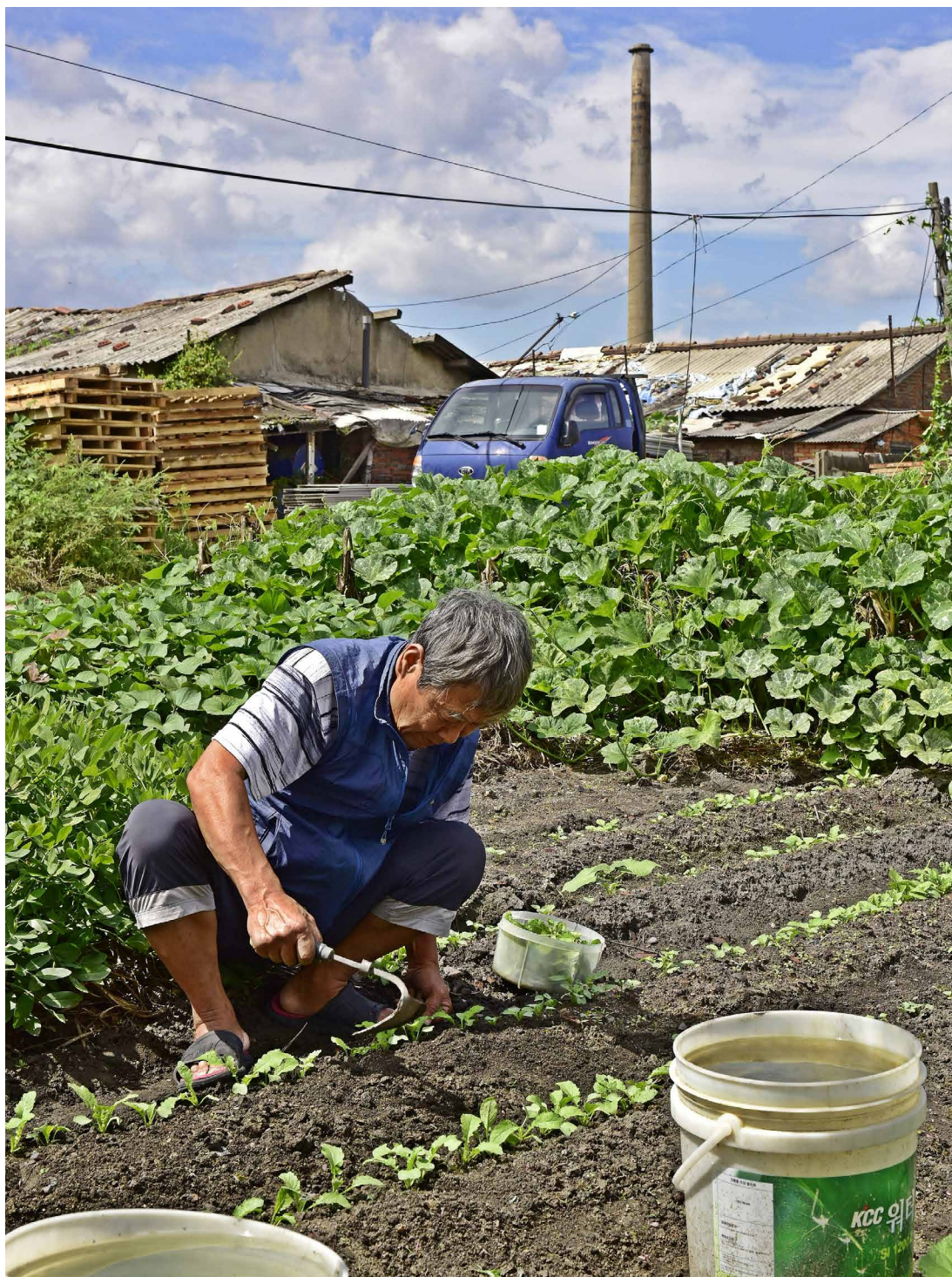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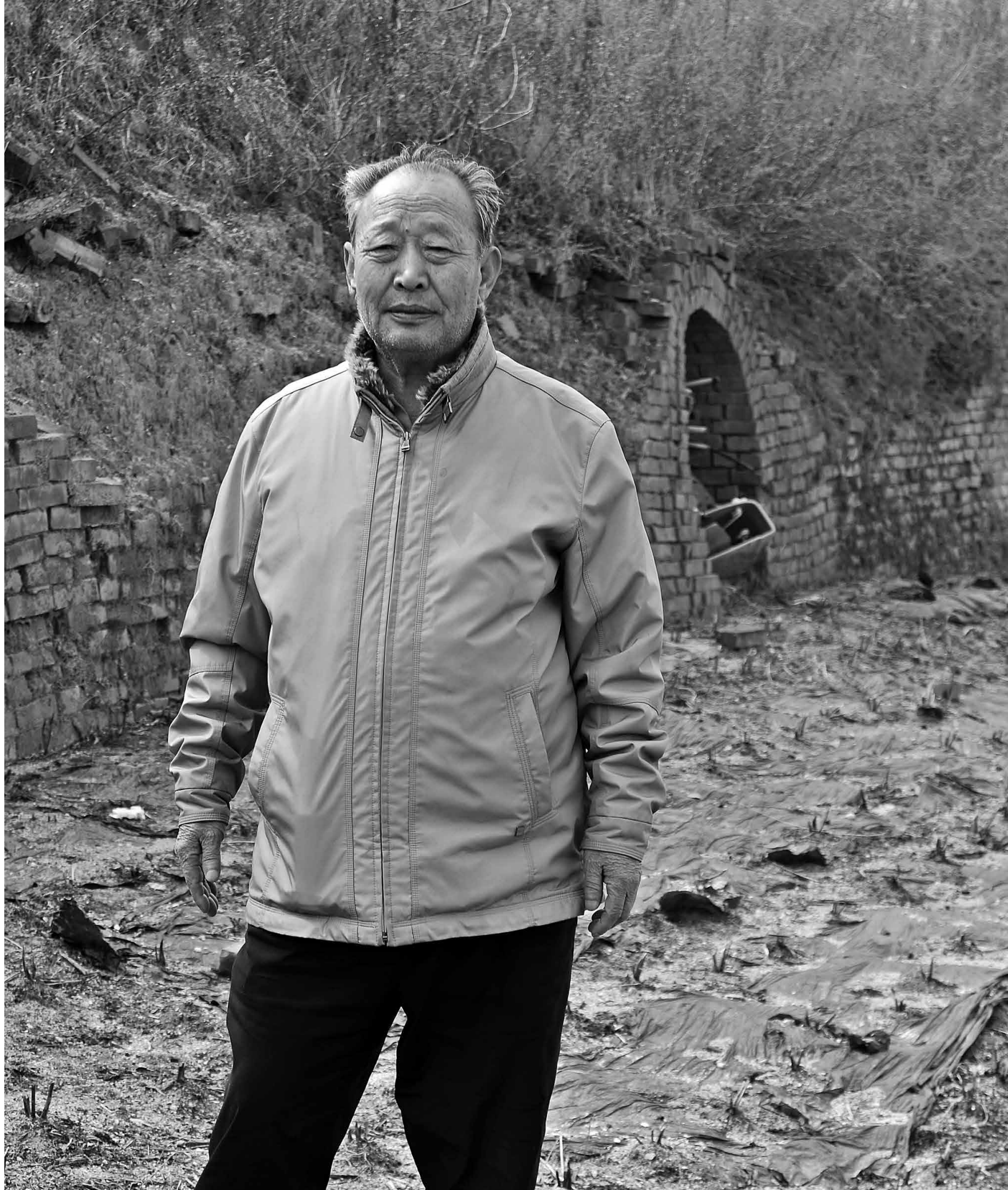












기획·집필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자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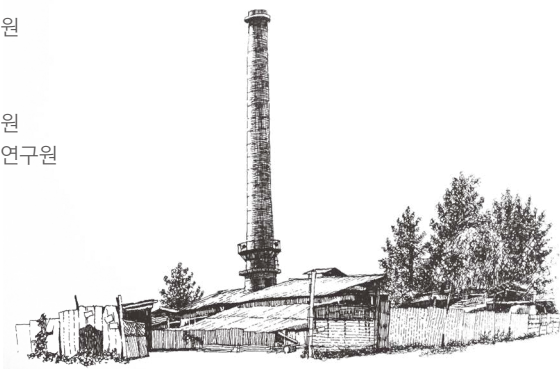
유현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이재윤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장하림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수원 공간 시리즈 1

**벽돌공장
영신연와**



발행일 2020년 12월 30일

발행처  **휴먼시티 수원**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H. <http://www.suwon.re.kr>

디자인 디자인에스에프

정부간행물 번호

11-B552980-000006-01

ISBN

979-11-90343-86-2

979-11-90343-85-5 (세트)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